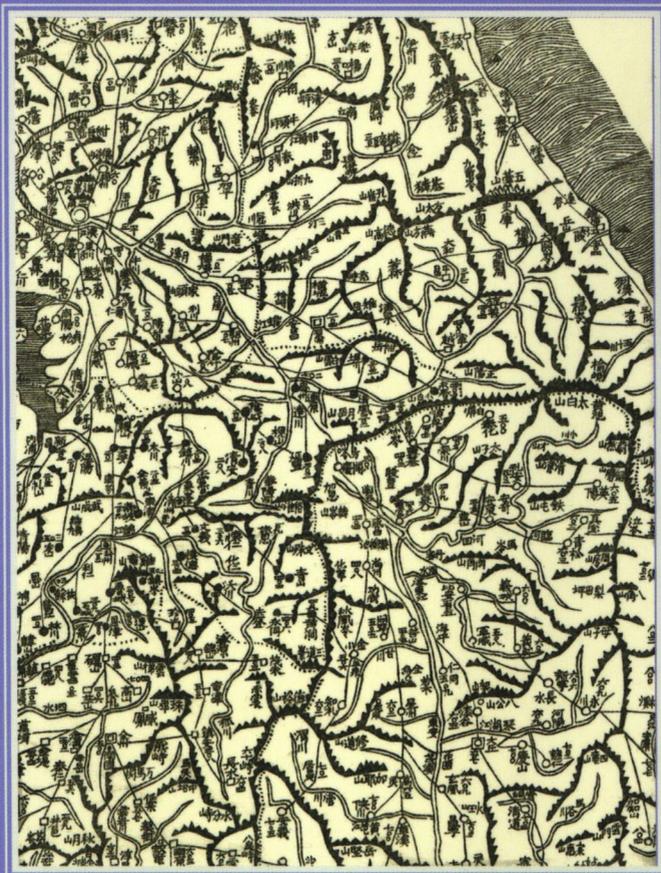


2008年

京畿鄉土史學

제13집



平 8000

俄語京

京畿鄉土史學

第 13 輯

韓國文化院聯合會京畿道支會

발 간 사



우리나라에서도 경기지역은 한 민족이라는 어원의 발상지이며 우리 민족 뿌리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수한 민족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었으나 수도를 휘감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침이 있을 때마다 격전지가 되어 많은 문화유적이 소실됨은 물론 그 관리마저도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성백제의 수도 위례성이 하남시 춘궁동 또는 송파구 일대와 진한의 수도가 광주시 경안읍 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의 수도 한양도 경기도에 둘러 쌓여 있었습니다. 한 민족 문화를 꽃 피워온 삼한시대부터 민족의 자긍심이 바로 경기지역에서부터 뿌리 내린 근거가 되는 것이며 역사의 중심이 경기도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민족문화가 담긴 경기지역의 향토사를 하나하나 발굴, 조사, 연구하고 총정리하여, 지역향토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국문화원 연합회 경기도지회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 제13집의 경기향토사학(京畿鄕土史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향토사학>이 경기 향토문화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의 각 시·군에 산재한 향토사와 구비문화 속에 전해오는 문화유적을 추적 발굴·조사하여 집대성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이번 논문집 <경기향토사학> 발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신일균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발간사에 대신 합니다.

2008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南善祐

목 차

1. 경기지역 방아소리의 기능과 변화 요인 / 최자운…………… 7
2. 대민지원사업의 사례 비교 고찰 / 신일균…………… 27
3. 동두천시 세거성씨 연구 / 홍정덕…………… 59
4. 성남지역에서 확인된 復元 할 文化 遺跡 / 한동익…………… 129
5. 대안(代案)교육과 여주문화 / 조성문…………… 157
6. 백제역사(百濟歷史)의 재고(再考) / 김택기…………… 173
7. 近代 利川의 陶磁文化와 陶工의 삶이야기 / 이태호…………… 213

여 백

경기지역 방아소리의 기능과 변화 요인

최 자 운(경기향토문화연구소 총무)

목 차

1. 머리말
2. 경기지역 방아소리의 개별적 검토
 - 2.1. 실제 방아노동과 관련된 소리
 - 2.2. 실제 방아노동과 관련되지 않은 소리
 - 2.2.1. 노동요
 - 2.2.2. 의식요
 - 2.2.3. 유희요
3. 경기지역 방아소리 기능의 변화과정 추론
4. 맺음말

1. 머리말

방아소리는 본디 도정(搗精)과정에서 불리던 민요인데, 점차로 소리의 기능이 변화, 확장되면서 소리의 외연이 넓어졌다.¹⁾ 이러한 방아소리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처음 시도한 이는 정규욱이다.²⁾ 그는 방아소리의 변모 양상과 전승 실태를 검토하고, 방아소리의 내용의 변

1) 이춘녕은 갈돌에서 두 가지의 도정 형태로 분화된다고 하였는데, 한 가지는 절구방아를 거쳐, 디딜방아, 통(물)방아(물레방아의 원시형태로, 쌀을 회전하면서 찻지 않고 물이 통에 자면 한 번씩 찻어지는 형태), 물레방아의 형태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확(갈돌에 비해 돌판이 넓어진 형태)을 거쳐 맷돌, 연자방아로 간다고 하였다.

이춘녕 외, 『한국의 물레방아』, 서울대출판부, 1986, 6면.

2) 정규욱, 「방아노래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1983.

화에 대해 말하였다. 그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방아소리를 다룬 첫 논의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나열에 그친 감이 없지 않으며, 각 자료들의 내적 연관성이나 변화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권오경은 방아소리가 절구방아소리에서 원심적 기능(遠心的 機能)이 작용하여 다른 노동 기능(모심는 소리)이나 의식기능(액막이디딜방아노래), 유희기능(판소리 삽입가요) 등으로 기능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³⁾ 그는 처음으로 방아소리의 기능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고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풍요와 다산의 의미로서의 주술성을 들었다. 그런데 다양한 기능 분화를 보이는 방아소리의 변화 요인을 주술성 한 가지로만 설명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창식은 떡방아 찧는 소리, 풍요, 상저가, 판소리 삽입가요, 민요, 동요, 잡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승되는 방아소리들을 <방아타령>계로 규정하고, 이 소리들 간의 교섭 양상을 그 정도에 따라 6가지로 나누고, 그 미학적 범주에 대해 살폈다.⁴⁾ 그리고 그는 민요가 현장에서 사실화되는 양상을 살피기 위해 대전 목달미 디딜방아 액막이놀이를 주술적 기능과 유희적 기능의 면에서 연구하였다.⁵⁾ 이 두 연구에서 그는 방아소리의 기능 변화 요인으로 유희성을 들었으며, 전체 방아소리의 변모 단계를 도정노동요에서 부락의식요, 축제 의식요를 거쳐 가창유희요의 순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의에서는 방아소리의 양상을 민요 일반론과 연결시키다 보니 기능을 달리하는 방아소리들에 대한 개별적 논의가 미흡하였다.

손인애는 경기지역에서 불리는 토속방아소리와 통속방아소리가 종래에 통속민요에서 토속민요로 이행했다고 생각되어져 왔으나, 두 자료간의 근본 토리를 분석한 결과 그 선후 관계가 오히려 반대라고 하였다.⁶⁾ 그의 논의는 다른 지역의 상황과는 달리, 유독 경기도 지역에서만 통속민요에서 토속민요로의 이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에서의 이러한 양상이 전체 방아소리의 양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방아소리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핀 결과, 기존 논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방아소리의 기능적 면모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변화요인의 설명에 있어서도 주술성이나 유희성 등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만 파악하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전국에 산재

3) 권오경, 「방아노래의 존재 양상」, 『문학과 언어』 14집, 문학과 언어학회, 1993.

4) 이창식, 「유희요의 구비성과 기록성」, 『한국의 유희민요』, 집문당, 1999.

5) 이창식, 「유희요의 구연성과 시적 전개 양상」, 위의 책.

6) 손인애, 「경기민요 방아타령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하는 방아소리 중 경기지역에서 채록된 소리들을 중심으로 다루되, 그 기능의 변화요인을 각각의 소리들의 관련 양상을 통해 찾아보고, 전체 방아소리의 변모 단계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소리들의 지역적 양상을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지역 소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평안도	황해도	계
절구방아소리	3	1	8	22	·	17		·	51
디딜방아소리	4	5	4	10	·			·	23
연자방아소리	·	·	·	·	·	10		·	10
물레방아소리	·	3	2	4	·	·		·	9
논매기방아소리	27	모찌기1, 모심기3, 논매기 22	모찌기 2, 논매기 13 보리타작 1	26	5	·	·	·	93
회방아소리	9	·	·	·	(3)	·	·	·	9
굿방아소리	12	·	·	·	·	·	1	1	14
가창유희요	10	1	4		1	·			16

2. 경기지역 방아소리의 개별적 검토

본고에서는 전체 방아소리를 실제 방아노동과 관련된 소리와 방아를 쥘 행위를 짓는 행위와 관계없으나 방아소리로 지칭되는 소리로 나누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절구방아소리에서부터 다른 기능의 소리들로 파생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소리를 나누어야 기능의 변화 요인을 도출하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실제 방아 노동과 관련되지 않은 소리들은 기능에 의한

민요분류에 따라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나누어 논의한다.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방아소리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은 방아소리로 이름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불리는 방아소리들에 대해서는 그 소리의 기능에 따라 이름을 정하기로 한다.⁷⁾

2.1. 실제 방아 노동과 관련된 소리

실제 방아 노동과 관련된 소리는 절구방아소리, 디딜방아소리, 연자방아소리, 물레방아소리 있다. 이 네 가지 소리 중 절구방아소리와 디딜방아소리는 가창자가 방아를 찧는 행위와 소리가 직접 관련되는 반면, 연자방아소리와 물레방아소리는 실제 인력(人力)보다는 축력(畜力)과 수력(水力)을 이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의 두 소리에 비해 둘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하다. 이처럼 노동과 소리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방아소리의 기능의 변화 요인을 살피기 위해서는 절구방아소리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곡식의 겉껍질을 벗기기 위한 노동을 함에 있어 절구방아가 가장 먼저 발생하였고, 절구공이를 위아래로 찧는 행위나 모습이 전체 방아소리에 기능이 변화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네 가지의 소리는 일을 하계끔 하는 힘의 원천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런데 노동 방식이 다르듯 그 소리의 내용들 역시 다르다. 절구방아소리나 디딜방아소리는 신세 한탄이나 푸념이 많고, 연자방아소리는 마소에 대한 노동의 지시, 물레방아소리는 주변 정경의 묘사나 쌀이 찧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한 것이 많다.

위에서 제시한 각 방아소리들의 각편의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절구방아소리는 다른 소리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가 채록되어 있다. 이처럼 절구방아소리의 수가 많은 이유는 이 소리의 내용과 노동의 강도와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절구방아질은 여성이 하기에는 몹시 힘이 드는 노동에 속한다. 이러한 노동 형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 소리의 내용은 신세 한탄이나 푸념의 내용이 많다. 이를 통해 노동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의 심회를 노래하고자 하는

7) 이창식은 방아와 관련된 유, 무형의 전승-노래, 놀이, 신앙, 동제 등-을 포괄해서 방아전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고 역시 이러한 포괄적 개념을 따르되, 이들 중에서 특히 소리의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방아소리로 이름한다. 그리고 방아소리와 함께 방아타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방아타령은 가장유희요에 속한 자료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창유희요와 노동요를 합치는 의미에서 방아소리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창식, 앞의 책, 264면.

육구가 강하게 생겨났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독창(獨唱)으로 부르는 디딜방아소리나 연자방아소리, 물레방아소리에 비해 독창(獨唱), 혹은 선후창(先後唱)으로 부르는 절구방아소리가 더 넓은 분포지역과 많은 각편을 가질 수 있었다.⁸⁾

절구방아소리는 가창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소리의 내용이 대별되는데, 남성가창자가 부른 소리의 경우 노동 권유나 유희의 내용이 많고, 여성 가창자가 부른 소리의 경우 노동의 권유나 노동 상황이 묘사, 신세 한탄이나 님에 대한 그리움 등을 노래한 것이 많다. 이렇게 가창자의 성별에 따라 소리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두 소리간의 노동 상황과 제분하는 곡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에헤에 허거야 방아허루 논다/ 에헤야 에헤야 방아에루 논다/ 이 방아는 뉘택의 방안가/
에 방아는 김씨 가중의 명복방아/ 강원도 양천읍에 물방아가 없었든지/ 늙지 않은 저 츠
녀가 도두방아만 짙는 구려/ 산골방아는 디딜방아루 놀고/ 도시에 방아는 통통방아로 짙어
내고/ 시골 방아는 연자방아루 노온다/ 하루 저녁에도 몇 천석씩 짙어내는 방아(강화군 교
동면 대룡1리 이창호)

우리가 방아를 짙러가세 열두야 군장이 짙는 방아 방아야 핑이는 못내가 나고 방아야
살패는 단내가 난다 디더라 밍아라 굴러만 다고 열두야 군장이 짙는 방아 일심을 받어서
굴러만 주세(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정병림, 한국민요대전)

산이루 올라서 산신방아 들루 내려서 디딜방아 예주 이천 자채방아 광주 부남 땅새기
방아 경신월 경신시 강태궁에 조작방아 사시장천 걸어놓고 떨커덩 떨커덩 짙어보세(경기
도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김종녀, 한국민요대전)

위에서 인용한 두 소리 중 첫 번째 소리는 남성가창자들이 갈을 짙으며 하는 소리이고, 두 번째 소리는 여성가창자가 물과 보리를 섞어서 절구방아를 짙으며 하는 소리이다. 위의 두 소리 중 첫 번째 소리는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모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동작을 맞추며 하고, 두 번째 소리는 집안에서 혼자서 방아를 짙으며 한다. 이러한 노동 상황, 짙는 대상의 차이는 소리의 내용뿐 아니라 방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 갈을 칠한 명주그물로 만선을 한 ‘도장원 방아’라 했고, 후자의 경우 ‘얼커덩 떨커덩 짙는 방아 언제나 다 짙고 마실가꼬’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빨리

8) 절구방아소리의 독창과 선후창의 수를 비교해보면 후자가 훨씬 많다.

일을 마치고 싶은 방이라고 했다.

남성가창자가 부른 소리와 여성가창자가 부른 소리 둘 중 여성가창자가 부른 소리가 보다 원시적 노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앞서 살핀바 있는 사설에 나타난 방아에 대한 꾸밈의 정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 방식의 분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나, 남성가창자가 하는 갈방아소리, 매갱이소리, 떡매질소리 등은 여러 사람들이 동작을 맞추어야만 소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가창자가 하는 절구방아소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가창자가 부른 방아소리가 남성가창자가 부른 소리보다 그 수에 있어서나 분포 지역, 그리고 소리 내용의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성화자 절구방아소리는 다양한 표현방식에 의해 표현되었다. 다양한 표현 방식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제시한 세 편의 자료 중 첫 번째 자료는 절구방아소리이고, 뒤의 두 자료는 디딜방아소리이다.

(전략)산골방아는(X) 디딜방아루 놀고(A)/ 에헤야 에헤야 방아에루 논다/ 도시에 방아는 통통방아로 찍어내고/ 에헤야 에헤야 방아에루 논다/시골방아는(X) 연자방아루 노은다(A')
(우략)(강화도 교동면 대룡1리, 한국민요대전 경기편, 85면)

꽃이 폼네(A) 꽃이 폼어(A) 방아머리서(X) 꽃이 폼네(A)...상가래꾼두(X) 굴리라(A) 옆가래꾼두(X) 굴리라(A)(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3리, 한국민요대전 충북편 164면)

옷가래서(A) 심씨주면(B) 밀가래서(A') 심씨줍세(B) 어깨야 다리야 한심씨라(중략)당거주소(A) 당거주소(A) 오야라 장창(X) 당거주소(A)(중략) 어느 누가(X) 사정볼까(A) 광깃대가(X) 사정보제(A)(함평군 신평면 삼덕리, 한국민요대전 전남편, 625면)

위에서 보듯이 절구방아소리, 디딜방아소리에서는 XAXA', XAXA, AAXA, ABA'B, AXAX 등의 규칙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위의 표현들을 보면 어휘의 면과 구(句)의 면에서 반복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반복은 단지 나열을 위해 사용될 때가 많지만 자료에 따라서는 연속적 내용의 전개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2.2. 실제 방아 노동과 관련되지 않은 소리

2.2.1. 노동요

절구방아소리가 다른 노동요에서 쓰이는 경우를 보면 특히, 논농사와 관련된 소리에서 많

이 쓰이고 있다. 논농사와 관련된 방아소리는 모찌기에서 장원질에 이르는 논농사의 전 과정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리들 중 논맬 때 불리는 방아소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채록되어 있다.⁹⁾ 이렇게 논매는 일에서 방아소리가 많이 불리는 이유는 논을 매는 일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논농사에 관련된 일에서 불리는 방아소리 중 노동을 하면서 하는 소리는 모를 쪼을 때 하는 소리와 모심을 때 하는 소리, 그리고 논 맬 때 하는 소리가 있다. 이 세 소리들 중 도정 노동과 가까운 일은 논을 매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는 논이 벼들이 풍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아소리를 이 일에서 불렀을 것이다.

논맬 때 부르는 방아소리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 긴방아소리, 중거리방아소리, 자진방아소리로 나뉜다. 이 세 소리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긴방아소리는 아침에 들에 나와서 참을 먹기 전까지 하고, 중거리방아소리와 자진방아소리는 오후 참을 먹고 막걸리를 한 잔씩들 먹고 해가 질 녘에 한다.¹⁰⁾ 먼저, 긴방아소리를 보면 공통적으로 구체적 사설의 내용보다는 여음을 길게 빼어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에헤이디 이이여 오오오 아 뒤이여 어헤/ 에헤에이 디여 오오오 아아 뒤에에헤/ 청명의 시절이 우분분허에헤이/ 에헤에이 디여 오오오 아아 뒤에에헤/ 노중행인이 버선발로 뛰어 든다 에헤에/ 에헤에이 디여 오오오 아아 뒤에에헤/ 옥동묘오지가 행화촌이 로다에헤/ 에헤에이 디여 오오오 아아 뒤에에헤(화성군 팔탄면 구장리 박건원(1925), 한국의 농요)

위에서 인용한 소리의 문면에서는 방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창자들은 이 소리를 방아소리로 인식하고 있는데, 긴방아소리가 중거리방아소리나 자진방아소리에 비해 사설의 내용이나 가창의 방식에 있어 단순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논매는 소리로 불리는 방아소리는 처음에는 긴방아소리를 통해 풍요를 연상하며 불렀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다가 긴방아소리에서 점차 중거리, 자진방아소리로 가창 방식과 사설의 구성을 정비해 나갔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호리, 꿩엿네를 부르고 난 뒤에 이어서 부르는 자진방아타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이 방아가 어디방아나/

9)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논매는 소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방아소리와 상사소리이다. 강동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203면.

10) 2001년 7월 8일 충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박영규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 여주이천에는 자체방아/ 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강태공에는 조작방아/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이논 저논 다고만두고/ 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여주이천에 자체방아로/ 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덜거덕쿵탕 잘도 째네/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잘도 째네 잘도 째네/ 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금산따래기에 자체방아를 쿵다쿵다 잘도 째네/ 에히여라하 방아호(여주군 점동면 현수리 이흥철, 한국구비문학대계)

위에서 인용한 소리를 보면 고생을 해서 추수를 한 쌀로 여러 가지 일에 쓰고 마지막으로 는 진수성찬을 차린다고 했다. 이렇게 논매는 소리로 불리는 방아소리들 중 소리의 문면에서 직접적으로 쌀이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이 소리에서는 논을 매면서 수확한 쌀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였다. 앞서 절구방아질은 절구공이를 아래 위로 째는 행동을 통해 곡식의 겉껍질을 벗겨서 최종적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 핵심이고, 이것이 전체 방아소리의 기능 변화의 두 축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위에서 인용한 소리를 통해 논매는 소리에서 쓰이는 방아소리의 기능 변화 요인이 풍요의 연상작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유감주술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거리방아소리와 자진방아소리는 노동 상황이나 사설의 내용 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두 소리는 노동 상황의 묘사나 노동권유, 유흥, 탄로(歎老) 등의 내용을 사설의 나열, 동일구의 반복 등을 통해 표현하였다. 그런데 자진방아소리 자료 중에는 여성들이 절구방아를 째을 때 하는 소리의 사설이 그대로 차용한 자료들이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그러한 차용은 사설을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쓰였고, 전체 내용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 마을의 선소리꾼이 자신이 알고 있는 소리들을 그때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용할 때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설이나 내용을 사설로 꾸밀 수는 없기 때문이다.

2.2.2. 의식요

의식요로 쓰이는 방아소리는 경기북부지역에서 불리는 회방아소리, 충남지역에서 불리는 주장방아소리, 그리고 곳에서 불리는 방아소리 등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불리고 있는 회방아소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¹⁾ 이 지역에서 불리는 회방아소리는 망자(亡者)와의 이별에 대한 슬픔, 탄로(歎老), 유흥, 노동 권유 등의

11) 김현선, 「민요 현지조사사의 이론적 모색과 예증」, 『한국구전문요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6, 91-92면.

내용을 사실의 나열과 반복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러한 소리의 내용과 표현 방식은 다른 지역의 달구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만 방아소리를 회단이를 할 때 부르는 이유는 절구공이를 아래 위로 움직이며 곡식을 찧는 것과 달굿대를 아래 위로 움직이며 땅을 다지는 행위간의 유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¹²⁾

은은히 들리는 어적소리에 이내이 가슴이 서글퍼지네/ 에헤히 오호야 어라 우겨라 방아
로구나/ 몽금에 포구가 좋다고 하여도 정든님 없으면 적막강산(중략)여울에 흐르는 물 부
던져 지구요 이내 시달려 백발이 되네(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파주민요론, 361면)

위에서 인용한 소리를 보면, 후렴에서 ‘우겨라 방아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령계 이 소리의 후렴에서 이러한 노동 지시의 사실이 방아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이 소리가 여러 사람들이 규칙적 행동을 하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의 전체 내용에 따른 변화는 앞서 살폈던 논매는 소리에서 전체 내용이 유흥이기 때문에 후렴 역시 ‘방아 흥개가 논다’라고 변화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강원도 홍천의 서면, 동면, 내촌면 일대에서 달구질을 할 때 방아소리를 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다.¹³⁾ 전국적으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방아소리가 쓰이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하는 달구질에서 방아소리뿐 아니라 새 날리는 소리, 긴방아소리, 달구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들을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회를 다질 때 달구소리 하나만 부르지만 여기선 여러 가지소리들을 나름의 순서에 입각해서 부른다.¹⁴⁾

두 번째로 굿 안에서 불리는 방아소리를 살펴본다. 굿을 할 때 하는 방아소리는 인천지역에서 하는 꽃맞이 중 뒷진, 황해도에서 하는 만구대택굿 중 말명거리, 평안도에서 하는 재수굿 중 제석거리, 서해안 지역의 꽃창굿의 말명거리, 그리고 대전의 목달미 액막이디달방아놀이 등 다섯 가지 굿에서 불려진다.

12) 이소라는 달굿대로 하는 노동과 절굿대로 하는 노동의 유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소라, 『파주민요론』, 파주문화원, 1997, 181면.

13) 이소라, 『한국의 농요』3집, 민속원, 1993, 59면.

14) 양주 백석면, 광적면 일대의 하관은 광중에 창호지를 깔기, 칠성판을 놓고, 그 위에 관이나 시신을 안치하기, 예단을 시신의 가슴에 놓고, 제일 밑에 깔았던 창호지를 덮고 흥대를 그 위에 놓기, 마지막으로 흙을 덮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2002년 5월 10일 양주군 남면 경신리의 소리꾼 허영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앞의 다섯 자료 중 인천과 황해도, 평안도지역에서 하는 곳에서 불리는 방아소리들은 제석신이나 말명신이 사람들에게 쌀로 구체화되는 복이나 명을 내려주며 하고 소리의 내용은 여러 가지 종류의 방아의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세 자료가 소리의 용도와 내용, 형식의 면에서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이 소리들 중 평산소놀음굿에서 불리는 방아타령을 다루기로 한다. 이 자료는 신(神)에 의한 복(福)의 구현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허 어디구 방아로다/ 에허 어류방아라/ 이나라 전체 방아로다/ 에허 어류방아라/ 산골 방아는 돌방아/ 에허 어류방아라/ 돌방는 물레방아/ 에허 어류방아라/ 도시방아는 쿵쿵방아/ 에허 어류방아라/ 한번은 쿵덩 찡고 나니/ 에허 어류방아라/ 천여석이 쏟아지고/ 에허 어류방아라/ 만여석이 쏟아진다.(장보배 구연, 이두현 채록, 1987)

위에서 인용한 소리에서는 동일어구의 반복에 의해 방아의 종류가 나열되었고, 방아를 찡은 결과 많은 양의 쌀이 쏟아지다고 했다. 앞서도 말했듯이, 굿 안에서는 불리는 소리들은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명방아’나 ‘복방아’와 같이 사설의 반복이 많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방아들만을 나열하는 이유는 이 소리가 불러지는 이유, 즉 신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소리를 하는 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방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에 의해 내려지는 복이 많이 때문에 만신으로서의 구체적인 사설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방아의 종류를 늘리는데 신경을 썼을 것이다.

평산소놀음굿에서 불리는 방아소리의 내용은 절구방아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이 소리는 만신에 의해 제석신이 부르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神)이 내리는 복과 풍요가 방아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이 소리가 아무리 곡식의 겉껍질을 벗기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소리의 기저에는 유감주술적 성격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꽃창곳의 말명거리에서 불리는 방아소리는 앞서 살핀 소리들과 같은 변화요인을 가지되 소리의 성격의 면에서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인다.

(전략)이내 손목은 나룻배 노짜룬지 이 사람두 쥐구 저 사람두 쥐구요/ 에 일싸 방아야/ 이내 입술은 방문주잔인지 이 사람두 빨구 저 사람두 빨구/ 에 일싸 방아야/ 요내 손목은 개장국집 수깅인지 이 사람두 잡구 저 사람두 잡아요/ 에 일싸 방아야/ 이내 배는 한강나룻 뱀지 이놈두 타구 저놈두 타요/ 에 일싸 방아야(중략)인간에게 짓는 줌은 다잡아 먹어라/

어 어리두 방아야/ 자손궁에두 짓는좁을 몽땅 다잡아 먹어라/ 어 어리두 방아야/ 일기등신
 에 각기등신에 오방지신에 짓는 좁을 다잡아 먹어라/ 어 어리두 방아야/ 일대동에 짓는
 좁을 다잡아 먹어라/ 어 어리두 방아야/ 배옥선간에 짓는 좁을 다잡아 먹어라/ 어 어리두
 방아야(중략)이나무 저나무 다썰 것이 없구/ 어 어리두 방아야/ 신재령 별판에/ 어 어리두
 방아야/ 벼락맞은 대추나무가 제격일세/ 어 어리두 방아야/ 일대동에 만대동에/ 어 어리두
 방아야/ 자손만대에 명방아로다/ 어 어리두 방아야/ 배옥선간에 두덕선에두/ 어 어리두 방
 아야/ 일대동에 장원을 쥐요/ 어 어리두 방아야(인천시 남구 주안8동, 꽃창굿 연신굿,
 304-313면)

위에서 인용한 소리들은 만신이 소리를 매기고, 장구잡이가 받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제일
 처음 소리를 한 이는 시누이말명이고, 두 번째 소리를 한 이는 올케말명이며, 마지막 소리를
 한 이는 봉산네오라버니말명이다. 위의 소리들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소리는 시누의 음란하
 고 비속함을, 두 번째 소리는 올케의 지저분함을, 세 번째 소리는 봉산네오라버니의 명복방
 아 짚음을 노래했다.

위의 세 말명신은 앞서 살핀 것처럼 당골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굿판으로 오는데, 이들이
 잘 놀면 놀수록 당골들에게 오는 복은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문면으로는 비속하거나 지저분
 하게 묘사되는 시누말명과 올케말명의 소리들은 각각 음란함 속에서의 다산성(多産性)을, 지
 저분함 속에서 여러 가지 좁으로 구체화된 나쁜 것을 다 없애는 축귀(逐鬼)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의 두 말명은 다른 굿의 신들에 비해 주술적 성격보다는
 유희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들 뒤에 등장하는 봉산네오라버니말명은 주술적 임무를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는 여러 가지 나무를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명복을 주기에는 대추나무가 제격이라며, 이
 나무로 방아를 짚어 신앙민들에게 여러 가지의 복을 준다고 하였다.¹⁵⁾ 결국 봉산네오라버니
 에 와서야 이 소리의 주술성은 온전히 성취된다고 할 수 있는데, 꽃창굿에서 불리는 방아소
 리는 앞서 살핀 평산소놀음굿에서의 방아소리와 같이 주술성은 가지되, 그 위에 등장인물의
 다양화와 유희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대전 목달미 액막이디딜방아놀이에서 불리는 방아소리는 다른 마을에서 훑쳐온
 디딜방아에 여자의 속옷들을 걸어놓고 액을 푸는 의미에서 부르게 된다. 그 결과 이 소리는

15) 봉산네 오라버니가 방아를 다 쪼고 나면 봉사였던 그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된다. 이렇게 말명 자
 신이 명복 방아를 쪼고 나서 스스로 눈을 뜨는 것으로 설정함으로 해서 신성의 구체적 실현을
 곧바로 보여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액막이의 용도로 사용되는 달거리체의 형식을 갖게 되었고, 이 소리의 구연 상황이 온 동네 사람들이 즐겁게 놀면서 부르기 때문에 내용 역시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하게 되었다.¹⁶⁾ 이 소리는 속옷을 걸쳐 접촉에 의한 액의 막는 다고 믿고, 세워진 디딜방아에 대해 잘못하면 부정을 탄다고 하여 만지지 않고 저절로 썩게 놓아두는 것을 통해 이 소리의 기능 변화가 감염주술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충남지역에는 어느 곳을 다녀왔다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플 때 주당살이 끼인 것이 확인이 되면 주당살을 물리기 위해 주장방아를 찢는다. 이때 환자를 명석에 말아서 동네 남자들이 절굿공이나 작대기를 들고 둥글게 돌면서 앞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주장방아소리를 부른다.

헤라 헤라 주장방애 찢제/ 헤 헤라 방애호/ 헤라 헤라 주장잡세 주장(중략)헤라 헤라 다
 디오 다디오 다디오/ 헤 헤라 방애호/ 헤라 헤다지오 헤다지오(중략)나는 이미 떠난 양가
 떠나이 떠나인다/ 헤 헤라 방애호/ 자손 내 자손들아/ 헤 헤라 방애호/ 잘 있고 잘 있거라
 나는 갔네/ 헤 헤라 방애호/ 헤라 헤라 주장방애 찢제/ 헤 헤라 방애호/ 살려주고 살려주
 야제 안살려주면 엎어놓고 제쳐놓고/ 헤 헤라 방애호/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살아났
 네/ 헤 헤라 방애호/ 어서 빨리 들어가옵소서 끄적 끄적 끄적거리네/ 헤 헤라 방애호/ 헤
 라 헤라 다디오 다디오 다디오/ 헤 헤라 방애호(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한국민요대전
 충남편, 118-119면)

위에서 인용한 소리에서는 사람들에게 주장방아를 찢어서 잡자고 권유를 하고 음식주장, 서낭주장, 나무주장, 괴목주장 등 주장 귀신의 이름을 나열한 다음 사람들에게 이제 시신을 묻어서 다지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귀신은 환자가 죽은 줄 알고 스스로 떠나간다고 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 구성을 통해 보듯이 이 소리는 다른 소리들에 비해 소리를 하게 된 이유와 결과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리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중심은 회를 다지는 것에 있다. 회를 다져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해야 귀신이 속아서 환자의 몸에서 나가게 된다. 그런데도 이 소리에서 달구소리를 하지 않고 방아소리를 한 이유는 주로 절굿공이를 찢으며 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 소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회단이 소리가 절구질의 행위와 크게 다르

16) 이창식은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대해 현장론적 방법을 통해 자세히 고찰했다. 이 소리에 대한 논의는 그의 조사 결과에 따른다.

이창식, 앞의 논문, 272-273면.

17) 프레이저, 『황금가지 1』, 삼성출판사, 1992, 45-83면.

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질적인 소리가 하나의 소리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곡식을 찧을 때의 절구공이질과 시신을 묻을 때의 회달이질은 노동 행위의 유사성에 의해 주장방아소리가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3. 유희요

유희요로 불리는 방아소리는 판소리 삽입가요, 가창유희요, 잡가, 신재효본 방아소리, 애기들 방아타령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신재효본 방아소리, 애기들 방아타령, 판소리 삽입가요 중 변장쇠가 안에서 쓰인 방아타령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신재효본(本) 방아소리는 경복궁 낙성 기념공원에서 대원군이 있는 자리에서 신재효의 제자인 진채선에 의해 불렸다.¹⁸⁾ 이 방아소리는 전체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 내용은 대원군과 나라의 안정에 대한 축원이다.

에 평양이라 대동강 용통을 메고 통승아 잡기로 날소일 한다 통승아 잡기로 소일을 하더니 시아범 밥상에 된장을 누었나 어허 방아야 어야 두야 내사랑아/ 에 나를다가 버리구서 돌아가는 님은 십리를 못가서 발병이 나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를 못가서 발병이 나구 이십리 못가서 노수가 없구 삼십리 못가서 불한당 만나구 사십리 못가서 날생각하구 누깔이 자개다 초가되야시 되돌아시누나 어허 방아야 어야 두야 내 사랑아/ 에 사방이라 십리능과 속에 처녀야 총각이 단 둘이 만나 사망 십리 능과 속에 처녀 총각이 단둘이 만나 죽을지 살지 살지 죽을지 널과 날과 이렇게 놀다 애기나 들며는 어찌를 하나 애기나 들던지 어른디 들던지 네 다리 들어라 내 무릎 꿇자 간장 고양이 인수성하니 오유월 장마에 사태가 났구나/ 창 고원아 내 상투 잡아라 통에 빠져서 말아니로구나 어허 방아야 어야 도아 내 사랑에(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이오진, 구비문학대계 1-2 149면)

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통해 축원의 내용을 방아소리로 부른 이유를 알 수 있다. 방아소리가 풍요를 연상시키므로 그러한 연상작용에 의해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소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가창유희요나 잡가의 경우 개인적 심회를 표현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체 방아소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신재효본 방아소리의 경우 유감주술이 소리를 만든 사람의 의도에 의해 보다 확대된 형태로 불렸다는 점에서 전체 방아소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18) 조동일, 제 3판 『한국문학통사』4, 지식산업사, 1993, 47-48면.

마지막으로 판소리 삽입가요 중 변강쇠가에서 쓰인 방아소리를 살펴본다.

“피에 올라 산전방아, 들에 내려 물방아, 여주(麗州) 이천(利川) 밀다리방아, 진천(鎭川) 통천(通川) 오려방아, 남창 북창 화약(火藥)방아, 각대(各宅) 하님 용정방아. 이 방아, 저 방아 다 버리고 칠야삼경(漆夜三經) 깊은 밤에 우리 님은 가족방아만 짚는다. 오다 오다 방아 짚는 동무들아, 방아 처음 내던 사람 알고 짚나 모르고 짚나.(후략)”

위에서 인용한 소리는 변강쇠가에 등장하는 초군(樵軍)들이 들로 일을 나가면서 유흥 삼아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의 방아를 나열하면서 방아질을 성행위와 연결시켰다. 여기서의 ‘가족방아’는 성기와 성행위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데, 이 소리에서는 방아를 아래 위로 짚는 모습과 성행위와의 유사한 모습에 착안하여 부르고 있다.

이 소리에서는 다른 소리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종류의 방아가 반복에 의해 나열되었다. 이러한 예는 이미 앞서 다른 소리들에서도 많이 나타났었다. 그런데 앞선 예들에서는 여러가지 방아들이 전체 소리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순 나열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소리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아들의 나열을 통해 마지막에 나오는 ‘가족방아’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이 소리에서는 이러한 반복법을 통해 이 소리의 목적인 유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유희요의 경우 노동요나 의식요에 비해 그 소리에서의 목적에 따라 표현 방식이 세련되고, 정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방아소리 기능의 변화과정 추론

앞서 경기지역에서 전승되는 여러 가지 기능의 방아소리를 대상으로 실제 방아 노동과 관련된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로 나누고, 실제 방아노동과 관련되지 않은 소리는 다시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의 순서로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방아소리의 변화요인은 주술성(유감주술과 감염주술), 노동 행위의 유사성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같은 의식요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변화 요인이 서로 같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기능을 달리하며 변화한 소리들의 기능 변화의 요인을 비교한 후 방아소리의 변화 과정에 대해 추론해보고자 한다. 각각의 방아소리들의 기능의 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창자의 면, 환경의 면, 소리 자체의 면으로 나누어 살펴져야 겠으나, 방아소

리의 경우 각각의 소리간의 상황, 목적 등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관계로 가창자의 면과 환경의 면에 의한 변화는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존재하는 방아소리들의 소리 자체의 면을 중심으로 기능의 변화 요인을 살펴 기로 한다.

앞서 방아소리의 기능 변화요인을 행위의 유사성과 주술성(유감주술, 감염주술)의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같은 유감주술에 의한, 혹은 행위의 유사성에 의한 기능 변화라 하더라도 그 소리의 구연 목적이나 가창자, 소리의 내용에 따라 그 층위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유감주술에 의해 변화된 자료로는 논매는 소리와 평산소놀이음긋 방아소리, 꽃창긋 방아소리, 신재효본 방아소리가 있었다. 이 네 자료의 경우 공통적으로 방아소리가 곡식의 겉껍질을 벗겨내어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단계에서 하게 되므로, 풍요에 대한 연상작용에 의해 방아소리를 가져다 쓰게 되었다.

하지만 논매는 일에서 쓰는 방아소리의 경우 일반 소리꾼에 의해 일판에서 불리는 관계로 연상작용에 의한 결과물이 농작물의 풍년에 한정되며, 사실 역시 논농사에서 사용하는 사실들 중심으로 엮어졌다. 평산소놀이음긋에서 쓰이는 방아소리는 제석신이 사람들에게 겉곡식의 껍질을 벗겨주기 위해 실제 절구방아를 찧는 시늉을 하며 소리가 불려진다. 만신이 굿판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신의 대리자로 이 소리를 하긴 하지만 구연 상황으로 말미암아 논매는 소리에 비해서는 사실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못했다. 꽃창긋의 말명거리에서 불리는 방아소리 역시 말명신이 방아를 찧어서 복을 주지만 다양한 화자 설정과 시누말명, 울케말명 두 말명의 유희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절구방아소리에서부터 형식과 내용의 면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신재효본 방아소리의 경우 특정 개인의 목적에 의해 유감주술적 성격이 보다 풍요가 아닌, 축원의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된 경우였다. 이 소리는 전문가에 의해 창작된 관계로 사실 구성이 다른 소리들에 비해 보다 정제되고 세련되었다.

행위의 유사성에 의해 기능이 변화된 소리들로는 회방아소리와 변강쇠가 삼입가요, 주장방아소리, 그리고 애기들 방아타령이 있다.¹⁹⁾ 이 네 가지 소리 중 회방아소리와 주장방아소리는 절구방아질과 유사한 노동을 하면서 소리를 하고 애기들 방아타령과 변강쇠가 삼입가요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으며 불려진다. 이런 이유로 회방아소리와 주장방아소리는 행위에 밀착되었고, 애기들 방아타령과 변강쇠가 삼입가요는 앞의 두 자료에 비해 행위의 유사성에

19)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동요인 방아깨비노래 역시 절구방아의 찧는 행위의 유사성에 의해 불려진다.

임석재, 『한국의 구연민요』, 서울음반, 1996.

덜 밀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소리들 중 회방아소리와, 주장방아소리, 그리고 애기들 방아타령은 다른 소리와 섞여서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기 북부의 달구소리를 보면 회방아소리가 달구소리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으며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는 현지 사람들은 이 두 소리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주장방아소리의 경우 절구방아를 이용해 명석말이를 한 환자를 찡는 것 때문에 방아소리가 불리긴 했으나 앞서 밝혔듯이, 이 소리의 핵심적 기능은 회단에 있다. 세 번째로 애기들 방아타령의 경우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우뚱거리는 모습이 방아를 찡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불렸지만 가창자의 관심은 아기와 함께 하는 유희에 있기 때문에 방아소리의 사설의 양보다 뒤에 이어지는 아들타령의 사설의 양이 더 많았다.

이렇게 방아소리가 다른 소리와 섞여서 불리거나 그 소리에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행위의 유사성에 의해 변화된 소리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술성에 의해 변화되는 소리의 경우 그 소리의 구연 상황에 따라 형식 등이 변화하긴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그 소리의 전체적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행위의 유사성에 의해 변화된 소리들에서 유독 다른 소리들과의 섞임이나 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은 유희요(애기들 방아타령)에 있어서는 행위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 노동 행위가 중요한 소리(회방아소리, 주장방아소리)에서는 그 소리에서의 핵심적 행위(달구질)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기능의 변화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핀 결과 우리나라의 방아소리는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 변모함을 알 수 있다. 그 단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실제 방아노동과 관련이 있음		실제 방아노동과 관련이 없음	
(가)원시적 방아소리	(나)도구 개발에 의한 방아소리	(다)노동을 하며 불리는 방아소리	(라)노동을 하지 않으며 불리는 방아소리
인력: 절구방아소리	도구+인력: 디딜방아소리 도구+축력: 연자방아소리 도구+수력: 볼레방아소리	회방아소리 논매는 소리 주장방아소리	곳 안에서 불리는 소리 판소리 삽입가요 가창유희요 신재효본 방아소리

위의 표에서 보듯 방아소리의 변모는 단선적이 아닌, 복합적, 다선적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실제 방아노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불리는 방아소리에 속하는 소리들은 공통

적으로 유감주술, 행위의 유사성이 절구방아소리와 밀착되어 있었고, 실제 방아노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노동을 하지 않으며 불리는 방아소리는 위의 두 기능 변화 요인이 앞선 소리들에 비해 덜 밀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 요인의 정도에 따라 전체 방아소리의 변모 과정을 추론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방아소리를 실제 방아노동과 관련된 소리와 방아를 찧는 행위와 관계없으나 방아소리로 지칭되는 소리를 살펴보았다. 실제 방아 노동과 관련된 소리는 절구방아소리, 디딜방아소리, 연자방아소리, 물레방아소리가 있다.

논맬 때 부르는 방아소리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 긴방아소리, 중거리방아소리, 자진방아소리로 나뉜다. 앞서 절구방아질은 절구공이를 아래 위로 찧는 행동을 통해 곡식의 겉껍질을 벗겨서 최종적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 핵심이고, 이것이 전체 방아소리의 기능 변화의 두 축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위에서 인용한 소리를 통해 논매는 소리에서 쓰이는 방아소리의 기능 변화 요인이 풍요의 연상작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유감주술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식요로 쓰이는 방아소리는 경기북부지역에서 불리는 회방아소리로 불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 불리는 회방아소리는 망자(亡者)와의 이별에 대한 슬픔, 탄로(歎老), 유흥, 노동 권유 등의 내용을 사설의 나열과 반복을 통해 표현하였다. 전국적으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방아소리가 쓰이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하는 달구질에서 방아소리뿐 아니라 새 날리는 소리, 긴방아소리, 달구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들을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회를 다질 때 달구소리 하나만 부르지만 여기선 여러 가지소리들을 나름의 순서에 입각해서 부른다. 이 소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회단이 소리가 절구질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질적인 소리가 하나의 소리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곡식을 찧을 때의 절구공이질과 시신을 문을 때의 회단이질은 노동 행위의 유사성에 의해 주장방아소리가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아소리가 풍요를 연상시키므로 그러한 연상작용에 의해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소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가창유희요나 잡가의 경우 개인적 심회를

표현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체 방아소리와 연관성 속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신재효본 방아소리의 경우 유감주술이 소리를 만든 사람의 의도에 의해 보다 확대된 형태로 불렀다는 점에서 전체 방아소리와 연관성 속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앞서 방아소리의 기능 변화요인을 행위의 유사성과 주술성(유감주술, 감염주술)의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같은 유감주술에 의한, 혹은 행위의 유사성에 의한 기능 변화라 하더라도 그 소리의 구연 목적이나 가창자, 소리의 내용에 따라 그 층위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유감주술에 의해 변화된 자료로는 논매는 소리와 평산소놀이음긋 방아소리, 꽃창긋 방아소리, 신재효본 방아소리가 있었다. 이 네 자료의 경우 공통적으로 방아소리가 곡식의 겉껍질을 벗겨내어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단계에서 하게 되므로, 풍요에 대한 연상작용에 의해 방아소리를 가져다 쓰게 되었다.

참고문헌

- 강동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 권오경, 「방아노래의 존재 양상」, 『문학과 언어』 14집, 문학과 언어학회, 1993.
- 김현선, 「민요 현지조사의 이론적 모색과 예증」, 『한국구전문요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6.
- 손인애, 「경기민요 방아타령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 이소라, 『과주민요론』, 과주문화원, 1997.
- 이소라, 『한국의 농요』 3집, 민속원, 1993.
- 이춘녕 외, 『한국의 물레방아』, 서울대출판부, 1986.
- 이창식, 「유희요의 구비성과 기록성」, 『한국의 유희민요』, 집문당, 1999.
- 임석재, 『한국의 구연민요』, 서울음반, 1996.
- 조동일, 제3관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3.
- 정규옥, 「방아노래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1983.
- 프레이저, 『황금가지 1』, 삼성출판사, 1992.

여 백

대민지원사업의 사례 비교 고찰

신 일 균(경기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목 차

1. 머리말
2. 본론
3. 대민지원사업의 차이점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당시 모든 경제 기반이 잿더미가 되어, UN산하 기관과 자유우방국의 난민구호사업의 지원으로 생존을 유지하다가, 근 20년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사업 등 정부와 국민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제 피 지원대상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었다.

현재는, 국민소득 4만\$, 세계 7위의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력을 바탕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의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평화유지를 위하여 고귀한 희생을 하는 한편으로, 현지 주민들의 구호사업을 전개하여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혹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등의 명목으로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단체들에 의한 북한 지원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50년대를 회상하여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정책(자원 공급지와 상품소비지)과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한 수탈과 8.15 해방 후, 남북분단으로 인한 기형적 경제권의 재편성 등으로 국민소득 82\$ 수준의 후진국에 속하였고, 6.25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을 당시는 국민소득 63\$ 수준의 최빈국으로 전락, 국가 재정은 물론이요, 기간산업을 포함하여 가정경제에 이르기 까지 어느 것 하나도 외국의 지원 없이는 기본적 생존조차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이었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였지만, 흉년에는 정부의 구휼정책으로 빈민구제를 시행하고, 경조사에 상보상조하며 살아가는 미풍양속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온 백의민족이지만, 50년대 6.25 한국전쟁 전후에는 정부도 민간인들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다.

전국 실정이 비슷하겠지만 특히 경기도 동북부 38선 접경에 위치하고 산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평은 9. 28 수복 후, 아군과 UN군의 주력 부대가 평양~원산 선을 돌파하고 압록강 두망강 국경선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을 무렵, 철원 김화 평강 등 소위 철의 삼각지대에 잠복하고 있던 북한군 제11, 12사단의 기습재침을 분쇄하기 위한 한국군 제2, 5사단의 반격전, 즉 소위 춘천 가평지구 전투(1950년 11월 중순~1. 4후퇴)가 전개되고, 1. 4 후퇴 후, 4월 23~25일 북면 목동을 중심으로 한 중공군과 영 영방군 간의 공방전(제1차 중공군의 춘계 공세),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친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를 저지 분쇄하고 대반격을 전개하여 화천 파로호에서 중공군의 3개 군단의 대 병력을 섬멸한 용문산 전투 등 대격전이 벌어졌던 전투지역으로, 관공소의 제반시설을 비롯하여 교육시설인 학교 건물과 일반주택까지도 거의 소실되어 버렸다.

피난 기간 중은 물론, 수복 후의 의식주 문제도 구호물자로 연명하던 가평지구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운운할 여력이 없었다. 국가에서도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교사가 소실되어 아동들을 노천교실에서 맨손수업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는 실정인데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 자유수호를 위하여 이 땅에 파견된 벽안의 군인들이 지열한 전투를 치루고 막대한 피해를 입어 부대 재편성을 위하여 이 고장에 주둔하게 되었을 때,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교사의 재건을 지원하고, 나아가서 인가도 없는 중학원의 건축을 지원하여, 앞으로 정규 중·고등학교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준 대민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더구나 전쟁 중 부모를 잃고 노상에서 방황하는 어린이들의 보금자리인 고아원을 설립한 후, 천주교에 위탁 경영케 함으로써, 다수의 어엿한 사회지도층 인사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준 자원사례도 있다.

그러나 50여년이 지난 오늘 날, 수혜를 받을 당시의 감동은 거의 사라지고, 혹은 가진 자의 당연한 사회봉사라는 평가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수혜당사자들까지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갖게 한다.

그런 가운데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해당부대는 휴전 직 후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그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한미유대 강화의 생생한 한 사례로서, 매년 6.25 전후나 졸업 시-즌에는 국내외 메스콧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는 사례로, 지난 4월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특별지원으로 기념관 개관식을 갖은 학교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지원사업을 하였고, 현재도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하며 한반도의 방위를 담당하는 주요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그 공적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너무나 유사한 대민 지원사업인 데도, 그 평가가 천양지차가 나는 두 개의 지원사례, 그로 별 시대에 진입한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해외 파견부대의 선무공작, 기업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또는 종교단체의 포교활동을 포함한 민간단체의 해외대민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천차만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대민지원사업의 두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타산지석의 한 사례로 삼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본론

제1장 대민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미 제2사단의 청평 친애원 설립 및 경영 경위¹⁾

- 1) 1951. 9 청평리383번지(당시 제헌국회의원 홍익표의 소유지로 무상대여) 현 청평 성당 터에 대형 야전 천막을 설치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전쟁고아들(당초는 2·30명 내외) 을 수용하여 장광열 장로에게 보육하도록 위탁하였다.
- 2) 장광열 장로는 청평고아원으로 명명하고, 담요, 식량, C- ration, 등을 부대에서 직접 지원하고, 지역주민 홍성숙 (현재 84세), 입학선(현재 84세), 장승록(현재 80세), 등을 보조원으로 하여 아동들의 생활을 돌보았다.
- 3) 1952년 10월 청평리383번지 현 청평성당 부지에 목조 개와즙 단층 겹집(250평: 중앙에 복도, 양쪽에 거실 배치) 온돌방 구조로 아동 용 거실 12개실과, 식당(2실 통합)·주방(별채)·강당(예배당 겸용)을 신축하고 아동들을 수용하였다. 한 방에 아동 약 10명 내외를 수용하고 창고용으로 군용 콘셋트 1동을 부설하였다.
- 4) 1953년 3월. 미 제2사단에 고아원 원아들이 고아원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진정이 접수되어, 천주교 윤을수(라우렌시오) 신부에게 고아원 관리를 이관하였다. 윤을수 신부가 원장으로 취임하고 루시아, 세레피나 수녀 등이 보좌하였으며, 취사와 시설관리 등은, 상기 홍성수 씨 등 3명, 여자 4명이, 아동지도는 교사(사감) 2명이 전담하였다.
- 5) 종업원들의 보수는 매월 쌀과 잡곡(보리쌀 등) 약 일곱 말(7斗) 정도를 현물로 지급하였다. 이들은 현지 주민들로, 출퇴근 하면서 근무하고, 보수는 작았지만, 1.4 후퇴 당시 피난 갔다 돌아온 처지라서 모두 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였다.
- 6) 1953년 6월 고아원의 명칭을 청평친애원으로 변경, 친애원의 강당을 임시 성당으로 사용함.
- 7) 1953 10월 7일 성당 신축 위해 미군부대에서 건축 자재 조달 비축 시도.
- 8) 1955년 8월 10일 성당 기공식(라우렌시오 축일),
1955년 12월 18일 성당 축성식(건평46평 벽돌건물, 공사비 250만원)

1) 가평군초등교육 100년사 2005, 12월 가평문화원 발간 : 특별부록 <376쪽~398쪽> 및, 천주교 춘천교구 청평교회 편저 : 1996년도 사목계획안 본당현황 참조

주례 부감목 이토마 신부

- 9) 1956년 3월 1일 매화유치원 설립(원생 35명)
- 10) 1957년 11월 10일 친애원 수용 남자고아 120명으로 늘어남.
- 11) 친애원에 수용된 아동들은 주로 청평초, 중학교와 청평공업고등학교에 취학하였고, 학비는 면제되었으며, 그 중에는 1974년 12월 10일에 청평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이홍섭 신부(소양로 본당)와 강능 성당 본당 담당 피정구 신부가 있다. 원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되면, 자립하여 사회로 진출하며, 친애원을 떠났는데, 현재 각계각층에서 건전하게 생활 하고 있다.
- 12) 1961년 5월 27일 윤을수 신부가 설립한 골롬바사(육영사업, 고아원 운영)와 인보성체회 회원 철수, 친애원 건물 및 대지(성당)가 청평성당(교구)에 무상 증여 됨.
- 13) 1961년 10월 매화유치원 사정으로 폐쇄함.
- 14) 1965년 4월 윤을수 신부가 교구의 지원을 받아 답 약 3,000평(쌀 약 3,200kg 수확)을 매입하여 신도들이 노력봉사를 하고, 종업원(임학선, 장승록), 2명이 전담 관리·경작하여, 친애원의 식량 일부를 자체 조달하였다.
- 15) 1970년 3월 17일. 친애원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아동들을 다른 복지시설로 이관하고 친애원의 문을 닫았다.
- 16) 1951년 천막에서 출발하여, 1969년 화재로 폐쇄할 때까지, 약 18년간, 미 제2사단이 동두천으로 이동한 후에도 친애원의 운영 물자와 자금 일부를 계속 지원하고, 수시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아동들을 위하여 강당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
- 17) 1970년 9월 1일 바티칸 교황청의 지원을 기대하고 친애원 재건공사 착수(각종 문화시설을 완비한, 원사 겸 불우 청소년을 위한 직업보도학교 등) 다목적 복지시설을 겸비한 건평 57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복지시설로 골조공사까지 마쳤으나, 사정상(교구의 사업부적격 판정으로 교황청지원 요청 부결 등) 중단. 건축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공사대금으로 답 3,000평을 대물변제 함.

제2절 관내 각급학교 전쟁 피해 복구 사업 지원내역

1. 미 제2사단의 관내 각 학교 지원 명세표²⁾

2) 상계 가평군초등교육 100년사 및 가평군 중등교육 50년사 : 2004년 12월 가평문화원 발간 44~73,

연 월 일	지원학교명	지원내역	지원부대
52. 10. 1	대성초등학교	1.5교실(36평)	미제2사단
54. 3. 28	청평공고	별관(3교실:75평 및 화장실1동; 10평, 연결복도)	미제2사단 9연대3대대
54. 3. 9	울길초등학교	1교실(24평), 책걸상 135조	제2사단38연대
54. 6. 10	울길초등학교	2교실(48평), 책걸상135조	미제2사단23연대
54. 8. 27	청평초등학교	3교실(75평), 화장실 1동	미제2사단
54. 9. 30	상천초등학교	7교실 (144평)	미제2사단
54. 10. 10	상면초등학교	6교실(150평), 풍금, 종각1점	미제2사단38연대
54. 12. 2	청평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미제2사단 공병대
55. 2. 20	청평초등학교	피아노 1대	미제2사단 의무대
지원 총계	학교수 6개교, 건물 건평 수: 662평, 책걸상 270조, 피아노, 오르간, 종각 1점, 기타		

2. 상면초등학교 전쟁피해 복구사업 등 지원 내역

(A) 교사 건축 지원

- (1) 1954년 3월 16일 미제2사단 38연대 1대대 장병이 상면국민학교(현 상면초등학교, 상면 임초리 445-3번지 소재) 교사 1동(6교실)을 기공하여 4개월간 공사 끝에, 동년 8월 8일 준공 성대한 기증식을 거행함,
- (2) 시멘트 바닥, 루핑 지붕으로 목조 단층으로 6교실 약 150평 건물
(교실 20평 + 복도 5평 = 25평, 25평 × 6교실 = 150평)
- (3) 기증식 1954년 8월 8일 동교 교정에서 학생, 학부모, 관내 기관장 참석 하에 기증식을 갖고 학교에서는 미 제2사단 38연대 1대대 공로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 축하 파티를 개최하였다.

94~141쪽 참조, 각급 학교 제공 학교 연혁지를 재 편집

감사장 수여자

1. SGT-Michael. T. Swilivan(일등중사 미찰 수위리반)
2. 38th. Regimental Commander Colombo Douglas(38연대장 콜롬보 도구라스)
3. 1st BN. CO. Major Williams(1대대장 중령 윌리엄스)
4. Capt. Hannun(대위 헨눈)
5. Mackenzie 2nd Lt-Doyle. D. Smith(소위 도이레 스미스) 외 3인

(4) 미 제2사단 38연대 1대대 장병들이 성금을 모아, 일본제품 (ヤマハ)山葉 풍금(Organ) 1대, 종(鍾) 1개를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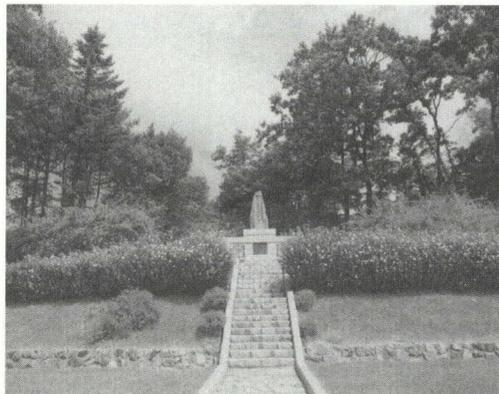
3. 미제40사단의 관내 각 학교 지원 명세표

연 월 일	지원학교명	지원내역	지원부대
52. 10. 16	가평가이사중·고교	1동 10.5개교실분(약 263평)	미제40사단
54. 01. 29	목동초 명지분교	1동 2교실(약 50평)	미제40사단 교사포부대
54. 05. 01	마장초등학교	1동 3교실(약75평)	미제40사단
54. 05. 04	가평초등학교	1동 10.5개교실분(약 263평)	미제40사단
54. 05. 04	가평초 내곡분교	1동 2교실(약 50평)	미제40사단
54. 05. 06	화악초등학교	1동 2교실(약 50평)	
54. 05. 09	상색초등학교	1동 4교실(약100평)	미제40사단 60연대
지원 총계	학교수 7개교, 건물 건평 수: 851평, 피아노, 울간, 각 1점, 도서, 사무기기		

<참고> 미 제2사단의砥平里地區戰鬪戰績碑

공산군이 평화롭던 이 강산을 피로서 물들이고 조국의 가쁜 숨이 경각을 다룰 때 16개국 UN군이 인류의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정든 고국산천을 등지고 수륙만리 이역의 땅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곳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 제39군 예하 115, 116, 119, 125, 126의 5개 사단이 피에 굶주린 이리떼와 같이 인해전술로 덤빌 때 미 제2사단 예하 23연대 전투단과 불란서군 대대가 이를 격퇴하였으나, 14일 재차 공격으로 완전 포위되어 통신이 차단되고 보급이 두절되어 탄환까지 제한된 판국에 백병전을 감행 사수하고 15일의 공중 보급과 기갑사단의 증원으로 5배나 되는 적을 분쇄 격퇴하였으니 이 어찌 UN군과 우리나라의 영광이며 자랑이 아니라, 실로 님들은 우리 겨레를 살렸나니 여기 그 위대한 공훈을 흠양하며 그 감투 정신을 자손만대에 전함과 아울러 전몰장병의 영령 앞에 명복을 빌고자 이 비를 세우노라

단기 4290년 7월 15일 제5사단 세움



제2장 미 제40사단의 대민지원사업³⁾

제一절. 가평가이사중학원

1. 1.4후퇴와 수복

가평지구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전쟁의 피해가 컸던 고장이다. 9.28 수복에서 1.4후퇴까지의 3개월 중 근 2개월이나, 이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졌고, 특히 가평읍 시가지는 시가지를 폐허로 만들었다.

또 1.4후퇴 후 소위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가 4월 23일~동 25일까지 3일간, 북면 백둔리와 이곡리 일대에서 전개되었다. 이곳에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군들이 중공군의 남침을 격퇴한 전적비가 세워졌고, 매년 이 전승기념일을 그 나라의 현충일로 정하여 전몰장병들의 주모행사를 거행하고자 참전용사와 그 유족들이 이곳을 찾고 있을 만큼, 그 나라에서는 대단한 긍지를 갖는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그 후, 약 1개월 후인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설악면 용문산 일대에서 전개된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를 한국군 제6사단이 4주 방어 후 대반격전을 전개하여, 화천 파라호까지 추격하면서 적의 3개 군단규모의 병력을 격멸시킨 곳이 설악면 용문산 일대이다.

이 용문산 전투의 대승으로 전선이 북상됨에 따라 주민들은 수복지구로 귀향하였으나, 자녀들을 취학시킬 형편이 아니었다.

2. 전막교실의 등장

1952년 4월 신학기가 돌아왔는데도, 가평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은 취학할 방도가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가평군수(오형근 : 후에 3대 국회의원 역임)의 발의로, 가평면장(박영수)과 지역 유지들이 협의하여, 가칭 가평중학원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기로 결의하고, 그 후보지를 물색하였다.

이 때, 가평은 주민들도 가건물에서 생활하는 형편이고, 가평초등학교도 불타고 없어지고 그 터에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달전리에 군용천막을 얻어다가 임시 교실을 마련하고, 1951년 9월 1일 개교하였다.

시가지 부근의 공터는 모두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던 가평중학원의

3) 상계 기평중등교육 50년사 가평중학교(44~73) 가평종합고등학교(94~141쪽) 참조

터는 교회 사유지이므로 이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상색리 임선호 구장(현 이장)의 제의로 그 소유지인 상색리 171-1번지 밤 벌(현 상색초등학교 및 가평운전학원 부지)에 임간 교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1952년 3월 1일 문을 연 이 학원의 교육과 운영을, 이석주(당시 서울상대 4년 후에 제일은행장 역임), 신일균(당시 고대 2년 : 후에 가평중고 교장으로 정년퇴임)에게 위촉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소 흑판 등의 교구, 등사기구 일체, 교재구입비, 기타 잡비 등)은 상기 오 군수와 박 면장이 하였다.

제일 먼저 등록한 학생들은 과거 학도의용대에서 함께 그룹학습활동을 하던 학생들로, 약 20여명이었다. 그래도 각 학년별로 학습반을 편성하고 교원들도 두 분을 더 초빙하여 각 교과별로 지도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교과서는 서울 고서점에서 교사용을 구하여, 이를 등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학생 수는 순식간에 50여명으로 늘었고, 중학원에 재학하던 학생만이 아니라, 서울·춘천 등지의 정규학교 재학생들도 들어왔다. 밤 벌에서 임간 수업을 하면서 목조건물을 건축하여 장차 겨울에 교실 겸 관리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목재를 조달하고, 학생들의 노력봉사와 최소한의 기술 인력을 구매하여 3칸 정도의 목조건물을 상색리 169-2번지(임선호씨 소유지 · 그 후 이 건물은 상색초등학교의 산실이 되었다)에 세웠다.

그러나 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곡리 113(현 가평중고 부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 727헌병대가, 전방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곳은 하천부지로, 6.25전에는 백중장 등 지역 행사장으로 이용되던 곳으로, 군부대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학원이 자리를 잡아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군수와 면장의 동의를 얻어, 1952년 4월 25일, 허허벌판인 이 곳 대곡리 113번지로 이전하고, 피난민 수용용 천막(군용 천막보다도 소규모임) 4개를 대여 받아, 교실로 이용하였다. 이 천막은 20명 내외가 둘러앉을 정도의 크기이며, 둥근 천막으로 가운데 기둥이 있고 원형으로 기둥을 세워, 차양만 하는 간단한 것이었는데, 바닥에는 쌀가마니를 펼쳐서 깔아, 먼지가 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은 냇가에서 돌을 주서다 놓고 앉아서 강의를 들었다. 여름이 되자 옆쪽을 둘러막는 휘장이 없는 천막인데도, 열기가 대단하여 수업을 하기가 어려웠다. 땅에 물을 뿌리고, 천막을 적셔서 열기를 식히기도 하였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대곡리로 이전하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3학년의 전 학년이 편성되기에 이르자, 동년 5월 1일 김종관(혜화전문 졸, 후에 서울대 대학원 졸, 초대 교장역임)원장을 영입하

고, 교사도 과목별로 고루 10여명을 초빙하니, 학교의 체제는 제법 갖추어 갔으나, 서무직원은 없었고, 보수는 하숙비가 될까 말까 하는 형편이었다. 재원은 학생들의 수업료가 전부였는데, 피난길에서 갓 돌아온 학부모들은 생활하기에도 벅찬 형편이니, 수업료를 마련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3. 미 보병 제40사단의 지원

용문산 전투 후 한국군 제6사단이 화천 파로호에서 중공군 3개 군단을 섬멸하고 진격을 계속하고 있을 때, 가평에는 미 제2사단이 승안리에 근 1년 동안 예비부대로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는 한편으로 대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정평에 전쟁고아들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건축하여 천주교에 위탁 경영하도록 하였는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952년 7월 초순경, 미 제2사단이 작전명령에 따라 철원지구로 이동하고, 그 지역에서 전투를 한 미 제40사단이 예비사단으로서, 승안리에 주둔하였다. 그들도 후방으로 이동, 부대 준비를 하는 동안, 대민 지원사업을 모색하고 있었다.

가평군수(상기 오형근)는 미 제2사단의 고아원건설사례를 설명하고, 현재 가평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쟁으로 배움의 터를 잃은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곡리에 있는 가평중학원과 달전리에 있는 가평국민학교의 천막교실을 보여 주었다.

미 제40사단장(Joseph p. Cleland 육군소장)은 참모들과 협의한 후, 우선 중학원의 건물 신축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전 부대 장병들에게 설명하였다.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국민이든, 그들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믿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언제까지나 미군이나 UN군 등 외국 군대가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자립정체를 확립하고 자주 국방력을 배양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한국 국민들은 이 전쟁 와중에서도 천막을 치고 배우고 있으니, 희망이 있는 국민임이 틀림없다. 그들을 돕고 싶다.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

그 기금을 장병들의 성금으로 마련하고자, 자신이 금일봉을 철모에 넣은 후, 부관으로 하여금 장교식당에 있는 장교들에게 그 철모를 돌리게 하였다. 그 후 사병들에게도 이 취지를 설명하고 성금함을 설치한 바, 대단한 호응을 얻어, 단시간 내에 2만여 \$가 모금되었다고 한다.

4. 교육시설의 확보

가. 부 지

전막 4개를 설치한 대곡리 113번지는, 미군 제727헌병대가 약 2~300평 정도의 하천부지를 정지하여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학교 부지로는 너무도 협소한 것으로, 정규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6,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운동장도 만들고 교사 주변의 화단 등의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미군들의 구상은, 적어도 1만평 이상을 확보하여 장차 학교가 발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하천부지는 얼마 되지 않고, 주변 대부분의 토지는, 윤경선(구한말 의병출신) 씨, 김영덕(당시 가평우체국장) 씨 등의 사유지가 대부분이었다. 기공식이 8월 1일이니, 이 때 논에는 벼가, 밭에는 콩과 김장용 채소 등이 재배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미군들은 중학원이 무인가라는 것도, 부지가 사유지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 설 계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교실을 본떠서 10개 교실 분의 목조건물을 설계하여, 미 제40사단에 제출하였는데, 최종안은 미 제40사단 공병대 Vam. Hoef 중위(MIT 공과대학 졸업)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학교 안은 교실 수 10개교실분과 그 크기<복도 포함 약 24평> 등의 규모가 반영되었을 뿐이다.

그는, 예산 규모와 건축자재의 구입난 등을 고려하였고, 한국의 기후조건과 생활습관 등은 감안되지 않은 점 등, 우리나라 일반교실과는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설계를 하였다.

그러나 설계자인 Vam. Hoef 중위는 대단한 성의와 자부심으로 이를 설계하였다고 하며, 1987년 육군대령으로 예편한 후, 부인과 영애를 대동하고 본교를 방문하였을 때, 설계도 원본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절근 콘크리트 3층 건물로 개축되어, 그 흔적이 없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였다.

다. 공사감독

미 제40사단 223보병연대 제1대대 착전참모 겸 행정장교 토마스 터니지(일명 에이스 : 공병) 대위가 사단장의 명령으로 총 공사감독을 맡아, 매일 현장에 나와 지휘 감독을 하였다.

특히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시멘트 배합공정에는 꼭 입회하고, 그 배합 비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기초공사를 비롯하여 모든 공정을 설계도에 입각하여 자재를 충분히

쓰도록 당부하였다.

공사현장에 파견된 미군들을 지휘하여 물자를 수송하고, 장비(불도저, 레미콘 등)를 조작하는 지휘를 하였다.

공사 진행과정을 사단장 등 상급자에게 일일 보고하는 듯, 크레란드 사단장과 로저어스 부사단장이 교대하여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토마스 터니지(일명 에이쓰 : 공병) 대위는 공사를 근 3개월 만인 10월 초순에 마무리하고, 다음 해 1953년 2월 4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소장으로 승진, 자기가 한국전 때 소속했던 미 제40사단장이 되어, 1975년 6월 18일 참전용사 한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초청을 받아, 가족(부인, 아들, 딸)과 함께 방한하여, 6.25 한국전쟁 중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건축한 가평 가이사 중·고교의 모습을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왔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기관장과 지역유지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너무도 눈부신 발전을 한 학교의 모습을 보고, 지난날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건축자재

시멘트는 영월에서 미군들이 직접 구입 수송하였다. 돌은 등산폭포 부근의 도로확장 공사로 폭파한 돌을 실어왔고, 모래는 소양강변의 모래를 채집 하여왔다. 목재는 가평군수와 북면장의 주선으로 북면의 주민들이 도유립 등에서 낙엽송 등을 간벌하는 형식으로 벌채하여 조달하고, 건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대로 제재하여 이용하였다. 다만 창틀과 문짝용 목재, 마룻바닥용 송판, 양개와는 외지에서 구입하였다. 자갈은 학교 앞 속칭 오목내 개울에서 부녀봉사대원들이 채집하여 조달하였다.

마. 공사 장비

불도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는 대형 믹서(Mixer: 레미콘)장비, 제재기, 화물 자동차, 등 일체의 공사장비는 미 제40사단의 군용장비가 동원되었는데, 제재기는 GMC 자동차 엔진을 설치하고, 제재용 원형톱날과 피대만 구입하여 현장에 설치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제재기 가동 인력은 한국 기술자를 썼으나, 기타 장비의 운영요원은 모두 미군 병사들이었다.

바. 기술인력

목공(대목, 소목) 석공, 미장공, 및 보조 인력은 우리 기술자와 인부를 일급으로 고용하였으며, 수복 직후라서, 사람을 구하기는 용이하고 임금도 저렴한 편이었다. 오히려 취업희망자가 넘치는 형편이었다.

사. 노력봉사

교사 신축 현장에는 기술자와 그 보조인부들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고용하였으나, 모래나 벽을 쌓는 돌을 자동차에 싣는 작업은,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주민들의 노력동원으로 충당하였다.

가평면장과 각 이장들이 순번으로 일정 인원을 매일 동원하였고, 주민들도 우리고장에 중·고등학교가 생긴다는 데 신바람이 나서 불평 없이 노력봉사를 하였고, 학생들도 수업을 희생하면서, 군용트럭을 타고 춘천 소양강변 등까지 가서 모래와 돌을 싣고 왔으며, 하차는 자동차로 하였다. 상기한 자갈 채취는 부녀봉사단에서, 목재 벌채는 북면 주민들이 무료 봉사하였다.

아. 기공식과 정초 및 준공식

(1) 기공식

8월 초 불도저가 동원되어 교지의 정지작업을 대충 끝내고, 건축 자재와 장비 등이 동원되어 작업준비가 완료되자, 1952년 8월 5일, 김종관 중학원장, 오형근 가평군수, 그레란드 <Cleland> 미 육군 제40사단장, 동 로저어스 부사단장이 학생과 지역유지, 학부모 등이 다수 참석하여 지켜보는 자리에서 학교 건축의 첫 삽을 뜨고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가평군민들이 학생들과 어울리어 대대적인 농악놀이와 운동회를 개최하여, 새 학교 건축을 자축하고 미군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8월 10일 미 제8군사령관(재임 51,4,14~53,2,11) 벤 프리트(Ven Fleet: 한국전에서 그의 아들 <공군중령>이 참전 전사하였다) 장군(대장)이 미 제 40사단장의 안내로 장병들의 성금으로 학교를 짓고 있는 공사현장을 시찰하고, 학생들을 격려하여, 학생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또, 맥아더 장군의 뒤를 이어, 미 극동군 사령관 겸 UN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Rich Way 장군도, 9월 중순경, 장병들과 주민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학교를 짓고 있는 현장을 시찰, 격려하기도 하였다.

(2) 정 초

학교 건물은 중앙에 현관이 있고, 이 문은 앞뒤가 모두 통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후면 중앙현관문의 좌우 양쪽 복도벽면에 초석을 설치하였다(설치한 후 미군들의 기념사진을 찍었으나, 별도 행사는 없었다).

정초한 날을, 미국의 태평양 전쟁 전승기념일이자 우리나라 해방 기념일이고, 독립기념일인 8월 15일로 기록한 것도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초석은 미군들이 주문 제작하여 온 것으로 그 문안은 다음과 같다.

1952

THIS SCHOOL IS DEDICATED TO
THE FUTURE LEADERS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OFFICERS AND MEN
次學校는 美 第四十步兵師團將兵들이 大韓
民國의 將來指導者들에게 奉獻한 것입니다
西紀一九五二年八月十五日

THE KENNETH KAISER HIGH SCHOOL
IN Memory of
SFC KENNETH Kaiser Jr.
Weapons Section Leader Company B 160th Infantry Regiment
First Member of the Fortieth Infantry Division
killed in Action

하사 케네츠 가이사 2세를 기념하는
케네츠 가이사 고등학교
미 보병 제 40사단 제 160보병연대
제 1중대 작전구역에서 전투 중
최초의 전사자

(3) 준공식

1952년 10월 16일, 근 3개월의 휴식 없는 공사로, 교사(10개 교실과 실외 화장실 2동, 수위실 1동)가 준공되어, 이를 학교에 기증하는 준공식 겸 기증의식이 거행되었다.

건물은 완성되었으나, 천막 맨땅 교실에서 소흑판을 가지고 수업을 한 처지이기 때문에, 교실의 기본시설물이 없었다. 또, 무인가 중학원이기 때문에, 국가나 행정당국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입장도 아니고, 학원은 재정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미군은 당연하다는 듯, 학교 건축기금으로 흑판, 책걸상 등의 기본시설물을 서울에서 조달하여, 교실에 비치함으로써 기존 학교시설에 손색이 없도록 꾸며 놓았다.

이날 준공식전에서는 기공식 때 사용한 삽을 미군이 은색으로 미장하여, 기증서와 함께 미 제40사단장 그릴랜드 장군이 김종관 교장에게 전달, 그 후 교장실의 소중한 기념물로 전시하여 두었다.

그리고 기공식 때에는 주민들이 주가 된 경축행사였는데, 준공식은 학생이 주가 되는 매스게임, 부대원과의 진선축구시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축운동회를 개최하여, 미군장병, 학생, 학부모, 내빈 모두 하나가 되어,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가평교육의 새로운 장이 전개되는 것을 함께 경축하였다.

그 후, 10월 16일을 ‘가이사 보납제’ 일로 지정하여 학교의 최대 축제로 삼아, 재학생과 동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그날의 감격을 되살리고 있다.

자. X-mass 축제

미 제40사단은 미국의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방위군으로, 사단 사령부가 그곳에 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고, 사단장 그레랜드 장군도 예편장성인데, 지원병으로 재입대하여 40사단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천·김화지구 등에서 전투하다가 가평으로 부대정비를 위하여 이동 주둔하게 되었는데, 대민지원사업으로 학교를 건축·준공하여 이를 기증하였는데, 그날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하였다는 소식이 캘리포니아 주 각 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고 한다.

미국 전역에서 장병들에게 X-mass 위문품을 모집하고 있던 차에, 장병들이 한국전쟁의 피해와 천막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실상을 알리면서, 자신들이 그들을 돕고자 학교를 지어주고 있다고 하자,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주 방위군인 미 제40사단의 장병들이 전개하

고 있는 대민지원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학교를 돕자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초·중·고등학생용 교과서와 참고도서는 물론이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서적과 백과사전, 영영사전 등 수천 권의 책을 모아 보내왔다. 또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타이프라이터(type-writer) 10여대와 백목, 각종 사무용품과 용지 등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수집하여 X-mass 선물로 보내왔다.

사무용 소모품도 고급품으로 그 후 몇 년 동안 사용한 분량이며, 타이프라이터나, 백목 등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고급품이었다.

12월 24일 미 제40사단 장병들이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학생 개개인에게 X-mass 선물로 접퍼 한 벌과 과자, 음료수를 제공하였다.

3개 교실을 튼 실내 경축행사장에는 그레란드<Cleland> 장군과 미 제7사단장 Smith 장군(그레란드 장군의 옛 부하로, 장군의 은덕을 치하하고자 동행)이 참석하여,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과, 7사단장이 일본에서 구입, 헬리콥터로 직접 싣고 온 오르간(Organ<Yamaha 社 제품>: \$500.00)을 전달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 오르간은 명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다기능의 고급악기로, 우리나라에는 별로 수입되지 않은 것이며, 특히 전쟁 중에 각급학교의 교육용 악기가 흔하지 않을 시기라, 지방학교로는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소중한 음악 교재로 오래 동안 애용되었다,

미 제7사단장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오르간 기증서는 다음과 같다.

HEADQUARTERS 7TH INFANTRY DIVISION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APO 7

25 December 1952

In commemoration of its heroic dead at this Christmas time, the officers and men of the United States Seventh Infantry Division present this certificate in the amount of five hundred(\$500,00) dollars to the sergent Kenneth Kaiser High School of Kapyong, Korea,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an organ for the school.

WAYNE C. SMITH

Major GENERAL, U. S. Army

Commanding

미 제7사단 사령부

APO 7

1952. 12. 25.

성탄절에, 미 제7보병사단 장교 및 병사들은, 가이사 상사의 영웅적인 전사를 기념하는 한국의 가평 가이사고등학교에, 교육용으로 500달러(\$에 구입한 오르간을 기증하는 이 증서를 선사합니다.

미 육군 중장 사령관, 웨인 C. 스미스

자. 학교 지원물자의 양도

(1) 잉여 건축자재

목재는 복면에서 주민들이 별채 공급한 것을 제재하여 기둥과 마루의 기초구조용 목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미군들이 건축기금으로 구입한 미송이나, 베니어 판 등이 대량 남았다. 이를 모두 학교에 이양하였기 때문에 후일, 강당, 관리실 등의 증축자료로 사용하였다.

(2) 건축 장비

GMC 자동차 엔진(Engine) 두개를 운동장에 설치하고 제재기와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용 장비를 가동하여 공사의 효율을 제고하고, 공기를 단축하면서도, 인건비 및 기타경비 절감과 자료의 배합비율을 정확히 유지하였는데, 준공 후 이들 장비를 학교에 이양하여, 후일 대곡리 마을회관 옆에 제재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현 학교장 사택 자리에 정미소를 설치 운영하여, 학교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3) 양호실용 의료기구와 의약품

준공식이 거행된 후, 미 제40사단 의무대에서 양호실용 의약품과 구급용 의료기구 일체를 마련하여 학교에 전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선구적이며 가장 알찬 학교 양호실을 개원할 수 있었다.

당시는 학교에 양호교사제가 없는 때로, 학교에서는 보조 간호원으로 임시 여직원을 채용하여, 미군들의 지원에 호응하였다.

(4) 화물자동차

미 제40사단에는 노획한 일제(日製) 도요타(Toyota)社 제작 화물자동차 한 대가 있었다. 일설로는 6·25 전쟁 중 공공연하게 성행하던 후생사업을 하던 모 부대 군인들이, 정보를 입수한 미 헌병 순찰대에게 발각되자, 자동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고 한다. 이 자동차를 부대에 건인하여 보관 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 자동차를 황색으로 도색하여 학교에 기증하였다. 학교의 제재소나 정미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수송력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학교의 재정자립을 돕고자 하는 미군들의 배려였다. 당시는 자동차를 가진 학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종종 자동차의 지원을 요청할 정도였다.

(5) 악기 기증

군악대에서도 브라스 밴드(brass band)를 창설하라고 하며, 그들이 사용하던 트럼펫, 슬라이드 등, 미제 악기 3점과 일본에서 구입한 클라리넷 등 2점 도합 5점의 취주악기를 학교에 기증하였다. 그들은 큰북 등의 타악기나 기타 취주악기 등은 저렴한 국산악기도 무방하니, 고가의 기본악기 5점만 있으면, 브라스밴드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미제 악기는 중고품이라도, 국산의 동종 새 악기의 4~5배의 고가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그 후의 변천

가. 1차 변천

1964년 4월 24 정부의 6.25참전용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전 미 제40사단장 그릴랜드 장군 부부가 방한하게 되었다. 이 때가 고등학교 개교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전쟁의 폐허 위에 본관을 건립하여 준 그레랜드 장군의 방한소식을 들은 4대 김종무 교장은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준비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희망탑에 장군과 가이사 병사의 동판(銅版) 부조(浮彫)상(像) 및 비문을 새겨 넣는 공사를 하여 희망탑을 개조하였다.

Cleland 장군 내외 환영을 겸한 제막식 겸 개교10주년 경축행사에서는 학교의 상신으로 장군에게 국민훈장(동백장)이 전수되었으며(최형규 문교차관 내교 전달), Conway미8군 부사령관(중장), 홍익표 의원, 홍락선 교육감, 김종관 초대교장 등 귀빈 다수와 학부형, 졸업생과 전 교생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 가이사 병사 동판 부조상 비문

男兒 당이 馬革과시라. 더욱이 국제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불살라버림은 무인의 본령이라 하지만 부모형제를 멀리 고국에 남겨두고 한국전선에 참가한 유엔장병들이 정춘의 붉은 피로 이 땅을 물들인 엄숙한 역사적 사실 앞에는 무조건 머리가 숙으러지는 것이니, 가이사 병사가 이 중에 한 사람이라. 특히 병사는 최초의 영예의 전사자로서 부하를 자제 같이 사랑하는 그레란드<Cleland> 장군은 병사의 성명을 교명으로 남겨 영원히 기념케 하니 이 점에서 병사는 눈을 감으시라. 이제 우리는 화랑도의 정신에 기사도를 융합하여 교훈으로 삼고 학교를 발전시켜 병사의 공덕을 더욱 빛나게 하는 동시에 병사를 통하여 전 유엔 전몰장병들의 영령에 영원히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1964. 4. 24 그레란드<Cleland> 장군 내교일

가평가이사 중·고등학교장 김종무

※ 그레란드<Cleland> 장군 동판 부조문 비문

君子는 成人之美요. 不伐其功이라 이는 그레란드 장군을 이름이라. 그레란드 장군은 미국보병 40사단장으로 한국동란에 참전하여 험험한 무훈을 세우고 나아가서 한국청소년들을 위하여 학원을 건설하고 장군의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부하 전몰장병 중에서 최초로 희생당한 가이사 병사를 교명으로 기념케 하였으니, 그 겸허한 인품과 원대한 포부와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실로 당세의 군자요 무인의 귀감이라 이제 장군의 내방을 계기로 거룩한 모습을 동판에 아로새겨 기념하는 동시에, 장군을 통하여 동란 이래 한국방위와 전후재건에 노력하는 전 유엔 장병과 미국시민들에게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1964. 4. 24

가평가이사 중·고등학교장 김종무

나. 2차 이전 및 재시공 : 2000년 8월 15일 준공

교실 수요의 증가로 본관을 4층으로 증축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당초의 기초공사가 3층 건물을 전제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4층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으로, 본관 서쪽 교실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겹집구조로 증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후원이 부지로 이용하게 되고, 희망탑 등의 구조물을 운동장 서쪽, 옛 날 서관 자리 정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 때 교문도 운동장 동쪽(4차선으로 확장된 75번 일반 국도에서 진입)에 다시 만들고 이를 정문으로 삼았는데, 이 정문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게 배치하였다.

라. 장학금 전달 등 방문한 주요인사

1952년 8월 10일 : 미 제8군 사령관(재임 51. 4. 14~53. 2. 11) 벤 프리트 장군(Ven Fleet 대장; 한국전에서 그의 아들<공군중령>이 전사하였다)이 미 제40사단장 Joseph. P. Cleland 장군의 안내로 장병들의 성금으로 학교를 짓고 있는 공사현장을 시찰

1952년 9월 10일 : Rich Way 장군(UN군 사령관, 후에 미 극동군 사령관)이 미 제40사단장 Joseph. P. Cleland 장군의 안내로 공사현장 시찰

1952년 10월 16일 : 미 제40사단장 Joseph. P. Cleland 장군과 고급 참모 등 학교 건축 참여 장병 다수, 홍익표 국회의원, 오형근 가평군수 등 관내 기관장과 주민 다수 참석 하에 학교 준공식 겸 기증식 거행

1952년 12월 24일 미 제40사단장 Joseph. P. Cleland 장군 미 제7사단장 Wayne C. Smith 장군과 미 제40사단 장병들이 X-mass 축하행사 및 선물 전달

1954년 7월 1일 : 함태영 부통령이 강원도 순찰 차 통과 중 본교 시찰

1964년 4월 24일 : 전 미 제40사단장 Joseph. P. Cleland 장군 내외 내교(6.25참전용사 초청 정부시책으로 방한), 훈장(동백장)을 최형규 문교부 차관이 내교하여 수여, Conway 미 8군 부사령관(육군중장), 홍익표 국회의원, 김종관 전 교장 환영 행사 참석 후 장군과 환담.

제4대 김종무 교장 주관 하, 희망탑에 가이사 병사와 Joseph. P. Cleland 장군 부조상(浮彫像) 부착 제막식 거행

장군은 피아노 한 대 기증(왔노라, 보았노라, 그대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이라는 자막판을 피아노 후면에 부착)

1976년 2월 18일 : 전 미 제40사단장 Joseph. P. Cleland 장군(1975년 70세를 일기로 작고)

미망인 Florence j. p. 여사가 부군의 유지에 따라 내교, 제6대 조태동 교장과 매년 졸업식 석상에서 Cleland Leadership상을 미 제8군 사령부에 위탁 전달하되, 부상으로 500\$를 Florence j. p. Cleland 여사가 유족연금에서 송금하고 이에 상당하는 상품을 수여하기로 합의

제1회 Cleland 장군상(지도자상으로 명명) 시상, 부상으로 장학금 500\$를 4명에게 균등수여 (중고 학생회장과 부회장에게 수여)

김종무 수원여교 교장(전 본교 4대 교장) 내교, Florence j. p. Cleland여사와 환담
1977학년도부터 1986학년도 까지

제2회~제11회 Cleland 장군상을 매년 미제8군 사령부 대변인(대령 급) 또는 부대변인(중령 급)이 졸업식에 참석, 상장과 500\$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 하고, Florence j. p. Cleland 여사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전달자의 계급 직책 성명을 기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 시상자와 수상자는 회담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California 주에 있는 미 제40사단 사령부와 Florence j. p. Cleland여사, 미 국방부, 미제8군 사령부 공보실에 전달하였다.

졸업식에서의 Cleland 장군상 시상 광경을 AFKN에서 촬영 방영하였다.

1984년 3월 28일 : 미 제40사단 장병 8명 Team Spirit 훈련(TS훈련) 참가 중 내교

1984년 9월 26일 : 미 제40사단장 Bill. Jefferd 소장 내교, 가이사 장학금 1.000\$(미 제40사단 사령부 PX 성금함 설치 모금) 기탁, 장학생 선발 전달

1986년 3월 22일 미 제40사단장 Bill. Jefferd 소장 재차내교, 가이사 장학금 1.000\$(미 제40사단 사령부 PX성금함 설치 모금) 기탁, 장학생 선발 전달

1987년 2월 13일 미 제8군사령부 대변인(공보실장) Benjamin F Waller 대령이 12회 Cleland 지도자상 시상 차 내교, 중고 학생회 정부회장에게 수여, 장학금 500\$ 상당 부상 수상

1987년 4월 2일 : 미 제40사단장 James D. Delk 소장 TS 훈련 참가 중 내교, 가이사 장학금 1000\$ 전달.

제10대 신일군 교장과 가이사 장학금 기금조성계획(미 제40사단 PX 성금함에서 매년 조성되는 장학금 1000\$ 중 500\$는 그 해 수여하고, 500\$는 기금으로 예금, 본교 졸업생 등 독지가로부터 1구좌 당 5만원씩 모금,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에금으로 이자 발생 후 가이사 장학금으로 수여) 합의

1987년 4월 22일 미 육군성 동원정책위원장(전 미 제40사단장) Williams, J. Jefferds 소장 내교

1987년 8월 29일 미 예비역 육군대령 Van Hoef(전 미 제40사단 6·25당시 육군 중위로

잠진, 본교 교사 설계자) 부인과 영애를 대동하고 내교, 설계도 및 기본 골격 공정 사진 등을 지참, 자신의 작품인 옛 교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당시 건물이 완전 개축된 것을 확인하고 아쉬움을 표현함.

1987년 9월 23일 미 예비역 육군 중령 Donald(전 미 제40사단 장교) 내외와 양자 Donald 미 육군소령(한인으로 6.25 전쟁고아로 입양) 내교

1987년 10월 2일 : 박윤섭 교육감 내교

1988년 2월 12일 미 제8군 한미협정 행정 국제 관계관 Gregg. N. Shuey 공군중령,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교 학생회 정·부회장에게 수여

1988년 4월 6일 : 미 육군성 동원정책 위원장(전 미 제40사단장) Williams. J. Jefferd 소장 가이사장학금 500\$ 기탁

1988년 4월 9일 미 제40사단장 James. D. Delk 소장 TS 훈련 중 가이사 장학기금 1500\$ 기탁 차 내교

1989년 2월 14일 미 제8군 대변인(공보실장) H. T. Linke 대령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 수여 차 내교

1989년 3월 18일 : 미 제40사단장 Averill. Hawkins 소장 T.S 훈련 중 카이 사 장학기금 1500\$ 기탁 차 내교

1990년 2월 13일 : 미 제8군 공보실차장 James. W. McGuire 공군중령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 수여 차 내교

1991년 2월 8일 : 미 제8군 공보실차장 Donald. F. Giglio 공군중령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 수여 차 내교

1991년 10월 8일 경기도 교육위원회 광병광 부교육감, 이용복 연구원장 도지정「민주주의 교육」시범학교 운영 보고회에 참석

1991년 10월 16일 · Cleland 장군 미망인이 본교의 발전상을 다시 한 번 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여, 제1회 졸업생 김홍배가 항공표를 송부하고, 숙소는 미 제8군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초청함.

제11대 신일군 교장이 여사의 표창 상신, 제11회 가이사 보납제(학교준공 기념일)로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한환 교육감, 미 제8군 공보실 차장 Giglio 공군중령 임석 하에, 여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한환 교육감이 전달하고, 감사패를 증정여시는 장학금으로 600\$(45만원으로 환전) 기탁

1992년 2월 17일 · 한미연합사 겸 미 제8군 공보실 차장 Giglio 공군중령이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고 학생회 정·부회장에게 수여 차 내교

1993년 2월 17일 : 한미연합사 겸 미 제8군 대변인(공보실장) Pilnacek 육군대령이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고 학생회 정 · 부회장에게 수여 차 내교

1994년 2월 21일 : 한미연합사 겸 미제8군 대변인(공보실장) Nicle. B. Serlivan 육군대령이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고 학생회 정 · 부회장에게 수여 차 내교

1995년 2월 15일 · 한미연합사 겸 미 제8군 대변인(공보실장) Salivan 육군대령이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고 학생회 정 · 부회장에게 수여 차 내교

1996년 2월 14일 한미연합사 겸 미 제8군 부대변인(공보실차장) Whiet 육군 중령이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고 학생회 정·부회장에게 수여 차 내교

1996년 4월 18일 미 제40사단장 William Steward 장군, 미 제8군 수석고문관 Timothy P. Maroney 내외, 미 제40사단 작전참모 크리스토퍼 소령 방문 장학금 5000\$를 기탁하고 제 11대 신일군 교장을 미 제40사단장 이취임식에 초청

1997년 2월 일 한미연합사 겸 미 제8군 작전참모부 방위군 참모 Timothy P. Maroney 육군대령이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고 학생회 정 · 부회장에게 수여 차 내교

1998년 2월 일 : 한미연합사 겸 미제8군 작전참모부 방위군 참모 Timothy P. Maroney 육군대령이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고 학생회 정 · 부회장에게 수여 차 내교

1999년 2월 일 · 한 미 연합사 겸 미 제8군 작전참모부 방위군 참모 Charles Winn 육군 대령이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고 학생회 정 · 부 회장에게 수여 차 내교

2000년 2월 일 · 한미연합사 겸 미제8군 작전참모부 방위군 참모 Charles Winnt 육군 대령이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고 학생회 정 · 부회장에게 수여 차 내교

2001년 2월 일 : 한미연합사 겸 미 제8군 작전참모부 방위군 참모 Alexander 육군대령이 Cleland 장군상 및 장학금 500\$를 중고 학생회 정·부회장에게 수여 차 내교

2001년 06월 13일 Peter. J. Gravett 미 제40사단장이 한 미 연합군사훈련 차 방한 중 참 모 23명을 대동하여 내교하였다.

2003년 7월 8일 · 한미연합사 겸 미 제8군 작전참모부 방위군 참모 Lawrence Dudney 육군대령, Anthony Lasswell 상사(SFC) 학교현황 파악 차 내교

2004년 10월 일 Delk. L. George 미 제40사단장 한미합동군사훈련 차 방한 중 참모 들을 대동 내교하였다.

2006년 02월 18일 미 8군 작전참모부 Lawrence Dudley 육군대령 내교 그레란드상 시상
2006년 10월 Jeffrey 미 제40사단장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차 방한 중 참모 들을 대동 내교 하였다.

2007년 02월 08일 미 8군 작전참모부 Lawrence Dudley 육군대령 내교 그레란드 상 시상
2007년 07월 14일 미 8군 사령관 Davett. P. Balcott 중장 내교

2008년 02월 14일 미 제40사단 부사단장 Scott. W. Johnson 준장 내교, 가이사 기념관 개관식 및 졸업식에 참석, 그레란드 장군상 시상과 축사를 하였다.

미 제40사단의 가평 가이사 중 고등학교 지원의 특색

미 제2사단이나 미 제40사단이 모두 6.25 한국전쟁 중 파괴된 교육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였고, 또 미 제2사단은 고아원을 설립 위탁경영을 하였다.

그러나 50여년이 지난 오늘 날에는 그 당시의 지원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문서상 기록을 일부 발견할 수 있을 뿐으로 대부분의 하교건물은 현대적 절근콘크리트 건물을 재건되었으며, 고아원은 폐쇄된 지 오래되었고, 그 터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다만 가평고등학교 교정에 미 제40사단의 한국전 참전 중 최초의 전사자 가이사 병사와 당시 사단장이던 그렐란드 장군의 안면 부조물을 부착한 희망탑이 지난날의 사연을 암시하고, 2008년 2월에 개관한 가이사 역사 기념관이 생생하게 당시의 실정을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3. 대민지원사업의 차이점

제1장 미 제40사단의 지원 내역

1, 사업기금조성의 차이점

가평 가이사 중고등학교 지원사업 기금은 사당장의 지원취지 설명을 들은 전 장병들이 성금으로 거출하여 조성된 약 2만여 \$로 정규 10개 교실을 건축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단위 지원사업 지원금으로는 큰 액수였다.

다른 사업들은 공적 대민 지원 사업비에서 조성된 것으로 그 규모도 2개~6개 교실(단 가평초등학교는 10개 교실 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자재를 지원하는데 불과한 규모였다.

다만 청평 고아원의 경영 지원은 미 제2사단의 장병 성금을 모우고, 지원물자도 장병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고아원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수집하여 전달 하였다고 한다.

2, 사업진행과정

미 제49사단은 가이사 중고등학교의 교사 설계과정에서부터 물자구입, 건축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전문 인력(공병대 장교 등)과 공사 건축 장비(불도저, 레미콘 자동차, 군용 트럭 등)와 기술 병력을 직접 투입하고, 시공과정이 철저히 감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초기와 중간에 벤 프리트 장군, 릿지 웨이<Rich Way> 장군 등 미 제8군 사령관 겸 UN 군 사령관이 현장을 방문 격려하는 등 파격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지역의 기관장들의 협조와 주민들이 학교 부지를 기증하고, 봉사활동으로 건축의 보조 인력을 충당하여, 기술자들의 인건비 외는 주민들의 노력 봉사로 건축비용을 절감하는 등,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사를 도왔다.

그러나 같은 미 제40사단이 다른 학교의 재건 사업(예: 가평초등학교 10개 교실 건축용 자재 지원 등)에서는, 재건물자를 지원하였을 뿐이며, 미 제2사단의 학교 재건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나 감동도 그 만큼 저조하였다.

3, 사업종료 후의 전개

가평 가이사 중 고교의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약 200 여 평의 하천 부지에 피난민 용 천막을 치고, 6.25 한국전쟁으로 그 전의 재학하던 학교로 복학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학생들을 모아, 인가도 없는 사설 중학원에서 교육하는 광경을 본 미 제40사단장이, 이런 학구열을 가진 민족이라면 미래가 있다고 판단, 부대 장병들에게 호소하여 성금을 모으고, 진두지휘하여 만 여 평의 부지 위에 10개교실과 부속건물을 짓고, 운동장을 조성하는 등, 어엿한 교육 여건을 구비한 학교로 만들어, 알찬 교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인가의 사설 학원이라는 사실을 안 사단장은 미 제8군 사령부에 보고하고, 벤 프리트<Ven Fleet> 사령관은 이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정규 중 고등학교

로 인가를 받도록 하여준 것 300이다.

특히 사학재단으로 사단장 명의의 사립 중등학교로 발족하지는 일부건의를 물리치고, 국가에 이양 공립학교로 하며, 이름은 한국 참전 중 미 제40사단 장병 중 최초의 전사자 가이사 하사(특진)를 기념하는 가이사 중 고등학교로 발족하기를 희망하는 등 끝까지 자신의 공적을 숨기는 음덕을 베풀었다.

또 지원의 목적을 장래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하여 이 학교를 봉헌한다는 건립취지를 초석에 새겨 넣음으로써, 이 학교의 건학정신을 일깨워 주고, 지원의 순수성을 천명하고, 수혜자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또 이 사업의 취지를 전해들은 미 제7사단장이 일제 야마하 올간(Organ) 1대를 동경에서 주문하여 헬리콥터에 직접 실고 와서 기증하고,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민들이 백과사전을 포함한 많은 원서<1개 교실 서가를 채울 정도>와 학용품, 타이프라이터 등의 사무기기와 용품 등, X-mas 선물 3개 화차 물량을 수집 전달하는데 앞장서서, 신생학교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의무대에서 의료기기와 의약품, 군악대에서 취주악기를 기증하여 그 당시 도시학교에서도 보기 드문 양호실을 마련하고, 브라스 밴드 부를 만들 계기가 되었다.

공사기간 중 사용하던 제재용 GMC엔진과 부대에서 관리중인 도요다 화물자동차

1대를 기증, 정미소와 제재소를 개설, 수익을 올려서 학교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하였다.

휴전 후, 본국으로 철수한 미 제40사단장 그레란드 장군은 각종 공사과정과 기공식, 준공식 등의 행사사진 등의 기록물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전달한 감사장, 기념품 등을 사단사령부 기념관에 비치하고, PX, 식당 등에 설치된 성금함의 성금으로 가이사 장학기금을 만들어 학교를 돕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그 후임자들은 자연히 가이사 중고등학교와 미 제40사단의 깊은 인연을 인식하게 되고, 더욱이 그 후임 사단장 중 상당수가 6.25 한국전쟁 중 그 부대에서 잠전한 장교들이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방한하게 되면, 으레 참모들과 함께 가이사 중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그 발전상을 확인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연례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레란드<Cleland> 장군은 1975년 10월 70세를 1기로 타계하였는데, 그의 유족연금 중 500\$를 매년 가이사 장학금으로 지도력이 우수한 가이사 졸업생에게 수여하라는 유언을 남기었다.

미망인 Florence j. p. Cleland 여사가 부군의 유지에 따라 내교, 제6대 조태동 교장과 협의,

매년 졸업식 석상에서 Cleland Leadership상을 미 제8군 사령부에 의탁 전달하며, 부상으로 500\$를 그의 유족연금에서 송금하겠으니, 이에 상당하는 상품을 수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1976년 2월 제1회 그레란드<Cleland> 리더쉽 상이 시상된 이후, 매년 중·고 학생회 정 부회장에게 미 제8군 사령부의 대변인 등이 졸업식에 참석 그 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4, 학교당공의 대응조치

착공당시의 학교는 사실 무인가 중학원으로 중학원장도 공인된 직위가 아니고 기본적 재산도 전무하였다. 다만 군수가 후원하고 천막에서나마, 학생 수 십 명이 모여 앉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서도 공인된 학교로 인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만 관내 기관장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이 적극 후언하고 참여하여 대지를 무상 기증하고, 건축 자재인 목재, 자갈, 모래 등을 조달하여 제공하며, 자원봉사로 공사비를 절감하게 하는 등의 열성을 보이니 사단장 이하 공사에 직접 관여하는 장병은 물론, 이를 전해들은 장병들이 보람을 느끼고 사기가 충천하였을 것이다.

기공식이나 준공식, X-Mas 축제 등을 지역 축제로 개최하여 국회의원 관내 기관장 등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여 사단장 등 관계관들에게 감사장과 정성어린 기념품을 전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X-mas 카드를 전 교생이 만들어 전달하였으며, 그 기념품과 카드는 현재 미 제40사단 사령부에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개교 10주년이 되는 1964년 4월 24일, 전 미 제40사단장 Joseph. P. Cleland 장군 내외(6.25참전용사를 초청하는 정부시책으로 방한)의 내교를 계기로, 제4대 김종무 교장 주관 하에, 가이사 병사와 Joseph. P. Cleland 장군 부조상(浮彫像)을 희망탑에 부착하고, 장군의 표장을 상신, 국민훈장(동백장)을 최형규 문교부 차관이 내교하여 수여하였으며, Conway 미 8군 부사령관(육군중장), 홍익표 국회의원, 김종관 전 교장 등 다수 인사가 환영식 겸 희망탑의 장군 부조물 제막식행사에 참석, 장군과 환담하였다.

장군은 피아노 한 대(왔노라, 보았노라, 그대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이라는 자막 판을 피아노 후면에 부착)를 기증하였다.

1987년 4월 2일 : 미 제40사단장 James D. Delk 소장 TS 훈련 참가 중 내교, 가이사 장학금 1000\$ 전달한 자리에서, 제10대 신일군 교장과 가이사 장학금 기금조성계획(미 제40사단 PX 성금함에서 매년 조성되는 장학금 1000\$ 중 500\$는 그 해 수여하고, 500\$는 기금으

로 예금, 본교 졸업생 등 독지가로부터 1구좌 당 5만원씩 모금,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예금으로 이자 발생 후 가이사 장학금으로 수여) 합의하였다. 현재 약 3,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연간 약 200만원의 정기예금이자로 장학금이 수여되고 있다.

1991년 10월 16일 : Cleland 장군 미망인이 생전에 본교의 발전상을 다시 한 번 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여, 제1회 졸업생 김홍배⁴⁾가 항공표를 송부하고, 숙소는 미 제8군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초청하였다.

제11대 신일군 교장이 여사의 표창 상신, 제11회 가이사 보납제(학교준공 기념일)로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한환 교육감, 미 제8군 공보실 차장 Giglio 공군중령 임석 하에, 여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한환 교육감이 전달하고, 감사패를 증정하고 여사는 장학금으로 600\$(45만원으로 환전)를 기탁하였다.

2006년 미 LA한국전쟁 참전용사 위문행사를 갔던 밝은 사회 국제클럽 심호명(65)한국본부 부총재가 LA주둔 미 40사단 관계자로부터 가이사 중·고등학교 사연을 전해 듣고, 재향군인회 정승열(71) 자문위원장과 함께 2007년 5월 가평고를 찾아 기념관 건립을 제안하였고, 학교에서는 지역 각계 주요인사와 동문·교육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이사 한미동맹 기념관 추진 위원회를 구성, 심호명 부총재, 정승열 자문위원장, 한국군·한미연합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수차례 열었다. 이 모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경기도 김진춘 교육감의 특별배려로 지난해 9월, 8700만원의 건립기금을 배정 받아 12월 초부터 기념관 공사에 들어갔으며, 미 제40사단 부사단장(Scott. w. Johnson 준장)이 John. S. Harrel(이락 파병 중) 사단장을 대신 임석한 가운데 2월 14일 개관식을 가졌다.

4. 맺음말

자선이란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

4) 김홍배 : 본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당시 육군대위로 청와대 경비중대장으로 근무 중 국방부의 특별지시로 1964년 그레란드 장군의 국민훈장 수여식 행사에서 장군의 통역을 맡았다. 그는 보병학교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하고, 미제8군사령부 카추샤 인사처장을 역임하였으며, 5.16 주체세력이며, 월남전에도 2차나 참전하고, 후에 육군 중령으로 예편 하였는데, 군에 있을 때나, 예편 후에도 한미연합사와 미 제40사단, 또는 Cleland 장군 내외의 연락을 주선하고, TS 훈련에 참가하는 미 제40사단 장병들이 본교를 방문할 때나, 졸업식 등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통역과 안내를 맡고, 학교와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주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고 한다. 와싱턴에 건립한 한국전 참전비의 비명처럼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맞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에 부름을 받아‘ 한반도에 와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수행 중인 장병들이, 전시수당에서 성금을 거출하여 학교를 건립한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박애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이 미 제8군사령관이나 미 제7사단장, 캘리포니아 주민 등에게도 깊은 감영을 주어, 현장을 방문 격려하고, 올건<Organ>, 도서, 학용품 등을 수집 전달하는, 전폭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사실 무인가 학교를 지원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미 제8군사령관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 사업과정을 보고 받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공립학교로 인가를 받아, 정규학교로 발전한 희귀한 사례이다.

특히 그레란드 장군은 최초의 한국전 전사자의 이름으로 교명을 삼게 하면서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단사령부에 가이사 중고교 기념관을 만들어 부대 장병들의 관심을 끌고, 타계한 후에도 미망인으로 하여금 유족연금으로 그레란드<Cleland>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깊은 관심과 애착을 보였다.

이에 따라 후임 사단장들이 TS훈련 등으로 방한하게 되면 참모들을 대동하여 학교를 방문하고, 부대 내에 설치한 성금함에 모인 장학금을 전달하고,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매년 졸업식에 대령급 인사를 파견 그레란드<Cleland>장군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숭고한 박애정신을 높이 지하하여 그레란드<Cleland> 장군 내외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베푸는 쪽은 순수한 박애정신의 발로로 대민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수혜자의 자립을 돕는 방안으로 지원하였을 때, 수혜자도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자립 후에는 그를 본받아, 남을 돕는 자유시민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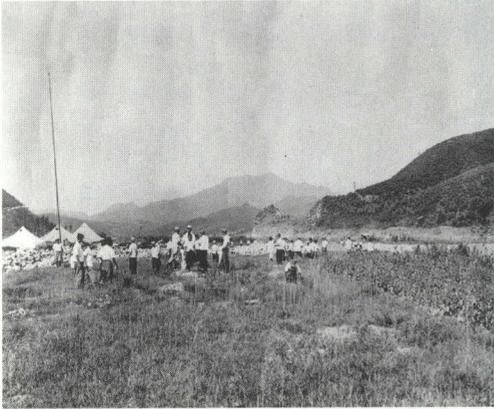
사랑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며, 계속 지켜보는 것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게 하는 사례로, 미 제2사단이나 미 제40사단의 다른 대민 지원사업이 일시적인 물자지원으로, 혹은 지역 주둔부대의 의례적인 지원사업으로 평가된 사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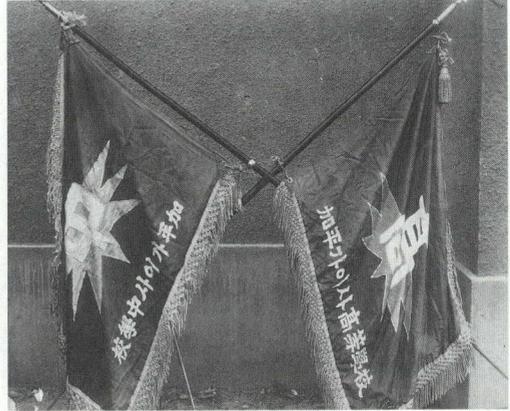
가이사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미 제40사단 존슨부사단장



가이사 기념관의 전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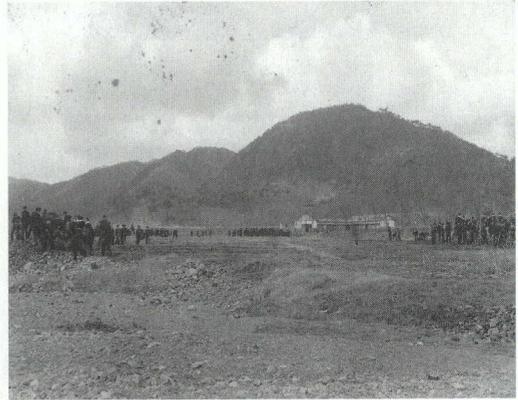
초창기 천막교실(흰천막)



교 기



준공식후 교실 입실(1952년)



정지된 교지



희망탑앞에서 축구선수단



그레란드 장군 훈장 수여식(1964년)

동두천시 세거성씨 연구

홍 정 덕(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1. 서론

한 지역의 세거 집단은 그 지역 향토의 전통과 문화 및 특색을 창조하는 중심 세력이므로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향토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한 중요한 방편이 된다.

동두천 지역은 옛 양주의 한 부분으로 양주 문화의 전통과 맥을 구성하고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동시에 한국동란 이후에는 외국군 주둔지로서 급속히 유입되는 외국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현재는 전철 1호선의 연장 개통과 함께 새로운 유 이민이 대량 유입되어 과거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신흥 도시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 아직 온존하는 세거 성씨를 파악하고 그들의 입향 경로와 삶의 모습을 추적하는 것은 동두천 지역 향토문화의 원초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후 지역의 향토문화를 복원,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적 과제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동두천시는 시로 승격되기 이전 양주군 이담면이었고,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이 지역은 지역에 위치하는 소요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특히 가을철의 단풍으로 소금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한적한 산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원선 열차가 역내를 통과하며 정거장들이 설치되고 이를 통하여 보다 긴밀하고 편리하게 수도 서울 및 의정부 등 대도시와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북으로의 귀향을 서두르던 이북 실향민들이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이곳까지 북상하여 대거 정착하는 한편, 중부 전선 방위의 요충으로 자리 잡으며 외국군이 대량으로 주둔함에 따라 도시의 성격과 기능이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전변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도시의 인구가 폭증하고 도시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동두천이 장기간 유지해 오던 농촌의 모습은 급속히 쇠락하고 도시 개발에 따르는 전통의 파괴가 어느 지역보다 심한 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두천시 안흥동, 봉암동, 탑동 등지에 형성되었던 동두천 지역의 오랜 세거 가문의 집성촌은 현재 완전히 해체되었고, 기타 세거 문중 역시 그 자손들이 교육 및 직장 등 형편을 따라 출향하면서 동두천 지역의 세거 문중은 지역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두천 지역의 세거 성씨들을 점검하고 그들의 현재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좁게는 동두천 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세거 가문의 변천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통한 지역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 계기를 삼으려 한다.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경기 북부 지역의 문화적 원초성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한 방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 본론

1. 동두천을 포함한 양주 일대의 세거 성씨 개황

양주는 조선의 왕도 한양을 수호하는 거군 입과 동시에 조선 후기에 들어 수어 중영이 설치된 군사적 거점이기도 하다.

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이 지역에 새로이 수도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 비약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는 한편 훈구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집성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동시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호족들이 후에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토성 향족을 이루었고, 이들 향족들은 기록에 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토성으로 등장한다. 자료에 나타나는 양주의 토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지리지에 나타나는 양주 지역의 토성>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견주(見州 지금의 의정부 지역) - 이(李), 김(金), 송(宋), 신(申), 백(白), 윤(尹), 피(皮)	조(趙) (풍양, 한양)
한양(漢陽 지금의 양주 지역) - 한(韓), 조(趙), 민(閔), 신(申), 함(咸), 박(朴), 홍(洪), 부(夫), 최(崔), 정(鄭), 예(乂)	
풍양(豊壤 지금의 남양주 지역) - 조(趙), 이(李), 강(姜), 윤(尹), 유(劉)	
사천(沙川 지금의 동두천 지역) - 이(李), 경(耿), 임(任), 송(宋), 허(許)	

이들 토성들은 양주를 본관으로 하지 않고 당시의 행정 구역을 따라 견주, 한양, 풍양, 사천 등을 본관으로 하고 있는 데 이 중 현재 견주와 사천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전원 소멸되었고, 한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중에는 조씨 외에는 가세가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풍양 지역의 토성 역시 조씨 외에는 실질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외는 달리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문헌에 나타나는 토성들 외에 후에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이 추가하여 나타나는데 이들은 일부 소멸된 성씨도 있고, 전국적인 명문으로 존속하는 성씨들도 있다

조사 자료에 나타나는 양주 성씨들은 모두 8개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주김씨(楊州金氏)

시조 김원보(金元寶)는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김은열의 9세손으로 고려 고종 때 예부상서, 주밀부사로 양주백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양주로 하였다.

이들은 후에 거주지를 따라 두 개의 문중으로 나뉘게 된다.

- 평양파 7세손 김남걸(호조판서)이 황해도 서흥으로 이사해서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인 김기를 1세조로 한다.
- 개천파 : 8세손 김건을 중시조로 한다.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3,41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양주 노씨(魯氏)

본관은 함평(咸平)·강화(江華)·개성(開城)·양주(楊州)·밀양(密陽)·광주(光州)·수원(水原) 등 60여 본이 있는 것으로 전하나, 모두 같은 시조의 분파로서 노씨의 세거지(世居地)이다. 중국 주(周)나라 때 백리가 노(魯)에 피봉 되어 그 후손이 노를 성씨로 삼게 되었다

양주 노씨는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 13,064가구에 54,47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양주 송씨(楊州宋氏)

양주 송씨의 시조 송도성(宋道成)은 본래 여산 송씨로서 조선개국 초에 장악원정을 역임하고, 양주에 정착 세거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여산 송씨에서 분적하여 양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선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한 동윤이 봉상시 직장을 거쳐 성균과 전적, 직강 등을 지낸 후 병조좌랑, 예조정랑을 역임하고 1789년(정조 13) 사헌부 감찰, 찰방 등을 지냈다.

한말에 와서는 독립운동가로 이름난 영호와 재호가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가문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200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360가구 1,09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희소 성본이다.

(4) 양주 윤씨(楊州尹氏)

양주윤씨(楊州尹氏)의 시조는 고려시대 삼중대광(三重大匡) 도침의정승(都僉議政承)을 역임한 윤승(尹崇)이다. 그의 선계(先系)는 문헌이 실전되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양주에 정착한 사족(士族)으로 전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양주로 하여 세계를 이어 왔다.

윤승의 아들은 관전의시사(判典儀寺事)를 역임한 윤덕방(尹德方)이다. 한편 《조선씨족통보》에 의하면 양주윤씨의 시조는 윤덕방이며, 그는 윤승의 아들이 아닌 후손으로 되어있다. 그렇다고 해도 양주윤씨가 윤승으로부터 세계(世系)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양주윤씨는 253가구 총 836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5) 양주 조씨(楊州趙氏)

양주 조씨(楊州趙氏)의 시조 조잠(趙岑)은 고려 때 양주호장(楊州戶長)을 역임하고 판중주부사(判中樞府事)에 추증되었다. 문헌이 실전되어 선계를 상고할 수 없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따르면 고려 때 사람인 조군우(趙君祐)의 손자이며, 조정질(趙景質)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다. 1453년(단종 1)에 계유정란(癸酉靖難) 때 피해를 입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 후 후손들이 번성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워 그를 시조로 삼고 양주(楊州)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시조의 증손대에서 4개 파로 나뉘어졌다.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을 지낸 조계생(趙啓生)을 파조로 하는 정평공파(靖平公派), 강화부사(江華副使)를 지낸 조유중(趙惟中)의 강화공파(江華公派),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낸 조말생(趙末生)의 문강공파(文剛公派), 보문각제학(寶文閣提學)을 지낸 조종생(趙從生)의 제학공파(提學公派)로 나뉘어졌다.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양주 조씨는 7,437가구 총 23,942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6) 양주 최씨(楊州崔氏)

양주최씨(楊州崔氏) 시조는 최억(崔億)으로 자는 원가(遠可), 호는 청계(淸溪)이고, 소벌도리(蘇伐都利)의 후손이다. 고려시대 태사(太師)와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다. 1353년(공민왕

2)에 양주군(楊州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양주로 삼아 세계를 이어 오고 있다.

정언공파(正言公派), 호은공파(湖隱公派), 참판공파(參判公派), 진사공파(進士公派), 승지공파(承旨公派)로 분류되고,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양주최씨는 1,205가구 중 3,892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7) 양주 진씨(陳氏)

여양 진씨(驪陽 陳氏)의 성씨 유래에 보면

시조는 진충후(陳寵厚)인데 고려 인종 때의 장군이다.

고려 예종조에 호분위 대장군을 지내고,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을 토평하는데 공을 세워 신오위 대장군에 오르고 여양군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여양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면서 나주, 강릉, 삼척, 홍덕, 양주, 덕창 등으로 분적되어 각각 본관을 달리 사용해 오다가, 모두가 충후를 시조로 하는 동원분파이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여양으로 합보하여 나주, 강릉, 삼척과로 통일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양주 진씨는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8) 양주 한씨(韓氏)

청주 한씨 쪽의 설명에 의하면

“시조 한란(蘭, 태위공)은 고려 태조가 견훤을 정벌하려고 그의 집 앞을 지날 때 칼을 차고 나가 종군하여 삼한통합의 공을 세우고 삼중대광 문하대위가 되고 개국벽상공신에 서훈되었다.

‘한씨세보’에 의하면 한란은 기자(箕子)의 후손이라고 하였으며 한씨는 기자의 31세손 준왕(準王.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와 금마(현 익산)에 마한을 세우고 스스로 한 왕이라 하고 위만에게 억류된 왕자 및 친족이 성을 한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준왕 이전에 한씨로 하였다고 한다.

마한 말기의 원왕에게 세 형제가 있었는데 마한이 망하자 우평(友平)은 고구려에서 ‘태원선우씨(太原 鮮于氏)’, 우성(友誠)은 백제에서 ‘행주 기씨(幸州 奇氏)’, 우량(友諒)은 신라에서 ‘청주 한씨(淸州 韓氏)’가 되었다고 한다.

시조 한란은 우경의 31세손인 한지원에게 한만, 한간, 한란, 한영 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 셋째 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주 한씨에서

5세손 한후저는 평산 한씨, 6세손 한원서는 한양 한씨, 8세손 한란경은 양주 한씨,

9세손 한연은 안변 한씨, 9세손 한자희는 면천 한씨, 9세손 회유는 가주 한씨,

10세손 한공서는 당진 한씨, 10세손 한이는 부안 한씨, 11세손 한유충은 대흥 한씨,

14세손 한진은 보안 한씨, 15세손 한돈은 금산 한씨로 되었으며,

9세손 한악의 후손인 한승정은 서원 한씨, 9세손 세영의 후손 중 한규지는 장단 한씨, 한익지는 함흥 한씨, 한혁지는 교하 한씨, 시조인 한란의 후손 한충례는 단주 한씨로 각각 분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란의 아버지 우경의 후손으로 전하나 확실한 계대를 알 수 없는 한우신(신평한씨), 한세찬(탐진 한씨), 한종희(대구 한씨), 한예(곡산 한씨), 한세침(보령 한씨) 등을 1세 조상으로 하는 계통이 있으나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며 대부분 합본했다고 한다.¹⁾

라고 되어 있어 양주 한씨 역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 입항하여 세거 문중을 형성하는 요인은 대개 서울과의 거리적 인접성, 들짜는 넉넉한 경제적 여건, 그리고 육운과 수운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분석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패지에 집성촌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정부 장암동의 반남 박씨 세거지와 동두천 지역의 충주 어씨 세거지 등이 이 예에 속한다.²⁾

이들 양주 지역의 세거 문중들은 지역이 한양에 근접하여 있다는 이점과 우수한 가문의 문중 퇴관을 활용하여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 대거 환로(宦路)에 나아가게 된다.

사마방목에 나타나는 과거 합격자를 분석하면 이곳 양주 지역의 세거 가문이 다량의 합격

1) 집성촌의 분포와 입지조건 p50-51, 정만조 등 공저, <조선시대 경기북부 지역의 집성촌과 토족>, 2004년 국민대학교 출판부

2) 의정부 장암동의 반남 박씨 사패지는 인조반정 3등 공신인 박정에게 내려진 사패지로 이후 박정의 아들 박세당이 여기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현재도 이 지역의 광대한 토지가 반남 박씨 문중 소유로 남아있다.

동두천의 어유소 사패지는 그가 이시애의 난과 야인 정벌에 남긴 공적으로 성종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자료가 실전되어 그 자세한 지역과 규모는 알 수 없다. 단 동두천시 상패동과 이에 인접한 양주시 현현면 하패리 등의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있고, 실록에 어유소의 농장이 여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를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과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2) 거주지 별 생원, 진사 합격자 수

순위	거주지 별	합격자 총수	순위	거주지 별	합격자 총수
1	서울	14,337	9	전주	431
2	안동	783	10	남원	382
3	개성	559	11	해주	369
4	원주	535	12	청주	356
5	평양	529	13	양주	350
6	충주	515	14	광주(廣州)	345
7	상주	470	15	선산	328
8	공주	455			

※ 표3) 거주지 별 문과 합격자수

순위	거주지 별	합격자 총수	순위	거주지 별	합격자 총수
1	서울	1620	9	함흥	54
2	정주(定州)	178	10	광주(廣州)	50
3	안동	94	11	남원	41
4	평양	65	12	안주	40
5	상주	64	13	공주	38
6	양주	58	14	원주	37
7	충주	56	15	여주	36
8	수원	55			

※ 표4) 거주지 별 무과 합격자 수

순위	거주지 별	합격자 총수	순위	거주지 별	합격자 총수
1	서울	3,022	9	황주	132
2	수원	1,175	10	진위	107
3	광주(廣州)	395	11	양성	100
4	양주	248	12	평양	99
5	여주	242	13	용인	99
6	이천	236	14	강화	95
7	남양	156	15	봉산	92
8	죽산	151			

위의 통계에 나타나는 것처럼 양주 지역의 세거 문중이 차지하는 과거 합격자의 수는 전체 지역을 놓고 볼 때 최상위의 순위를 점거하고 있고 이는 양주 지역 세거 문중의 경제적, 정치적 존재 근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울러 이 지역 세거 가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당파별 집중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지역에도 가문에 따른 당색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영남이나, 호서 지역에서 보이는 집중성은 상대적으로 옅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선 초기 개국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개국파와 수호파가 지역에 병존하고 있고, 이후 치열한 당쟁을 벌인 노, 소론과 함께 남인의 중심 가문도 지역에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³⁾.

결국 양주 지역의 세거 가문은 가문에 따른 당색은 나타나지만 지역적인 당파성은 비교적 옅다고 볼 수 있다. 각종 문헌에 나타나는 양주 지역의 집성촌은 이를 반영하듯 각 당파를 비교적 당야하게 망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조선 개국파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남재와, 수호파의 중심인물인 남을진의 후손이 양주 지역에 병존하며 후손을 이어가고 있고, 의정부에는 길 하나를 사이로 노론 서원인 도봉서원과 소론 서원인 청절사가 마주보고 있으며 연천에는 남인의 영수 허목을 위시한 양천 허씨 문중이 세거하고 있기도 하다.

양주 지역의 명문인 고령 신씨의 동두천 상패동 묘역에는 노론 김상헌이 찬한 신도비와 소론 윤중이 찬한 신도비, 그리고 역시 소론이지만 당색이 비교적 희미했던 박세채가 찬한 신도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기도 하다.

※ 표5) 각종 지리지와 문헌에 나타나는 조선 시대 양주 지역의 집성촌

집성촌의 수	본관별 성씨
1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의성 김씨. 청풍 김씨. 사천 목씨. 여흥 민씨. 고령 박씨. 순창 박씨. 전주 류씨. 평산 신씨. 여산 송씨. 은진 송씨. 진천 송씨. 순흥 안씨. 죽산 안씨, 동복 오씨. 단양 우씨. 기계 유씨. 고성 이씨. 성주 이씨. 연안 이씨. 우계 이씨. 재령 이씨. 청해 이씨. 한산 이씨. 함평 이씨. 경주 임씨. 인동 장씨. 강릉 전씨. 창녕 조씨. 강릉 최씨. 충주 최씨. 양천 허씨. 연주 현씨. 함안 현씨. 평해 황씨.
2	진주 강씨. 강릉 김씨. 광산 김씨. 전주 김씨. 의령 남씨. 반남 박씨. 수원 백씨. 해주 오씨. 원주 원씨. 파평 윤씨. 광주 이씨. 벽진 이씨. 연안 이씨. 전의 이씨. 풍천 임씨. 광주 정씨. 수성 최씨. 전주 최씨. 청주 한씨. 창원 황씨
3	고령 신씨
4	경주 이씨. 경주 정씨.
5	경주 김씨. 해주 최씨.
6	남양 홍씨
9	밀양 박씨
15	김해 김씨
31	전주 이씨

※ 표6) 양주 지역 집성촌의 변천 과정

15세기 이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후
밀양 박	경주 정 재령 이 남양 홍 2 수원 백 풍천 임2 의령 남 경주 김 고령 신 2 반남 박	파평 윤 2 김해 김 2 은진 송 진천 송 광주 이 2 해주 오 전주 류 전주 이 4 우계 이 전주 류	여산 송 전주 이 7 양천 허 청주 한 2 밀양 박 3 고령 신 순천 박 남양 홍 2 경주 이 3 함평 이	전주 이 11 남양 홍 인동 장 김해 김 파평 윤 평산 신 원주 원 해주 최 밀양 박 2 경주 정	전주 이 7 충주 지 해주 최 충주 최 전의 이 2 전주 최 김해 김 4 경주 김 단양 우 파평 윤

		남양 홍 기계 유 강릉 최 청해 이 의령 남 수성 최 안동 권	김해 김 2 영안 이 진주 김 파평 윤 죽산 안 경주 정 진주 강 2 수성 최 광주 정 반남 박 벽진 이 강릉 김 2 경주 김 고령 박 사천 목 여흥 민 광산 김 동북 오 해주 오 평해 황	김해 김 수원 백 창녕 조 연주 현 해주 최 함안 현 창원 황 경주 정 강릉 진 경주 김 전주 최	청풍 김 광산 김 안동 김 전주 김 성주 이 한산 이 경주 이 의성 김 연안 이 고성 이 원주 원
1	12	23	45	32	32

양주 지역의 세거 문중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는 집성촌 현황은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임란 이후의 상황을 주로 반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문이 특히 17세기 이후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세거 가문의 입향 동기를 보면 그 대부분이 어느 정도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이 지역에 전지를 마련한 이후에 입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⁴⁾

이와 같은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표이다.

즉 왕조실록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 세거 문중의 농장들인데 이들 외에도 반정공신 박정의 사패지를 확보하고 있는 반남 박씨나, 연창위에게 내린 농장을 확보하고 있는 죽산 안씨

4) 이와는 달리 의정부 송산 지역의 원주 원씨나, 양주 은현면의 의령 남씨처럼 고려 멸망 후 조선에 출사하지 아니하고 은둔하면서 그 후손들에 의하여 집성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송산의 원주 원씨는 고려말 삼사좌윤을 지낸 원선의 후손이, 양주의 남씨는 남을진의 후손들이 정착한 경우이다. 남을진의 후손에서 후에 세도가 남곤이 나타난다.

등의 경우 역시 이에 해당되는 입향 동기를 공유한다고 하겠다.

※ 표7) 태조실록에서 성종실록까지 사이에 발견되는 양주 지역의 농장 일람

소유자	본관	위치	근거 문헌
완평군(完平君)	전주 이씨	양주	태종실록 권1. 1년 2월 병신조
조박(趙璞)	평양 조씨	양주	태종실록 권 13 7년 6월 계사조
노한(盧閑)	교하 노씨	양주	세종실록 권101, 25년 7월 갑인조
민근(閔謹)	여흥 민씨	양주	문종실록 권4 즉위년 11월 신축조
한보(韓堡)	청주 한씨	양주	성종실록 권61 6년 11월 을묘조
어유소(魚有召)	충주 어씨	경기	성종실록 권113 11년 1월 병신조
안상계(安桑鷄)	죽산 안씨	양주	성종실록 권203 18년 5월 갑자조

대부분의 자료들이 양주를 포괄하여 나타나는데 동두천 지역의 집성촌은 근대에 들어 성씨를 조사하면서 확인된 자료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8) 현지 조사에 나타난 동두천 지역 집성촌의 변화 과정

지역		본관	1934	1953	1990	입향시기	
동두천 (이담면)	보산동	보산리	강릉 김씨	54	80	해체	1670
	내행동	지행리	고령 박씨	27	35	해체	1650
	소요동	하봉암리	진주 강씨		56	해체	1640
	생연1동	생연리	남양 홍씨	50	125	해체	1550
	동안동	안흥리	전주 이씨	28		해체	

이중 보산리의 강릉 김씨 집성촌의 규모를 줄인다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하여 동두천 지역 세거 집성촌의 한 면모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 표9) 동두천 지역의 집성촌의 규모 (강릉 김씨의 경우 1933년 조사)

지역	본관	입향조	입향 시기	호수	동족의 호수	자산가	농가계층	문중 재산	비고
양주 이담면 보산리 뉴산 (紐山)	강릉 김씨	김몽상	1670	44	10	김연주(金演周) 16만 5천원	지주 자작 7 자작 겸 소작 16 소작 21	없음	

2) 동두천시 지역의 세거 문중

동두천 지역은 특히 한국동란을 겪으면서 향토의 정체성을 급격히 상실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근년의 급속한 외지인의 유입과 이에 따른 인구 증가는 이와 같은 향토 문화 파괴를 가속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참여 정부 이래 국방 자주화 정책은 결국 반세기에 걸치는 동두천의 외국군 주둔을 종결시켰고, 이는 이후 동두천 지역의 진로에 대단히 큰 변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동두천은 본래 양주군 이담면이었고 따라서 양주 문화의 한 주요한 구성 인자였다.

분산된 양주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양주 지역 향토 문화 관련자들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아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거 성씨가 동두천 지역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두천 지역의 여러 향토 문중 중 이 지역에 200년 이상을 세거해 온 가문을 기준으로 세거문중을 선정하고 각 문중의 연원과 입향조, 그리고 세거 양상을 추적하여 이를 자료화 하였다.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43개 문중이 산출되었고 이를 각 문중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산 송씨

여산 송씨의 시조 송유익은 고려조에서 진사로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추밀원부사(樞密院府使)에 주증되었으며 그의 4세손이며 중시조인 송례(宋禮)는 고려 원종 때 동덕좌명공신(同德佐命功臣), 문하시중판전리사사(門下侍中判典理司事) 상장군(上將軍)에 지임

(致任)하여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봉해지고 식읍 1천호를 하사받았다.

후손들은 송례를 중시조 1세로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으며 그가 여산군에 봉해졌기 때문에 본관을 여산으로 하였다.

동두천에 세거해온 여산 송씨의 상계는 송례의 손자 송서(宋瑞)로부터 기계(起系)된다.

서(瑞)의 아들이 인번(仁蕃), 인번의 손자가 진생(辰生), 진생의 손자 공손(恭孫)이 조선조에 명문을 연다. 공손의 아들이 질(軼)이다. 질은 1477년 생원시·진사시, 1478년 알성문과, 1482년 진현시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를 지내고 지평에 올랐다. 이때 사저곡(私儲穀)과 제사사(諸寺社)의 장리곡(長利穀)을 조사하여 본주인의 용도 외에는 감봉(監封)하도록 하였다. 1496년 우승지가 되어 왜인들의 불법적인 약재무역을 단속하도록 하였다. 1501년 평안도관찰사 때는 임지성(林之盛)의 변란을 진압하였다. 동지춘추관사와 지의금부사를 겸임하며 풍속을 바르게 하였다. 1513년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에 임명되었으나 탄핵으로 체직되었는데, 시호는 숙정(肅靖)이다. 질의 아들이 지정(之禎 1500-1529)이고 지정의 증손이 탄(坦 1575-1637)이다 그는 동지중추부사로 18년을 재직하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슬기롭게 대처한 인물이다. 동두천 지역의 여산 송씨는 이 탄의 아들 영업(英業)으로부터 계대된다.

영업이 병자호란을 피해 소요산 석굴에 피난하였기에 지금도 그 석굴의 이름을 금송굴이라 한다. 영업의 아들이 각(珏 1660-1718)이다. 구전에 따르면 송각이 정착한 곳이 현재 동두천초등학교 뒤 언덕(송터고개)이라고 전하며 송씨가 살던 터라하여 “송터고개”라고 전한다. 아울러 전 생연3동(어수물) 근방을 이전에는 송터벌이라 하였다.

우리 지역에는 영업으로부터 15대가 계대되었고, 후손 12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하고 현재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인물로 양주시, 포천시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한 송계영(宋係榮)씨가 송각의 10대 손이다. 그라고 탐동 1리 리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송세영이 현재 여산 송씨 종친회장을 맡아 여산 송씨 재실인 송모재(崇慕齋)를 2007년도에 건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의학박사 송완영(宋完榮), 용사역장과 서울역 여객과정을 역임한 서기관 송오영(宋昨榮), 사무관 송국영(宋國榮), OFTA 이사를 맡고있는 공학박사 송요탁(宋堯卓), 육군 소령 송창봉(宋昌奉), 육군 중령 송요승(宋堯丞), 문학박사 송요후(宋堯厚), 그리고 동원클럽 전무로 있는 송태천(宋泰天) 등이 있다.

(2) 충주 어씨

충주 어씨의 시조는 고려조에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어중익(魚重翼)이다

그는 충주 지씨 시조 지경(池鏡)의 고손 지급(池汲)의 아들로 고려의 왕은 그의 겨드랑이에 고기비늘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어(漁)씨로 사성(賜姓)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충주 어씨는 시조 중익으로 부터 누대가 실계 되어 후손 어승진과 어백평을 각각 1세로 하여 계대한다.

동두천시 탑동에 뿌리를 내린 분이 어승진이다. 그는 고려 말 문인으로 학문에만 힘쓴 분으로 조선 개국 후에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아들이 세종 때 광주(廣州) 목사를 지낸 어중연(魚重淵)이고 중연의 아들이 어득해(魚得海 - 자는 여안(汝安))이며 어득해의 아들이 도원수를 지낸 어유소(魚有沼)장군이다. 그는 백근짜리 무거운 활을 들고 다니는 명장이면서 국초 북변 수호의 책임자로 공이 컸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의하면 그가 다시 북병사로 기용되었을 때 노모를 핑계 삼아 사양하니 성종(成宗)은 북변을 편하게 함이 경(卿)보다 나은 이가 없어 그런 것이니 어머니는 걱정 말라면서 어유소의 어머니에게 태후와 동등한 대접을 하도록 하사품을 내렸다고 한다.

오랑캐들과 외교를 진행하면서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 영공을 오시게 한다”고 공갈하면 곧잘 화의를 보았으며 그들은 “정말 어 영공이 오시는가? 오신다면 그는 곧 우리의 아버지이니 만나 뵈 수 있을까?”하며 반가워하였다고 한다.

한편 성종은 어유소와 함께 동두천 어등산에 올라 마침 장공에 뜬 매를 어유소로 하여금 쏘아 떨어뜨리게 하고 이에 성공하자 그의 놀라운 활솜씨에 탄복하여 동두천시 일원을 그에게 사패지로 하사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현재 동두천시에 상패동, 양주시 은현면에 하패리가 있어 그에게 사패지를 주었다는 일화를 지명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동두천 지역에 이 사패지를 표시하는 경계석이 있어 현재 두 기가 동두천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어득해, 어유소 두 부자의 묘소는 현재 미 2사단 주둔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자유롭게 답사나 참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어유소의 사당이 탑동에 위치하고 있다.

어유소의 아들 3형제가 모두 무인으로 출사하였는데, 장자가 효성(孝誠 - 선략장군(宣略將軍))이다. 효성의 아들이 승복이고, 그의 아들이 경하(景河)이다

충주 어씨는 전국에 1천 여세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동두천에 세거한 어승진으로부터 24세가 계대되어 이제는 동두천 어씨처럼 되어 가고 있다.

현재 동두천에는 승진의 후손들이 약 20여 세대 살고 있으며 그의 종손인 어성운(魚性芸)씨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어유소 장군 사당 근처에 충주 어씨의 종종 재실이 새롭게 지어 지고 있다.

(3) 함중 어씨

함중 어씨로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어계장(魚季章)은 시조 어화인(魚化仁)의 16세손이다. 그의 시조 화인은 본래 중국 사람으로 남북조의 난을 피하여 고려에 귀화하여 명종 때(1189) 인장동정(仁長同正)을 지냈다.

그의 아들이 영기(永奇)이고 세종 대의 명신 어변갑(魚變甲)은 영기의 10세손이다.

문효공 어효침(魚孝瞻)은 세종 5년(1423)에 관직에 올라 성종까지 여섯 임금을 섬긴 명신으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는 데도 참여하였으며 세조 9년(1463)에 이조판서에 올라 행정가로서도 명성을 남겼다. 그는 특히 한국인의 기본 철학이었던 도참(圖讖)사상이 빛은 풍수(風水)와 무속에 대해 행동적으로 저항한 인물이었다. 그가 벼슬을 옮겨 다닐 적마다 관아 벼슬이 권한이 미치는 곳에 있는 신당을 모조리 절파해 버린 것은 우리 선조들께서는 흔히 가려 볼 수 없는 사회과학적인 사상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장자 문정공 어세겸(魚世謙)은 문종 1년(1451)에 관직에 나아가 연산군 1년(1495)에는 우의정으로 대제학을 겸직했고, 연산군 2년에 좌의정이 되었으나, 1498년 무오사화로 면직되었다가, 이듬 해 다시 복관되었다. 그의 서손이 바로 한 때 율곡 선생을 가르치기도 한 어숙권(魚叔權)이다 그의 편저로 패관잡기(稗官雜記), 고사촬요(故事撮要)등이 전한다.

문효공의 차남인 양숙공 어세공은 단종 1년(1453) 사마시에, 세조 2년(1456)에 식년 문과에 각각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좌승지로 있다가 세조 13년(1467) 이시애의 난 때 함길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난을 평정하여 적개(敵愾)공신 1등으로 아성군(牙城君)에 봉해졌다. 이후 병조판서를 지내고 예종 1년(1468) 사은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한성 판윤을 지낸 후 뒤에 호조판서로 좌빈객을 겸임하였으며 공조, 형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이 되었고, 경학에 능하여 특진관을 겸했으며 조정의 고문으로서 명성이 높았다.

그의 현손 어계장이 동부 참봉을 지내다 동두천시 송내동에 정착하여 15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르니 계장의 후손이 번창하여 경향 각지에 1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계장의 배위는 정장공 어유소의 손자 예원군 어승복의 딸이다.

어세공(魚世恭 1432-1468)과 어유소는 1467년 길주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반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적개공신에 올라 나란히 봉군되었다. 계장의 아들 익신(翼伸)은 무과로 출세하여 충좌위(忠佐衛) 좌부장에 이르렀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참전하여 전사하였다.

합중 어씨의 애국 일념은 나라가 위태하였을 때 분연히 일어나 살신성인한 어재연(魚在淵) 장군 같은 많은 충신을 배출한 명문가로서 계장의 후손으로 근대에 의정부 읍장과 이담면장을 역임한 어명례(魚命禮)가 있으며, 지역에서 송내리 리장을 지내고, 시 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어윤선(魚允先)이 있다. 어명례의 딸 어경자가 1989년 9월 25일 동두천시 시민의장 지역사회발전 부분을, 그리고 1998년 10월 6일 어윤선이 문화체육장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4) 청송 심씨

청송 심씨의 시조는 고려조에서 문림량을 지낸 심홍부(沈洪孚)이다.

홍부의 증손 덕부(德符 좌정승)는 고려 충숙왕 때 왜구의 침공을 평정하여 충의백(忠義伯)에 봉해 진 인물로 조선 건국 시에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공신이 되었으며 그의 책임 하에 한양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그는 아들 일곱을 두었는데 모두 출사하여 명문을 계승하였다. 아들 중 청송 심문을 이끈 것은 바로 온(溫)이다. 그는 세종대왕의 국구(國舅)이며 태종대 영의정을 지냈다. 아들 회(澮)도 세종 조에서 영의정을 지내 3세가 입상(入相)하는 영예를 누렸다.

동두천에 300여 년간 세거 해온 청송 심씨의 상계는 덕부(德符)이며 넷째 아들 등(登) 인수부윤(仁壽府尹)으로부터 기대한다. 그의 8세손이 원강(元剛 1545-1647 전라병마절도사)이고 원강의 아들이 한걸(漢傑 1563-1631 절제도위)이다

동두천 탑동에 낙향한 언천(彦千 1582-1675)은 한걸의 아들로서 벼슬에서 물러나 산수가 아름다운 이곳에 깊은 뿌리를 내려 현재 14대가 계대되어 후손 40여 세대가 이 고장에 거주

하며 경향 각지에 100여 세대가 분포한다.

후손으로는 단국대학 공학과 교수이며 국립방제연구원 방제 연구관인 공학박사 심기오(沈其五)가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인사로는 종회 회장과 동두천시 노인회회장을 역임한 심석구(沈石求)씨와 지행리 새마을 지도자를 역임하고 성균관 유도회 동두천지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심경식(沈京植)씨, 심석구씨의 자제로 연세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철도공사 전철 총괄부장으로 있는 심규식(沈奎植) 씨와 포스코파워 인사구매담당 부장으로 재직하는 심민식(沈珉植) 씨 등이 있다.

(5) 강릉 김씨

김양남(金揚南)의 호는 일로정(逸老亭)이며 고려 말 공조판서를 역임한 추(鍾)의 아들로서 1382(우왕 8)년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 그는 고려가 망하자 전곡읍 은대3리 반곡에 은일하여 살았는데 조선 태종이 그의 인품을 사모하여 지평(持平)을 제수하는 등 여러 차례 불렀으나 끝내 모두 거절하였다. 현재 고려 말 5충신을 모시고 있는 의정부 송산사에 배향되었다.

김충렬(金忠烈)은 1503(연산군 9)년에 태어나 24세(1525, 중종 20)에 사마시(司馬試)에 등과하여 1531(중종 25)년 다시 문과에 장원급제 하였다. 전적(典籍) 감찰(監察) 을 거쳐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 온 후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 경기(京畿) 도사(都事)를 역임하고 춘추관(春秋館) 편수관(編修官)이 되었다. 그 후 장령(掌令), 사간(司諫)을 거쳐 명종(明宗) 때에는 제주목사, 삭령군수 등을 지냈다.

김연경(金演慶)은 중렬의 아들이며 선조(宣祖) 때 승정원(承政院) 좌부승지(左副承旨)를 지냈으며 김몽상(金夢祥)은 연경의 아들로 인조(仁祖) 때 사직(司直)을 지내다 동두천시 보산동 축동으로 낙향한 인물이다.

김익겸(金益謙)은 몽상의 아들로 학문을 닦아 후학을 길러낸 유명한 성리학자였다.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몽상으로부터 16대가 계대되어 후손들이 150여 세대로 번성하였으며 그 중 70여 세대가 동두천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

활동 중인 후손으로는 양주 향교 전교, 강릉 김씨 판윤공파 종친회장, 양주군 농업협동조합장, 성균관 유도회 동두천지부 고문, 동두천 애향동지회 고문을 지냈으며, 특히 3.1 운동 구국만세운동 주동자이신 홍덕문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자 동지들을 규합하여 소요산 입구에 거액을 회사하여 기념비를 건립하신 김석경(金錫卿)씨가 있다, 그는 또 한시(漢詩)를 즐겨하여 1992년 간송시문집(澗松詩文集)을 발간한 바 있다.

동두천농업협동조합장과 판윤공파 종친회장을 역임한 김진국(金振國)씨, 동두천시 시의회 초대위원으로 시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판윤공파 종친회장 재임 시 안흥동 종중산에 사당인 숭모재(崇慕齋)를 건립한 김성경(金晟卿)씨,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행정학 박사 김욱경(金旭卿)씨, 동두천시 광암동, 보산동 동장을 역임한 김완경(金琬卿)씨, 축구전문기자이면서 현재 한국축구발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덕기(金德起)씨, 현 동두천문화원 부원장인 김춘경(金春卿)씨, 전 안기부 이사관 김진오(金振吾)씨, 신학박사 김국경(金國卿)씨, 기계공학박사 김진수(金振洙)씨,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교수로 있는 물리학 박사 김덕경(金德卿)씨, 이학박사 김홍기(金弘起)씨, 의정부시 녹양동장 김대경(金大卿)씨,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춘천경찰서에 재직하는 경정 김성민(金聖旻)씨, 이학박사 김진관(金振寬)씨, 동두천고등학교 교감김돈경(金敦卿)씨, 중앙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객원 논설위원으로 있는 김진우(金振雨)씨, 한국가스안전공사 춘천지점 부장으로 있는 김진형(金振亨)씨, 그리고 동두천시 생연 3리 이장으로 오래 지역사회에 봉사한 김연무씨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해방 63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으면서 동두천 지역의 강릉 김씨 애국지사인 김연성 선생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였다

성명 · 김연성.

출생지 · 경기 양주군 이담면 축산리

생년월일 : 1870년 5월 5일

사망년월일 : 미상

독립운동지역 · 경기 연천 양주 포천 적성 강원 금화

수형년수 : 사형

공 적 개 요 -

1907년 9월-12월 京畿 楊州 積城郡 등지에서 부하 30-40여명을 이끌고 의병활동을 전개하고 1908년 1월경 일본군과의 전투 후 퇴각하여 忠北 丹陽郡 龍沼洞에서 李강위 義陳에 합류하여 활동하였으며, 동년 가을 경 黃順一의 권유에 따라 義兵召集官으로 활동하고 1909년 1월 京畿 포천, 永平-楊州郡 江原 金化郡에서 부하 30여명을 이끌고 李殷贊義陣 등과 함께 楊州郡 伊淡面에 소재한 축산리(싸리말) 憲兵分遣所를 습격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 지역 한인 헌병보조원들을 회유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동년 3월 黃海 長湍-兎山郡, 京畿 朔寧 抱川郡에서 부하 15명을 이끌고 李殷贊 義陳과 활동하고 동월 楊州郡內 4개 면에서 군자금 모집을 권유하였으며, 4월 京畿 楊州, 麻田郡에서 부하 10여명을 이끌고 활동하였고 년 월 미상에 체포되어 死刑殉國한 사실을 확인됨.

(6) 의령 남씨

의령 남씨의 시조는 고려 충렬왕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남군보(南君甫)이다.

그의 증손 을번(乙番)의 아우가 두문동 현인인 을진(乙珍)이다 그는 사천의 감악산에서 절세하고 살다 죽었다. 조선 숙종(肅宗)이 사천에 서원을 세우고 두문신 조견(趙狷)과 더불어 배향하였는데 정조(正祖)가 이에 정절사(旌節祠)라 이름하고 사액(賜額)하였다.

을번의 아들이 조선 개국 초기의 상신(相臣)이요 개국공신인 남재(南在)이며, 그 남재의 아우가 조선 개국의 일등공신인 은(闇)이다. 은은 조준, 정도전, 윤소종, 조인옥 등 이성계 주대 52인 중의 상위에 자리한 인물이다. 어릴 때부터 성품이 호기롭고 남의 구애를 받지 않았으며 기묘한 계책을 좋아했다고 전한다.

의령 남씨 인맥은 남재 계보와 남은 계보로 대별된다.

남재는 그의 손자 남휘(南暉), 남지(南智 좌의정) 그리고 5대손인 남효은, 11세손인 남용의 등 네 지맥으로 다시 갈라선다. 남휘 인맥은 그의 손자 남이(南怡 병조판서)의 죽음에서 그치고, 남지 인맥이 번성하여 많은 현신과 학자를 배출시켜 시대의 명문으로 부상한다.

우리 지역에 분포하는 의령 남씨의 상계는 사천백(沙川伯) 을진(乙珍)에서부터 계대되어

500여 년을 세거해 온 토족으로 동두천 관내에만 40여 세대가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 출신 인사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공학박사 남영일(南永日)씨와 동두천 부시장과 연천군수를 역임한 남상훈 씨,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남부희 씨, 강원도청 산하 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남상현 씨, 환경청 중앙환경조정위원회 위원장 남재우 씨, 경희대 체육행정학과에서 강의하는 남성우 씨, 동두천시 기획감사관을 역임한 남상호 부이사관, 동두천시 세무과장을 역임한 남재희 서기관, 소요동 동장을 역임한 남상은 씨, 그리고 동두천시에서 계장으로 퇴임한 남도희 씨 등이 있다 .

(7) 여흥 민씨

여흥 민씨는 시조 민칭도(閔稱道 상량봉어(尙良奉御))의 증손인 민영모(閔令謀 고려 명종 조 평의사) 의 두 아들 민식(閔湜 상서)과 민공규(閔公珪)에 의해 그 인맥이 대별된다.

민식의 인맥은 식의 증손 민지(閔漬)이다 그는 원나라와 고려 사이의 외교에 공이 컸고, 본조강목(本朝綱目) 전 24권을 남겼으며 불교를 좋아하여 북한산 서암사(지금은 없다)에 은거하여 노후를 지냈다.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왕을 방문한 원의 한림학사가 왕에게 묻기를 “고려의 시조이며 왕의 선조인 왕건이 당나라 숙종의 후예라고 한다는 데 이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하였다. 이는 고려사에 태조 왕건의 아버지 작제건이 당나라 숙종의 딸에게서 태어 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의 근거를 물은 것이다. 아울러 당나라 숙종은 어려서부터 궁궐이 있는 장안을 떠나 본 적이 없으며 안록산의 난을 당하여 영무(靈武)에서 즉위하였으니 어느 겨를에 고려에 유람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는가를 물은 것이다.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는 충선왕을 곁에 모시고 섰던 민지가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고려사의 기록은 사실 잘못 된 것입니다. 작제건의 아버지는 숙종이 아니라 선종입니다” 라고 하니 그 한림학사도 “선종이라면 오랫동안 동방에서 고생한 바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수긍하였다고 한다. 이는 민지가 경사에 두루 뛰어 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지의 두 아들이 민상정(閔祥正 찬성), 민상백(閔祥伯 상신)인데 이 상백으로부터 다시 명맥이 이어진다. 상백의 두 아들이 민현(閔泫 도평의), 민선(閔璿 판서)이고 현의 아들이 민여익(閔汝翼 개국공신 판서), 선의 아들이 민유의(閔由誼)이며 유의의 증손이 민효중(閔孝肅

찬성 공신), 효종의 증손이 민몽룡(閔夢龍 우찬성)과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호종한 절신 민형남, 형남의 아들이 민여진이다. 다시 소급하여 현의 아들이 민수천이다

동두천 상패동의 여흥 민씨 상계는 여익의 둘째 아들 민화(閔和)로부터 계대한다. 화의 아들이 민안손이고 안손의 아들이 수복이다

수복의 증손 민근서의 3자 민홍이 동두천 상패동에 낙향하여 깊은 뿌리를 내린다. 홍(泓)으로부터 14대가 계대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동두천 관내에 30여 세대 거주하며 경향 각지에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8) 고령 박씨

고령 박씨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29대 손 경명왕(景明王)의 제 2자 고양대군(高陽大君) 박언성을 시조로 하고 본관은 고양(高陽)과 영천(靈川) 두 지명의 첫 글자를 합쳐서 고령이라 하였다.

고령 박씨는 고양대군의 후손 3형제가 사인공파(섭) / 부창정공파(환) / 주부공파(연)을 각각 중조로 하는 3파를 형성하였다.

명문을 대계한 호장 박인황의 현손이 박지순(朴之順)이며, 지순의 8세 손이 교하 현감을 지낸 박수림(朴秀林)이고, 수림의 손자가 박은(朴闇)으로 좌의정 신용개의 사위이다. 박은의 아들이 박인량(朴仁亮)이고 재종손은 선조(宣祖) 조의 명신 박점, 현손은 역사 선조조의 명신 박경업(朴慶業)이다.

수림의 7세손이 박장원이고 장원의 현손이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朴文秀)이다. 그는 함경도 수재민을 구호한 공적으로 최근까지 그의 공덕비가 함흥 만세교 앞에 남아 있었고 아울러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 데도 큰 공을 세웠다. 문수의 현손이 박영보이고 철종 때 상신인 박영원은 장원의 7세 손이며 영원의 아들이 박도빈(朴道彬)이다.

전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대한제국의 사과(司果)를 지낸 박성빈(朴成彬)의 아들로 중시조 박인황의 28세손이다.

고령 박씨의 명맥을 이끈 박수림의 7세손인 박장휘는 장사랑 동몽교관을 지내고 동두천시 사당골에 뿌리를 내렸다. 그의 아들이 박만(朴鑣)이고 만의 차자 박보한(朴保漢)은 영조 1년(1725)에 행단에서 태어나 무과에 출사하고 승진하여 부호군 절충장군을 지내다 노년에 귀

향하여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 고장에 뿌리를 내린 박장휘로부터 자손이 번창하였고, 그 후손이 12세가 계대되어 오늘날엔 30여 세대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인물로는 고려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에 유학하여 텍사스주 오스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있는 박통희가 있고, 지역 사회 발전에 매진해 온 박영빈과 지행 2리 이장을 역임한 박양희, 지행 1리 이장을 역임한 박이빈, 역시 이장을 역임한 박찬희, 어수동 역장을 역임한 박춘빈, 그리고 육군 대위로 예편하여 지역에 헌신하고 있는 박동빈 등이 있다.

(9) 반남 박씨

우리나라의 모든 박씨는 관향을 구별할 것 없이 신라의 시조왕 박혁거세를 유일조로 받들고 있다. 반남 박씨 시조 응주(應珠) 또한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상계가 실취되어 혈연 계보를 밝힐 수 없으나 반남(潘南 - 나주의 속현)에 세거하던 호족의 후예로서 호장(戶長)을 지냈다.

그의 6세손 박은(朴闇)이 조선 초기 왕자의 난 당시 태종을 도와 익재동덕좌명공신으로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반남군에 봉해졌다가 금천부원군에 진봉되었으므로 후손들이 응주를 선조 1세로 하고 본관을 반남으로 하여 계대되고 있다. 반남 박씨는 모든 박씨 중에 가장 많은 명신 현유를 배출한 혈통으로 11개 파가 크게 나누어졌고, 많은 분파 지파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동두천 지역에 누대를 세거한 반남 박씨의 상계는 박은(朴闇 1370-1422)의 장자 규(葵 예조판서)로부터 계대한다. 그의 아들은 병문(秉文)이고 병문의 아들이 박임종(朴林宗 상주목사)이며 그의 현손이 명종 때 도정(都正)을 지낸 응인(應寅)이다.

동두천에 응인의 현손 태기(泰期)가 낙향하여 12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르며 후손 2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한다.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 인사로는 동두천 초대 우체국장을 지낸 박윤양(朴允陽)과 1961년 무장간첩 수색작전 중에 순직한 박인양(朴麟陽)이 있는데 모두 태기의 8세 손이다. 그리고 동두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에 평생을 바쳐 온 박승돈 교감,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을 거쳐 연세대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획득하고 현재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로 있는 박광서, 동두천 시청 총무과 시정계장으로 있는 박승조가 있다.

2) 동두천 보산동 축촌(杻村)에 뿌리를 내린 만남 박씨 상계는 응주(應珠)의 13대 손 박혁(朴赫)이 양주시 회천읍으로 낙향하여 세거하면서 축촌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

현재 동두천 지역에는 낙향조 필구(弼求)로부터 10대가 계대되었고, 후손들의 분포는 경향 각지에 50여 세대, 동두천 지역에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지역 유지로는 고양식당을 운영하던 박한서(朴漢緒)씨와 고 박승화씨가 있다.

(10) 함양 박씨

박씨는 우리나라의 많은 성씨 가운데서 유일하게 귀화족이 없는 가정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성씨로서 신라의 시조왕인 박혁거세를 유일한 시조로 하여 모두 한 뿌리에 근원을 두고 있다.

함양 박씨의 시조 언신(彦信)은 박혁거세의 29세 손인 경명왕(景明王)의 8대군 중 셋째 아들이다. 드러나 이후에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 중엽 예부상서를 지냈으며 함양군에 봉해진 선(善)을 증시조로 하고 함양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함양 박씨는 고려 조에 매우 번성하였는데 선(善) 이후로 의종 때 인정(仁挺), 명종 대의 신정(信情), 윤정(允情), 등 3대에 걸쳐 예부상서를 배출했으며 무장으로 이부상서를 거쳐 의전군에 봉해진 신유 등이 뛰어났다.

또한 조선 선조 때 이조판서를 거쳐 좌찬성을 지낸 대립(大立)은 명필로 이름을 떨친 세영(世榮)의 아들이며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지은 세무(世茂)와 직언을 잘했던 이조참의 세옹(世翁)은 형제지간이다.

동두천에 뿌리내린 함양 박씨의 상계는 시조 박선의 15세 손 세옹(世翁 1493-1541)으로 그의 자는 경운(景雲), 호는 진수정(眞水亭)이다. 세옹의 손자가 수암(守庵) 박기화(朴妓華)의 수제자로 임진왜란 당시 선조(宣祖)를 의주까지 호송한 박재신, 그 박재신의 아들이 풍덕군수를 지낸 재신(再新 1682-1751)은 유관의 5세손이다. 재신의 아들이 태옹인데 그가 우리 지역으로 낙향하여 지손을 번창시킨다. 태화(台樞)의 장자가 현좌(顯佐), 차자가 현우(顯佑)이다. 현우의 고손이 동익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함양 박씨는 낙향조 태화(台樞)로부터 10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르며 그의후손이 경향 각지에 20여 세대이고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완희는 동익의 넷째 아들이다.

(11) 온양 방씨

온양 방씨의 선 시조는 나당동맹의 문화사절로 신라에 온 방지(한림학사)이다

불교 전성시대인 신라에서 유학은 이단 학문이며 유학체계 수립은 국사(國史) 상 우수한 혁명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이다. 혁명적인 학문 작업을 설총과 더불어 해낸 이가 동방 유학의 거유 방지이다,

그 후 자손들이 상주에 세거했기 때문에 본관을 상주로 하여 오다가 그의 6세손 방운(복사)이 고려 개국 때의 군공으로 온수군에 봉해졌기 때문에 온양으로 개관하게 되었으며 방운을 기1세로 대계를 이어오고 있다.

온양 방씨는 고려조에서 우수한 명맥을 잇고 있는데, 방운의 후로 방중탁(方仲鐸 복사정장), 방휴(方休 명장), 방유(方裕 평장사), 방재(方宰 대장군), 방휘진(方諱進 상서령), 방우선(方于宣 정당문학), 방서(方曙 판도판서), 방신우(方臣祐 원나라 평장사), 방신제(方臣悌) 등이 문무로 방문을 더욱 번창시킨다.

방신제가 중국 소주에 이주하여 살면서 퍼뜨린 그의 6세손이 중국 유학사의 백미(白眉)인 거학 방효유(方孝儒 명 한림학사)이다.

대륙에 진출한 한국인으로서 황제는 금(金)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재상(宰相)은 김상명(金相明), 장수는 이여송(李如松)이라면 학자는 바로 방효유(方孝儒)이다.

명나라 연왕(燕王 나중에 성조 영락제)이 반란을 일으켜 그 조카를 죽이고 서울을 빼앗아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달레고 설득하는 연왕을 향하여 방효유는 붓을 들어 <연(燕)의 도둑이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다 (燕賊篡位)>라 크게 써 던지고 옥을 하며 통곡하였다. 그런 연유로 사상 보기 드문 처참한 보복이 시중에서 공개 집행되었는데, 방효유의 친계(親系), 모계(母系), 처계(妻系), 문하(門下), 붕우(朋友) 등 모두 873명이 책형(磔刑)을 당하였다. 집단 책형에도 그의 마음은 변함아 없었으며 이는 중국에서 그의 비종과 의로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의 아우 방효유(方孝有)가 화를 입으면서도 형님의 녀과 함께 동국(東國)으로 돌아가 선영(先塋) 하에 안식한다는 망향(望鄉) 기도시를 남겼는데 그 진품 도서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동두천에 850년간이나 세거해 온 온양 방씨의 입향조는 방휘진으로 고려 의종 때 상서령(尙書令)을 지내고 명종 7년(1177)에 지행동(紙杏洞)에 묻히면서 그 뿌리가 크게 번창하였다.

휘진의 증손이 방우선(方于宣 정당문학), 우선의 아들이 방서(方曙 장헌공), 방현(方玄 중서령), 방훤(方暄 안렴사) 방적(方迪 군위군)이다

다시 방현의 아들이 지주(枝株)이고 지주의 손자가 천주(千株), 천주의 현손이 생연 1동에 묻혀있는 방륜(方輪 병마절도사)이다

이렇듯 이 고장에는 방휘진으로 부터 26대가 계대된 가장 오래된 토착 성씨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 후손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경향 각지에 2만여 세대가 산재한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유명 인사로는 방제환 전 동두천 시장이 있다.

(12) 전주 이씨

전주 이씨의 시조는 신라 때의 인물인 이한(李翰)이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는 시조 한(翰)의 21대 손이다. 전주 이씨의 분파는 공칭 122파로서 대부분 왕자를 파의 시조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파는 시대 구분에 따라 세 갈래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태조의 고조부인 목조(穆祖)의 상계에서 갈라진 파, 또 하나는 목조 이후 태조 이전의 파, 세 번 째는 태조의 후손으로 왕자를 파조로 하는 파이다.

목조 이전의 분파로는 문하시중공파, 평장공파, 주부동정공파, 문하평리공파 등이 있고, 목조 이후 태조 이전의 분파는 18개 파가 있으며 한편 태조의 후손 분파는 일반적으로 99파 25대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취졸(未娶卒), 혹은 무후(無后)의 왕자가 20 여명 가까이 됨으로 실제로는 그 수가 훨씬 줄어든다. 결국 모든 분파는 100파가 미달하는 것으로 본다.

전주 이씨는 파별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2,379,000명을 헤아릴 수 있다.

우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전주 이씨도 무려 1,321호(5,212명)로 각동에 거의 분포되어 있으며 300년 이상 뿌리를 내려 온 성씨로 자처하는 7개 과가 있다.

① 송내동의 주부동정파

송내동에서 10대를 세거해 온 전주 이씨의 상계는 시조 이한의 18세 손 이영습(李英襲)으로 계대한다. 영습의 증손 이세분(李世芬)은 조선 개국에 협력하여 예조판서를 지냈고, 그의 아들 중배(仲培)두 이조판서를 지내는 등 부자 상신이 배출되었고, 그 손자는 단종 때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를 지낸 소생(紹生 호는 우계당)이다. 그는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내몰고 와우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충청도 예산으로 낙향하여 은둔하였다. 그러나 처남인 서거정이 수차례 찾아와 출사(出仕)를 거듭 권하자 자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도리를 내버릴 수 없다하여 끝내 사양하고 부득이 아들 3형제만을 출사시켰으니 큰 아들 열(冽 행 흥덕현감), 둘째 연(演 행 안주목사) 셋째 준(浚)이 바로 그들이다

열의 손자가 우(瑀 1483-1536)인데 그는 성종 때 1현 3군 4부 1목의 목민관을 지냈으며 안동도호부사(安東都護府使)를 지낼 때 선정비가 세워지기도 한 인물이었다.

이우는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셋째 아들이 신표(慎孝)이고 신표의 아들 담(談)은 효로 임사하여 옥천군수를 지냈는데 청백선치하여 청덕비(淸德碑)가 세워진 유능한 행정가였다

담의 아들이 영식(永式 진주목사)이고 숙종 때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서(胥)는 영식의 증손이다.

동두천 송내동에 뿌리를 내린 문규는 서의 증손이며 그 후로 10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동두천에는 그의 후손이 20여 세대 거주하고 있으며 경향 각지에 10여 세대가 분포하고 있다. 현재 문중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이사로 있는 이회중이 있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이현오, 양주시 총무과장 이진규, 동두천시 기획감사실 법무담당 이호연 등이 있다.

② 상패동의 덕천군파

상패동 부곡에서 누대를 세거해 온 전주 이씨의 상계는 조선 제2대 임금인 정종의 열째 아들 덕천군(德泉君 휘 후생)의 넷째 아들 송림군(松林君 휘 효창)에서부터 계대한다.

송림군의 차자가 안현군(安賢君)이고, 그의 8째 아들 연천부정(漣川副正 휘 상경)이 이곳

으로 입향하여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의 아들 온(蘊)과 진(蓋) 형제를 두었고 온의 아들이 경휘(慶輝)인데 그도 아들 역(櫟)과 주(株) 형제를 낳아 자손을 번성 시켰다. 역의 현손이 담(澁)이고 담의 증손이 복원(馥遠 1835-1891)이다.

우리지역에는 연천부정 상경으로부터 15대가 계대되었고, 후손 20여 세대가 거주하며 경향 각지에 30여 세대가 분포한다.

이 지역의 인물로는 덕천군파의 종손인 이용하와 그의 아들 농학박사 이은섭, 그리고 종종 일을 맡고 있는 이은성씨가 있다.

③ 지행동의 효령대군파

지행동에 250여 년째 세거해 온 전주 이씨 효령대군(휘는 보)의 12대손 이장혁(李鏘赫)이 지행동에 정착하여 세거하면서 명문을 연다. 장혁의 현손인 이회룡(李會龍)은 고종 8년(1871) 종친과에 등과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에 올라 가업을 이었고, 그 후손이 번창하여 9대가 계대되어 지행동에 15세대가 거주하며 경향 각지에는 20여 세대가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인물로는 초대 이담면 의회의원을 역임한 이기봉, 공직생활을 하던 이장진이 있고, 지행 1리 이장을 역임한 이기학, 새마을 지도자를 오랫동안 역임하고 현재 궁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강주, 소요산악회 회장과 종친회 총무를 맡고있는 이경원, 공학박사로 삼성에 근무하는 이강석, 문학박사 이강건, 공학박사 이수정, 육군 소령으로 제대한 이강전,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이강혁 등이 있다.

아울러 지행 2리 새마을 지도자를 오래 역임하고 1996년 10월 5일 동두천시 시민의장 새마을장을 수상한 이덕재 씨등이 있다

④ 탑동의 무림군파.

탑동 조산마을에 15대를 세거해 온 전주 인맥의 상계는 정종 제15왕자 무림군의 6세손인 이달준(李達俊 1586-1669)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는 선조 18년에 태어나 광해군 4년(1612) 별시 문과에 응시하여 충의교위에 올랐으나 학문에만 뜻을 두고 관직에서 물러나 산수와 경계가 아름다운 탑동으로 낙향하여 후진 교육에 전념하다 세상을 떠났다. 자손들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에다 묘를 쓰고 지관의 말에 따라 묘 앞을 돌구었다

고 한다 (조산(造山)의 유래) 이후 현손 대에 5형제가 번성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7세 손 이 중건이 고종 조에서 어영대장을 지내 명문을 계승하여 갔다.

입향조인 이달준의 후손이 이제는 300여 세대로 번창하였고, 조산마을에도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후손 중에 주요 인물로는 1873년 탐동 조산에서 출생하여 1908년 정용대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포천, 영평, 등지에서 일본군과 투쟁을 전개하다 1910년 일본군에게 잡혀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평생을 장애자로 사신 애국지사 이병하(李秉夏) 선생이 무림군의 15대 손이고, 성균관 유도회 동두천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홍묵씨 등이 있다.

⑤ 동두천동의 전성군파

동두천동에 13대째 세거해 온 전주이씨의 상계는 효령대군의 3자 보성군(寶城君) 합(合)에서 시작된다. 합의 차자 울원군(栗元君) 종(宗)의 손자가 전성군(田城君) 대(對)이다. 대의 7자가 박(樸)이고 그의 5대 손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석령(錫齡), 석령의 아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이중경(李重庚)이다.

공조판서를 지낸 그가 말년에 정자를 짓고 정호(亭號)를 가정자(柯亭子)라 한 것에 연유되어 이곳을 가정자(동두천의 옛 지명)라 불렀다. 이경중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이후 세계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장자 명오(明吾), 차자 장오(章吾)의 후손들이 경향 각지에 분포하여 살고 있다.

중요 인사로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동두천지부장과 동두천 전주 이씨 종친회 회장을 역임하고 1988년 “소요산”이란 제목의 사진집을 발간한 이필성씨가 있다. 그 손자 이은성씨가 형제 불고기 식당을 경영 중이다

이필성씨는 1997년 동두천 시민의장 문화의 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⑥ 안흥동의 장천군파

안흥동에서 350년간 세거해 온 전주 이씨의 상계는 조선 2대 임금의 정종의 13자 장천군(長川君)에서부터 계대한다. 장천군(長川君 휘는 보생 시호는 공소공)의 장자가 형(炯) 악림군, 차자가 혼(混 악양부정), 삼자가 석동(石童 삼양부정)이다

안흥동 산87번지에는 이장해 온 혼의 묘가 있다. 이곳에는 6세손 덕룡(德龍)이 1636년 병자호란을 피해 안흥동에 정착하여 세거하게 되었다. 덕룡의 아들이 홍익(弘益)이고 그의 아들이 군자감정을 지낸 김이다. 김이 3형제를 두었는데 장자가 경립(慶立), 차자가 경춘(慶春) 3자가 이춘(以春)이다. 우리 고장에서 악양부정 혼의 자손이 번창하게 된 것은 경립의 아들 5형제로 장자 만기(萬杞), 차자 천기(千杞), 3자 백기(白杞), 4자 성기(聖杞), 5자 상기(尙杞)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입향조로 부터 15대가 계대되었고, 후손 20여 호가 안흥의 한 마을을 이루었다. 경향 각지에 50여 세대가 분포한다.

근대의 인물로는 석천(石泉) 이덕형(李德亨)이 한학자로 이름을 남겼다. 59년에 이정남씨, 61년에 이재수씨, 61년에 이정현씨, 79년에 이의열 씨, 80년에 이재필씨가 각각 이장으로 수고하셨고 현재 이재합씨가 종친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⑦ 상패동의 동양정공파

상패동 인곡에 12대째 세거해 온 전주 이씨의 상계는 효령대군의 손자 동양정(東陽正) 이서(李徐)에서부터 계대된다.

서의아들이 강성도정(江城都正) 견손(堅孫)이고, 그의 아들이 효손(孝孫)이다. 효손의 현손이 창마(昌麻), 그의 아들 태영(太永 1663-1725)이 상패동에 정착하였다.

태영으로부터 현손 대길(大吉)까지 5대를 독자로 이어 내려오다가 대길이 아들 형제 회만(會晩), 회석(會錫)을 낳고 회만도 현재 택우(澤宇), 서우(瑞宇)를 두었다. 서우의 아들이 존의(存儀)인데 그가 아들 3형제 기선(起善), 기환(起煥), 기복(起福) 등을 두어 자손이 번성하였다.

전 동두천시 의회 의원인 이강준(李康俊)은 택우의 증손이다 우리 지역에는 입향조 태영의 후손 20여 세대가 거주한다.

이강준이 동두천시 2대, 3대 의원을 역임하였고, 공군 소령으로 전역한 이유재, 공군 소령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순훈 등이 있다.

⑧ 지행동의 영산군파

지행동의 영산군(寧山君)파는 성종의 13남 영산군이 파조이며 현재 영산군의 13대손이 이

곳에 거주하고 있다.

시조에서부터 41세이고 태조로부터 20세손인 영산군의 손자 영풍군의 묘가 회천읍 옥정리에 있고, 6, 7, 8, 9세조의 묘는 연천군 전곡읍에 있으며, 6세 조모의 묘가 지행동에 있다.

현재까지 10대가 계대하여 세거하고 있으며 지행동의 15가구를 비롯, 생골의 이창득씨를 포함한 여러 세대와 함께 연천 등 경향 각지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의 인사로는 지행2리 이장을 각각 역임한 이채빈씨와 이채영씨가 있으며 경기도 도의원을 역임한 이익훈씨가 있다. 동두천시 의용소방대장, 동두천시 예총회장, 동두내 옛소리 보존회 회장을 역임하고 1986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이채혁씨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복진하여 압록강 가에 이르러 그 물을 마시고 온 경력이 있고, 전주 이씨 동두천시 종친 회장을 맡고 있으며, 1998년 동두천 시민의장 향토애향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13) 파평 윤씨

고려 삼한 통합의 개국공신이며 태사인 파평 윤씨 시조 윤신달의 현손이 고려 명장 윤관이다

윤관의 다섯 아들 윤언인, 언순, 언신, 언이, 언귀 중 두 명은 중이 되었고 윤언이는 전공이 커 고려 희종 조에 정당문학의 벼슬에 올랐다. 언이의 아들이 윤인침, 인침의 손자가 윤자연, 자연의 손자가 윤지호, 지호의 9세손이 윤천보, 천보의 7세손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윤근이다.

다시 윤언이의 5세손이 윤보, 보의 아들이 윤비, 비의 증손이 윤승순과 윤승례다

동두천 송내동에 세거해 온 파평 윤씨의 상계는 윤승순의 아들 윤곤부터 계대한다. 곤의 아들이 회제이고 회제의 아들이 윤배, 윤배의 아들이 윤탁이고 윤탁의 손자가 윤시인데 송내동으로 입향하여 뿌리를 내린 이가 윤시의 현손 원석이다

동두천에는 원석으로부터 9대가 계대된다.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이 20여 세대이고 경향 각지에 40여 세대가 분포한다.

현재 문중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전 애향동지회장 윤학병과 양주군 당시 동두천 보산파출소장을 역임한 윤상섭이 있다.

(14) 해평 윤씨

해평 윤씨의 시조는 고려 고종 때 대부인 윤군정(尹君正)이고 시조의 손자가 윤석(尹碩), 석의 5세손이 윤정명(尹廷命 태조의 부마)이고 중종조의 상신 윤은보(尹殷輔 영의정)는 석의 7세손이다. 은보의 형이 은필(殷弼 이조참판)이고 북관정벌에 공을 세운 선조 때의 상신 윤승훈(尹承勳 영의정)은 은필의 손자다.

다시 소급하여 석의 8세손이 정암 조광조 문하의 학자 윤변(尹忭 군자감) 변의 아들이 해평 윤씨 인맥의 근간을 이루는 선조 때의 명신 윤두수(尹斗壽 영의정, 공신)다 그는 평소에 어린 아이와도 곧잘 친해 질 만큼 말이나 웃음소리가 순박하고 화기가 넘쳤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임금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준엄한 직언으로 유명하다. 그가 어전회의에서 직언을 할 때면 먼저 사관에게 “붓을 바로 잡으라”고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 상습이었다. 이 말만 튀어나오면 임금이며 조신들의 안색이 변했다 한다. 정철(鄭澈)이 그에게 “공의 말이 좋기는 하나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하오?”라고 타일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두수의 아우가 임진공신 윤근수(尹根壽)이다.

그는 임진란에 선조를 호종하여 반년 동안 세 번 광녕(廣寧)에, 여섯 번 요동에 사신으로 나갔던 국난 외교의 명신이다. 두수의 아들이 윤방(尹昉 영의정), 그의 세 아우가 혼(昶 예조판서), 휘(暉 형조판서) 선(宣 대사헌)이다

우리 지역에 세거해 온 해평 윤씨의 상계는 도제공 혼으로부터 계대한다.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입향조는 윤일선(尹一善)이고 그로부터 8대가 계대되었으며 동두천 읍장을 지낸 달섭(達燮)은 혼의 13대 손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남가좌동장을 역임한 윤영섭, 읍장을 지낸 달섭의 아들 윤승로가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을 맡고 있다.

(15) 광주 정씨

광주 정씨는 고려 말 삼중대광문하찬성사(三重大匡門下贊成事) 정신호(鄭信扈)를 시조로 한다. 신호의 장남 정윤부는 개성 부윤(開城, 府尹)이었고, 차남 윤형(允亨)은 형조참의(刑曹參議)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 윤부(允孚)의 장남 인진(麟晋)이 전라감사를 지냈고, 차남 구진(龜晋)이 강원감사를 지내 문중에서는 완백공(完伯公), 동백공(東伯公)으로 부른다.

조선조 500년 동안 완백공, 동백공 두 후손에서 문과 급제 32인이 배출되었다.

조선조의 뛰어난 화가(畫家) 겸재 정선(鄭愼)은 완백공 11대손이고, 기미독립선언 33인 중 한 사람인 춘수(春洙)는 동백공의 15대손이다.

양주 주내 불곡산(佛谷山) 기슭 샘내 길가 언덕 위에 광주 정씨 영원(光州鄭氏 瑩苑)이란 자연석 비석이 서 있으며 그 바로 아래에 증 자헌대부예조판서집현전대제학정공(贈資憲大夫 禮曹判書集賢殿大提學 鄭公)이라 쓰여 있는 정구진(鄭龜晉)의 신도비가 있다. 고려 우왕 임술년 과거에 장원 급제한 구진은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여지승람> 광주 인물 조에 그 이름이 보이는데, 남원부와 평창군 제영(題詠)에 시구가 인용되어 전한다. 구진의 묘소는 영원 안쪽 능선에 위치하고 그 좌강(左崗)에 아들 장령(掌令) 지하(之夏)의 묘가 있다.

구진의 네 손자 가운데 넷째 찬우(贊禹)의 후손들이 안흥동 정씨 문중이다

찬우는 청도 군수를 지냈고, 찬성(贊成)에 추증되었으며 부인 동래 정씨는 여류 문장가로 유명하여 글에 대한 칭송이 사서에 전한다. 찬우의 장남 순인(純仁)은 아산 군수를 지냈고, 차남 인인(麟仁)은 연산군의 무오 식년시에 장원한 명인이었으나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을 때 갑자사화로 해를 입었다. 5세 찬우와 6세 순인, 인인의 묘는 포천 일동에 있다.

안흥동 광주 정씨는 순인의 손자인 8세 이주(以周) 이래로 24세까지 17대를 이어져 내려 온다. 이주는 선조 1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여섯 번 사헌부 장령을 지내면서 직언으로 일관 당시의 권신들을 떨게 만들었던 강직한 유현(儒賢)이었으며 마침내 그의 직언이 권신들의 비위를 거슬러 정주목사로 나갔다가 춘천 선조의 묘 아래에 은거하여 독서로 여생을 마쳤다.

이주는 3남을 두었다.

장남 사호(賜湖 호는 화곡(禾谷))는 선조 10년에 등과하여 정유재란 때 안동부사로 명군(明軍)과 함께 왜군을 토벌하였으며, 황해, 평안, 경상, 경기 4도의 감사를 지내고 다섯 번째 대사헌에 올랐으며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선조실록> 편수에 참여했다. 이어 형조 판서에 제수되고 마지막으로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또 진인(晉人)의 필법을 체득한 명필로 선고(先考) 성재공 신도비와 연안 연성대첩비(延城大捷碑)에 쓴 글씨가 남아있고 안동 만해루(望海樓) 판상시(板上詩) 탁본이 전한다. 시호는 충민(忠敏)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1604년 사호는 난리 중 온양의 사위 정희(鄭晦) 아들은 시문으로 유명한 동명(東溟) 두경(斗卿)의 집에 피난 갔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난 모부인 동래 정씨와 춘전에 장사한 선고 성재공을 도곡 묘지로 옮겨 합장(合葬)하고 최립(崔笠)의 글, 사호의 글씨, 김상용(金尙容) 전(篆)의 신도비를 세웠다. 이 신도비는 동두천의 오래된 석물 가운데 하나이다. 사호도 1616년 이 곳에 묻혔는데, 이 사호의 묘는 지금 동두천 향토문화유적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호의 장남인 현원(玄源)은 호를 조영당(苕穎堂)이라 했다. 조영당은 대제학 율사 이정구(李廷龜)의 사위이고 조영당의 딸은 대제학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손부(孫婦)가 되었다. 상촌(象村) 신흠(申欽)이 이주의 묘지(墓誌)를 썼으니, 문장 4대가라 일컫는 월상계택(月象谿澤) 가문과의 관계에서 안흥동 정씨 가의 가격(家格)을 짐작해 보게 된다.

안흥동 정씨 문중에서 조영당 이후에 출사한 후손으로는 아들 11세 전창(展昌)이 의금부 도사, 전창의 장남 치상(致相)이 하양현감, 18세 먼수(勉洙)가 등과하여 고종 때 사간원 정언을 거쳐 사헌부 집의에 올랐다.

현재 조영당의 후손은 100여 호가 되며 종손(宗孫) 영호(永鎬)는 문교부에 근무하다 정년 퇴직 후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문중을 지키고 있으며, 전창의 차남인 수상(遂相)의 10대손 문학박사 기호(琦鎬)는 인하대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역시 귀향하여 연구 활동에 전념 중이다. 문학박사 광호(光鎬)는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완호(玩鎬)는 이학박사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과학교육협회 회장으로 있다.

이 밖에 보영여자고등학교 교장, 한북대학교 교무과장을 역임한 정용관, 안흥리 이장을 역임한 정용완, 정용집, 정용국, 정돈호, 결산리 이장을 역임한 정용철, 정용학 그리고 현재 동두천농협 조합장으로 있는 정진호 등 많은 지역의 일꾼을 배출하였다.

아울러 의정부로 이거한 정영수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품질과 공정관리, 신지식인 분야에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임되었을 뿐 아니라 경기도 으뜸(철강분야)에도 선정되는 등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16) 동래 정씨

동래 정씨의 시조는 정지원(鄭之遠)으로 시조의 손자가 정목(鄭穆)이며 목의 아들이 전항(鄭沆), 항의 아들이 <정과정곡>으로 유명한 정서(鄭敍)이다.

동래 정씨의 명맥은 목의 8세손 정양생(봉원군) 계보와 목의 9세손 정구령 계파로 대별된다. 동두천 안흥동에 입향한 락(洛)의 선계는 양생에서 부터이다.

양생 계파는 고려 공민왕 때 등과한 아들 정구, 기준과 구의 현손이며 선조 때의 상신인 9세손 정대년으로 이어진다. 동두천에는 대년(大年)의 아들 돈복(敦復)의 후배(後配)인 언양 김씨가 안흥동에 정착하였고, 돈복의 아들 낙이 아들 3형제를 낳아 후손이 번창하며 그 부리를 깊이 내렸다. 락(절충장군)에서부터 15대가 계대되어 경향 각지에 50여 세대가 번성하였고,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거주하며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의 인물로는 애국지사 정충환(鄭忠煥) 선생이 있다.

선생은 1888년 송내리에서 태어나 1908년 황재호 의병부대에 가입하고 동료 의병 80여명과 함께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시며 투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으셨다가, 포천 덕둔리에서 활동 중 일제에 잡혀 5년간 모진 옥고를 치르셨다. 묘소는 남양주 별내면 용암리 도감촌에 모셔져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의원을 지낸 12세 정인백씨, 유럽에 몸담고 활동하시는 13세 정연승 씨, 그리고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정대식씨 등이 있다.

(17) 장녕 조씨

장녕 조씨 시조는 조계룡(曹繼龍)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겨드랑이 아래에 조(曹)라는 글자 모양의 반문(班紋)이 있었기로 이를 사성(賜姓) 받았다고 한다.

장녕 조씨 인맥은 시조의 5세손 조겸이 고려조에서 명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겸의 손자가 연우(延祐), 연우의 아들이 한지, 한지의 아들이 지현, 지현의 아들이 사전(思詮), 사전의 아들이 정린(正麟), 정린의 아들이 중용(淸장사), 중용의 아들이 의문, 의문의 아들이 자기로 8대에 걸쳐 평장사를 이어 내리는 고려 초기의 우수한 명문을 이루었다.

자기(自奇) 후로 고려 중기에는 명맥이 일시 끊겼다가, 그의 10세손 광한과 익청이 고려 말에 인맥을 부활시킨다. 자기의 9세손 우희의 아들이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을 감행하여 우왕을 세운 민수이고, 민수의 아우가 경수이며 항(沈)의 아들이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석문이며, <세종실록>을 편찬한 위(偉)는 경수의 현손이 된다.

동두천 광암동에 세거해 온 창녕 조씨의 상계는 상치(尙治)부터이다.

상치의 증손이 계상, 계상의 아들이 광원, 광원의 아우가 명원과 휘원이다.

명원의 아들이 대정(大貞), 대정의 고손이 진주이다 그리고 진주의 손자가 희원이고 고종 때 감역을 지낸 진승(震承)은 진주의 6대손이다.

동두천에는 진주로부터 12대가 계대되어 후손이 경향 각지에 30여 세대, 동두천에는 50여 세대가 분포한다.

근대의 인물로는 대한제국 때 성리학자로 많은 후학을 길러 낸 병윤(秉潤)과, 제2대 면의 원을 지냈던 규철(圭哲), 신홍대 교수 경현(景絃)이 있다.

그리고 광암 1리 이장을 역임하고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조규진, 예비군 광암대장 조규산 등도 있다.

(18) 정풍 김씨

시조 김대유(金大猷)는 김알지의 45대손이며 신라 경순왕의 아들 김은설(金殷說)의 장자 김정구의 17세손이다.

그는 고려조에서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고 정풍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그의 후손들이 본관을 청풍으로 정하게 되었다. 청풍 김씨는 시조 김대유의 8대손인 김식(金湜) 계보와 9세손인 김우중(金友曾) 계보, 13세손인 김진국(金盡國) 계보 그리고 중시조인 김소중(金小中) 계보로 대별된다.

조선조에 와서 정풍 김씨는 두 갈래 큰 인맥을 형성하는데 하나는 김식 인맥이고 또 하나는 김우중 계열이다. 조선왕조에서 4대 문장 중 하나로 꼽는 김구는 우중의 6세손이며, 박세채의 문우였던 김유는 그의 아우이다. 그리고 영조의 묘정에 배향된 상신 김재로와 호화로운 벼슬만이 반드시 가문의 번영을 뜻하지 않는다며 일찍 은퇴한 김희로는 김구의 아들이다.

재로의 아들이 영의정을 지낸 김치인으로 김구 김재로에 이은 3세 입상(入相)의 드물게 보는 영예를 누렸고, 김종후와 정조 묘정에 배향된 명상 김종수 형제는 그의 증손으로 4대째 상신을 이었다,

김서 계보는 증손 김종정, 종정의 손자가 김동건, 동건의 조카 김학성은 이조판서로 판서의 명맥을 이었다.

300년 전 동두천 탑동에 뿌리를 내린 청풍 김씨의 입향조는 우중의 6대손 김계이다.

계의 아들이 좌로, 좌로의 아들이 치흥이며, 치흥의 후대로 15세가 계대되어 한마을을 이루고 있다. 입향조인 김계의 후손은 전국에 60여 세대, 이 지역에 20여 세대가 분포되어 있다.

주요 인사로는 이 마을의 이장을 지낸 김상우 씨가 종중을 관리하며 청풍각 사당을 지어 조상을 모시고 있다. 김상우 씨의 앞마당에는 비룡승천원길지(飛龍升天元吉地)라 새겨진 비석이 마당 한 모퉁이에 서있는데 이는 무학대사가 작어 준 글이라 한다. 그리고 좌측에는 “고귀한 인간 생활의 수양터”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한편 바로 인근에는 후손 김항구씨가 민초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19) 선산 김씨

시조 김선궁(金宣弓)은 김알지의 29세손이며 문성왕의 7대손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자의 목을 베고 처벌을 자청하여 투옥된 후 조정에서 표자라고 석방되어 표창을 받았다.

그는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정벌할 때 선산에 이르러 모병하였는데 종군할 것을 희망하니 태조가 크게 기뻐하여 진히 어궁을 하사하고 선궁이라 사명(賜名)하였다. 이후 왕건을 도와 후삼국의 통일에 공을 세워 정란보국공신(靖亂輔國功臣)에 오르고 벼슬이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일선(一善)으로 하였는데 조선 태종 때 일선이 선산으로 개칭됨에 따라 선산으로 개관하였다.

시조의 11세손이 김주(金澍)이다. 그는 고려가 망하던 해인 공양왕 3년(1392)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 중에 압록강에 이르러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다가 끝내 귀국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그 길로 명나라로 돌아가 명의 조정으로부터 상서(尙書) 직을 받고 형초(荊楚)에 귀화해 살았다.

주의 아우 (또는 형이라는 기록도 있음) 김제(金濟) 도 고려가 망하자 가족을 거느리고 어디로인지 떠나 버렸다. 제의 손자가 효정(孝貞), 주의 증손이 지경(之慶), 성경(成慶)이며 지경의 아들이 응기(應箕)이다 삼도 감사와 오조의 판서를 역임한 그는 천문, 지리, 산수 등 자연과학에도 정통하였다.

선조 때의 신진 사림파로서 기성 사림과의 심의점 대결, 동인(東人)의 거두가 된 김효원은 시조의 20세손이다.

선산 김씨의 큰 인맥은 증시조 김흥술(金興述)의 13세손 김숙자(金叔滋)가 우뚝 선다. 그는 세종 조의 유종(儒宗)으로 길재(吉再)에게 유학을 배우고 박상(朴祥)에게 역학을 익혀 60여년에 한 가지 행실에도 허술하지 않았던 학자요 행정가였다. 그의 아들이 조선 유학의 맥으로 치는 김종직(金宗直)이다

동두천 광암동에 입향하여 뿌리를 내린 선산 김문의 김홍주는 시조의 24세손이다. 홍주의 아들 김태흥(金泰興)이 숙종 때 첨지중추부사를 지냈고, 후손이 계속 뿌리를 내려 이 고장에서 11대를 계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손이 많이 번창하지는 못하여 광암동에는 한 세대만이 거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광암동에는 산 41번지와 산 43번지에 시제를 올리는 11분의 묘소가 있어 종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지금은 한 집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 김녕 김씨

김녕 김씨의 시조는 김시흥(金時興 고려 인종 평장사) 으로 신라 경순왕의 8세손이다.

시흥의 아들이 김향(金珣 병조상서)이고, 김향의 현손이 김광저(金光儲 대사헌)이고 광저의 증손이 세조정난 때의 민신, 조극관과 더불어 3충신으로 불리는 단종 복위 운동의 주모자 김문기(金文起 이조판서 향장릉충신단(享莊陵忠臣壇))이다.

동두천 상패동에 뿌리를 내린 김정려(金晶麗 혼 송은)는 김현석(金玄錫 영월군수)의 셋째 아들 김충윤(金忠尹)의 13형제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그는 경상도 상주로 내려가 살다가 광주(廣州)를 거쳐 다시 현재의 동두천시 상패동으로 이주 입향하였다. 김정려의 아들이 김택(金澤)이고, 그 김택의 두 아들이 천보(天寶), 천경

(天景)이다 이들은 병자호란에 출병하여 공을 세웠다.

김정려의 후손은 지금까지 13대가 계대되어 동두천에 200여 세대가 거주하며 양주 일원에 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등 명실 공히 대성으로 번성하였다. 특히 13대손 형종(炯鍾 1922-1983)이 가문을 크게 번성시킨다. 그는 한신공영을 창설하여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육성하였고, 한국주택건설협회 초대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기업인으로 국가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대통령으로부터 공헌표창(제234호)를 받는다.

전 국회의원 형광(炯光)씨, 신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의정부 시장으로 재임하는 문원(文元)씨, 전 동두천 읍장 양권씨, 현 경기도 의원 홍규(弘圭)씨, 시청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형진씨 등이 지역의 주요 인사이며 현 육군대령 용규씨, 동두천시청 문화체육과 과장 진왕씨 등도 있다.

아울러 문중에서는 상패동에 삼충단을 설립하여 민신, 조극관 두 충신과 함께 선조 김문기 선생을 추모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걸산동에는 입향조를 달리하는 또 한 갈래의 김녕 김씨가 세거해 오고 있다

신라계 김해 김씨의 시조가 김염(金濂)이며 신라 56대 경순왕의 4자 대안군(大安君) 김은설(金殷說)의 셋째 아들이다. 그는 고려조에서 벼슬이 봉어(奉御)에 이르렀고, 김해군(金海君)에 봉해져 후손들이 김해를 관향으로 삼았다.

따라서 가야국의 초대왕인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김해 김씨와 임진왜란 때 왜군으로 참전했다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김씨로 사성(賜姓) 받은 김충선(金忠善)계의 김해 김씨와는 그 줄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동음이성(同音異姓)이다 그리하여 김수로왕계를 선김(先金) 김녕계를 후김(後金)이라 불러 왔다.

김시흥(金時興)이 고려 인종 때 김녕군에 봉해진 이래 그를 증시조로 삼아 관향을 김녕으로 고쳐 삼게 되었다. 김녕은 김해의 옛 이름으로 이는 조선 현종 때의 일이다. 여기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범흥파가 후김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후 증시조로부터 16세 되는 김상애(金相愛)가 동두천에 입향하여 이곳에 정착하였고, 그로 인하여 후손들이 현재까지 14대를 이곳에서 번성하였다.

전국적으로 80여 세대로 늘어 난 후손들 중 약 20여 세대가 이곳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

다. 선산은 광암동에 있으며 현재 10여기의 조상 묘가 모셔져 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후손들은 동두천 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하고 현재 시 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문규(金文圭)가 있고, 소중중회장을 맡고 있는 김석규(金錫圭)가 있으며 동두천 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는 김재규(金在奎) 계장이 있다.

김문규씨는 1992년 동두천 시민의장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을 수상하였다.

(21) 김해 김씨

동두천시 광암동에서 14대를 세거해 온 김해 김씨는 김수로왕을 비조로 하고 그의 51세손 금녕군(金寧君) 김목경(金牧卿)을 1세로 하여 대계한다. 목경의 아들 보(普)의 시호는 충간 공이며 보의 아들이 도문(到門), 그의 손자가 효원이다.

조선 명종 때 전라관찰사를 지낸 영정(永貞 호 운당(雲塘), 시호 안경공(安敬公))은 효원의 손자가 된다. 영정의 5세손이 수정(守正 자는 명중(明仲), 의금부도사 1576-1659)이며 수정의 넷째 아들 연(漣)이 우리 고장에 입향하여 뿌리를 내린다

연의 조휘는 원(沅)이고 자는 한오(漢五)이다. 그는 여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성균 진사에 이르렀는데 임진왜란으로 부득이 원주를 떠나 우리 동두천에 와 정착하였고 그로부터 14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후손 2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하며 우리 지역에도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동막동에 돌 능이 1기 있고, 그 옆에 묘 1기가 있는데 이 돌 능에 관하여 어느 공주의 무덤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바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현재 김용화(金容化) 씨가 문중 일을 살피며 동두천 무공수훈자 사무실에서 봉사하고 있다.

현재 중단된 친목회를 곧 다시 재개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2) 경주 김씨

김씨의 원 시조는 황제의 아들 소호 금천씨이다.

진(秦)나라, 진한(辰韓)을 거쳐 김알지(金閼智)로 이어져 그의 7세손인 미추왕에 이르러 비로소 신라 왕위에 오르게 됨으로서 28세손인 마지막 경순왕에 이르기 까지 38왕이 면면히 상계하여 선원세계를 계승하였다.

경순왕이 935년 고려 태조에게 손국(遜國)하자 그의 아들 9형제 중 마의태자는 망국의 한을 안고 입산하였고, 2자 굉(鎧)은 나주 김씨, 3자 명종(鳴鐘)은 경주 김씨(영분공파), 4자 은설(殷說)은 경주 김씨(은설공파), 5자 석(錫)은 의성 김씨, 6자 건(鍵)은 강릉공파, 7자 선(鐸)은 언양 김씨, 8자 추(鍾)는 삼척 김씨, 9자 덕지는 울산 김씨 등의 1세가 되어 각각 계세하고 있다.

동두천 결산동에 세거한 경주 김씨의 상계는 은설의 12세손 김인관(金人琯 태사공)을 파조로 하여 계승한다.

그의 8세손인 상촌(桑村) 자수(自粹)는 고려가 망하자 안동에서 은거하였고, 조선 태종이 형조판서를 제수하고 출사를 권고하였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다가 고려가 망한 것을 비탄하여 자결하였다. 상촌 선생의 6세손이 문과에 급제하여 응교를 지낸 구연(九淵)이고 그의 아들 육(陸)과 협이 이 고장에 입향하여 뿌리를 내렸다.

김협(1538-1622)은 16세 때 동몽교관이 되었고, 선조 1년(1568) 증광 별시로 등과하여 선조 20년(1587) 금산군수로 나갔다가 선조 25년(1592) 철원부사로 옮겼으며 선조 30년(1596) 전주부윤에 승계되고 충청감사로 전관되었다가 부평부사로 다시 옮겨 민생 구휼에 힘썼다. 광해군 2년(1610)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고, 광해군 4년(1612) 원종공신 1등에 녹공되어 정2품에 가자되었다. 그러나 광해군 난정을 거부하고 벼슬에서 퇴거하여 서체(書體) 연구에 전념하다 광해군 13년(1621) 84세로 별세하였다. 그 분은 초서를 잘 썼으며 사후 이조판서에 주증되고 묘소는 결산동에 있으며 협의 아들이 영암군수를 지낸 수신(壽臣)이고, 수신의 아들이 영유, 영유의 아들이 현령을 지낸 율(颯)이고, 율의 손자가 숙종대에 사헌부 감찰을 지낸 섭(涉)이다

이 고장에는 룡과 협의 형제로부터 현재 동두천에 후손 3세대(영국, 영운, 이중)가 향토를 지키고 있고 이어진 후손들 60여 세대가 포천 비동과 심곡 등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많은 자손들 중 김광종씨가 사비로 묘표 14개를 제작하여 동두천에 8개, 축석령에 6개를 2007년 5월에 설치하였다.

주요 인물로는 동두천읍 광암출장소장을 지낸 김이종씨, 포천 일동 우체국장으로 있는 김주섭씨가 있고, 6.25 후 각처에서 모여든 경주 김씨 600여 세대 약 5,000여명이 종친회(회장 김대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3) 광산 김씨

광산 또는 광주 김씨의 시조 김흥광(金興光)은 신라 헌강왕의 셋째 아들로 오래지 않아 국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광주 서일동에 은거하여 이로부터 가문이 시적(始籍)되었다.

그 후손에 평장사가 많이 배출되어 마을 이름이 평장동으로 바뀌게 되었고, 9명의 중시조가 분파하여 명맥을 이었다.

시조의 아들이 김식(金軾), 식의 아들이 김길(金吉), 길의 아들이 김순(金順), 순의 아들이 김정준(金廷俊), 김약온(金若溫)이며, 김의원(金義元)의 손자가 김광세(金光世), 광존(光存 호위 별장) 이다.

광산 김씨는 김광세 계보와 김광준 계보로 대별되는 데 동두천에 세거하는 광산 김문의 상계는 광존에서 시작된다. 광존의 13세손 기서(基瑞)가 중종 때 벼슬을 하다가 선조 7년(1574) 양주 마전에 묻히면서 그 후손이 세거하게 된다. 기서의 아들 덕망(德望)의 셋째 자 남(自南)의 아들이 상현(尙賢)이며 상현의 2자가 계환(啓煥), 계환의 9대손 담(潭)이 동두천 하봉암으로 입향한 입향조가 된다.

담으로부터 10대가 계대되어 후손 10여 세대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이산되어 1세대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 인사로는 유림에 몸담았던 김봉수(金鳳洙)씨가 계셨으나 작고하였고, 그의 아들 김용운이 대전에 소재하는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이곳으로 이주하여 온 광산 김씨 50여 세대가 종친회(회장 김영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4) 진주 강씨

진주 강씨의 시조는 강이식(姜以式)으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수(隋)나라 문제(文帝)가 고구려에 침공하였을 때 병마도원수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진주 강씨의 명맥은 시조의 후손인 강희경(姜希經)과 강민첨(姜民瞻) 계보로 대별된다.

강희경 계보는 그의 7세손이 강근보, 근보의 아들인 강기(姜耆), 기의 아들인 강희백(姜淮伯), 강희중(姜淮仲), 강희계(姜淮季)이다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세거해 온 진주 강씨의 선계는 회중으로부터 이어진다.

회중의 4세손이자 겸(謙)의 5세손인 효달(孝達 1601-1680)이 병자호란 때 난을 피해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효달의 아들 윤(潤) 자는 덕보(德甫 1642-1706)이 58세 때인 숙종 26년(1700)에 등과하여 관관을 지냈고, 윤의 현손이 영조 때 도승지를 증직받은 필규(必奎)이고 필규의 아들이 세희(世晦) 자는 형숙(亨叔)이다. 그는 영조 34년(1758)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더니 학업에 힘써 정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곳에서는 효달로부터 13대가 계대되었고, 그 후손들이 하봉암동에 20여 세대 거주하고 있으며 경향 각지에는 40여 세대가 분포한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손으로는 동안동 동장을 역임한 강현석씨, 그리고 하봉암동의 강규석씨가 있고, 의학박사 강창석(姜昌錫)씨가 카톨릭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강돈구(姜惇求)씨가 한신대 교수로, 그리고 강문석(姜文錫)씨가 한양공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강경석(姜景錫)씨가 경기도청 서기관을 지내고 퇴직하였고, 강찬구(姜燦求)씨가 현재 통신공사 자재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5) 한산 이씨

시조 윤경(允卿)은 고려 숙종 때 지방의 호족으로 호장 직에 있었으며 그의 7세손 색(穡 문정공)은 원나라에 들어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원(翰林院)의 관직에 등용되었다가 귀국하여 대사성, 대제학, 문하시중 등 요직에 수차 등용되었고, 공민왕 11년(1362) 홍건적의 난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본관을 한산으로 하였다.

동두천 생연동에서 8대를 세거해 온 한산 이씨의 상계는 목은(牧隱)의 차자 종학(種學) 자는 중문(仲文), 호는 인제(麟齊), 관직은 제학(提學))으로부터 계대한다. 종학의 장자가 광주 목사를 지낸 숙야(叔野)이고 중종 조에서 좌의정을 지낸 유청(자는 직재 1459-1531)은 숙야의 현손이다. 유청의 아들이 언호(彦浩) 자는 양중(養仲) 관직은 전라도관찰사이고, 한흥군(韓興君) 덕연(德演) 자는 윤백(閔伯), 호는 수운(水閔)은 언호의 현손이다.

덕연의 아들이 성원(性源 1576-1629)인데 그는 광해군 초에 진사가 되고 1621년 대과에 급제 1623년 문과에 1등으로 올라 괴원(槐院) 승문원을 이룸에 들어가 승품을 거둬서 병조좌랑으로 있다가 고산도(高山道) 관찰이 되었는데 하루는 꿈이 이상하여 황급히 집에 와 보니 부친이 위중한 병을 앓고 있었다. 인조에게 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수 없음을 아뢰고 사

직소를 올리니 인조도 그의효성에 감복하여 다시 내직인 병조좌랑에 임명했으며 이후 지평(持平)에 이르게 된다. 성원의 아들이 비안(庇安) 현감을 지낸 완(浣)이며 승정원 주서를 지낸 우명(雨明)은 완의 고손이 된다.

동두천 생연동에 뿌리를 내린 수창(秀昌)은 우명의 아들이다

그 후손 중에 이담면 사무소에 근무하셨고 동두천시 행정동우회장을 지낸 이기복씨가 있으며 이기복씨는 동두천 시민의장 지역사회부분을 1992년 10월 6일 수상한 바 있다.

이기복씨의 아들 경제학박사 이경원씨가 대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경원 박사는 동시에 재단법인 송암재단 이사장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경원씨의 아들 의학박사 이형중씨도 미국 코넬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6) 전의 이씨

<동국여지승람> 전의현 인물 조에 전의 이씨 시조 이도(李焯 삼한개국익찬이등공신삼중대광태사(三韓開國翊贊二等功臣三重大匡太師), 고려개국공신(高麗開國功臣))로 기록되어 있다.

이도의 6세손인 이천(李仟)은 고려 고종 때 온수현에서 몽고병과 싸워 대승을 거둔 명장이었으며 이천의 손자 이언충(李彦忠)은 전의 이씨 인맥의 기점을 이룬 분이다

언충의 고손 직간(直幹 형조정랑)이 동두천 안흥동에 뿌리를 내려 이 지역이 명문으로 번성시키게 된다. 직간의 아들 평식(宏植)이고, 평식의 현손이 선조 때 명상인 이탁(李鐸 1509-1576 호는 약봉 시호는 정숙공)이다. 이탁의 아들이 이이, 정철 등과 함께 교유하며 가문을 떨친 이해수(李海壽 지는 대중 호는 약포 관직은 도승지 1536-1599)이고 해수의 아들이 광해군 때 벼슬을 내놓고 은둔하였던 이권(李勸), 이 권의 아들이 광해조 때 360인 상소의 소두로 유명했던 이성신(李省身 동부승지)이다. 그리고 성신과 그 아들 채(梓), 항(杭), 삼부자가 모두 한림으로서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이었다. 또한 해수의 둘째 아들 매(勸), 매의 아들이 경신(敬身)이다. 경신의 아들이 추(樞)이며 전 대법원장 이영섭(李英燮)은 추의 11세손이다. 직간이 동두천시 안흥동 담안에 뿌리를 내려 후손들 중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으며 현재 21대가 이어지고 있어 30여 세대가 명문의 가통을 이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 대법원장 이영섭, 전 국회의원 이철승(李哲承) 등이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유명 인사들이며, 우리 지역에서는 이담면 5대 면장 이병하(李炳夏), 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이재성, 동두천시 소요동 주민자치위원장 이홍섭씨가 있으며 이종섭씨가 동서가구를 운영하며 종친회의 업무를 보고 있다.

(27) 벽진 이씨

벽진 이씨 시조는 이충언(李忠言)이다. 그는 고려 태조의 후삼국 통합 때 벽진태수로 있으면서 용맹을 떨쳐 삼중대광개국공신(三重大匡開國功臣)에 봉해졌으며 아들 이영(李永)은 태조의 부마로 관직과 전답을 하사받아 정착하였다. 이에 후손들이 본관을 벽진으로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이영의 9세손 이견간은 산꽃의 말(山花之言)이란 시로 유명하여 산화선생이라 불렸고,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문명을 떨쳤다. 견간(堅幹)의 현손이 이심지이고 심지의 아들이 단종 때의 생육신 이맹전이다. 이영의 15세손이 정백리 이약동(李約東)이며 약동의 5세손이 이상길, 상길의 아우가 이상급 즉 충강공(忠岡公)이다.

공은 병자호란 때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에 들어간 지 40여 일만에 왕이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묘사(廟祠)를 모시고 강화도로 간 형 상길을 찾아 가는 도중에 적을 만나 격투 끝에 순국하였다 (현재의 종로 5가 부근).

상급은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장자가 이련, 차자가 이연, 3자가 이타, 4자가 이곤, 5자가 이배이다. 남형(濫刑)을 죄명으로 유배를 당하리만치 소신과 원칙에 철저하였던 이지결이 바로 이연의 아들이다. 지결의 아들이 이세근과 이세진이다. 그리고 한말에 척화양이지론(斥和洋夷之論)을 내세워 호국운동을 전개하였던 이항로가 바로 약동의 10세손이 된다.

동두천의 벽진 이씨는 충강공 이상급의 배위 정부인(貞夫人) 울산 박씨(1602-1682)가 1636년 병자호란을 피해 아들 5형제 중 두 형제, 이곤, 이배를 데리고 현 동두천시 광암동 골말(谷末)에 피신하였다 이후 부인은 그곳에 불당을 쌓고 남편의 무운을 빌며 은둔하다가 병란이 끝난 뒤 남편의 부음을 듣고는 다시 귀경하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렸다.

현재 우리 고장에는 상급으로부터 14대가 계대되었고 그 후손이 동두천시 탑동에만 20여 세대가 한 마을 이루어 살고 있다 아울러 경향 각지에 30여 세대가 분포한다.

이 지역의 유명 인사로는 1881년 탑동에서 출생하시어 1907년 연기우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포천, 적성 등지에서 구국활동을 하시다가 1910년 일제에 피체되어 수많은 고초를 겪으신 애국지사 이명기씨가 있고, 오랫동안 이장을 역임하신 이종문씨, 동두천시 시의원을 역임한 이석기씨, 의학박사 이우상씨가 있다. 1997년 당시 종문회장 이종문씨가 주동하여 조상을 제향하는 사당을 2000년 9월 6개월의 공사 끝에 준공하고 사당의 이름을 강정재(剛靜齋), 재실 문을 총희문(蔥禧門)이라 이름하고 음력 10월 5일 시향을 모시고 있다. 현재 탑동동 산 193번지 일원 33정보를 종중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회장 이종법씨가 관리하고 있다.

한편 동두천에 뿌리 내린 또 다른 벽진 이씨 인맥은 이지결의 아들 이세근과 이세진으로부터 계대된다.

이들 형제가 동두천시 보산동 빈양말(濱陽末)에 입향하여 그곳에 묻히고 세진의 아들 7형제가 번창하여 뿌리를 내려 이후 10세가 계대된다.

동두천시 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영기씨는 한성판윤 이세진의 9대손이며 후손 20여 세대가 이 고장에 거주하는 한편 경향 각지에도 30여 세대가 분포한다.

보산동 산 1번지와 소요산 남쪽 기슭 약 200정보(60만평)를 종중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중산을 사패지로 사급 받았다는 구전이 전하여지나 근거가 되는 문헌은 찾을 수 없다.

이영기씨는 동두천 시민의장 시민봉사장을 2002년 10월 5일 수상하였다.

(28) 광주 이씨

시조 이자성(李自成)은 칠원(漆原)에 살던 호족의 후예로 신라 내물왕 때 내사령을 지냈다. 그의 후손은 신라에서 대대로 칠원 성백을 지내다가 신라가 고려에 손국(遜國)할 때 고려에 불복하고 절의를 지켰는데, 고려 태조가 강계(降階)하니 회안(淮安)의 이숙(吏屬)으로서 세계를 이었다.

석탄공(石灘公) 양중파(養仲波)는 한희(漢希)를 1세조로 하여 세계를 계대하고 후손 이당(李唐)이 광주(廣州) 유수(留守)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5형제 모두가 1세로 각각의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중 원령(元齡) 일명 이집(李集)은 고려 충목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전교시사(判典校寺司)에 이르렀는데, 공민왕 17년(1368)에 신돈(辛旽)의 농단을 반박하다가 화를 입게 되자 경상도 영천 사간(司諫) 최원도(崔元道)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이후 신돈이 실각하자 복관되어 후손이 대대로 영화를 누렸다.

고려 성종 때 회안이 광주로 개칭되어 광주 이씨라고 개관하였다.

이집은 지직(之直 직제학 청백리), 지강(之剛 좌참찬 시호는 문숙공), 지유(之柔 성주 목사), 등 세 아들을 두었고, 지직은 장손(長孫 사인), 인손(仁孫 우의정), 예손(禮孫 관찰사) 등 3형제를 두었다.

인손은 5형제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가 문과에 급제하고 현관(顯官)으로 영달하였다.

장자 극배(克培 영의정 광능부원군), 차자가 극감(克堪 판서 광성군), 3자가 극증(克增 좌참찬, 광천군), 4자가 극돈(克墩 좌찬성 광원군), 말자가 극균(克均 좌의정 광남군)으로 소위 5자 당상의 영예를 누렸고 화려한 지맥을 형성하였다. 광이장안팔극당상(廣李長安八克堂上)이라는 말처럼 이때가 광이(廣李)의 전성기였다....

광주 이씨 지맥이 동두천에 뿌리내린 것은 광원군(이극돈)의 6대손 지운(祉運 의영부도사(義榮府都事))이다. 그의 아들이 상옥(相頊 전라병마절도사) 이고, 상옥의 현손 시문(時聞)이 아들 5형제를 두어 동두천 광주 이씨 인맥을 번창시킨다.

장자가 기렴(基濂)이고, 차자가 삼척도호부사를 지낸 기조(基祖), 3자가 기락(基洛), 4자가 풍양 현감을 지낸 기풍(基豐), 5자가 고향을 지키기 동(基東)이다.

시문의 현손 경래(競來)가 을미의병에 앞장 서 싸운 애국지사이며 5대손 용관(容寬)의 배위가 효열부인 수성 최씨이다.

다시 소급하여 기렴의 손 병두(秉斗 무과 사과(司果)), 기조의 아들 승회(升會 삭주도호부사) 손 병준(秉準 무과 급제) 등이 가문을 빛냈고, 입향조 지운으로부터 12대가 되어 300여 년의 인맥사를 형성하여 현재 동두천에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경향 각지에 150여 세대가 분포하는 상황을 이룬다.

이와는 별도로 어수동(御水洞)에서 누대를 살아 온 광주 이씨의 상계는 광원군 이극돈의 현손 윤덕(潤德 전라병마사)의 아들 대에서 분파된다. 그는 장자 여온(汝溫), 차자(汝良) 3자 여공(汝恭)의 3형제를 두었는데, 여공의 아들이 효성(孝誠)이고, 효성의 현손이 수백(壽栢)이며 그의 장자 명교(命喬)가 가문을 크게 융성시킨다. 그는 경종 임인(1722)년에 무과에 올라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참판에 오른 인물이다. 명교의 아우가 명성(命成)이고 그의 손자 기풍(基豐)이 우리 고장에 입향하여 10대를 계대 한다. 그의 후손 10여 세대가 동두천에 거주하

며 이 중 유명 인사로는 1981년 2월 11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4,866표를 얻어 이 지역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정재가 있고, 보산동 동장을 역임한 이종현, 그리고 신구전문대학 교수로 있는 이종찬 등이 있다.

(29) 수성 최씨

시조 최영규(수성백(隋城伯) 시호 문혜공(文惠公))의 본성은 김씨이다.

신라 마지막 경순왕 김부(金溥)의 11세손으로서 서기 1261년(고려 원종 2년) 문과에 급제하여 남부전서(南部典書)로 보문각(寶文閣) 대경(大卿)을 겸하여 서경(西京) 학도를 가르쳐 지위와 명망이 높았다. 고려 충렬왕 때 수주(水州 현재의 수원) 일대가 풍속과 기강이 퇴폐하고 사람의 행실이 금수와 같음을 왕이 개탄함으로 송께서 자원하여 수주 호장(水州 戶長)으로 부임하여 효제(孝悌)와 인의(仁義)로 선도하니 일년 이내에 효제의 고을이 되어 왕께서 기뻐하며 공의 공(功)이 높고 높다하여 최씨 성을 하사하고 수성백(隋城伯)에 봉했다.(서기 1302년 고려 충렬왕 28)

서기 1497년 동두천 하봉암동에 뿌리를 내리신 입향조는 시조의 8세손인 최영(崔瀛)이다 연산군 당시 목청전(穆淸殿) 참봉인 장사랑(將士郎)을 지내시다가 학정과 난세에 회의를 느껴 벼슬을 버리고 이곳 양주 땅에 입향하게 된다.

서기 1570년 그의 현손 의원(義元)과 예원(禮元)이 선조 때 무과에 등과하여 적순부위(迪順副尉)와 어모장군(禦侮將軍) 겸 선전관을 지냈으며 서기 1600년 의원의 아들 준(峻)은 현신교위(顯信校尉)를 지내게 된다. 준이 7형제를 두어 수성 최문에 봉암종중(鳳巖宗中)을 번장시켰다.

서기 1651년 장자 효술(孝述)은 24세(효종 2년 1651 신미) 때 무과에 올라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3도 통영(統營) 우후(虞侯)에 올랐으며 1670년 차자 효석(孝碩)은 진용교위(進勇校尉), 3남 효태(孝泰)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운수도 찰방(運輸道 察訪), 4남 효희(孝熙)는 어모장군(禦侮將軍) 행 선전관(宣傳官), 5남 효계(孝繼)는 통덕랑(通德郎) 6남 효순(孝純)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7남 효민(孝閔)은 판관(判官)을 지냈다.

서기 1750년 효술의 3남인 만(曼)은 통덕랑, 현손인 치창(致昌)은 통훈대부를 추증 받았고, 그의 아들 일승(日升)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일승의 아들

명윤(命尹)은 가선대부(嘉善大夫) 겸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냈으며, 명윤의 아들 관석(寬錫)은 가선대부를 지내면서 본 봉암종중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서기 1916년 효희의 7세손인 태석(泰錫)은 일찍이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에 들어가 김중암(金重庵), 유성재(柳省齋), 최면암(崔勉庵), 유용계(柳龍溪) 등과 함께 당대 성리학의 대가를 이루며 석학으로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 냈다.

1923년 수성 최씨 대동보가 전 27권으로 간행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18대손 종세(鐘世)는 46년간 초등학교 교장으로 봉직했으며 15대손 상우(相宇)는 중고교 교감으로 인재를 길러 냈고, 자손들이 각 분야에서 의학박사나 이학박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입향조로 부터 21대를 계승하였고 동두천 수성 최씨 봉암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초6일 사당에서 시향을 지내고 있다

(30) 문화 류씨

시조 류차달은 차무일(車無一)의 32대손이다.

그의 5대조인 승색은 신라 애장왕 때 벼슬이 좌상에 이르렀는데, 애장왕 10년(809)에 왕의 서숙(庶叔)인 언승(彦昇 현덕왕)이 조카 애장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빼앗았다. “승색은 교목세신(喬木世臣)의 도리로서 아들 공숙과 함께 전왕의 복수를 위해 현덕왕을 죽이려고 획책하다가 사전에 탄로되어 체포령이 내리므로 아들 공숙을 데리고 탈신 도피하여 유주(문화현의 옛 지명) 구월산 묵방동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그는 조모의 성인 양(楊)씨를 모방하여 류(柳)씨로 변성 이름을 색(穡)으로 고쳤으며 아들 공숙은 숙(叔)으로 개명하여 살아왔다.

이후 그곳에 정착 세거하였고, 차달에 이르러 지방의 부호가 되었다.

그는 고려 개국 당시 왕건이 견훤을 정벌할 때 군량 보급이 어려운 것을 알고 차(車) 1,000량을 제작하여 사고(私庫)를 털어 군량을 보급해 준 공으로 익찬벽상공신(翼贊壁上功臣)에 서훈되고 벼슬이 대승(大丞)에 올랐다.

그의 조상에서 변성한 사실을 안 태조가 “차씨의 공을 잊을 수 없고, 또한 류씨로 변성한 지 6세가 지났으니 이도 역시 폐할 수 없다”하요 차달의 장자인 효전(孝全)에게는 조상의 옛 성인 차(車)씨를 계승케 하고 본관을 연안으로 하여 오늘날 연안 차씨의 시조가 되었고 차자 효금(孝金)에게는 유주에 살면서 류씨를 계승토록 하였는데 뒤에 유주가 문화현으로 개

정됨에 따라 본관을 문화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이후 후손이 번성하여 6개 본관으로 분적되어 10세손 자성(資成 풍산 류씨), 10세손 성운(成閏 아산 류씨), 10세손 량장(郎樟 전주 류씨), 10세손 인비(仁庇 진주 류씨), 13세손 해(海 선산 류씨)를 각각 1세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동두천에 세거해 온 문화 류씨 상계는 시조의 8대손인 택(澤)으로부터 계대한다. 택의 5세손이 조선 개국좌명공신으로 정종 때 영의정을 지내고 왕자의 난에 연좌되어 죽임을 당한 류만수이고 만수의 8세손이 응립(應立), 응립의 증손이 중기이며 중기의 손자 숙영이 동두천에 뿌리를 내려 12대가 계대되어 후손 2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되었고,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다.

민족지사 류재만 선생은 1882년 안흥리 출생으로 1907년 김연선 의병부대에 투신한 후 인근 각지에서 구국 무장투쟁을 벌이시다가 1908년 일본군에 피착되어 3년간 혹심한 옥고를 지르셨는데, 2008년 그 공로가 인정되어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되었다

그 후손 중 문화농장을 경영하던 류연상씨는 동두천시 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하였고, 류호근씨의 장남 류준상은 시청 기획감사실 감사계장, 동생 류범상씨는 총무과 총무계장, 류순상씨의 처 석영희씨는 아름다운 문화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등 한 집안에서 세 계장을 배출하고 있다.

류호정씨는 이담 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적십자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31) 평해 황씨

평해 황씨의 시조 황락은 황제의 후예로 신라 유리왕 5년 한나라로부터 평해의 월송(越松) 사안(砂案)에 표착 세거하였고, 그 후손에 갑고, 을고, 병고의 3형제가 있어 갑고는 기성군(箕城君 평해의 옛 지명)에 봉해지고, 을고, 병고는 각각 장수군(長水君), 장원백(昌原伯)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어 고려조에서 금오위장(金吾衛將) 태자검교(太子檢校)를 지내고 평해에서 세거한 온인(溫仁)을 평해 황씨의 시조로 하였다. 그런데 근년에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기성군 갑고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1세조 온인의 8대손 양무공 황희석은 우왕 14년(1338) 요동 정벌 때 이성계와 함께 회군하여 조선왕조를 열고 개국 2등 공신 평해군으로 봉해졌다.

이 희석의 장남 황상(黃象), 차남 황린(黃麟), 3남 황란(黃鸞) 4남 황곡(黃鵠)이 있다.

동두천 평해 황씨의 계보는 양무공의 아들 황란과 황곡, 그리고 황상의 아들 황계조(黃繼曹)가 함께 이곳에 입향하여 황씨촌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 세 인맥은 전국에 분포한 평해 황씨 후손들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황계조의 아들 자중은 5형제를 두었는데 장자가 심(諡), 차자가 전(諡), 3자가 순(詢), 4자가 근(謹), 5자가 겸(謙)으로 모두 관직에 진출 평해 황씨 문중을 일으켜 조선 중종 조의 명문 대족으로 번성하였다.

서(瑞)는 심의 손자인데 그는 동두천이 낳은 인물로 중종 9년(1514) 광암동 송지골에서 태어나 중종 32년(1537) 사마시와 정시 문과에 등과하고 대사간, 부제학, 이조참의를 거쳐 중정, 전라, 경상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서의 아들 윤신은 부친의 뜻에 따라 무인이 되어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 충좌위(忠佐衛) 대호군(大護軍)으로 출병하여 회인 피발령에서 왜적 수십 기를 베었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순국한 절신이다

다시 겸의 아들이 세달이고, 세달의 아들이 기인데 충렬공 황선신은 기의 아들이 된다. 선신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함락될 때 강화부의 중군(中軍)으로 강홍립과 밀려오는 적군 수십 명을 죽이고 최후까지 항전한 절신이다.

이렇듯 국난을 당할 때마다 순국 충절의 의인 맥이 동두천 평해 황씨 문중에서 이어져 내려왔다.

평해 황씨는 우리 고장에 입향한 계조로부터 24대가 계대되었으며 황란, 황곡, 황계조에서 각각 세계된 인맥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 동두천은 평해 황씨 중시조 후손들의 세향(世鄉 약 4,000세대)이 되어가고 있다.

애국지사 황용길(黃龍吉) 선생은 1881년 광암동 좌기골에서 출생하여 1921년 평양을 거쳐 중국 임강현에 본부를 둔 항일 무장단체 백산무사단(白山武士團)에서 구국활동을 전개하시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험악한 고초를 겪으신 우리 동두천이 배출한 걸출한 애국지사이다.

동두천 지행동에 황성만, 황석봉 등 10여 세대가 세거하고 있다.

(32) 장원 황씨

동두천시 탑동동에 400여 년을 세거해 온 장원 황씨의 시조는 고려조에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황충준(黃忠俊)이다.

중시조 황신(黃信)의 7세손이 황순경(黃舜卿 內資寺副正)이고 순경의 차자가 황림(黃琳)이며 묘소는 용인시 고기동 낙생 저수지 동쪽 산기슭에 있다.

황림(1517-1597)의 호는 겸재(謙濟)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옥당(玉堂)에 올라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승품을 거듭하여 명종 17년(1562)에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에 이르렀다. 선조 11년(1578)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해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공신에 책록되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판서와 대사헌(大司憲)에 올랐다.

종계변무란 조선이 명나라 사적(史籍)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의 권신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을 바로잡아 주도록 요청하여 관철시킨 일을 말한다. 이는 고려 말 이성계의 정적 윤이(尹彝), 이초(李初)가 명나라로 망명하여 무고한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는 여러 차례 주청사를 파견하였던바 선조 11년에 황림 등 19명의 주청사가 귀국 후 황림은 수기광국공신(修紀光國功臣) 3등에 책록되어 의창군에 봉해진다. 선조 30년(1597) 10월 24일 그가 81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나라에서는 그에게 평장공(平莊公)이라는 시호를 내리게 된다. 황림의 묘소는 정부인 파평 윤씨와 합장되어 있다. 묘비는 수충익모광국공신 정헌대부 이조판서 잡지경연 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의창군 황공지묘(輪忠翼謨光國功臣 正憲大夫 吏曹判書 參知經筵 義禁府事 五衛都摠府 都摠管 義昌君 黃公之墓)라 새기고 우측에 정부인 파평윤씨지묘(貞夫人 坡平尹氏之墓)라 새겨 시신이 있는 쪽으로 글씨를 배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묘표 하단에 기단석을 두었고, 기단 아래에 혼유석과 상석을 배열하였으며 상석을 중심으로 좌우에 망주석을 세웠고, 망주석과 직선을 이루는 바깥쪽에 문인석을 배열하였다. 문인석은 이목구비가 잘 정제되어 있어 그 표정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줄만큼 섬세 미려하다. 홀을 바쳐 든 양손에는 손톱 모양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16세기 석조 미술의 원숙미를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림이 아들 신중(愼中 1561-1627)은 북별검(北別檢)을 지내다 동두천시 탑동동으로 입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현재까지 15세가 이어져 왔으며 그의 11세손이 유학자 석재(石齋) 황학성(黃學性)으로 많은 후학을 길러 냈다.

현재 문중의 후손은 각지에 1,000여 세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동두천에는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행정고시(42회)에 합격한 황범순(黃範淳), 동두천 청년회의소 회장 황수현(黃洙鉉) 탐동3리 이장을 역임한 황우현, 황대현, 동두천시청 생연1동에 근무하는 황규한 등이 있다.

(33) 양천 허씨

양천 허씨의 시조는 허선문(許宣文)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칠 때 군량미를 대주어 그 공으로 세거해 오던 지역의 공암촌주(孔巖村主)로 봉해졌다. 따라서 양천 허씨를 일명 공암 허씨라고도 한다.

양천 허씨 인맥은 고려조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지만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허중, 허심, 허적, 허목 같은 명재상들을 배출해 냈다.

특히 전재 여류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과 홍길동전의 저자 대문호 허균(許筠 1569-1618), 그리고 명의로 의학서적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저술한 허준(許俊)과 같은 인물 이 그들이다.

양천 허씨가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뿌리를 내린 것은 시조의 20세손 허난이다.

난(欄)의 부친 허자는 명종 때의 공조판서로 윤원형 등과 함께 윤임을 제거한 공로로 보의공신(保翼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난의 형인 허강은 학문에만 정진하여 부친이 편찬하던 역사(歷代史鑑) 30권을 완성하였다. 허난의 아들이 현감을 지낸 허수(1564-1642)이고 수의 아들이 허도이다 허도는 광해군 13년(1621)에 무과에 급제하여 승계가 거듭되어 현령에 올랐으며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워 도호부사(都護府使)로 아홉 고을을 목민하였고, 이후 낙향하여 철산보(鐵山湫)를 설치하고 농사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자가 허황, 차자가 허근, 3자가 허박이다. 이들 세 형제의 후손들이 인근 각지에 흩어져 200여 세대가 거주하며 14대가 계대되었고 동두천에는 약 50여 세대가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의 인물로는 상패동 동장을 역임하고 동두천시 의료보험조합장을 지낸 허의강, 예비군 중대장을 역임한 허영무, 이 지역에 한문과 서예를 보급하고 교육하던 세명서예학원 원장 허영무, 돈암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허인강, 협신양행을 운영한 허신강 등이 있고, 허의강씨는 동두천시 시민의 장 향토애향장을 수상한 바 있다.

(34) 한양 조씨

동두천 지역에 누대를 살아 온 한양 조씨의 상계는 열세 살에 원나라의 일본 정벌에 원군을 거느리고 참전했다가 전군을 무사히 데리고 귀환한 명장 양기(良琪)로부터 계대한다.

상패동 남산에 묻혀있는 조중려(趙中呂)는 응문(應文)의 현손이다.

시조의 15세손으로 자는 중경(重卿), 호는 휴천(休川)이다. 선조 31년(1603)에 태어나 27세 때인 인조8년(1630)에 진사가 되어 잠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인조 11년(1633) 증광문과에 올라 삼사(三司)를 역임하면서 당대의석학인 최지천, 박구당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고 문장을 겨루어 세상을 놀라게 한 대문장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과 47세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학문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중여의 장자가 종면(宗冕 자는 종지 호는 동곽산인)이다. 그는 음보(蔭補)로 화순(和順), 괴산(槐山), 장수(長水) 세 고을의 목민관을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다. 차자 종저(宗著 호 남악(南岳))는 7세 때에 사서(四書)를 떼고 최지천에게 동갑인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와 함께 수학하였으며 38세 때인 현종10년(1669)에 수중교(授中敎)가 되고 42세 때인 현종 13년(1672) 문과에 등과하여 사서(司書)를 거쳐 숙종 12년(1686) 통정대부가 되었다. 평생을 학문 연구에 힘써 남악집(南岳集) 3권과 민제신사(民齊新筭)1권을 남겼다. 종제의 장자가 의징(儀徵)이다. 그는 옥당(玉堂)에 올라 승지를 지냈으며 3자 의상(儀祥)도 세마에 올라 전의 현감을 지냈다. 의상의 장자 진세(鎭世)도 정조 21년(1797) 문과에 올라 한원(翰苑) 설서(設書) 사간(司諫)을 거쳐 홍주목사에 이르렀다.

종면, 종저 형제가 우리 고장에 입향하여 후손 대에서 명, 현관들을 배출하였으며 중여로부터 14대가 계대되어 경향 각지에 100여 세대, 동두천 지역에 10여 세대가 분포한다.

주요 인사로는 동두천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조성문,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예편한 조원희, 육군 공병중위로 예편한 조규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수료한 조성학,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성민, 영남대학교 토목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백기 평택경찰서장을 역임한 조관형, 초등학교 교감 조성찬, 질레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조성욱 등이 있다.

(35) 공주 이씨

공주 이씨는 한나라 선제(宣帝)의 감로(甘路) 원년(신라 혁거세 5년 B.C 53년) 대사마(大司馬) 대장군(大將軍) 요동백(遼東伯) 천일(天一)을 시조로 2,000여 년 간 맥을 이어 온 신라 공산군(公山君) 씨족으로서 신라와 고려를 통하여 대대로 문신과 학자를 배출해 온 명문이다.

시조의 38세손 은자광록대부첨의정승(銀紫光祿大夫僉議政丞) 사손(思孫)의 손자 7인을 각각 파조로 하여 경역공, 문성공, 공숙공, 참의공, 현감공 강약공, 등 7개 파로 분리 되었다. 시조 이후 62대에 이르도록 지금은 전국에 9,400여 세대(북한 제외)가 분포하고 있으며 예비역 대장 이형근(李亨根)씨를 중앙총친회장으로 활발하게 돈종사업(敦宗事業)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동두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요인물로는 59세손 이윤형(李允滢)씨가 있다.

그는 2000년 8월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32호(송서, 율창 부분)로 지정되었고, 동두천 시민의 장(향토문화 창달 부분)을 1989년에 수상하였다.

이윤형 씨는 두 형제를 두었는데 형 이세규는 시원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고, 동생 이오규 씨는 화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60세손 이철규(李哲圭) 등 20여 세대가 동두천을 위시한 전곡읍 양원리와 미산면 일대에 분포하며 강양공(剛襄公)파,의 파조이며 고려 보문각대제학(寶文閣 大提學), 조선 개국공신 흥원군(興原君)의 사우가 미산면 무등리에 소재한다.

(36) 안동 김씨

안동 김씨의 시조는 신라 경순왕의 후예인 김일궁(金日兢), 그 후손이 김효인(金孝仁), 효인의 아들이 고려 명장 김방경(金方慶)이다. 혹은 경순왕의 11세손 김이청의 현손이라고도 하고 이청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

방경의 아들은 혼(忻), 순(恂) 형제이고, 순의 아들이 영돈(永頓), 영후(永煦) 형제이다. 영후의 손자가 사렴(士廉), 그리고 조선 개국공신인 사형(士衡) 형제이다. 배극렴(裴克廉), 조준(趙俊), 정도전(鄭道傳), 심덕부(沈德孳)와 더불어 태조의 5대 상신인 사형은 일생 동안 한번이 탄핵도 받지 않은 관력(官歷)으로도 유명하다. 또 김사형은 태조의 대일 강경정책의 첫 걸음 인 대마도와 이기도 정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 온 명장이기도 했다.

사형의 아들이 승(陞)이고 승의 아들이 종윤(宗潤), 종윤의 아들이 영(瑛)이고, 영의 아들

이 바로 동두천 광암동에 입향하는 유지(有智)이다.

그의 9세손 장년(長年)이 고종 때 효자로 정려(旌閭)되고, 아들 진태(鎭泰)도 순종 때 효자로 포상을 받아 2대가 나란히 정려되어 효자문을 세우는 영광을 안았다.

광암동에는 유지로부터 19대가 계대되어 지금에 이르렀고, 동두천 지역에는 1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150여 세대가 분포되어 있다.

선영 아래 김재운, 김재만 형제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요 인물로는 안동 김씨(구) 종친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훈씨가 있으며 그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10여 년 간 재임하였다.

종손으로는 김태환씨가 여주에 거주하며 이천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고 그의 동생 김태철 씨는 양평 소방서 행정과장으로 있고, 종회 총무 김영수씨가 의정부시청, 구리시청의 과장을 역임하고 공기업 저장으로 퇴임하였으며 김재운씨는 새마을 지도자와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대통령 훈장을 수훈받은 바 있다. 그의 동생 김재만씨 역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지도자과정)을 마치고 유도회에서 활동하는 한편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37) 경주 이씨

경주 이씨의 시조는 이알평(李諲平 신라 시조의 개국공신, 대아찬)으로 후손 이거명(李居易 소판파)가 경주 이씨의 주맥을 끌고 증시조는 이지수(李之秀 대부)와 이춘림(李春林)이 각기 명맥을 끌어 3대맥으로 기려 볼 수 있다.

이거명의 8세손 이충섭(李寵漣 문하시중), 충섭의 6세손 이핵(李翮), 핵의 아들이 시인이요 학자인 인정(仁廷), 진(璘 김교정승), 세기(世基)인데 이들이 경주 이씨를 중흥시킨 중흥조들이다. 진의 아들이 관(瑄 상락군)과 이제현(李齊賢 문하시중 공민왕 묘정 배향)이다.

최고운(崔孤雲) 후의 최고의 학자라는 제현의 아들이 달충(達衷 충숙왕 대 보문각 제학)과 달준(達尊 직제학), 제현의 손자가 보림(寶林 정당문학), 제현의 증손이 선(瑄 판서)이고 점필재의 다정한 문우였던 지대(之帶 판서)는 선의 아들이다.

다시 소급해서 세기 인맥은 그의 아들 천(溍 고려 중렬왕 때 문하평리), 천의 세 아들이

경중(敬中 월성군), 달충(達衷 정당문학), 성중(誠中 죄의정)이다

이 3형제에 의해 인맥이 다시 셋으로 갈라진다.

경중의 손자가 정보(廷輔 감사 청백리), 정보의 6세손이 정암(廷鼐 선무공신 지증추 형충사) 정형(廷馨 이조참판 형서원), 정협(廷謙 이조참판)의 3형제이다

이세기과의 세 갈래 인맥 이외에 세기의 7세손 예신(禮臣 찬성)으로 뻗은 인맥도 굵직하다.

예신의 아들이 몽윤(夢尹 보덕), 몽량(夢亮 우참찬)이다. 몽량의 아들이 바로 선조 조의 상신 백사 이항복(李恒福 영의정 공신 청백리 향서원)이다. 이덕형(李德馨), 이정립(李廷立)과 더불어 과거 동과생으로 혼조 삼리(昏朝 三李)라 우리름을 받았다.

동두천시 광암동에 세거해 온 경주 이씨는 몽윤으로부터 계대한다.

몽윤의아들이 광복(光福)이고 그는 이항복의 제자로 음보(蔭補)로 참봉이 되고 1650년 (효종 1년) 증과 문과에 급제하여 회양부사를 거쳐 첨지중추부사를 지낸다.

1667년 승지에 발탁된 시성(時省)은 광복의 손자이며 시성의 현손이 중혁(重赫)이다.

중혁이 우리 고장에 입향하여 그로부터 13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르며 후손 3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하고 우리 지역에는 10여 세대가 거주한다.

주요 인물로는 이담면 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상덕(李相德)이 있다

한편 광암동이 아닌 생연 3동에는 또 다른 갈래의 경주 이씨가 세거하고 있다.

이 갈래의 상계는 이경중(판병부사, 시호 문정)인데 그의 8대손 정협(廷謙 감사 청백리)으로부터 계대한다

정협의 차자가 현(灝 호는 송정(松亭))인데 그이 후손 10여 세대가 거주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담면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지역 유림으로 활동한 이종섭(李鐘燮)이 있으며 그가 바로 현의 10세손이다.

그리고 이종섭의 아들 이태우는 공학박사로 현재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딸 이신옥은 종근당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육군 대령으로 현재 국방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상현 박사도 후손이다.

현재 동두천이 경주 이씨는 종친회를 구성하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있는 회장

이영일을 비롯하여 동두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회장,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동두천라이온스클럽 회장인 이명수, 전 동두천시 부시장 이규용, 동두천시 회계과장을 역임한 서기관 이상용, 동장을 역임한 이상옥 등이 주축이 되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38) 사천 목씨

동두천에 최초로 뿌리를 내린 사천 목문의 입향조는 13세 사흙(思欽)이다.

사흙(1572-1661)은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종4품 선전관을 지냈고, 1609년 광해(光海) 혼조(昏朝)에서 벼슬을 사양하고 지행동으로 낙향한 이래 14대를 이어 오고 있다.

후손 24세 연욱(然旭)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후 조국 해방을 맞아 귀국하여 광복동지회 선전부장으로 활동 중 1948년 피습되어 사망하였다. 이담면 부면장을 지낸 영희(榮喜), 경찰서장(총경)을 지낸 영호(榮浩), 한국 감정원 이사를 지낸 감정평가사 영민(榮敏), 장악원 정공과 중중회장인 영진(榮鎭) 등이 그 후손이다.

다른 한 맥인 대흙(大欽)의 아들 행선(行禪 -황해감사)도 지행동에 정착하여 그로부터 14대를 계대하고 있으며 행선의 후손인 24세 자상(子商 호적명은 연철(然哲))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항일운동에 동참하여 의병활동 자금을 모금하던 중 일본 헌병에 피체되어 191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13세 서흙(敍欽 충정공(忠貞公)과 시조)의 아들 5형제 중 차남 기선(曄善)은 현재의 불현동 생골에 정착하였고, 기선의 아들이 효행으로 별천(別薦)되어 나주목사와 정상감사를 지낸 임형(林馨)이다. 이 지역에는 기선으로부터 15대가 이어져 후손 5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하여 살고 있으며 전 경기도 도의원과 양주군 농협장을 지낸 태신(泰信),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지낸 4선 국회의원이며 판사 출신인 요상(堯相), 전국 농민회 중앙회장과 대관령 농협장을 지낸 찬균(瓚均) 등이 그 후손이다.

또한 기선의 아우로 조선 숙종 조에서 좌의정을 지낸 내선(來善)의 둘째 아들 임칠(林七)이 현재의 송내동 안골에 입향하여 12대가 이어져 내리며 후손 70여 세대가 경향 각지에 분포하여 살고 있는데 명지대학교 교수 찬상(瓚相), 대한 탄질검사소(炭質檢査所) 소장 준상(俊相) 현재 송내동에 거주하면서 동두천시 국악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상(裕相) 등이 그 후손이다.

그 외 동두천읍 총무과장을 역임한 효상, 송내리 이장을 역임한 우상, 행정고시에 합격하

고 현재 특허청 서기관으로 있는 성호(盛浩), 의학박사로 개업하고 있는 승희(勝姬), 문학박사로 이화여대 교수인 승숙(勝淑),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특허청 서기관으로 있는 동균(東均)이 있다

목태신씨가 1993년 동두천 시민의 장(지역발전 유공 부문)을 , 2003년 목유상 씨가 동두천 시 공도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이를 발전시킨 공로로 동두천 시민의 장(문화체육 부문)을 각각 수상하였다.

(39) 해주 오씨

시조 오현보(吳賢輔)는 오씨의 비조(鼻祖) 등(騰)의 24세손이다.

서기 500년(신라 지증왕 1년) 등이 중국에서 동래(東來)하여 함양에 살면서 오씨의 연원(淵源)을 이루었고, 그의 자손이 신라 역조(歷朝)에서 벼슬하였으며 11세 회(禧)는 고려 태조의 국구(國舅)였다. 18세 연총(延寵)은 1107년(고려 예종 2) 부원수로서 여진을 토벌하였고, 24세 현보(賢輔), 현좌(賢佐), 현필(賢弼) 3형제가 거란을 토평한 공으로 1216년(고려 고종 3) 각각 해주군(海州君), 동복군(同福君), 보성군(寶城君)으로 봉해져 이를 계기로 해주, 동북, 보성 오씨로 각각 분적되었다. 그러나 고려조에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지낸 현보의 손자 인유(仁裕)를 1세조로 계대하는 해주 오씨의 다른 흐름이 있다.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세거한 해주 오씨의 상계는 인유를 1세로 하여 계대한다.

인유의 7세손이 사염(士廉)이고, 사염의 7세손이 조선조 광해군 당시 여주목사를 지낸 윤해(允諧)이다 그 윤해의 아들이 달제(達濟) 자는 계휘(季輝), 호는 추담(秋潭), 시호 충렬(忠烈) 관직은 부교리(副校理)다.

그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후 남한산성에 들어가 화의를 적극 반대했는데 인조가 청군에 항복한 뒤 적진에 송치되었으나, 적장 용골대의 심문에 굽히지 않아 심양으로 이송, 거기서도 소신을 끝내 굽히지 않자 끝내 윤집, 홍익한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들을 삼학사라 한다.

달제의 아들이 도현(道玄). 도현의 손자가 영조 때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명서(命瑞)이고, 형조판서를 지낸 언유(彦儒)는 그 명서의 아들이다.

· 언유의 고손 완선(玩善)이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입향하여 우리 고장에 뿌리를 내린다.

그로부터 계대하여 정착한 해주 오씨 가문에는 남영해산물상사(南榮海產物商社)를 운영하던 오준환(吳俊煥)씨가 완선의 현손이며 동생 인환, 윤환, 순환 등이 지역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입향조의 직계는 아니나 경기도 의원을 지내고 현재 동두천 시장으로 재임하는 오세장 시장 역시 해주 오씨 문중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40) 밀양 박씨

밀양 박씨의 시조는 박언부(朴彦孚 고려 태조 때 문하시중 태사)로 그의 후손이 13개 파로 분파되었고 5개 문중이 명맥을 이끌었다.

양주 회천읍과 동두천 하봉암동에 뿌리를 내린 박씨 인맥은 중시조 박척(朴陟)으로부터 계대된다. 척의 11세손이 적화신 박이서(朴彝敍 이조판서)이고 이서의 아들이 노(魯 참판)이다. 조선시대에 이 분 만큼 기구한 외교관 노릇을 한 이가 없다. 병자년에 신흥한 청(淸)나라가 병사를 일으키려는 기미를 보이자 아무런 방비가 없던 조선에서는 외교 수단으로 전쟁을 막으려는 계책을 세웠고, 이 어려운 외교의 임무가 그에게 맡겨졌다. 그의 사신행이 평안도 중화에 미쳤을 때 청은 이미 기병하여 쳐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는 황주(黃州)로 물러가 있다가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결심을 하였다. 그는 적장을 만날 결심을 하고 사신단을 인솔한 채 적진을 찾아가자 적은 사신단 일행을 포로로 하여 구금하였다 이에 그는 사신패를 보이며 적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적장을 만나서는 본래 받은 사명대로 돼지고기와 술을 예물로 바치고 화의(和議)를 요청하니 적장은 웃으며 그를 방면하였다.

상황을 복명(復命)하고자 서울로 돌아가니 이미 왕은 남한산성으로 몽진(蒙塵)한 후였고 그는 다시 임금을 찾아 남한산성으로 가는 중에 산성을 포위하고 있던 적진에 억류되고 말았다. 이미 세 차례나 그를 억류한 청군은 그를 모질게 고문하였다. 윤선거가 사람들에게 말하길 “내가 청나라 군중에서 보니 박노가 결박당한 채 옷은 찢어지고 떨어졌는데도 가운데 그냥 서서 늠름하고 태연하였다. 청군들이 그렇게 욕을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항례(抗禮)하여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가 40여 일 만에 청 진영을 뚫고 행재소(行在所)에 이르렀을 때 그가 당한 욕과 공을 일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후 인질로 잡혀 간 소현세자의 빈객으로 심양에 가 살았으며

그의 정이 전대와 하에 고집은 여전하여 사소한 문제를 자주 일으켰다. 고집과 소신이 부각되는 인물이었다.

다시 소급하여 이서의 조카가 이일(李鎰)을 따라 순절한 호(簾 교리), 이서의 7세손이 장복(長福 판서)이다.

동두천시 하봉암동으로 입향한 수소(守素 영의정을 지낸 윤두수의 손자사위)는 노의 장자이며 그로부터 13대가 계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후손들의 분포는 동두천과 양주 지역에 40여 세대가 산재한다.

한편 지행동에도 세거해 온 밀양 박씨 문중이 있다.

그 상계는 중시조 척의 7세손 시림(時霖 어모장군 부사직)이 성종 16년(1485) 양주 회천으로 입향하면서 맥이 이어진다. 시림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연(演), 빈(濱), 환(煥)이다. 이서는 환의 증손이다.

지행동에 세거해 온 박씨 문중은 빈으로부터 이어진다.

빈이 손자가 장(裝 부사직), 장의 손자가 안공(安恭 인조 때 영사, 원종공신 1등), 안공의 손자가 문동(文東), 문동의 증손이 장환(長煥), 장환의 손자가 길회(吉會), 길회의 손자가 시병(是秉)이다

회천에서 지행으로 이거 입향한 이가 바로 시병이다. 그로부터 9대가 계대되었으며 자손 10여 세대가 거주한다.

후손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박상배씨, 전 공무원 박상호씨,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박관희씨 등이 있다.

(41) 남양 홍씨

남양 홍씨는 12세 홍융(洪戎)의 아들인 13세에서 4형제가 4대파를 이루어 이때부터 더욱 번창하였다. 즉 맏아들 홍주(洪澍)는 남양군파(南陽君派), 둘째 아들 홍언박(洪彦博)은 문정공파(文正公派), 셋째아들 홍언유(洪彦猷)는 판밀직파(判密直派), 넷째아들 홍언수(洪彦修)가 판중추파(判中樞派)의 파조가 동두천의 입향조(入鄉祖)가 되어 동두천에 뿌리를 내렸다.

남양 홍씨가 동두천시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역성혁명을 일으킨 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혁명당시에 고려조정에서 공조판서의 현직에 재임 중에 있던 홍언수(洪彦修)는 혁명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벼슬을 버리고 동두천시 생연리로 낙향하여 은거함으로 입향조(入鄕祖)로 파세조(派世祖)가 되며 동두천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홍언수는 현재의 동두천시 생연동 113, 114 번지 일대에 저택을 새로 짓고 마당 앞에 연못(111번지)을 파서 士大夫家의 운치를 더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 저택은 사라지고 없으나 그 연못은 현재까지도 600여 년간 보존되어오고 있으며 그 연못의 샘이 아무리 가뭄이 심하여도 마르지 않는다 하여 생연동(샘이 솟는 연못)·못골(연못이 있는 마을) 생골=샘골이라는 동명이 생기게 된 연유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 연못은 동두천시 차원에서 향토 유적지로 지정하고 주변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홍언수는 7남 9녀를 두고 사망하여 그의 묘는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산 34에 봉안되어 있고 그 자손들의 분묘는 동두천시 생연동 산16번지를 위시하여 동두천시내 일원에 세장되어 있다. 홍언수는 판중추공과의 파시조가 되고 그의 후손들은 동두천과 양주시를 위시하여 수원시, 용인시, 부산시, 김해시, 대구시, 성주군, 논산시 등 전국에 약 5,000여 세대를 이루고 있어 남양 홍씨의 4대파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홍언수의 7남 9녀 중 장남 호(浩)는 생원이고 차남 연(愐)은 공조참판(工曹參判)이요 3남 한(漢)은 병조판서요 4남 약(約)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요 5남 적(迪)은 대호군(大護君)이요 6남 승(勝)은 첨사(僉使)요 7남 해(海)는 태조 이성계의 부마로 당성군에 봉해지므로 7형제가 모두 출사하는 영화를 누렸다.

7형제 중 4남 약(約)과 5남 적(迪)과 6남 승(勝)과 7남 해(海) 등 4형제는 안평대군과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수호에 앞장을 서다 적몰되기도 하였다. 특히 5남 적(迪)은 피화하여 영월 단종릉의 배식단과 계룡산 동학사 숙모전에 배향 되어 있다. 또한 약의 맏아들 원로(元老)와 둘째아들 형로(亨老)도 부형들과 함께 단종 수호에 앞장을 서다 적몰되고 강계와 종성에 각각 충군되었다.

이와 같이 한 가족 여섯 분들은 모두 동두천의 출신으로 함께 나서서 단종을 수호하려다 모두 적몰 충군되고 홍적은 피화하였으니 한 가족에서 6충신이 배출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중신지문이라 하겠다.

홍언수의 7형제 중 동두천에 뿌리를 내린 계통은 홍언수의 4남 홍약, 약의 넷째아들 훈련 원·도정·홍정로·정로의 맏아들 우후공·홍결의 후손들은 수원으로 출향하였고 둘째 아들 수사공·홍준(洪濬)의 후손들이 못골의 고향을 지키고 대를 이어 세거하므로 600여년의 토성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현재 수사공의 후손들은 동두천 시내일원에 걸쳐 1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생연1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수사공·홍준은 정주목사·절충장군·경상도·수군절도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사망하여 그의 묘는 생연1동 산 16번지에 모셔져 있어 그 자손들이 매년 음력 10월 3일 시향을 모시고 있다. 홍준의 맏아들은 교위공(校尉公)·홍수강(洪守綱)이요, 둘째 아들은 사직공(使直公)·홍수기(洪守基)이다. 동두천 출신으로 홍진(洪璿)과 홍극제(洪克濟)는 부자지간으로 2대에 걸쳐 문과(文科)에 급제하므로 가문을 빛나게 하였고 그의 묘는 보산동 산22에 있다. 특히 홍익범(洪益範)의 조선시대에 작성된 호적이 국립중앙 도서관에 고문서로 보존되고 있어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근대 인물로 애국지사·홍병준은 동두천에서 3.1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왜경에 체포되어 그 형독으로 사망·상봉암동 산 131번지에 애국지사비각이 있어 동두천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있다. 홍희영도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2대 면장을 지낸 홍기영, 초대 면의원을 지낸 홍재운, 양주향교의 전교·홍병현, 적성향교의 전교·홍인섭 등이 있고 서예가·소농·홍정섭의 글씨는 소요산입구의 반공희생자위령탑의 비문으로 남아있어 그의 서체를 볼 수 있고 언론인이며 대한 언론인회 복지기금관리 위원장을 지낸 홍돈섭 등이 있다.

현대 인물로 경기도 경찰국장을 역임하고 은성무공훈장, 녹조소성훈장, 금성총무무공훈장을 수훈한 홍병식씨, 동두천고교교장, 동두천문화원장을 지낸 홍경섭(현·성균관 전인·성균관 유도회 동두천지부장·한복신문·논설위원)은 40년간의 교육봉사로 대통령 석류장을 수상하였으며 동두천시의 가장 영예로운 시민의 장인 지역교육발전부문인 문화장을 1995년 10월 6일 수상하였다. 전·과천·외국어·고교·교장·홍배식(현·과천학교·명예교장, 중국대련시·육명중학·명예교장), 홍병훈(전·이담고등공민학교·교장)·초등학교·교장을 역임한 홍병영·홍운섭

홍운섭 · 홍준섭 미국 테네스주 앤리스 한인 학교 교장 홍기순, 전 동두천 재건중학교 교장 홍수직, 서울대 문학박사 홍재범(건국대교수), 경기대 교수 영문학박사 홍병호, 전 한양건설 쿠웨이트 현장소장 홍재겸, 의학박사 홍재엽(이화여대 교수), 정치학박사 홍재환, 공학박사 홍재일(대학교수), 전 평화방송 아나운서 홍관섭(공주대교수), 의정부 송현고 행정실장 홍종훈(사무관), 국민대 교육학 석사 홍순창(보영여고 교사) 등 교직이 다수이고 전 국보위 중령 홍양섭(중앙대 ROTC) 전 국방대학 중령 홍진섭(건국대 ROTC), 전 경무대 통신계장 홍계섭, 전 청와대 사무관 홍재민(충남도청 근무), 전 동두천시의회 사무과장 홍효섭, 전 중앙동장 홍재진, 현 동두천시 도시과장 홍익호, 회계과장 홍재설, 전 양주시의회 의장 홍재룡, 시의원 홍운섭(2선), 주택은행 남양주 지점장 홍재진, 안양 상공회의소 상임부회장 홍정웅, 전 동두천시 시정자문위원회 상임위원 동두천시 청년회의소 9대회장을 지냈고 남양홍씨 관중추공파 종중회장인 홍종근, 홍재우 전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계장, 동두천시 새마을지도자회 회장 홍종서는 동두천시의 가장 영예로운 시민의장인 자연정화부문인 시민봉사장을 2005년 10월 6일 수상하였다. 홍재연 전 동두천시 청소시설계장, 홍재정 서울대석사, 사단법인 작물 보호제 판매협회 경기북부지부 사무국장 홍재찬, 세종대 강사 홍난지, (주)효성 파나마지사장 홍재형, 홍순학 경기제2청사 6급, 공학박사 홍재화, 동작구청 세무과 홍종애, 초등학교 서무부장 홍덕상, 동두천시청 계장 홍정욱, 동두천단위조합 부녀부 차장 홍계숙, 1998년 10월 6일 선행부문 효행선행장의 시민의장을 수상한 홍재승, 동두천시의 가장 영예로운 시민의장인 효행 선행 부문에 관하여 시민의장을 수상한 홍재우 등이 모두 수사공 홍준의 후손들이다.

동두천시 생연1동 427-18(동두천 시청 앞)에 남양 홍씨 수사공 문중회관이 있어 종친들의 보화 등을 연찬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문중사를 논의하는 모임의 장소가 되고 있다.

(42) 죽산 안씨

죽산 안씨(竹山安氏)의 시조(始祖) 안방준(安邦俊)은 당(唐)나라에서 동래(東來)해 온 이원(李瑗)의 아들 3형제 중 장남으로, 본래의 이름은 이지춘(李枝春)이었으나 두 아우와 함께 모반(謀反)을 평정(平定)하여 죽산군(竹山君)에 봉해졌고 안씨(安氏)의 성(姓)을 하사(下賜)받아 방준(邦俊)으로 개명(改名)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방준을 시조로 받들고 죽산(竹山)을 관향(貫鄕)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그 후 시조의 맏아들 국보(國輔)가 고려조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으며, 둘째 국필

(國弼)은 문하시랑(門下侍郎)을 역임하여 죽산 안씨의 양대 인맥(人脈)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들의 후대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가문(家門)의 중흥을 다졌다.

가세(家勢)를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로는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를 거쳐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에 봉해졌던 한평(漢平 : 국보의 10세손)과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관호조사(判戶曹事)에 올라 죽산부원군(竹山府院君)에 봉해진 사경(社卿)의 부자가 유명했으며, 사경의 맏아들로 공민왕(恭愍王)의 국구(國舅)가 되었던 극인(克仁)은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우문관 대제학(右文館大提學)을 거쳐 죽성군(竹城君)에 봉해졌고 우왕(禡王) 때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가통(家統)을 이었다.

문하시랑(門下侍郎) 국필(國弼)의 후손에서는 그의 손자 만생(晩生)이 중서령(中書令)을 역임했고, 8세손 영의(令儀)가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올라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지낸 손자 홍상(洪祥)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조선조(朝鮮朝)에 와서는 찰리사(察理使) 숙로(叔老)의 아들 맹담(孟聃)이 세종(世宗)의 딸 정의공주(貞懿公主)와 혼인하여 죽성군(竹城君)에 봉해졌다가 연창군(延昌君)에 이어 연창위(延昌尉)로 개봉(改封)되고 세조(世祖) 등극에 공(功)을 세워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에 책록되었다.

지고성군사(知固城郡事) 계인(季仁)의 아들로 1447년(세종 29) 진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한 초(迢)는 세조 때 이조 정랑(吏曹正郎)으로 경기도 암행어사(京畿道暗行御史)가 되어 도정을 순찰하고 돌아와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거쳐 형조 참의(刑曹參議)와 안동부사(安東府使)를 지낸 후 형조 및 호조의 참판(參判)을 역임했다.

한편 중종(中宗) 때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방경(方慶)은 승문원(承文院)의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와 검열(檢閱) 동부승지(同副承旨) 공조 참의 등을 지내고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선정(善政)을 베풀었으며, 숙종(肅宗) 때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지낸 구(綬)는 경사(經史)에 능통하여 문명(文名)을 떨쳤다.

목사(牧使) 상원(相元)의 아들로 영조(英祖) 때 등과한 윤행(允行)은 수찬(修撰)과 교리(校

理)를 지냈으며 직언(直言)을 하다가 왕의 비위를 거슬러 한 때 파직되기도 했으나 부교리(副校理)로 다시 등용되어 승지와 울산 부사(蔚山府使)를 거쳐 대사간, 대사헌, 형조 판서를 거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그 밖의 인물로는 영조(英祖) 때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淸)나라에 다녀왔던 표(杓 : 목사 종해의 아들)가 제주 목사(濟州牧使)와 형조 참의를 거쳐 대사간(大司諫)을 역임하여 정조(正祖) 때 감찰(監察)과 형조 참관을 지낸 억(億), 순조조(純祖朝)에 예조 판서를 역임한 광직(光直), 철종(哲宗) 때 동부승지 희수(喜壽)와 함께 명성을 떨쳤으며, 한말(韓末)에 와서는 경수(淸壽)가 독립협회(獨立協會)의 회장(會長)을 역임하여 죽산 안씨의 가통을 지켰다

동두천시에는 鉞公께서 낙향한 이후 15대 400여 년간 지행동을 중심으로 거주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이 서울을 위시하여 외부 지역에 진출하여 현재 간신히 고향인 동두천시를 지키고 있다. 上代에는 고려사 열전에 오른 戡公과 一派의 文貞公 克仁公과 공민왕비 인 왕대비가 계시고 조선조에는 세종대왕의 따님 정의공주와 혼인하신 연창위 양효공 맹담(孟聃)과 郡事公 季仁公을 위시하며 別提公 子誠公과 양주목사에 충청도 감사를 역임하신 方慶公의 묘소가 양주시 회천읍에 계시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동두천시와 의정부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사신 것 같다. 또한 한말의 개화의 선구자 형조판서 군부대신 독립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경수(淸壽)공이 계시고 또한 금수회의를 쓴 신소설의 선구자 國善과 세계적인 무용계의 巨擘 弼承公의 배우자 崔承姬 등이 우리 안씨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현재는 연세대를 나와 미국 유시엔大學에서 수학하고 미국 L.A통신사 부사장으로 있는 忠煥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吉煥이 서울대 미국유스콘시 주립대 졸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받고 현재 忠南大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43) 청주 한씨

청주한씨(淸州韓氏)의 유래(由來)는 후조선(後朝鮮)인 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기원(起源)한다.

마한(馬韓) 원왕(元王)의 아들 3인이 있어 우평(友平), 우량(友諒), 우성(友誠)이니, 나라가 쇠(衰)하자 우평은 고구려(高句麗)에 입사(入仕)하여 북원 선우씨(北元鮮于氏)가 되고, 우량은 신라(新羅)에 입사하여 상당 한씨(上黨韓氏) 즉 청주한씨가 되었고, 우성은 백제(百濟)에

입사하여 덕양 기씨(德陽奇氏)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씨는 모두 기자(箕子)의 후예(後裔)가 되는 것이다.

위양공 휘 란(威襄公 韋 蘭)은 청주 한씨(淸州 韓氏)의 시조(始祖)이다.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忠淸北道 永同郡 黃澗面 蘭谷里) 태생으로 지원(諱 智原)의 삼자요 그 선계는 기자(箕子)로부터 계출하였다. 공(公)은 중년(中年)에 청주 방서동(淸州 方西洞)에 이거(移居)하였다. 태봉왕 궁예가 죽고 왕건 태조가 918년 6월 15일 절원에서 즉위하는데 공의 공도 있었다고 전한다. 태조(太祖) 2년 10월 배현경(裒玄慶)이 평양에 즉성하는 이점(利点)을 의논하니 왕이 한란(韓蘭)과 염상(廉湘)에게 영(旻)을 내려 현지에 가서 독려케 하였다. 염상이 중도에 병이 나서 강윤형(康允珩)을 대신 보내 평양성을 완성케 하니 태조는 평양을 서경이라 하였다. 그 후 청주 방서동에 내려와서 수 년 동안 농사를 지며 무농정(務農亭)에서 향학(鄉學)을 일으키고 용개평야(龍開平野)의 농토를 개척하여 부호가 되었더니 태조 11년(928) 후백제 견훤을 치러갈 때 정벌군에게 군량미를 대주고 종군하여 전공을 세워 삼중대광 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 開國壁上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 벼슬은 문하태위(門下太尉)에 올랐으며 시호는 위양(威襄)이다.

동두천에는 21세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혜량(惠良)公께서 동두천시에 입향하신 후 11세에 걸쳐 300여 년 동안 생연동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특히 10여 대를 독신으로 내려와 현재 4가구에 20여 명이 생연동에 살고 있다. 인물로는 현재 32세 命鉉이 육사를 졸업하고 현재 국방대학을 거쳐 미국에 유학중에 있다.

3. 결론

동두천 지역의 세거 성씨는 200년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을 때 모두 43개였다. 이들 세거 문중은 길게는 고려 중엽에 입향한 온양 방씨에서 부터 비교적 근년에 유입하여 거주 기간이 일천한 가문에 이르기까지 제법 상세한 거주 내역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근대사의 격랑을 현장에서 지러내면서도 온전한 가문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이후 동두천 향토 문화의 복원과 발전에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들 세거 가문의 후손들이 현재 동두천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리더하는 지도 그룹으로서의 능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본고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우선 개론적 자료 제시에 그치지만 이후 이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여 우선 보다 많은 자료 수집에 진력하고 동학의 협력을 얻어 보다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참고자료

-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
- 사마방목
- 연려실기술
- 국조보감
- 양주향교지
- 한국의 족보
- 양주시사
- 의정부시정40년사
- 동두천시사
- 동두천 향토애향지
- 동두천 지행동지

여 백

성남지역에서 확인된 復元 할 文化 遺跡

한 동 역(성남문화원 이사)

목 차

1. 서론(序論)
2. 삼한시대(三韓時代)의 역사(歷史)와 전설(傳說)
3. 백제시대(百濟時代) 문화유적(文化遺跡)
4. 고려시대(高麗時代) 문화유적(文化遺跡)
5. 조선시대(朝鮮時代) 문화유적(文化遺跡)
6. 문중유적(門中遺跡)
7. 결론(結論)

1. 서론(序論)

문화(文化)나 유적(遺跡)에 대한 일반적(一般的)개념(概念)은 시대적 변화(時代的變化)에 따라 바뀌는 것이 진리(眞理)이다. 그러나 집권자(執權者)의 사상(思想)과 정치철학(政治哲學)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文化)와 유적(遺跡)의 개념왜곡(概念歪曲)이 심화(深化)되어 어떤 것은 재현(再現)되거나 보존(保存)되고 어떤 것은 부득이(不得已)하게 사라진 것이 사실(史實)이라고 전(傳)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戰略的)유형(類型)외에도 전란(戰亂)때에 외적(外賊)에 의하여 화재(火災)로 소실(燒失)되었거나 천재지변(天災地變)등에 의하여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훼손방치(毀損放置)되다가 멸실(滅失)되었거나 시대적(時代的)사고변환기(思考變換機)에 무지(無知)로 인

(因)하여 방치(放置)되다가 사라진 문화유적(文化遺跡)이 상당수(相當數)있는 사실(事實)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남지역(城南地域)에는 삼한시대(三韓時代)부터 전(傳)해오는 전설(傳說)에 의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대별(時代別) 문화유적(文化遺跡)이 존재(存在)하였다고 전해 온다.

삼한시대(三韓時代)의 시초(始初)인 진한(辰韓)은 준(準)왕에 의하여 한수유역(漢水流域)인 광주시(廣州市)경안읍(慶安邑)에 소도지(所都地)를 정(定)하고 나라를 세우니 나라이름을 진국(辰國) 또는, 진한(辰韓)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위지(魏誌)」 준왕(準王)편에 전해오고 있음이 「광주군지(廣州郡誌)」에 전해온다.

경안(京安)으로도 불려온 광주일대(廣州一帶)가 진한(辰韓)의 수도(首都)가 있었던 도읍지(都邑地)였다는 사실(事實)은 경안(慶安, 또는 京安)이라는 어원(語源)속에서도 확인(確認)될 수 있는 것이다.

백제시대(百濟時代)에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남(南)쪽이라서 성남(城南)이라 불렀다는 곳이 성남(城南)이다. 성남일대(城南一帶)에서 전국(全國)의 군사(軍士)들을 모아 훈련(訓練)시키는 군사훈련장(軍事訓練場)으로 사용하며 막강(莫強)한 백제군(百濟軍)의 무술(武術)과 무예(武藝)를 숙련(熟練)시켰고 개인(個人)기예(技藝)를 수련연마(修練鍊磨)시키던 종합훈련장(綜合訓練場)이었다. 특히 막강(莫強)한 기마부대요원(騎馬部隊要員)인 기마병(騎馬兵)들의 훈련장(訓練場)이던 곳엔 돌마(突馬)면이라는 지명(地名)이 생겨났다. 군(軍)을 통제(統制)하는 군 통수권자(軍 統帥權者)인 세자(世子)가 거처(居處)하는 세자궁(世子宮)과 임금이 친(親)히 군사(軍士)들을 독려(督勵)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구원행궁(丘園行宮)이 있었는데 진흥왕(眞興王)이 한수유역(漢水流域)을 차지(此地)한 후 성남지역(城南地域)에 머물면서 살살이 둘러보고 지세(地勢)와 토질(土質)이 좋은 것을 보고 가히 영락장생지지(永樂長生之地, 영원하게 즐거움이 끊이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뜻)라고 하면서 낙생행궁(樂生行宮)으로 고쳐 주어서 조선시대(朝鮮時代)까지 행궁(行宮)이 있었다가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왜적(倭賊)에 의하여 불타 없어졌다고 전해온다. 침류왕(枕柳王)원년(서기 384)에 마라난타존자(摩羅難陀尊者)에 의하여 백제(百濟)에 불교(佛敎)가 전래(傳來)되어 한산(漢山)에 절을 세웠고 왕명(王命)에 의해 지정(指定)받은 열 분의 스님 중에 한분의 스님이 지었다는 영장산(靈長山)에는 금강사(金剛寺)라는 절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 이곳에서 빗살무늬 기와가 출토

(出土)되었으나 발굴(發掘)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이 절로 인하여 울리(粟里)가 밤의 명산지(名產地)로 유명세(有名稅)를 타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온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유적(遺跡)의 기록(記錄)으로는 낙생행궁(樂生行宮)과 광교산(光敎山)의 얽힌 전설(傳說)과 고려 말(高麗末)의 대 성리학자(大 性理學者)인 이곡(李穀)이 낙생역(樂生驛)을 지나다가 지었다는 “청풍루기(淸風樓記)”를 상고(詳考)하면 낙생행궁(樂生行宮)과 낙생역(樂生驛) 그리고, 청풍루(淸風樓)가 있었다는 증거(證據)가 확실(確實)하게 증명(證明)되고 있는 것이다. 청풍루기는 천하명문(天下名文)으로 사림(士林)의 예찬(禮讚)을 받고 있는 명시(名詩)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유적(遺跡)으로는 왕실전용(王室專用)의 정자(亭子)인 광주동정(廣州東亭)이 있어서 역대(歷代)왕(王)들의 행차(行次)가 빈번(頻繁)하였다. 또 관교원(板橋院)과 대야원(大也院)이라는 원(院)이 있어서 관 민간교통(官 民間交通)을 주도(主導)하였다. 또한, 음촌참(陰村站)이 있어서 군사교통(軍事交通)의 중심지(中心地)를 이루었으며,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라는 중요(重要)한 군사통신시설(軍事通信施設)이 있어 군사작전(軍事作戰)의 요충지(要衝地)였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후, 왕명(王命)에 의하여 사제단(賜祭壇)과 기우제단(祈雨祭壇)이 만들어졌었는데도 무슨 어려움에서인지 보전(保全)하여 전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국난(國難)을 당할 때마다 수없이 죽어간 무명용사(無名勇士)들의 원혼(冤魂)을 달래주던 미풍양속(美風良俗)의 전통이 끊긴지 오래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地域)이라서 각 문중(門中)이 다투어 선대능침(先代陵寢)을 모시고, 문중(門中)마다 특색(特色)있는 문화(文化)의 창달(暢達)을 이루었다.

율동(栗洞)의 정주한씨(淸州韓氏) 문중서당(門中書堂)은 수백(數百) 년의 전통(傳統)을 이어 내려오며 사림(士林)에 수많은 인재(人材)들을 배출(輩出)하여 명성(名聲)이 높았는데 대원군(大院君)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으로 폐출(廢黜)하였다고 하는 안타까운 전설(傳說)이 전해온다. 여막(廬幕)이라고 부르던 문중산막(門中山幕)이 있어서 대대(代代)로 삼년시묘(三年待墓)를 하면서 효(孝)의 근본(根本)인 치 장제의례(致 葬祭儀禮)의 표본(標本)이 되었다. 병(病)든 자의 임시거처(臨時居處)인 동막(東幕)은 의술(醫術)의 발달(發達)이 혼미(欣微)

하던 시대(時代)에 단순(單純)한 의료시설(醫療施設)과 미미(微微)한 시술기술(施術技術)만이 있던 시절에 옛 선인(先人)들이 중병(重病)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수용(隔離收容)하는 피접문화(避接文化)와 생활상(生活相)의 표징(表徵)이었는데도 보존(保全)되지 못하고 멸실(滅失)되고 말았다.

이러한 문화유적(文化遺跡)이 산재(散在)하여 있었으나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등의 전란(戰亂)때에 화재(火災)에 의하여 멸실(滅失)된 문화유적(文化遺跡)이 재건(再建)되지 못하고 실록(實錄)이나 구전(口傳)으로만 전해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 금(禁)할 길이 없다.

성남지역(城南地域)에 전해오는 문화(文化)와 유서(由緒)깊은 유적(遺跡)들을 깊이 있게 고찰(考察)하고 기록(記錄)이나 구전설화(口傳說話)등을 상고(詳考)하여 성남(城南)지역에 널리 산재(散在)하여 있었던 멸실(滅失)문화 유적(遺跡)의 재현(再現)을 긴급(緊急)하게 정원(請願)하여야 한다.

2. 삼한시대(三韓時代)의 역사(歷史)와 전설(傳說)

삼한시대(三韓時代)를 여는 진한(辰韓)의 개국(開國)에 대한 구전설화(口傳說話)와 위지(魏志)¹⁾에 기록(記錄)된 준왕(準王)편 기사내용(記事內容) 중에 한수유역(漢水流域)이 등장(登場)하는 것은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연구대상(研究對象)이므로 한(韓)민족사(民族史)에서 상당한 의미(意味)를 부여(附與)해야 할 것이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진한(辰韓)은 진국(辰國)이라고도 불렀는데 진한(辰韓)의 소도지(小都地)가 바로 광주시(廣州市)경안읍(慶安邑)²⁾이라고 한다. 광주군지(廣州郡誌)에도 구전확인(口傳確認)이 된 사실(事實)로 실려 있는 기록(記錄)이다.

광주(廣州)의 옛 이름이 고려시대(高麗時代)에 한때는 물가에 있으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서 하여 회안(淮安)³⁾이라고 불렀다는 기록(記錄)이 여러 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

1)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 條

爲 燕人 衛滿 攻奪 將 其 左右宮人, 走入海, 居韓地, 自號 韓王.

2) 廣州郡誌 第1章 p28 歷史.

3) 高麗史 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廣州邑誌 沿革條.

리한 광주지역(廣州地域)의 일부(一部)였던 성남지역(城南地域)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특별(特別)한 구전(口傳)과 아름다운 전래설화(傳來說話)들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분당구(盆唐區) 울동(栗洞)에 전(傳)해오는 금오탁시혈(金烏啄屍穴·금 까마귀(三足鳥)가 먹이를 쪼아 먹는 모습의 명당혈처(明堂穴處)의 형국(形局)이라는 용어(用語)인데 금오(金烏)는 고조선시대(古朝鮮時代)부터 태양(太陽)속에 사는 신조(神鳥)인데 삼족오(三足鳥)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벽화(高句麗壁畫)에 그려져 전(傳)해오는 민족숭앙(民族崇仰)의 민족신조(民族神鳥)이다. 이곳의 지형(地形)이 금 까마귀가 시체를 뜯고 있는 형국(形局)이라서 풍요(豐饒)로운 고장이라는 사실(事實)이 삼한시대(三韓時代)부터 전(傳)해오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한다.⁴⁾

그런가 하면 분당구(盆唐區) 분당동(盆唐洞)에는 명막암(鵬邈岩·남방민족의 신조인 초명새가 멀리 남방에서 날아와 살다가 떠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바위가 되었다는 바위)⁵⁾라는 바위가 있는데 삼족오(三足鳥)에서 나뉘어졌다는 봉황(鳳凰)새는 북방민족(北方民族)이 숭배신조(崇拜神鳥)로 받들게 되었고 초명(鷓鴣)새는 남방민족(南方民族)의 숭배신조(崇拜神鳥)가 되었는데, 삼한시대(三韓時代) 이전에 남방민족(南方民族)의 숭배신조(崇拜神鳥)인 초명(鷓鴣)새가 이곳에 날아와 보니 전하(天下)를 다 돌아 다녀보았지만 이런 경승명지(景勝名地)를 못 보았다면서 정치(景致)에 심취(深醉)하여 깃들여 살다가 그만 돌아갈 시기(時期)를 놓쳐서 이곳에서 죽어서 바위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전설(傳說)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구전(口傳)의 설화(說話)이 지역(地域)이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살기 좋은 지세(地勢)의 고장임을 입증(立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백제시대(百濟時代) 문화유적(文化遺跡)

백제시대(百濟時代)에 전해오는 문화유적(文化遺跡)이 성남지역(城南地域)에는 여러 곳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그중에 창곡동(倉谷洞)에 세자궁지(世子宮址)일대(一帶)에 있었던 세자궁(世子宮)인데 백제(百濟)의 온조왕(溫祚王)이 재위 28년(서기10)에 아들인 다루(多婁)를 태자(太子)로 책봉(册封)과 동시(同時)에 병권(兵權)을 맡긴 것이 전례(典禮)가 되어 백제(百濟)는 세자(世子)로 책봉(册封)되면 병권(兵權)을 잡고⁶⁾ 군사대국(軍事大國)의 기치(旗幟)를

4) 城南文化研究 第11號 p123, 栗里 마을의 口碑文化 中, 地理的與件.

5) 城南文化研究 第9號 p219, 日帝에 의해 變更된 城南地域의 地名研究 中 漢陽峴.

높이 들게 하는 것이 왕(王)이 되기 전(前)의 관례(慣例)였기에 그 중요(重要)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상고(詳考)하여보면 많은 왕세자(王世子)들이 원정군(遠征軍)의 선봉(先鋒)에서 군사(軍士)들을 직접감독(直接督勵)하여 전쟁(戰爭)을 승리(勝利)로 이끈 기록(記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간과(看過)하여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세자궁(世子宮)

세자궁(世子宮)이 있던 곳인 성남시(城南市) 수정구(壽井區) 창곡동(倉谷洞)281번지에서 298번지 일대(一帶)에는 지금도 군사시설(軍事施設)이 자리 잡고 있으니 백제시대(百濟時代)부터 군사훈련장(軍事訓練場)으로 이어진 군사문화(軍事文化)의 전당(殿堂)이라고 할 것이다. 온조(溫祖)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으로 이도(移都)한 후에 차츰 국가(國家)의 기틀이 완전(完全)히 잡혀지자 온조(溫祖)28년(10)에 아들 다루(多婁)를 태자(太子)에 봉(封)하고 다루(多婁)에게 지방(地方)과 중앙(中央)의 군사업무(軍事業務)를 맡겨 획기적(劃期的)이고 진취적(進取的)인 왕실군사체제(王室軍事體制)의 강화(強化)를 유도(誘導)함은 물론 태자(太子)의 위치(位置)를 더욱 견고(堅固)히 하여주는 계기(契機)를 마련하여 한성백제(漢城百濟)에서 태자(太子)가 군사업무(軍事業務)를 총괄(總括)하는 전통(傳統)을 세우는 원대(遠大)한 계획(計劃)을 착근(着根)시키는 계기(契機)를 마련하였다. 한성백제(漢城百濟)때에는 태자(太子)가 군사업무를 잘하여 군부의 절대적지지(絕對的支持)속에 왕위계승(王位繼承)을 하였으나 때로는 태자(太子)가 어려서 왕위(王位)를 숙부(叔父)들이 계승(繼承)하였다가 태자(太子)에게 돌려준 경우(境遇)도 있었다. 고이왕(古爾王), 비류왕(比流王), 계왕(契王), 근초고왕(近肖古王), 진사왕(辰斯王), 아신왕(阿辰王) 등은 태자(太子)외에 왕위계승(王位繼承)을 한 왕(王)들이나 그중에서 계왕(契王)과 아신왕(阿辰王)은 태자(太子)로서 어린나이 때문에 왕위계승(王位繼承)을 바로 못하였다가 왕위(王位)를 계승(繼承)하였던 숙부(叔父)들에게 왕위(王位)를 되돌려 받은 케이스이다. 한성백제시대(漢城百濟時代)에는 세자궁(世子宮)에서 왕세자(王世子)인 태자(太子)가 거처(居處)하면서 군사업무(軍事業務)를 총괄(總括)하였다. 그로 인하여 세자궁(世子宮)이 있던 지금의 성남시(城南市) 창곡동(倉谷洞)을 중심으로 성남시일원(城南市一圓)과 송파구일대(松坡區一帶)는 모두 군사훈련장화(軍事訓練場化)하여 막강(莫強)한 백제기마병(百濟騎馬兵)을 비롯하여 보병부대(步兵部隊)조차 최고(最高)의 전투역량

6) 三國史記 卷 第23, 百濟本紀 溫祚王 28年 2月. 북정, 태평 마을지 p53 마을의 역사.

(戰鬪力量)을 갖춘 천하무적(天下無敵)의 강군(強軍)을 보유(保有)함으로써 강병부국백제(強兵富國百濟)의 위용(威容)을 대내외(對內外)에 보이게 되었다. 기루왕(己婁王) 49년(125)에는 말갈(末鞞)의 침략(侵略)을 받은 신라(新羅)가 글을 보내어 군사원조(軍事援助)를 요청(要請)하였다. 기루왕(己婁王)이 다섯 명의 장군(將軍)을 보내어 이를 구원(救援)하였다⁷⁾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新羅)에 군사지원(軍事支援)을 하기도 하였으니 백제(百濟)의 군대(軍隊)가 얼마나 막강(莫強)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말갈(末鞞)은 온조왕(溫祚王)때에도 빈번(頻繁)하게 백제(百濟)를 침략(侵略)하였으나 그때마다 용감(勇敢)하고 뛰어난 무예(武藝)를 겸비(兼備)하여 막강(莫強)한 백제군(百濟軍)에게 번번(番繁)히 패퇴(敗退)하였다. 세자궁(世子宮)에 대한 구전(口傳) 중에는 개로왕(蓋鹵王) 21년(475)에 고구려(高句麗) 장수왕(長壽王)의 침공(侵攻)을 받아 도성(都城)이 함락(陷落) 당하게 되자 개로왕(蓋鹵王)은 남문(南門)으로 도망(逃亡)나와서 서쪽인 지금의 창곡동(倉谷洞)에 있던 세자궁(世子宮)으로 피신(避身)하다가 잡혀 죽었다는 사실(事實)이 광주군지(廣州郡誌)에 기록(記錄)되어 전해온다.⁸⁾ 이렇듯이 역사적(歷史的)으로 확실(確實)한 문화유적(文化遺跡)인데도 발굴작업(發掘作業)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現實)이 안타깝다. 특히나 기마병(騎馬兵)들이 머물고 쉬어가던 수기실(宿騎室)이 있었고 삼천병마(三千兵馬)가 쉬어가서 부쳐진 이름인 삼천병마(三千兵馬)골이라는 골짜기가 지금도 불리고 있다. 삼천(三千)이라는 수효(數爻)는 무량수(無量數)이고 무지수(無止數)이기 때문에 셀 수없이 많은 병마(兵馬)를 뜻하는 말임을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낙생행궁(樂生行宮)

낙생행궁(樂生行宮)에 대하여 정확(正確)한 위치비정(位置比定)이 안 되어 있으나 예부터 전(傳)해오는 이 지방(地方)의 설화(說話)에 의하면 삼평동(三坪洞)의 궁골(宮谷)이나 궁내동(宮內洞)의 와실(瓦室)중 어느 한 지역(地域)이었을 것으로 추정(推定)할 뿐이다. 궁골(宮谷)은 판교신도시(板橋新都市)개발(開發)에 맞추어 유적발굴조사(遺跡發掘調査)때에 백제유물(百濟遺物)들이 나온 사실(事實)만으로도 입증(立證)할만 하다고 본다. 또한 와실(瓦室)은 이제까지 발굴(發掘)하여본 적은 없지만 와실(瓦室)이라는 자체(自體)가 기와집(瓦室)이 있던 곳임을 암시(暗示)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서울인 위례성(慰禮城)이외지역(以外地域)에서 기와집을 지니고 살만한 사람은 왕(王)이나 지방권력(地方權力)의 상층부중

7) 三國史記 卷 第23, 百濟本紀 己婁王49年.

8) 廣州郡誌. 南漢山城 世子宮과 蓋鹵王과 太子 文周.

(上層部中) 일부(一部)였을 것으로 추정(推定)하여보면 일리(一理)가 있는 가설(假說)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百濟)는 세자궁외(世子宮外)에도 군사(軍士)들을 독려(督勵)하기 위하여 성남지역(城南地域) 중 낙생면(樂生面)어느 곳엔가 행궁(行宮)을 지었는데 당시의 이름은 구원행궁(丘園行宮)이라고 하였다고 전하는데 증거(證據)가 될 만한 것이 진사왕(辰斯王)이 구원행궁(丘園行宮)에서 죽었다는 기록이다.⁹⁾ 또 낙생(樂生)지역(地域) 인근(隣近)인 용인시(龍仁市)와 수원시(水原市)의 경계지점(境界地點)에 있는 광교산(光敎山)의 이름이 지어진 전설(傳說)이 고려태조(高麗太祖)왕건(王建)이 낙생(樂生)행궁(行宮)에서 머물다가 피곤(疲困)하여 비몽사몽간(非夢似夢間)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당시의 광암산(廣岩山)으로부터 오색채운(五色彩雲)이 일어나면서 하늘로부터 “이리이리하면 삼한통합(三韓統合)의 대업(大業)을 이루리라” 하는 계시(揭示)를 받아 그대로 행(行)하였더니 마침내 삼한통합(三韓統合)의 대업(大業)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광암산(廣岩山)의 이름을 빛의 가르침을 받은 산이라고 하여 광교산(光敎山)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였다는 것이다.¹⁰⁾

낙생행궁(樂生行宮)에 대한 정확(正確)한 기록(記錄)은 성종(成宗)10년(1469)8월 4일, 「과천(果川)막계동(莫溪洞)에 이르러 타위(打圍)하는 것을 구경하고 저녁에 낙생행궁(樂生行宮)으로 돌아 왔다」¹¹⁾는 기록(記錄)이 명문(明文)으로는 최초(最初)의 실명(實名)기록(記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종(成宗)은 전날인 8월 3일 기록에는 낙생역(樂生驛)앞 파오달(波吾達)에서 머물렀다고 되어 있고 동년(同年) 8월 6일에는저녁에 행궁(行宮)으로 돌아왔다는 기록(記錄)과 동 10월 8일에는 어가(御駕)가 낙생행궁(樂生行宮)에서 이르니등의 기록(記錄)이 있다. 그러나 조선 초(朝鮮 初)의 임금들이 낙생역(樂生驛)앞 전교(前郊)또는 앞들에서 머물렀다는 기록(記錄)이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조선시대(朝鮮時代)초(初)까지도 왕(王)들이 낙생행궁(樂生行宮)을 이용(利用)한 것이 확인(確認)된 것으로 정리(整理)하여야 한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勃發)하였을 때에 왜적(倭賊)들에 의하여 낙생행궁(樂生行宮)이 불타 없어졌는데 재건축(再建築)이나 복원(復元)을 못하였고 국가(國家)가 안정(安定)되지 못하고 당쟁(黨爭)에 휩싸여 지내다가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정(淸)나라가 쳐들어온 병자호란(丙子胡亂)과 정묘호란(丁卯胡亂)을 겪으면서 영원(永遠)히 재현(再現)을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전해오고 있다.

온조(溫祚)는 서기전(西紀前) 18년에 위례성(慰禮城)에 도읍(都邑)을 정(定)하였다가 서기

9) 三國史記 百濟本紀 卷 第26 개로왕 21年 9月.

10) 城南地域 文化遺跡 p49-50, 樂生行宮.

11) 朝鮮王朝實錄 成宗8年 10月 4日, 原典9集515面. 城南文化遺蹟 p52, 樂生行宮.

전(西紀前) 6년에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으로 이도(移都)한 후에 온조(溫祚) 28년(서기10)에 아들 다루(多婁)를 태자(太子)로 봉(封)하고 지금의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倉谷洞)에 군사령부(軍司令部)와 함께 군 훈련소(軍訓練所)를 두었으며 군사용(軍事用)창고(倉庫)를 짓게 하고 군사용병장기(軍事用兵仗器)를 만드는 공작창(工作廠)을 대규모(大規模)로 건설(建設)하여 성남일대(城南一帶)에서 전국(全國)의 장정(壯丁)들을 모아 군사훈련(軍事訓練)을 시켰으므로 세자궁일대(世子宮一帶)의 마을 이름이 창곡(倉谷)으로 불렸는데 지금의 분당구일대(盆唐區一帶)에서는 기마병(騎馬兵)들을 조련(調練)시켰으므로 돌마(突馬) 고을이라는 지역(地域) 이름이 탄생(誕生)되었다고 전해오고 있고, 돌마(突馬)에서 광주읍(廣州邑) 삼리(森里)로 넘어가는 고개가 가파르고 넘기가 힘들어서 기마병(騎馬兵)들이 훈련(訓練)때에는 말들이 지치고 목말라 갈증(渴症)을 호소(呼訴)하였다고 하는데 갈마 음수 혈(渴馬 飲水 血)의 천하제일(天下第一)의 명당길지(明堂吉地)라서 고개이름을 목마를 갈(渴)자와 말마(馬)를 써서 갈마치(渴馬峙)라고 하였는데 일제(日帝)는 조선정기 말살 책(朝鮮精氣抹殺策)의 일환(一環)으로 칙 갈(葛)자로 바꾸는 등 성남지역(城南地域)에 도도히 흐르는 뿌리 깊은 민족정기(民族精氣)와 전통(傳統)의 역사성(歷史性)이 잔란(燦爛)하게 빛나고 있는 지명(地名)을 바꾸어 버렸다. 이 같은 일제(日帝)의 패륜적(悖倫的)이고 반민족적(反民族的)인 민족정기훼손행위(民族精氣毀損行爲)의 앞장선 기회주의(機會主義)자들인 진일파(親日派)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에 통곡(痛哭)이 나옴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민족정기(民族正氣)회복(回復)을 위하여서라도 지역역사(地域歷史)와 지역구전(地域口傳)이나 속담(俗談)등을 상고(詳考)하여 뜻 깊은 본래(本來)의 이름을 되찾아야 할 때이고 낙생행궁(樂生行宮)같은 역사성(歷史性)과 민족혼(民族魂)이 깃들어 있는 유적(遺跡)의 조사(調查)와 발굴(發掘)이 활발(活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금강사(金剛寺)

율동(栗洞)에는 영장산(靈長山) 금강사(金剛寺)터인 절 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설(傳說)에 의하면 백제(百濟) 침류왕(枕柳王) 원년(서기384)에 마라난타존자(摩羅難陀尊者)에 의하여 불교(佛敎)가 들어와서 한산(漢山)에 절을 세우고 열 명의 스님의 지정(指定)을 승인(承認)하였는데 얼마 후 열 분의 스님 중에 한분이 절을 짓고는 이름을 금강사(金剛寺)라고 지었다는 설이다.¹²⁾

12)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枕流王 2年. 城南文化遺蹟 p119, 金剛寺.

이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셔 와서 봉안(奉安)하였는데 언제부터 봉안(奉安)하였는지 전(傳)해오지 않아서 자세(仔細)히는 몰라도 절터 주변(周邊)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모셔져 있던 탑(塔)이 있었던 골짜기에 진신사리 골(眞身舍利谷)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불리고 있고 그 외에도 울동(栗洞)에는 불교용어(佛敎用語)인 지명(地名)이 불당(佛堂)이 있던 불당(佛堂)골, 전여(千餘)명의 스님과 중생(衆生)들이 모여 법회(法會)를 열었다던 천세중(千世衆)골, 미륵불(彌勒佛)이 쓰러져 물렸다는 자빠진 골. 부처님과 중들이 머물렀다는 부처 중골, 불탑(佛塔)의 안쪽에 있었대서 부처진 안 불대(佛臺), 연화(蓮花)장주(藏珠)혈의 명당(明堂)이라는 장주(藏珠)리, 주지(住持)스님이 면벽참선(面壁參禪)을 하였다는 주지(住持)골, 다비식을 할 때 생불(生佛)이 승천(昇天)하는 것을 보았다는 비득재(飛得齋), 상구(相救)보리(菩裏)중생(衆生)들이 모였던 보리 터, 중생들이 마의(麻衣)를 입고 다비식 장 앞에 구름처럼 물려들었다는 마의(麻衣)들, 해탈(解脫)의 경지(境地)를 일깨워 준다는 큰 번대기, 육간지옥(六間地獄)으로 가는 길과 하나의 왕생극락(往生極樂)의 길이 있었다는 일곱 삼거리(三巨里), 금강사(金剛寺)와 신일암(新日庵)이라는 절이 있었던 절골, 세발달린 철학(鐵擴)으로 수천(數千)의 밥을 지어먹었다는 세무정(鼎)골, 불탑(佛塔)이 있었던 불탑산(佛塔山), 심곡산(深谷山)등 열대여섯 곳이나 되는 것이 경이(驚異)롭고 이채(異彩)롭 다고 하겠거니와 경계지점(境界地點)으로 연결(連結)된 마을인 야탑동(野塔洞)이라는 마을에도 절골, 부처바위, 불당(佛堂)골 등의 불교용어(佛敎用語)이름의 골짜기가 많은 것은 정밀연구(精密研究)하고 전설에 따르는 전래유적(傳來遺跡)의 발굴 작업(發掘作業)을 하여 그 가치(價値)를 평가(評價)하고 복원(復元)및 재현(再現)하여 불만한 유적매장지역(遺跡埋藏地域)이다.

금강사(金剛寺)에는 미륵(彌勒)부처님이 주불(主佛)로 모셔져 있었다고 전(傳)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증명(證明)할만한 사유(事由)가 될 수 있는 울리(栗里)마을에 전해오는 전설(傳說)이 하나 있다. 그 옛날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수(無數)한 미륵(彌勒)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폼쳐서 인간(人間)의 모습을 하고 드문드문 서있는 형상(形象)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삽천미륵(插天彌勒)이 영세소립(映世疎立)하였던 마을이라고 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¹³⁾

이와 유사(類似)한 전설(傳說)은 전국유명불교성지(全國有名佛敎聖地)에 수없이 많이 산재(散在)하여 전(傳)하여 오고 있다. 이것은 지역신앙(地域信仰)의 신뢰도(信賴度)를 높이는 계기(契機)가 될 수 있는 설화(說話)이므로 명승지(名勝地)들이 다투어 만들어낸 경우도 있으나 상당한 유혹설화(誘惑說話)가 될 만한 설화(說話)는 아름다운 한민족(韓民族)의 보배

13) 城南文化研究 第11號, p124, 栗里 마을 口碑文化研究. 地理的 與件.

(寶杯)이기도하다.

특히 울동(栗洞)에는 영장산하(靈長山下) 사십(四十) 팔대(八代) 장상지지(將相之地)요, 십승지지야(十勝之地也)라는 전(傳)해음이 있는 명당혈처(明堂穴處)로 인간(人間)이 살아가는데 최고(最高)의 길지(吉地)임을 암시(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울리(栗里)의 지명어원(地名語源)도 금강사초창기(金剛寺初創期)인 백제(百濟)때는 처음에는 불사(佛事)도 잘 이루어지고 시주(施主)도 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普施)를 하였는데 자츨 절의 재정(財政)이 빈약(貧弱)하여지면서 궁핍(窮乏)한 절로 쇠퇴위기(衰頹危機)에 처하기에 이르자 주지(住持)스님이 구황식품(救荒食品)인 밤나무(栗)를 심게 하였더니 해마다 밤 풍년(豐年)이 들어 기근(饑饉)을 면함은 물론 오히려 부(富)를 축적(蓄積)하게 되자 이웃 마을들이 다투어 밤(栗)나무를 심어 울리(栗里)에서 부터 창곡동(倉谷洞)에 이르기 까지가 밤나무가 큰 숲을 이루고 밤으로 하여 부(富)를 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울리(栗里)에서 창곡동(倉谷洞)까지의 밤나무 그늘진 마을이라고 울목음촌(栗木蔭村)이라는 지역용어(地域用語)가 탄생(誕生)되었다는 사실(事實)로도 금강사(金剛寺)의 실존적(實存的) 존재가치(存在價值)를 확인(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울동(栗洞)165번지 일대와 4번지 산69번지 일대(一帶)에 걸쳐있는 금강사(金剛寺)터를 발굴조사(發掘調査)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전설(傳說)에 근거(根據)하여 재현(再現)하여 각박(刻薄)해진 이 시대(時代)에 나눔의 문화(文化)를 재생산(再生産)하는 계기(契機)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낙생역(樂生驛)

낙생역(樂生驛)은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만들어 졌다고 전해오는데 정확(正確)한 설립(設立)년대(年代)는 자세(仔細)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政況)으로 보아 현재(現在)의 파크타운이 들어선 옛 돌마면(突馬面)수내리(藪內里)역말(驛村)마을 앞들인 216번지에서 225번지와 412번지 일대(一帶)가 분명(分明)한 낙생역(樂生驛)자리이다.

인간(人間)이 말이라는 짐승을 교통수단(交通手段)으로 활용(活用)하기 시작(始作)한 이후 부족국가(部族國家)에서도 역원(驛院)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리(推理)가 가능(可能)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왕조국가(王朝國家)로 전환(轉換)되면서는 확실(確實)한 교통체제(交通體制)로 자리매김이 확고(確固)히 이루어지면서 역원(驛院)의 활약(活躍)이 매우 괄목(刮目)할 만큼 크게 성장(成長)하는 계기(契機)가 되었다. 그러므로 교통수단(交通手段)으로 역원(驛院)이

생겨난 것은 아주 상고시대(上古時代)로 거슬러 올라가야 맞는다는 설(說)도 설득력(說得力)이 있는 논지(論旨)라고 생각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잡지(雜誌)중에서 기록(記錄)으로 전(傳)하여오는 역(驛)에 대하여 상고(詳考)하여 보면,

이적(李勣)이 직명(勅命)을 받들어 고구려(高句麗)의 여러 성(城)에 도독부(都督府)와 주현(州縣)을 설치(設置)하였는데 그 목록(目錄)에 이르기를 압록(鴨綠)이북에 이미 항복(降伏)한 성(城)이 열하나(十一)요, 그중에 하나가 국내성(國內城)인데, 평양(平壤)으로부터 이곳까지 17역(驛)이다. 하였으니, 이 성(城)도 북조(北朝)의 경역(境域)안에 있었던 것이나 다만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다¹⁴⁾.... 는 기록(記錄)이 있다.

이 기록(記錄)에 의하면 국내성(國內城)에서 평양성(平壤城)까지 사이에 17개의 역(驛)이 있었다는 것인데 상세(詳細)한 기록(記錄)이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

『발해국(渤海國)의 남해부(南海府), 압록부(鴨綠府), 부여부(夫餘府), 책성부(柵城府)의 네 부(府)는 모두 고구려(高句麗)의 땅 이었다. 신라(新羅)청정군(淸井郡)으로부터 책성부(柵城府)에 이르기 까지 무릇 39역(驛)이었다.』¹⁵⁾

고 기록(記錄)되어있다. 이러한 기록(記錄)들을 상고(詳考)하여 보면 이미 삼국시대(三國時代)에도 역(驛)이 수없이 많이 산재(散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세가(世家)3 성종(成宗)9년 9월 병자 일에 교(教)하기를

「....역(驛)과 섬(島)에서 면출(免出)시켜 그 원(願)하는 바에 따라, 주(州), 현(縣)에 편적(編籍)토록하고.」¹⁶⁾....

라는 기록(記錄)과 성종(成宗)11년 11월에는 계사(癸巳) 일에

14) 三國史記 卷 第37 雜誌 第6- 地理4/高句麗, 百濟, 高句麗.

15) 三國史記 卷 第37 雜誌 第6- 地理4/三國 有名, 無何處 分嵯州 本來 波知城 四縣.

16) 高麗史 世家3 成宗 9年 9月. 丙子 日.

「주(州), 부(府), 현(縣) 및 관(關) 역(驛) 강포(江浦)의 이름을 바꿨다.」¹⁷⁾

라는 고려사(高麗史)에 기록(記錄)중에는 위와 같이 역(驛)에 대한 기록(記錄)도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기술(記述)되지 않은 역(驛)들이 수(數)없이 많겠지만 다행(多幸)스럽게도 이 지역(地域)에 역(驛)의 이름이 전(傳)해오고 있는 역이 바로 낙생역(樂生驛)이라는 사실(史實)이다.

낙생역(樂生驛)은 삼남(三南)에서 한양(漢陽)으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利用)하였기 때문에 드나들이 빈번(頻繁)하였고 조선초기(朝鮮初期)에는 왕(王)들의 행차(行次)와 어가(御駕)가 머무는 일이 많았으므로 왕실문화(王室文化)가 꽃 피웠던 광주지역(廣州地域)의 문화산실(文化產室)이었다는 것이 실록(實錄)에 확실(確實)하게 전하여오고 구전(口傳)으로 전해오는 전설(傳說)이 있는 역이다.

낙생역(樂生驛)은 고려(高麗)말에 이곡(李穀)이 고향(故鄉)에 계신 부모(父母)님을 뵈러 갈 때에 친구(親舊)인 광주목사(廣州牧使) 백화부(白和父)가 정풍누기(淸風樓記)를 지어달라고 부탁(付託)을 하였는데 바빠서 그대로 고향(故鄉)부모(父母)님께 갔다가 돌아오던 중 낙생역(樂生驛)에 들렀을 때 지었다는 글이 있는데, “지정(至正) 기축(己丑)년 여름 4월에 부모(父母)님을 뵈려고 고향(故鄉)으로 돌아가는 길에 낙생역(樂生驛)에 들렀다. 광주목사(廣州牧使) 백화부(白和父)가 서찰(書札)을 보내어 맞으면서 말하기를 관사(官司)의 북쪽 옛 정풍정(淸風亭)터를 얻어서 네 기둥의 집을 지었는데 실로 한 고을의 승경(勝景)이니 기문(記文)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청(請)하였다”는 글로 시작된 정풍루기(淸風樓記)¹⁸⁾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상세(詳細)하게 기록(記錄)되어 있는데 그 글속에 낙생역(樂生驛)이 등장(登場)한다. 그러므로 낙생역(樂生驛)은 최소(最少)한 고려시대(高麗時代) 이전(以前)인 삼국시대(三國時代)때에 설치(設置)된 역이라는 구전(口傳)이 정설(定說)로 받아들여지는 것

17) 高麗史 世家3 成宗 11年 11月. 癸巳 日.

18) 至正己丑夏四月，觀省還鄉，行次樂生驛，廣牧白君和父，走書而邀之，且曰官舍之北，得古淸風亭基，作四柱屋，實一州之勝，請記，余行忙，姑復之曰，後當如京，可一至而，寓目焉，爲記未晚也，明年至廣，則白君召還而李君某，代任半歲矣，時方酷熱，氣息如縷，乃登所謂淸風亭，倚柱而披襟，淸神淸爽，毛髮蕭颯，如蟬蛻溷濁，而出乎塵埃之外，李君置酒終焉，余翼其兩旁而作南榮，各五尺，北亦如之，綃廣且深，漑巧而將丹碧之，而子適至，盍舉觴落之，而書歲月以志，余既許白君矣，乃問亭之廢幾年，而父老無有知之者，則今之起廢，實同於扞新，春秋書作，有謂不宜作者，又謂魯長府，何必改作，聖人垂教之意微矣，余觀廣之爲州，三面皆高山，北雖廣遠，地勢夷下，公廩民居，如在井底，賓客之來，寧病于卑陋，而不知跬步之間，有此爽塏，則此亭之作，當不在貶例，余於是書，若夫青風之義，白設盡之，余不復贅，白君同年，李君執友，爲政俱有廉勤聲，戊寅，仲夏，記。

이다. 이 같은 문화유적(文化遺蹟)들은 과감(果敢)하게 재현(再現)함으로써 성남(城南)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京畿道)가 이천년(二千年) 수도권(首都圈)으로서 민족문화유적(民族文化遺跡)의 보고(寶庫)임을 대 내외(內外)에 과시(誇示)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특히 성남지역(城南地域)은 삼남(三南)에서 북방(北方)으로 향(向)하는 길목에 위치(位置)하였고 한강(漢江)의 지류(支流)인 탄천(炭川)을 지니고 있어서 삼국(三國)이 지열(熾烈)한 점령전쟁(占領戰爭)을 수없이 지룬 곳이기 때문에 삼국(三國)의 문화(文化)가 여과(濾過)되어 가미(加味)되면서 혼합(混合)되어 독특(獨特)하고 찬란(燦爛)한 지역문화(地域文化)를 창출(創出)과 생(創出)시켰으며 고려(高麗)이후(高麗以後)부터는 삼남(三南)의 문화(文化)가 이곳을 거치면서 재조정(再調整)되어 전달(傳達)되는 조정기능(調整機能)이 부여(附與)되었고 조선(朝鮮)이후(朝鮮以後)에는 수도(首都)인 한양(漢陽)을 감싸고 있어서 온갖 문화(文化)가 이곳에서 여과(濾過)되거나 가미(加味)되어 더욱 실용적(實用的)이고 찬란(燦爛)한 문화(文化)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증거(證據)가 493년(百濟)을 뛰어난 백제(百濟)군사문화(百濟軍事文化)를 비롯하여 찬란(燦爛)한 백제(百濟)문화(百濟文化)를 창출(創出)하여온 백제(百濟)의 영토(領土)를 고구려(高句麗)의 장수왕(長壽王)이 침공(侵攻)하여 개로왕(蓋鹵王)을 잡아 죽이고 76년간을 고구려(高句麗)의 영토(領土)로 지배(支配)하면서 고구려(高句麗)의 문화(文化)를 강제전파(強制傳播)한 사실(史實)이다. 결국(結局)에 백제(百濟)는 수도(首都)를 웅진(熊津, 지금의 공주)으로 옮겨 피눈물 나는 와신상담(臥薪嘗膽)속에 비루(鄙陋)하고 나약(懦弱)한 세상(世上)을 살아오면서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호시탐탐(虎視眈眈)한 기회(機會)를 노렸으나 번번(繁繁)이 힘없는 국가(國家)의 비운(悲運)을 원망(怨望)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성왕(聖王)때에 제나(濟羅)연합군(聯合軍)의 힘으로 고토회복(故土回復)의 영광(榮光)을 누렸으나 결국(結局)에는 신라(新羅)의 진흥왕(眞興王)강점(強占)하면서 한수유역(漢水流域)은 신라(新羅)의 문물문화(文物文化)가 강제전파(強制傳播)되어 이 지역(地域)의 토착문화(土着文化)와 혼재(混在)되어 새로운 양태(樣態)의 신진문화(新進文化)가 창출(創出)되었다. 이러한 현상(現像)은 고려(高麗)가 개국(開國)할 때까지 365년간을 신라(新羅)의 땅이 되었으니 삼국(三國)의 문화(文化)가 혼재(混在)하여 발전(發展)된 사실(史實)이 확인(確認)되는 것이다. 특히 낙생(樂生)이라는 이름이 신라(新羅)의 진흥왕(眞興王)이 백제(百濟)의 성왕(聖王)과 서기 551년에 제나(濟羅)연합군(聯合軍)을 편성(編成)하여 고구려(高句麗)의 장수왕(長壽王)이후 76년간을 강제점령(強制占領)하였던 한수유역(漢水流域)을 되찾아주고 10여개 군읍(郡邑)을 수중(手中)에

녕어 신라(新羅)의 영토(領土)를 넓히고 있다가 한수유역(漢水流域)이 기름지고 좋은 곳인지라 강제(強制)로 북한산(北漢山)아래의 땅을 차지하고 일대(一帶)를 순회(巡廻)하며 전지역(全地域)을 살살이 훑어가며 밝아보고는 흥(興)에 겨워

“과연 영락장생지(永樂長生之地)로다”

하고 말하며 영락장생(永樂長生)에서 낙생(樂生)이라는 용어(用語)를 만들어 이 지역(地域)의 낙생(樂生)지명(地名)이 만들어 졌다는 전설(傳說)과 같은 구전(口傳)이 전해져 오고 있는 곳이 낙생역(樂生驛)이다.

4. 고려시대(高麗時代) 문화유적(文化遺跡)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대한 기록(記錄)은 광주목장(廣州牧場)이 고려사(高麗史)에 등장(登場)하는 것 외에 수원(水原)과 용인(龍仁)경계지점(境界地點)에 있는 광교산(光教山)에 얽힌 전설(傳說)과 설화(說話)속에 낙생행궁(樂生行宮)이 등장(登場)하는 것을 살펴보고 당시(當時)의 정황(情況)을 정리(整理)할 필요(必要)가 있는 대목이다. 작은 지방(地方)이나 지역(地域)의 문화(文化)나 유적(遺跡)이 실록(實錄) 등의 기록(記錄)에 전해지기 는 거의 불가능(不可能)했던 사실(事實)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구전(口傳)도 상고(詳考)할 필요(必要)가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서울 송파(松坡)에서 성남시(城南市)의 궁내동(宮內洞)일대(一帶)까지를 하고 군대(軍隊)의 기마병(騎馬兵)을 동원(動員)하여 명마(名馬)로 조련(調練)시키는 광주목장(廣州牧場)이라 불렀다고 전해온다.¹⁹⁾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군사훈련(軍事訓練)의 중심지(中心地)였던 이 지역(地域)이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기록(記錄)에서 광주목장(廣州牧場)이었다는 사실(史實)은 상당히 의미(意味)가 부여(賦與)되는 것이다. 목장(牧場)이라는 것은 말을 길들이는 곳이며 군사훈련용(軍事訓練用)말을 기르면서 기마병(騎馬兵)들을 정예(精銳)의 마장마술사(馬場馬術士)로 숙련(熟練)시키던 곳으로 해석(解釋)하기 때문에 군사문화(軍事文化)를 중심(中心)으로 잔란(燦爛)한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화(文化)가 살아 숨 쉬는 곳임이 입증(立證)되는 것이다. 성남시(城南市) 이매동(二梅洞)에는 숙기실(宿騎室)

19) 高麗史 誌 36 兵/馬政.

이라는 지명(地名)이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숙기실(宿騎室)의 얽힌 구전(口傳)에 의하면 숙(宿)자의 뜻이 잘 숙(宿)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머물 수(宿)로도 풀이한다고 한다. 같은 골짜기에 또 다른 지명(地名)은 삼천병마(三千兵馬)골이라고 부르는데 결국(結局)은 백제(百濟)의 기마병(騎馬兵)의 훈련장(訓練場)과 고려시대(高麗시대)의 목장(牧場)이나 조선시대(朝鮮時代)대열(大閱)의 훈련장(訓練場)이나 다 같이 말을 빼고는 이루어 질수 없는 지명(地名)임이 분명(分明)하다. 이 지역(地域)에 고려시대(高麗시대)의 유적(遺跡)에 관(關)하여서는 상적동(上笛洞)에 고려관아(高麗官衙)터²⁰라는 곳과 관아(官衙)의 수장(首長)이었다던 목 정승(穆政丞)묘(墓)²¹라는 것이 있는데 모두 발굴(發掘)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성남광주(城南廣州)일대(一帶)는 고려시대(高麗시대)의 역사(歷史)의 기술(記述)이나 전설(傳說)이 많지 않은 곳이므로 더욱 확인을 위하여 꼭 발굴조사(發掘調査)할 필요(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記錄)과 구전(口傳)의 사실(事實)은 당시(當時)의 기록(記錄)으로 정확(正確)한 상황(狀況)을 확실(確實)하게 전(傳)하지는 못하였지만 끊임없이 전해온 사실(事實)을 주의(注意)깊게 생각하고 여러 정황(情況)을 정리(整理)하여 둘 필요(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긴 역사적 안목(眼目)에서 보면 잊어버려진 역사(歷史)의 재조명(再照明)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5. 조선시대(朝鮮時代) 문화유적(文化遺跡)

◎광주동정(廣州東亭)

지어진 년대(年代)는 삼국시대(三國시대)에 낙생행궁(樂生行宮)과 동시(同時)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推定)하지만 정확(正確)한 기록(記錄)은 전해오지 못하고 구전(口傳)에 의존(依存)하여 전해오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분명(分明)한 사실(事實)은 정자동(亭子洞)의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은 확실(確實)하나 정확(正確)한 장소(場所)가 비정(比定)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現實)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태종실록(太宗實錄)의 기록(記錄)에는

20) 2004年12月30日 發行. 發行處. 城南文化院. 大旺마을지. 大旺마을의 地名. p170

21) 城南市史 第3章. 地名과 世居姓氏. p1825

2004年12月30日 發行. 發行處. 城南文化院. 大旺마을지. 大旺마을의 地名. p170

「어가(御駕)가 광주동정(廣州東亭)에 머무르다。」하는 실록(實錄)의 기록(記錄)²²⁾이 있고, 「어가(御駕)가 광주동정(廣州東亭)에 머물렀는데 왕세자(王世子)가 행궁(行宮)으로 나아왔다。」²³⁾는 기록도 있다.

상기기록(上記記錄)만으로도 지금의 성남시(城南市) 분당구(盆唐區) 정자동(亭子洞)에는 왕실전용(王室專用)의 정자(亭子)가 있었다던 구전(口傳)과 합치(合致)되는 기록(記錄)인 것을 알 수 있다. 광주동정(廣州東亭)이 정자동(亭子洞)에 있었다고 단정(斷定)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그 증거(證據)가 확인(確認)된 사실(史實)이다.

태종(太宗)13년 10월 10일 같은 날 실록(實錄)을 보면 알 수 있다.

「광주판관(廣州判官) 노상산(盧商山)을 장(杖)80대에 처(處)하고 파직(罷職)시켰다. 노상산(盧商山)이 차사원(差使員)으로서 도로(道路)를 지수(治修)하였으나 탄천교(炭川橋)가 꺾여져 무너지는 바람에 내구마(內具馬)3필이 물에 떨어져 1필이 즉사(卽死)하였다.²⁴⁾」는 기록이다.

서울에서 정자동(亭子洞)을 오는 중간지점(中間地點)인 대왕면(大旺面)내에 옛 탄천교(炭川橋)가 있었으니 탄천교(炭川橋)를 건너야 동정(東亭)에 올수 있는 다리길 이었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내구마(內廐馬)가 죽어버렸으니 불같은 성격(性格)의 태종(太宗)이 이를 간과(看過)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상황(狀況)이 입증(立證)된 기록(記錄)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동정(廣州東亭)이 있던 확실(確實)한 지역(地域)이 정자동(亭子洞)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자(亭子)터라는 지명(地名)이 478번지와 480번지일대에 걸쳐있는 사실(事實)이 흥미(興味)로와 상고(詳考)하여 발굴조사(發掘調査)하여 볼만한 일이다.

또 하나의 기록(記錄)은 세종(世宗)2년에

「두 임금이 동정(東亭) 앞벌에서 매(鷹)사냥을 구경하고, 또 금灘(金灘)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하고 인하여 낮참에 머물러 술을 자리고 풍류를 벌이니 모시고 따라간 재상(宰相)들이 모두 입시(入侍)하였다.»²⁵⁾

22) 朝鮮王朝實錄 太宗 13年 10月 10日. 五臺山本 原典 第1集 690面.

23) 朝鮮王朝實錄 太宗 14年 閏 9月 18日. 五臺山本 原典 第2集 39面.

24) 朝鮮王朝實錄 太宗 13年 10月 10日. 五臺山本 原典 第1集 690面.

라는 기록(記錄)이 한층 증빙(證憑)을 확인(確認)하여주는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탄천(炭川)가에 있던 동정(東亭)앞 벌은 지금의 동원동(東園洞)일대에서 백현동(栢峴洞)앞까지의 넓은 들이라서 서숙(粟)을 심었던 밭에서 매사냥을 하기에 적합(適合)한 장소(場所)이기 때문이다.

금탄(金灘)은 금곡동(金谷洞)앞 개울이 물이 맑고 주변(周邊)이 아름다워서 금탄(金灘)이라고 불렀다는 구전(口傳)으로 미루어보아 정자동(亭子洞) 앞 일원일대(一圓一帶)가 분명(分明)하여진다. 정자동 480번지 일대의 지명이 정자(亭子)터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지 않은가?

왕실(王室)의 전용정자(專用亭子)란 규모(規模)가 대단히 커야하였음은 말 할 나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왕(王)의 유복지친(有服之親)들인 종친(宗親)들과 전(前), 현임 대신(現任大臣)들인 재추(宰樞), 그리고 만조백관(滿朝百官)을 불러 축하연(祝賀宴)이나 위로연(慰勞宴)을 베풀어 주는 것이 임금들의 관행(慣行)이었기 때문에 연회(宴會)에 참석(參席)하는 종친재추(宗親宰樞)와 만조백관(滿朝百官)과 왕(王)의 호가수행원(扈駕隨行員)이 상당히 많으므로 그들을 모두 수용(收用)하려면 엄청난 규모(規模)의 시설(施設)이 절대필요(絕對必要)하기 때문에 왕실전용정자(王室專用亭子)의 규모(規模)는 대규모(大規模)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왕실전용정자(王室專用亭子)는 비록 기록상(記錄上)으로 전해오는 도면(圖面)이나 발굴(發掘)된 기본자료(基本資料)는 없다지만 가상(假想)의 정자(亭子)를 재현(再現)한다면 우리 민족군주(民族君主)들의 국민치도(國民治道) 자세와 치자(治者)로서의 위엄(威嚴)을 보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백성(百姓)들이 왕실문화(王室文化)를 접(接)하여 근엄(謹嚴)한 왕실문화(王室文化)를 가까이서 익힐 수 있는 계기(契機)가 마련되었던 사실(事實)을 알려야 한다. 왕은 무섭고 두려운 군주(君主)로서 만이 아니라 다정다감(多情多感)한 이웃으로 친근감(親近感)을 보여주며 자상(仔詳)한 어른의 모습을 보일 때 백성들은 왕(王)을 부모형제(父母兄弟)처럼 가까이 따르고 숭앙(崇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실문화(王室文化)의 보급(普及)이 국민생활(國民生活)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고려(考慮)하여 정중(鄭重)하게 행동(行動)하였던 왕들의 왕실문화(王室文化)를 재정립(再定立)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문화(文化)의 우수성(優秀性)을 대내외(對內外)에 과시(誇示)할 수 있는 명품(名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5) 朝鮮王朝實錄 世宗 2年 3月 14日. 五大山本 原典 第2集 375面.

◎무진정(無盡亭)

무진정(無盡亭)은 조선초기(朝鮮初期)의 문신(文臣)인 화산군 권반(權攀)이 지었다는 정자(亭子)인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의 무진정(無盡亭)시(詩)의 내용(內容)이 기록(記錄)되어있는 정자(亭子)다. 지금의 금토동(金土洞) 정자별(亭子別)에 있었다는 전설(傳說)이 있는 정자(亭子)이다.

권반(權攀)이 이곳에 정자(亭子)를 짓게 된 가장 큰 연유(緣由)는 정확(正確)하게 전하지는 않지만 그의 아들 권징(權徵)이 세조(世祖)때에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의 벼슬을 지내다가 함길도(咸吉道) 평사(評事)로 근무(勤務)할 때에 이시애(李時愛)의 난(亂)이 일어나자 역도(逆徒)들에게 주살(誅殺)되어²⁶⁾ 세조(世祖)가 그의 죽음을 애석(哀惜)하게 여기고 이 일대(一帶)를 사패지(賜牌地)로 하사(下賜)하여 권징(權徵)의 묘(墓)를 쓰게 하였는데 권반(權攀)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이곳에 정자(亭子)를 지었다는 설(說)이 있다. 무진정(無盡亭)에는 조선초기(朝鮮初期)의 명신(名臣)중에 한분인 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의 시(詩)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있기에 적는다.²⁷⁾

하늘이 이경을 아꼈다가 영웅에게 맡겼으니
끝없는 기이한 경치 모두 한동(漢東)에 있네.
봄비에 바다 갈매기는 난간 밖을 의지하고
석양노을에 따오기는 술잔 한가운데 끌려드네.

어찌다가 온 죽백의 이름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
늙어 갈수록 강산의 흥취는 다함이 없구려.
저는 나귀 거꾸로 타고 가는 곳마다 경치 좋은데
지친 새 돌아올 줄 아는 것과 어떻게 같다 할꼬?
푸른 도롱이 입고 술에 취한 자 부축하여 어보를 따르고
백첩 입고 노래 높이 부르며 목옹 과 짝이 됐노라.
이로부터 돌아오지 않으려 해도 갑자기 돌아오게 되니
내 부질없이 오호의 풍경 생각함이 부끄럽네.

26) 朝鮮王朝實錄 世祖 13年 5月 16日. 五臺山本 原典 第8集 74面.

27) 天慳異境屬豪雄 無盡奇觀盡漢東 春雨海鷗凭檻外 夕陽霞鷺引盃中 儻來竹帛名何益 老去溪山興叵窮 倒跨塞驪隨處好 知閑倦鳥若爲同 緣養扶醉從漁父 白鬢高歌伴牧翁 自是不歸歸便得 慙余空憶五湖風.

그러다 순조(純祖)때의 명재상(名宰相)이요 문장가(文章家)요 사상가(思想家)인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이 이정자(亭子)를 사들여 사영정(思穎亭)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생(餘生)을 즐기며 수많은 저술(著述)을 하려 했으나 만족(滿足)한 활동(活動)을 못하였다고 술회(述懷)하며 안타까운 심정(心情)을 자신이 지은 금릉집(金陵集)에 토로(吐露)한 역사성(歷史性)이 짙은 정자(亭子)이다. 정자(亭子)터의 위치(位置)가 구전(口傳)으로 전해오는데 이 터를 발굴 조사(發掘調查)하고 재현(再現)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교원(板橋院)

판교원(板橋院)은 조선개국(朝鮮開國) 전후(前後)에 지어진 것으로 기록(記錄)되어 전(傳)해오고 있다. 위치(位置)는 정확(正確)하지 않지만 낙생고등학교(樂生高等學校)터 옆인 328번지 일대(一帶)가 우마(牛馬)먹이용 풀을 쌓아 두던 창고(倉庫)라는 뜻의 조적재(草積齋)라는 지명(地名)인 점과 209-10일대에 너분 바위에 정자(亭子)가 있었다는 전설(傳說)과 산 98-8번지 고개를 원(院)너머고개라는 지명(地名)을 고찰(考察)하면 남리문(南里門)이 있던 259번지 일대(一帶)에서 328번지 너분 바위 일대(一帶)에 걸쳐 대규모(大規模)로 지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먼저 나오는 기록(記錄)을 소개(紹介)한다.

“태조(太祖)5년에 자은종(慈恩宗)의 도승통(都僧統) 종림(宗林)과 전(前) 판사(判事) 윤안정(尹安鼎)이 함께 판교원(板橋院)을 짓고 한양성(漢陽城)을 축성(築城)하기 위하여 차출(差出)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며 병(病)든 자에게는 의원(醫員)을 불러다가 진찰(診察)하게 하고 약(藥)을 지어주어 치료(治療)하여 주었다. 또한 음식(飮食)을 공급(供給)하여 병(病)이 나오면 식량(食糧)을 주어 보냈다. 우정승(右政丞) 김사형(金士衡)이 이를 듣고 임금께 아뢰니 미두(米豆)와 염장(鹽藏)을 내려주도록 하였다는 기록(記錄)이 있다.²⁸⁾”

같은 날의 기록(記錄)중에 하나는 효녀(孝女)의 효행(孝行)의 기록이다.

“진원군(珍原郡)에 사는 백성(百姓)의 딸 도리장(都里莊)이 그 부친(父親)이 성(城)쌓는 역사(役事)에 갔다가 병(病)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痛哭)하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서 아우 형제(兄弟)도 없으니 내가 가서 보아야 혹시(或是)나 살아 돌아오실 것이다. 하고는 남자의 복(男子衣服)으로 바뀌 입고, 당일(當日)로 길을 떠나 길가에 병(病)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28) 朝鮮王朝實錄 太祖 5年 3月 4日. 五臺山本 原典 第1集 90面.

볼 때 마다 꼭 들어가서 보았다. 판교원(板橋院)에 이르러 그 부친(父親)을 보게 되었는데, 병(病)이 위태(危殆)하므로 힘써 치료(治療)해서 부축(副軸)하고 돌아오니, 고향(故鄉)에서 효녀(孝女)라고 칭찬(稱讚)하였다. 이 소문(所聞)이 조정(朝廷)에 까지 들리게 되어 도리장(都里莊)에게 면포(棉布)를 내려주었다는 기록(記錄) 있다.²⁹⁾”

또 하나의 기록은

태종(太宗)4년 12月 5일에 죽은 조운홀(趙云伾)이 신유(辛酉)년에 몰려가 광주의 옛 원강촌(垣江村)에 살면서 자은종(慈恩宗) 도승통(都僧統) 종림(宗林)과 더불어 세속(世俗)을 떠나 교제(交際)하며 판교원(板橋院)과 사평원(沙坪院)의 양사원(兩司院)을 중창(重創)하여 스스로를 원주(院主)라고 칭(稱)하였는데, 해진 옷을 입고 짚신을 신고서 역도(役徒)들과 더불어 그 노고(勞苦)를 같이하니 지나가는 자가 그가 달관(達官)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기록(記錄)이 있다.³⁰⁾ 이 같은 기록(記錄)은 판교원(板橋院)에 대한 기능(機能)과 구휼(救恤)에 대한 기록(記錄)이다.

위와 같은 기록(記錄)들을 상고(詳考)하여보면 윤안정(尹安鼎)도 고려시대(高麗時代)에 판사(判事)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고 조운홀(趙云伾)도 고려(高麗)말에 높은 관직인 안렴사(安廉使)라는 지방장관(地方長官)의 벼슬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누가 먼저 장원(耑院)을 하였는지는 정확(正確)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공통(共通)된 사실(事實)은 제민구휼(濟民救恤)의 기본정신(基本精神)의 발로(發露)로 판교원(板橋院)을 중창(重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사랑 정신(精神)을 일깨워주었다는 엄연(奄然)한 사실(事實)이다. 자은종(慈恩宗)종림(宗林)과 함께 행동(行動)하였다는 기록(記錄)들은 모든 이에게 모범이(模範)되었음을 알 수 있어 더욱 감명(感銘)받게 만드는 일이다.

◎대야원(大也院)

대야원(大也院)은 언제 만들어 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고려시대(高麗時代) 이전(以前)에 만들어 졌다고 보는 것이 정설(定說)이라고 한다. 세종(世宗)때의 기록(記錄)이 조

29) 朝鮮王朝實錄 太祖 5年 3月 4日. 五臺山本 原典 第1集 90面.

30)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12月 5日. 五臺山本 原典 第1集 316面.

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두 편(編)이 있다.

세종(世宗)13년 2월 21일 기록에

낮참에 대야원평(大也院平)에 머물렀다. 중궁(中宮)과 성비전(成妃殿) 그리고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풍정(諷呈)을 올리니 임금(王)이 사람과 말이 많이 죽은 것을 생각하고 잠깐 듣고 철거(撤去)하게 하였다.³¹⁾ 기록(記錄)과 세종(世宗)24년 4월 22일에는 거가(車駕)가 대야원(大也院)에 이르러 주정(晝停)하고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윤형(尹炯)과 경략(經略) 조자(趙孜)에게 의복(衣服)을 각기 한 벌씩을 내렸다. 좌찬성(左贊成) 하연(河演), 예조참판(禮曹參判) 이선(李宣), 병조참판(兵曹參判) 신인손(辛引孫)과 서울에 남아있던 승지(承旨) 등이 와서 알현(謁見)하였다.³²⁾

또 세조(世祖)4년 윤(閏)2월 7일 실록(實錄)에는

좌찬성(左贊成) 신숙주(申叔舟), 병조판서(兵曹判書) 홍달손(洪達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양정(楊汀)을 주장(主將)으로 삼아 대야원(大也院)에서 습진(習陣)하였다. 선전관(宣傳官) 권절(權節)에게 명(命)하여 선은어육(宣醞魚肉)을 가지고 가서 위로(慰勞)하게 하고, 아울러 여러 장수(將帥)와 군사(軍士)들도 공궤(供饋)하게 하였다³³⁾는 기록과

선조(宣祖)37년 6월 20일에는

....같은 날 동대문(東大門) 밖 대야원(大也院) 근처(近處)에서 남녀(男女)가 칼을 맞고 죽은 것도 반드시 그 도둑들의 소행(所行)일 것입니다.....³⁴⁾하는

기록들이 대야원(大也院)의 존재(存在)를 확인(確認)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가진 대야원의 재현(再現)은 시대(時代)의 따르는 이용의 흐름과 역원(驛院)에 대한 재조명(再照明)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데에 큰 공감대(共感帶)를 형성(形成)하고

31) 朝鮮王朝實錄 世宗 13年 2月 21日. 五臺山本 原典 第3集 295面.

32) 朝鮮王朝實錄 世宗 24年 4月 22日. 五臺山本 原典 第4集 408面.

33) 朝鮮王朝實錄 世祖 4年 2月 7日. 五臺山本 原典 第 7集 258面.

34)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6月 20日. 五臺山本 原典 第24集 620面.

있는 것이다. 역원(驛院)에 왕(王)들의 출입기록(出入記錄)이 많은 것은 사실(事實)이나 이처럼 완전(完全)한 기록(記錄)이 남아있는 곳도 많지는 않을 것이므로 필(必)히 발굴조사(發掘調査)하여야 하는 것은 위치(位置)가 정확(正確)하게 전(傳)해오고 있다는 사실(事實)이다.

◎음촌참(陰村站)

음촌참은 성남지역(城南地域)의 역원(驛院)으로서는 드물게 군사(軍士)들이 이용하던 역참(驛站)이었다. 음촌참에는 경기감영(京畿監營)에서 나온 장교(將校)와 관리자(管理者)로 두어 명의 병졸(兵卒)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그려진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분명하게 명시(明示)되어 있는 관(官), 군(軍), 민(民)이 함께 이용하던 역참(驛站)이었다. 특히 참(站)이라는 역원(驛院)에 대한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이루어진 곳이 없고 군사작전상(軍事作戰上)의 교통시설(交通施設)의 이용(利用)과 관리(管理)에 대한 기법(技法)이 확인(確認)된다면 조선시대(朝鮮時代)에 군사문화(軍事文化)의 재조명(再照明)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더욱 재현(再現)이 되어야할 문화유적(文化遺蹟)인 것이다.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

천림산(天臨山) 봉수(烽燧)는 조선(朝鮮) 초기(初期)에 만들어진 봉수(烽燧)로써 당대(當代) 최고(最高)의 고급통신시설(高級通信施設)이다. 세종(世宗)1년에 병조(兵曹)에서 계(啓)하기를 오거(五舉)에 대한 기록이 있고,³⁵⁾ 세종(世宗)5년 2월 병조에서 복명(服命)한 기록에 의하면 목덕산(木覓山)에 5곳의 봉화(烽火) 회로(回路)를 확실히(確實)하게 정리(整理)하였다.³⁶⁾ 하였다.

남쪽(南)에서 올라오는 육로(陸路)와, 해로(海路)를 통해오다가 육로(陸路)로 하여 서울 목덕산으로 연결(連結)되는 봉수체계(烽燧體系)는 당시로는 가히 첨단기술(尖端技術)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³⁷⁾을 상고(詳考)하면 마산(馬山) 성황산(城隍山)에서 시작하여 두개의 회로로 올라 왔고 부산(釜山) 동래부(東萊府)에서 시작 하여 육로(陸路)와 해로(海路)의 두개의 회로(回路)를 타고 오다가 영해(寧海)에서 육로(陸路)로 접

35) 朝鮮王朝實錄 世宗 1年 5月 26日. 五臺山本 原典 第 2集 318面.

36) 朝鮮王朝實錄 世宗 5年 2月 26日. 五臺山本 原典 第 2集 528面.

37) 新增東國輿地勝覽 廣州 京畿道 烽燧. p116. 城南文化遺跡36) 烽燧터(烽燧基) p186-187. 2005年 12月 30日 城南文化院 發行, 企劃, 製作. 한 누리 미디어.

어드는데, 강원도(江原道) 통천(通川)의 옹곡(翁谷) 지공산(雉空山)에서 시작한 북(北)쪽 회로(回路)와 합쳐 중북영동(忠北永東)으로 이어지는 등 다섯 가닥의 회로(回路)를 통하여 목덕산(木覓山)으로 신속(迅速)하게 이어졌다.

전림산(天臨山)에는 봉수군(烽燧軍) 25명(名)과 봉화보(烽火補) 75인(人)등 약 100여명(餘名)이 근무(勤務)하였다고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에 전해오고 있는 통신시설(通信施設)의 보고(寶庫)이다.

이러한 봉수시설(烽燧施設)을 재현(再現)하여 봉수군(烽燧軍)의 생활상(生活相)과 봉수부대(烽燧部隊)의 규모(規模)와 건물(建物)의 규모(規模)와 배치(配置)등 당시의 봉수체계(烽燧體系)를 상세(詳細)하게 재정립(再定立)한다면 우리나라의 고대통신체계(古代通信體系)를 만방(萬邦)에 알려 우리의 통신기술(通信技術)이 일천(逸賤)하지 않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機會)가 될 것이다.

6. 문중유적(門中遺跡)

문중유적(門中遺跡)은 거의가 학문(學問)을 추구(推究)하던 유림(儒林)의 흔적(痕迹)으로 볼 수 있다.

분당구(盆唐區) 율동(栗洞)에는 청주한씨(淸州韓氏) 문중서당(門中書堂)³⁸⁾과 부모(父母)의 상중(喪中)내내 시묘(侍墓)살이 하던 산막(山幕)³⁹⁾이 있는데, 서당(書堂)과 산막(山幕)이 있던 곳의 지명(地名)이 서당(書堂) 집 앞과 산막(山幕)골로 부르고 있어 사실을 확인(確認)시켜주고 있다.

분당구(盆唐區) 서현동(書峴洞)에 있었던 서당(書堂)⁴⁰⁾ 또한 선비들의 후세(後世)를 생각하여 지은 서당(書堂)이었기에 복원(復元)이 기다려지는 서당(書堂)이다.

수정구(壽井區) 신흥동(新興洞)에는 동래(東萊) 정씨(鄭氏)네와 의령(宜寧) 남씨문중(南氏門中)이 지었다는 독정(讀亭)⁴¹⁾이 라는 정자(亭子)가 있었는데 선비들이 모여 시회(詩會)를

38) 城南文化研究 第11號 p139 栗里 마을의 口碑文化研究. 城南文化遺跡 15)書堂 p126. 城南文化院 發行.

39) 城南文化遺跡 11)山幕. p135. 2005年 12月 30日 城南文化院 發行. 企劃, 製作 한 누리 미디어.

40) 城南文化研究 第9號 p213. 日帝에 依해 變更된 城南地役의 地名研究. 27)遯書村 2002年 12月 30日 發行.

41) 城南文化遺跡 25). p152-153. 2005年 12月 30日 城南文化院 發行 企劃, 製作 한 누리 미디어.

즐기고 아이들을 위하여 백일장(白日場) 열어주었다는 유서(由緒)깊은 정자(亭子)였다.

수정구(壽井區)금토동(金土洞)에는 무진정(無盡亭)이라는 정자와 사영정(思穎亭)이라는 정자와 안동(安東) 권씨(權氏) 재실(齋室)⁴²⁾이 있었는데 근자에 이축(移築)되어 없어졌고, 태평동(太平洞) 시청부지(市廳舍敷地)에 있던 의령(宜寧) 남씨문중(南氏門中)의 양세충신(兩世忠臣) 정려각(旌閭閣)⁴³⁾은 충남(忠南) 당진(唐津郡) 대호지면(大湖之面) 도리리(桃李里)로 이전(移轉)되어 충남도문화재(忠南道文化財)가 되었다.

중원구(中院區) 상대원동(上大院洞)에 송언신(宋彦臣)의 서원(書院)⁴⁴⁾과 하대원동(下大院洞)에는 이집(李集)의 서원(書院)⁴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없어져 아무런 흔적(痕跡)도 없다.

이 지역(地域)에 이처럼 많은 서당(書堂)이 있었던 것은 전통(傳統)의 명문거족(名門巨族)들이 다투어 자리 잡은 이유도 서울주변인 근기(近畿)지역 이였겠지만 문중(門中)마다 훌륭한 인재(人材)의 육성(育成)이 그 문중의 장래(將來)를 기약(期約)하는 바로미터가 되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理由)일 것이다.

7. 결론(結論)

성남지역(城南地域)에 진한(辰韓)이후 삼국시대(三國時代)인 백제문화(百濟文化)가 정착(定着)하였던 지역(地域)임을 감안(勘案)하면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유적(遺跡)들이 산재(散在)하여 있었지만 수많은 전란(戰亂)과 유구(悠久)한 세월(歲月)로 인하여 멸실(滅失)되어 없어진 채 다시 복원(復元)이나 재현(再現)되지 않음으로서 성남일대(城南一帶)에는 문화유적(文化遺蹟)이 전무(全無)한 문화(文化)의 불모지(不毛地)처럼 알려져 있으니 얼마나 한탄(恨歎)스런 일인가? 백제(百濟)의 전성기(全盛期)에 만들어졌던 찬란(燦爛)하였던 백제군사문화(百濟軍事文化)와 세자궁(世子宮)등의 유적(遺跡)은 물론이고 장수왕(長壽王)이후 76년간의

42) 城南市史 第3章 地名과 世居姓氏 第11篇 文化遺蹟 人物과 世居姓氏 p1815. 1993年 10月 20日 發行.

43) 城南文化遺 跡 27). p157-160. 2005年 12月 30日 城南文化院 發行 企劃, 製作 한 누리 미디어.

44) 城南市史 第3章 地名과 世居姓氏 第11篇 文化遺蹟 人物과 世居姓氏 p1841-1842. 1993年 10月 20日 發行.

45) 城南市史 第3章 地名과 世居姓氏 第11篇 文化遺蹟 人物과 世居姓氏 p1842. 1993年 10月 20日 發行.

고구려 문화(高句麗文化)도 이곳에 유입(流入)되었었고 신라(新羅)의 진흥왕(眞興王)이후 신라(新羅)의 문물(文物)이 이 지역(地域)에서 꽃 피웠는데도 다 사라지고 없으니 탄식(歎息)이 저절로 나온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유적(遺跡)과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수많은 왕(王)들이 이 지역(地域)을 밟고 다니며 수많은 일화(逸話)를 남긴 왕실 정통(王室正統)의 문화유적(文化遺蹟)들이 상기(上記)한 문화유적(文化遺蹟)외에도 정자동(亭子洞)의 큰절 과 작은 절, 울동의 안 불대(佛臺)와 진신(眞身) 사리탑(舍利塔), 보리 터의 다비 장터와 불당(佛堂)등과 상탑(上塔), 중탑(中塔), 하탑(下塔)과 오야소(梧野所)를 합친 야탑동(野塔洞)에 수없이 많았다던 탑(塔)들과 태평동(太平洞)에 제안대군(濟安大君)과 평원대군(平原大君) 명복(冥福)을 빌어주기 위해 지었다던 법륜사(法輪寺). 운중동(雲中洞)에 크기가 얼마 인지 몰랐다는 크나큰 절인 한절 등의 불교유적(佛教遺跡)과 성남(城南)의 젓줄이라는 탄천(炭川)에 있던 탄천교(炭川橋)와 신라(新羅)의 화랑(花郎)들이 막았다는 화랑보(花郎湫), 백제(百濟)의 군사문화(軍事文化)의 백미(白眉)라는 창곡동(倉谷洞)의 군량창(軍糧倉), 조선초기(朝鮮初期)에 군사요충(軍事要衝)이던 파오달(波吾達)과 임금이 진히 장수(將帥)들의 좌작진퇴(坐作進退)의 전술(戰術)을 시험(試驗)하고 개인무예(個人武藝)를 점검(點檢)하였던 대열장(大閱場)과 정금원(鄭今院)에서 벌였던 전투훈련(戰鬪訓練)인 대열(大閱)을 파(破)하였던 정전파(鄭戰破)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적(遺跡)들이 산재(散在)하였다는 것이 이 지역(地域)에 전(傳)해오는 구전(口傳)은 물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등에서 확인(確認)되고 있는데도 어느 하나 재현(再現)된 것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 가늘 길이 없다.

지금 우리는 일제(日帝)에 의해 역사(歷史)의 왜곡(歪曲)이라는 말을 들은 이후로 분개(憤慨)하였던 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지금 중국(中國)까지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미명(美名)아래 고구려(高句麗)를 포함(包含)한 발해역사(渤海歷史)는 물론 한수이북(漢水以北)에 우리국토(國土)의 침탈(侵奪)을 위해(危害)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태(事態)속에서 더 이상 우리의 문화유적(文化遺蹟)을 재현(再現)하지 않는다면 반만년(半萬年)동안 선조(先祖)들이 피와 땀으로 혼신(渾身)의 노력(努力)을 기울여 일구어온 우리민족(民族)의 훌륭한 문화유산(文化遺產)은 물론 우리의 역사(歷史)와 민족혼(民族魂)까지 송두리째 빼앗기고 중국(中國)의 예속(隸屬)되었던 경미(輕微)한 부족(部族)으로 전락(轉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狀況)이 오기 전에 우리의 문화유적(文化遺蹟)을 재현(再現)하여 후손(後孫)에게 철저(徹底)한 교육(教育)을 시킨 후(後)에 물려주어야 그나마 우리의 문화(文化)와 역사(力士)의 계승(繼承)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교육정책(教育政策)이 부실(不實)하여 역사

(歷史)의 계승(繼承)이 어려운 현실(現實)을 직시(直視)하고 국민(國民)모두가 역사(歷史)의 중요성(重要性)을 새로운 각도(角度)에서 재인식(再認識)하고 문화유산(文化遺産)의 중요성(重要性)을 재인식(再認識)하여 이제까지 나태(懶怠)하였던 우리 모두가 처절(悽絶)한 자기 성찰(自己省察)을 통하여 민족(民族)의 역사(歷史)를 재정립(再定立)하여야 한다. 일본(日本)과 중국(中國)등은 물론 세계(世界)신흥강대국(新興強大國)들의 역사침략(歷史侵略)에 대비(對備)하여야 한다. 대만(臺灣)의 세계적(世界的)인 서지(書誌)학자인 서량지(徐亮之)라는 사람이 중국(中國)고대인물(古代人物)인 갈홍(葛洪)이 쓴 포박자라는 서책(書冊)에 의하면 조선(朝鮮)의 역사(歷史)가 B.C 7217년이라고 발표(發表)했다는데도 우리나라 역사학자(歷史學者)들은 관심(關心)조차 갖지 않는 것도 우리 모두가 역사(歷史)의 관심조차 없다는 증거(證據)가 아닌가? 이것이 사실(事實)로 확인판명(確認判明)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歷史)는 세계(世界)에서 가장 오래된 9225년이 되는 것이다. 조상(祖上)들의 혼(魂)이 깃들여 있는 수많은 지역문화재(地域文化財)의 복원(復元)이 시급(時急)한 이유(理由)가 493년간을 이어온 한성백제(漢城百濟)의 잔란(燦爛)하였던 민족문화창달(民族文化暢達)의 혼(魂)을 기리 계승(繼承)할 문화유산(文化遺産)이기에 문화유산(文化遺産)의 발굴(發掘)과 유적(遺跡)의 복원(復元)이나 재현작업(再現作業)이 시급(時急)한 이유(理由)이며 먼 미래(未來)를 바라보는 우리의 식견(識見)으로 자리 잡아야 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理由)이다.

지구상(地球上)에서 사라진 민족(民族)들의 공통점(共通點)은 먼저 국토(國土)를 잃어버렸고 다음에는 역사(歷史)를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언어(言語)를 잃어버린 사실(事實)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韓半島)와 만주일대(滿洲一帶)를 지닌 작은 소국(小國)이면서도 찬란(燦爛)한 문화(文化)와 예술(藝術)을 간직하여온 전통(傳統)의 문화민족(文化民族)임을 다시 한번더 되새겨서 멸실(滅失)된 문화유적재건(文化遺蹟再建)에 관(官), 민(民)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총력(總力)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경기도(京畿道)가 문화(文化)의 적도(尺度)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여 백

대안(代案)교육과 여주문화

조 성 문(여주문화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여주문화의 특성
 - 1) 역사개괄
 - 2) 자연적 특성
 - 3) 종교적 특성
 - 4) 정신사적 특성
3.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대안교육(代案教育)이란 개발중심의 근대적 가치가 사회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능력우선과 경쟁위주의 사고가 팽배해 지던 20세기 초에 인간사이의 유대를 단절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며 나아가 자연환경과의 진화력 약화하는 기존 교육에 대한 반성과 반발로 나타난 운동이다.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운동 역시 지나친 입시경쟁과 청소년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횡행하는 비인간적 교육에 대한 반발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대안학교에 관해 “자연친화적인 공동체적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안교육을 기존 학교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및 교육을

통한 이상적 인간의 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의 형태와 목적 및 방법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가려는 교육적 시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교육이 극복해 내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와 성격들은 그 시기와 지역, 문화와 이념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교육형’ 특성화 학교는 29개교이며 비인가 학교를 포함하면 100개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그 교육적 처방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안교육에 있어서 각각의 실천들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우리의 대안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인식의 공감대를 토대로 몇가지 공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가치의 지향

현존하는 대안교육의 실천들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 나아가 지구의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그것은 무분별한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지속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안교육의 실천들 속에는 자연과 더불어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인간교육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 지속 가능한 가치, 즉 생명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이념이 우리의 대안교육 운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작은 학교 지향

우리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대안학교의 대부분은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그 이유는 작은 학교가 대안교육이 목표로 하는 교육의 철학과 이념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 교육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교육이념을 실천하며 아울러 개성있는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 목적이다.

교육주체의 원상회복

대안교육의 실천들은 한결같이 뒤틀린 교육 주체간의 관계회복과 교육 주체의 원상회복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학부모 특히 ‘어머니’가 교육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체로서 활동하게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자기 자녀의 최초의 교사인 ‘어머니의 제자리 찾기’가 대안교육의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생활교육

대안교육의 교육방식을 필연적으로 생활에 의한 교육방식, 생활에 근거한 교육방식일 것을 요구한다. 지식이 쌓이면 그것이 태도와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인간의 태도와 행동, 삶의 자세를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면 지식을 통한 교육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교육을 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대안교육은 기존의 교육체제에 혁신을 가져오는 교육이다.

흔히 문화를 ‘장기간에 걸쳐 변혁된 총체’라는 점에서 문화과정이란 곧 교육과정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존재조건을 볼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학습한다. 한 집단의 생존방법을 지적·기능적·물적으로 남겨 놓은 것이 문화이며 정신적 프로그램이다. 인간이 학습한다함은 이러한 문화내용을 습득해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학습은 본질적으로 문화인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태고적부터 남한강의 모성(母性)을 닮아 끊임없이 자연을 길러내고 사람을 길러낸 여주, 그 안에서 형성된 여주문화 속에서 대안교육의 미래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2. 여주문화의 특성

1) 역사개괄

여주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굴된 적은 없다. 그러나 능서면 백석리, 내양리와 여주읍 연양리, 강천면 가야리 등지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한강 주변에서 구석기인들이 살았을 개연성은 높다. 지금까지는 1977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조사로 점동면 혼암리의 청동기 유적 및 유물이 발굴됨으로써 여주에서 청동기 시대에 농경문화가 발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머물러있다.

삼국시대에는 전략의 요충지인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힘을 겨루었다. 이 과정에서 여주는 3국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서기 214년 백제 구수왕 때 금사면 이포리에 있는 술천성에 말갈족이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고 475년 고구려 장수왕 때에는 골내근(骨乃斤)현이 되었고 신라 경덕왕 때는 황효(黃驍)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940년 고려 태조왕 때 황려(黃驪)현으로 개칭하였고 고종 때 영의(永義)로 바뀌었으며 충렬왕 때에는 어머니 순경태후의 내향이라 하여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었고 우왕 때 황려부가 되었다가 우왕이 폐위되어 이곳에 유배되자 여흥(驪興)군으로 강등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의 내향인 까닭에 다시 여흥부로 승격되었고 1469년 예종 때 세종대왕의 능인 영릉이 경기도 광주 대모산에서 능서면 왕대리로 천장하게 되자 여흥목으로 격상되었고 곧 여주(驪州)로 이름을 고쳤다. 1895년 목에서 군으로 강등되어 충주부의 속군이 되었다가 1896년 경기도로 환원되었다.

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이 통폐합될 때 가남, 강천, 개군, 금사, 능서, 대신, 북내, 여주, 점동, 흥천 등 10개면으로 분할되었고 1941년 여주면이 여주읍으로 승격되었다. 1963년 개군면이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89년 금사면 산북출장소가 산북면으로 분리되었으며 1995년 강천면 대둔리가 강원도 원주시로 편입되었다.

2) 자연적 특성

여주는 경기도 동남단에 위치해 있는 군으로 면적 610.9km²로 동쪽은 원주시와 충주시 남서쪽은 이천시, 서쪽은 광주시, 북쪽은 양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여주는 광주산맥과 연해있는 구릉지대에 속해 있으며 여주 한가운데를 남한강이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중부 내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여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연평균 기온은 11.4℃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로 온난하고 풍수해의 피해가 없다.

여주의 토양은 대부분 사양토와 양토로 이루어져 있어 농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게다가 오랜 세월 남한강이 여주 곳곳을 흘러온 까닭에 미사질 양토와 같은 충적토양이 평야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상미로 알려진 최고급 여주쌀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여주땅콩, 금싸라기참외와 같은 특산물의 성가를 높여주었다. 최근에는 고구마, 배, 사과, 인삼 등 다양한 품종의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어 여주에서는 무엇이든 심기만 하면 최고의 품질이 된다는 구전(口傳)들을 실감하고 있다.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점토도 많이 분포되어있어 고려시대부터 도자기 생산이 활발했으며 지금도 국내 최대의 도자기 생산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여주를 지나는 남한강을 여강(驪江)이라 한다. 여강은 지난 수 천년동안 여주의 특산물과 함께 서민들의 애환을 실어 나르는 친숙한 교통로였으나 육로가 발달되고 다리가 놓이면서 점차 기능을 상실했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 옛 문헌에는 오대산 우통수(于筒水)를 남한강 발원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한강은 태백시 금대산 검용소(儉龍沼)에서 발원한다는 설이 요즈음의 정설이다. 검용소에서 출발하여 실날같은 개울로 이어져 내려오던 남한강 원류는 정선에 이르러 조양강이 되고 동강이 되었다가 영월에서 금강강과 합류한다. 단양에서 황강을 이루고 충주에서 달천과 합쳐진 물은 부론에서 섬강을 받아들인 뒤 여주에서 여강이 된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황포돛배가 언제부터 여강을 운항하였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고려 정종 때 조운제가 시행되어 충주 덕홍창과 원주 흥원창등 전국에 12개의 창을 세우고 쌀을 운반하는 배를 20여척씩 두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를 전후하여 돛배가 운행되었으리라 추정할 뿐이다.

1920년대 여주와 이포에서 1일 평균 1,000석의 쌀이 서울로 출하되었다고 한다. 당시 여주와 이포의 출하물은 쌀과 곡물이었고 입하물은 소금, 건어, 잡화 등 이었다. 여강의 선박통행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나루터가 발달되고 객주가 등장하였다. 1869년에 간행된 여주목읍지와 1899년에 간행된 여주읍지에 의하면 여강에는 혼암진, 단암진, 양소진, 여주진, 어량진, 양화진, 이포진, 구미포진 등이 있었다고 한다. 객주는 화물의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물상객주와 창고와 마방을 갖추고 미곡, 어물등 부피가 큰 품목을 취급하는 여각으로 구분되며 여주와 이포에는 10 - 20호의 객주가 있었다.

3) 종교적 특성

(1) 불교(佛敎)

우리나라 불교는 서기 372년(소수림왕 2) 6월, 전진(前秦)의 왕 부견(符堅)이 순도(順道)를 시켜 불경과 불상을 고구려에 전하므로서 시작되었다. 이후 불교는 삼국시대 말엽까지 교종(敎宗)의 종파인 5교(五敎)가 형성되고 나말여초(羅末麗初)에 선종(禪宗)의 9산문(九山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산문을 연 선승들은 중국유학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민중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타락한 신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의 모순 속에서 백성들을 교육하여 도탄에서 구하려는 의지를 갖추고 있었다. 불교가 언제쯤 여주에 들어왔는지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찰과 사지를 통해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에 이 땅에서 불교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주어사(走魚寺)

산북면 하품리에 있었던 사찰이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절터를 찾던 중 어느 날 잉어를 따라가는 꿈을 꾸었다. 다음날 강에 나가보니 꿈에 보았던 잉어가 헤엄을 치고 있었다. 신기하게 여기며 잉어를 따라가자 앞서가던 잉어가 지금의 주어사 자리에서 멈췄다. 그래서 스님을 그 자리에 절을 짓고는 물고기를 따라왔다 하여 주어사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주어사가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779년 서화에 관심이 컸던 이익(李瀾)의 수제자 권철신(權哲身)과 그 문하생들이 강학회를 시작했던 곳으로서 앵자봉 너머 전진암과 더불어 한국천주교의 요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李承薰)이 지은 만천유고(蔓川遺稿)에 의하면 주어사 강학회에서 이벽(李穰)은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를 짓고 정약전(丁若銓)은 십계명가(十誡命歌)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② 고달사(高達寺)

북내면 상교리에 있었던 사찰이다. 신라 경덕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고려시대 3원의 하나로 국가가 관장하는 대찰이었고 왕실의 비호를 받던 곳이다. 국보 4호인 고달사지부도와 원종대사 혜진탑비, 고달사 석불대좌 등의 보물들이 있다. 이곳에서 수행했던 고승들은 9산선문 중에 하나인 봉림산문(鳳林山門)을 개창한 원감국사 현욱(玄昱), 500여명의 제자를 거느리며 극성기를 구가했던 원종대사 찬유(璨幽), 고려 말 3대 선승으로 불리는 백운화상 경한(景閑)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백운화상 경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운화상이 75세 되던 해에 스승으로부터 받은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이라는 책을 간주리고 증보하여 고달사에서 상하 2권으로 만든 것이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이 책은 백운화상 입적 후 3년 만인 1377년 7월에 화상의 제자들이 청주(淸州)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보다 70여 년이나 앞서 간행된 ‘직지’로 2001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책이다.

③ 신록사(神勒寺)

북내면 천송리 남한강 가에 자리한 여주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신록사의 장건과 관련하여 신라 진평왕 때 원효(元曉)대사가 개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다. 신록사는 사찰 이름에 얽힌 두 가지 전설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가 신기한 미륵 또는 나옹선사가 신기한 굴레로 용마를 막았기 때문에 신록사라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려 고종 때 건너편 마을에 사나운 용마가 나타나 사람들이 붙잡을 수가 없었는데 인당(印塘)대사가 나서서 고삐를 잡으니 말이 순해졌는데 신력으로 제압하였다 하여 신록사라 했다는 것이다. 신록사는 고려 말 최고의 선승인 나옹대사 혜근(惠勤)이 입적한 곳으로, 태종의 장인인 민제(閔霽)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목은 이색(李穡)이 대장경을 인쇄하여 봉안했던 곳으로 유명해졌다. 이색이 나옹의 제자들과 함께 봉안한 이 대장경은 1417년(태종17) 7월에 일본 중 규주(圭籌)의 간청으로 일본국왕에게 보내졌다. 신록사는 1469년 세종대왕릉이 여주로 옮겨오자 원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교를 억압하던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의 학습장소로, 근대로 이행하는 격동기 속에서는 민중의 애환을 감싸 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유교(儒敎)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인간을 본으로 하는 심성을 가지고 종교적 소박성과 고유한 예속, 그리고 주술신앙을 함께 지녀온 신비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되면서 유교사상도 함께 전파되었는데 유교사상과 만난 우리의 고유사상은 주술적 전통의 배척, 고신도적(古神道的) 전통의 상실을 거치면서 신비적, 감정적 요소가 축소되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에 힘입어 유교는 윤리, 종교, 철학, 예술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예제문화(禮制文化)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향교와 서원은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기초학문을 닦는 조선시대 공(公)·사(私)교육의 핵심이었다. 조선시대 생원·진사시험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에 보면 여주출신 합격자수가 전국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조선의 유력가문인 여주출신 여흥 민씨와 안동 김씨들이 서울에서 직접 시험을 본 것을 제외한 숫자임을 감안할 때 대단한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① 여주향교(驪州鄕校)

여주읍 교리에 있다. 대문격인 외삼문을 지나면 바로 명륜당이 보이고 내삼문을 들어서면

정전인 대성전이 나타난다. 앞쪽에는 유생들이 강학하는 공간을 두고 뒤쪽에는 성현을 모시는 전각을 세워 전통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10철(十哲), 송조6현(宋朝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명, 교생 30명이 있었으나 갑오개혁 이후 학제가 변경됨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 석전제(釋奠祭)와 초하루와 보름의 분향 등 제사기능만 남아있다.

② 기천서원(沂川書院)

금사면 이포리에 있다. 1580년 모재 김안국(金安國)의 위패를 모신 마암서원(馬巖書院)으로 설립되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여주읍에서 지금의 위치로 옮겼고 광해군 때 이언적(李彦迪)과 홍인우(洪仁祐)가 함께 배향되었다. 인조 때 기천서원(沂川書院)이라는 사액을 받았고 뒤에 이원익(李元翼), 정엽(鄭曄), 이식(李植), 홍명구(洪命壽), 홍명하(洪命夏)가 추가로 배향되었다.

③ 매산서원(梅山書院)

능서면 번도리에 있다. 삼우당 문익점(文益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조 때 경상남도 거창(居昌)과 산청(山淸) 지방의 유림들의 의견을 모아 건립되었다. 그 후 목은 이색(李穡)이 문익적과 진분이 두터웠음을 감안하여 주가 배향하고 매산(梅山)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았다.

④ 고산서원(孤山書院)

대신면 보통리에 있었다. 1708년(숙종26) 석탄 이존오(李存孚)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장건되었다. 숙종으로부터 고산(孤山)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1826년(순조26) 문충공 조한영(曹漢英)이 추가배향 되었다.

⑤ 대로사(大老祠)

여주읍 하리에 있다.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을 참배하기 위해 여주에 내려온 정조가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사당을 짓게 하고 대로사(大老祠)란 사액을 내렸다. 대로사의 명칭은 ‘덕망이 높은 노인’이라는 뜻으로 청심루(淸心樓)에서 밤을 지새며 효종을 못잊어 하던 송시

열의 충심에 감복하여 정조가 친히 지었다. 처음에는 사당의 기능만 있었으나 뒤에 서원으로 변모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에도 건재하였다. 노론(老論)의 본고장인 여주의 대로사는 조선후기 정치와 학계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3) 천주교(天主教)

천주교는 서학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서학은 이수광(李睟光)이 자신의 저서인 지봉유설(芝峰類說)에 마테오 리치의 전주실의(天主實義)를 소개하면서부터 조선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천주교가 언제 여주로 전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801년 신유박해 때 여주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붙잡히고 여주출신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박해 이전부터 다수의 신도들이 살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부영골 신학교

1855년 제천 배론(舟論)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배론의 신학교는 1866년 병인박해로 폐쇄되었는데 프랑스인 마라발 신부가 20여년 후인 1885년 10월 28일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부영골)에 우리나라 두 번째 천주교신학교인 소신학교를 만들고 ‘예수성심신학교’라 명명했다. 4·5명의 신학생들로 구성된 이 신학교는 1887년 3월 서울 용산(龍山)으로 옮겨갈 때까지 존속했다.

(4) 동학(東學)

동학은 서학에 대응할 만한 동쪽 땅 한국의 종교라는 뜻으로 1860년 최제우(崔濟愚)가 창립했다. 그 사상의 기본은 종래의 풍수사상과 유(儒)·불(佛)·선(仙)의 교리를 토대로 형성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인내천(人乃天)’이다. 인내천 사상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지상천국이 이념과 만민평등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종래의 유교적 윤리와 퇴폐한 양반사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반봉건적이며 혁명적이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동학 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1894년 11월 공주(公州)전투에서 참패한 후 이천(利川)을 거쳐 여주(驪州) 도전리(道全里; 당시 全巨論)에 몸을 숨긴 해월은 1898년 추격군을 피하던 중 원주(原州) 송골에서 체포되

어 남한강을 통해 서울로 압송되었고 그해 6월 2일 교수형을 당했다. 그의 묘는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走鹿里)에 있다. 해월은 여주에 머물면서 아이를 낳고 손병희(孫秉熙)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이천식천(以天食天)’의 이치를 설법하였다. 이천식천이란 ‘모든 물건이 다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이 아님이 없을지니, 한울 전체로 본다면 한울이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하여 같은 바탕이 된 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합을 이루게 하고, 다른 바탕이 된 자는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합을 통하게 하는 것이니...’라는 가르침의 근거다.

해월이 떠난 이후 여주에서는 1906년 사립 보화(普化)학교가 창설되어 민중의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일제가 득세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소학교의 지원자가 줄어들자 탄압을 가해 폐교 시키기에 이르렀다.

4) 정신사적 특성

여강(驪江)과 함께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주 땅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명멸해 갔다. 어디 인물 없는 땅이 있겠는가마는 온화한 기후와 기름진 땅, 순후한 인심 속에서 배출된 여주 인물들이야말로 타의 주종을 불허한다 할 수 있다. 이들의 삶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주는 독특한 정신사적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크게 보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세종정신(世宗精神)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한민족이 배출해낸 가장 위대한 인물하면 누구나 세종대왕을 연상한다. 재위 32년 동안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백성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삶의 전부를 바쳤던 이 자랑스럽고 위대한 인물이 여주에서 살과 피의 절반을 받았다. 세종대왕의 어머니가 바로 여주사람인 까닭이다. 여주에 세종대왕의 극락왕생을 비는 원찰이 있고 여주에 세종대왕의 정실소생 8명의 아들을 상징하는 8대숲(八大叢)이 있었으며 세종대왕 자신이 여주를 3번이나 방문하였던 기록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540년 전부터 지금껏 여주에서 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세종정신이 여주에 흐르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더구나 여주라는 지명이 세종대왕의 능침이 옮겨 온 까닭으로 생겼다는 사실에 이르고 보면 세종대왕과 여주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동의 요순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의 업적은 모두 열거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다.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한글의 창제이다. 백성들을

가르쳐서 자기의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답게 살리고자 온갖 정성을 쏟았던 대왕이기에 우리는 그를 민족의 스승으로 받들고 있는 것이다.

(2) 북벌정신(北伐精神)

정묘(丁卯)·병자(丙子)의 양대 호란이 가져다 준 치욕을 잊지 않고 당당히 복수를 꿈꾸며 거대한 중국의 청(淸)나라와 일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효종대왕(孝宗大王), 우암 송시열(宋時烈), 대장 이완(李滄)이다. 효종은 호란의 피해당사자로서 북벌의 정신적 지주였다. 영릉(寧陵)은 그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일생동안 6명의 임금을 겪었으나 진정한 임금은 효종뿐이었다고 고백하며 여주에 머물렀던 이가 송시열이다. 그가 죽은 지 100년 뒤에 여주를 찾은 정조(正祖)임금이 자신의 할아버지 효종을 사모했던 송시열에게 감격하여 그를 기리는 사당을 세우니 그것이 대로사(大老祠)다. 북벌의 실질적인 집행은 어영대장 이완이다. 그는 죽어서도 효종의 지적에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며 이루지 못한 북벌의 한을 달라고 있다. 북벌에 골몰하던 와중에도 효종대왕은 병자호란으로 인해 흐트러진 백성들의 윤리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혜왕후(昭惠王后)가 지은 여성을 위한 교훈서인 내훈(內訓)과 김정국(金正國)이 지은 인륜과 법제에 관한 계몽서인 경민편(警民編)을 간행하여 백성들을 가르쳤다. 효종시대에는 세자에게 체계적인 유학교육을 통해 미래의 군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세자교육기관인 시강원(侍講院)이 체제를 정비하고 기능이 강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3) 왕비정신(王妃精神)

임금과 함께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삶을 보살피던 지고지순한 자리가 왕비의 자리다. 이들 왕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시대와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임금을 보필했다. 더구나 왕실을 튼튼히 하고 후대 임금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왕자와 공주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왕비는 중추적인 자리에 있었다. 왕비는 가을이면 70세 이상 노인 200여명에게 양노연(養老宴)을 베풀고 1년에 40차례 이상 국가제사와 잔치를 주최하며,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내·외 명부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친잠례(親蠶禮)를 행하기도 했다. 이 모든 행사는 엄격한 궁중예법을 따라 이루어졌고 왕비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했다. 역사에 기록된 여주출신 왕비가 9명이나 되는데 조선시대의 여주출신 왕비들은 한결같이 남편임금

과 함께 문혀 있음은, 부부간의 애정을 넘어 남편에게 각별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여주여인들의 품성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 품성의 근간에 좋은 교육이 있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① 고려 원종비(高麗 元宗妃) 순경태후(順敬太后) 김씨(金氏 ?-1236)

적 경주(籍 慶州). 탄강 황려현(誕降 黃驪縣; 지금의 여주) 추밀부사(樞密副使) 김약선(여주출생)의 딸. 충렬왕의 어머니. 능호는 가릉(嘉陵). 강화도에 있다.

② 태종비(太宗妃)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 1365-1420)

적 여흥(籍 驪興). 탄강 송경철사(誕降 松京鐵祠-개성). 여주에서 태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여주거주)의 딸. 세종의 어머니. 능호는 헌릉(獻陵). 서울 서초구에 있다.

③ 숙종계비(肅宗繼妃)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1667-1701)

적 여흥(籍 驪興). 탄강 반송방(誕降 盤松坊-마포)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여주태생)의 딸. 능호는 명릉(明陵). 고양시에 있다.

④ 영조계비(英祖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 1745-1805)

적 경주(籍 慶州) 탄강 여주읍내(誕降 驪州邑內).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여주거주)의 딸. 능호는 원릉(元陵). 구리시에 있다.

⑤ 순조비(純祖妃)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金氏 1789-1857)

적 안동(籍 安東) 탄강 양생방(誕降 養生坊).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여주거주)의 딸. 익종(효명세자; 추존)의 어머니. 능호는 인릉(仁陵). 서울 서초구에 있다.

⑥ 헌종비(憲宗妃) 효현왕후(孝顯王后) 김씨(金氏 1828-1843)

적 안동(籍 安東) 탄강 안국방(誕降 安國坊-안국동). 영흥부원군(永興府院君) 김조근(여주거주)의 딸. 능호는 경릉(景陵). 구리시에 있다.

⑦ 철종비(哲宗妃) 철인왕후(哲仁王后) 김씨(金氏 1837 - 1878)

적 안동(籍 安東) 탄강 순화방(誕降 順化坊)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 김문근(여주거주)의 딸. 능호는 예릉(睿陵). 고양시에 있다.

⑧ 고종황제비(高宗皇帝妃)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 1851 - 1895)

적 여흥(籍 驪興) 탄강 여주 근동면 섬락리(誕降 驪州 近東面 蟾樂里).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여주출생)의 딸. 순종의 어머니. 능호는 홍릉(洪陵). 남양주시에 있다.

⑨ 순종황제비(純宗皇帝妃)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민씨(閔氏 1872 - 1904)

적 여흥(籍 驪興) 탄강 양덕방(誕降 陽德坊) 여은부원군(驪恩府院君) 민태호(여주사람 민진원의 4대손)의 딸. 능호는 유릉(裕陵). 남양주시에 있다.

3. 나가는 말

문화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교육은 문화에 의해서, 문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문화를 위하여,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다루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교육의 과정은 문화화(ENCULTURATION)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화란 한 문화가 한 사회에서 시간을 두고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달되고 계승되어지는 것을 말하며 인간의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육은 삶의 형식의 하나다. 문화 역시 삶의 형식의 하나다. 그러나 교육과 문화는 서로 다른 삶의 형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신의 영역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기존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문화의 일부를 계승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문화 역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교육과 문화가 서로 교차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해야만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대안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존중, 공동체 정신의 지향, 생태주의와 생명사상의 실천 등을 기본 가치로 중시한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쟁과 선발, 기계적 합리성, 물질적 풍요 등을 중시한 종래의 교육과는 그 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대안교육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파괴를 담보로 한 개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주의적 사회, 평화로운 세계의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여강이 품고 있는 여주는 태생적으로 강의 모성(母性)을 닮아있다. 유장한 강의 흐름 속에 온몸을 맡기며 그저 한 생명으로 이어져 왔다. 그 가운데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기름져서 산물이 풍성하니 강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넉넉한 인심으로 인정이 넘쳐나니 자연스레 미래 지향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여주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불교가 전해졌을 때는 주어사, 고달사, 신흥사 등 여주의 유명사찰에 선비들이 모여 책을 만들어 가르쳤고, 유학이 성행했을 때에는 여주향교와 기천서원, 매산서원, 고산서원, 대로사 등에서 학문의 장을 펼쳤으며, 천주교와 동학이 들어왔을 때에는 학교를 만들어 민중을 깨우쳤다. 그 저변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세종정신과 북벌정신, 왕비정신이 자리잡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여주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전통은 여주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축이다.

비록 수운의 쇠퇴로 과거의 화려했던 명성과 구심력이 잠시 사라지기는 했으나 여강으로 인해 형성되었던 문화적 잠재력은 아직도 여주인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다. 즉 오랜 세월 풍요로움 속에서 길러진 낙관적 사고는, 여주인들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고 패배로 좌절하지 않으며 여전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게 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여주에서의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오늘, 단편적으로나마 여주문화의 저변을 들여다 보면서 어머니의 품속 같이 자애로운 여강의 숨결을 느끼며 형성되어 온 여주문화가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여주문화로써 기존교육의 제도적 모순과 그 모순이 빚어낸 아픔을 감싸 안으며 우리가 소망하는 대안교육의 세계로, 대안교육의 미래로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훈 2004 대안교육의 이념과 대안학교 비교분석
경기도 1997 한강
경기도박물관 1997 경기문화의 이해
경기도박물관 2002 경기도 역사와 문화
구본만 2000 여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김상현 2001 신록사의 역사와 인물
박영규 2005 조선의 왕실과 외척
신록사 대안학교 준비를 위한 모임 2006 대안교육 교양 자료집
여주군사편찬위원회 2006 여주군사
윤여각 2001 교육과 문화의 관계
윤정란 1999 조선의 왕비
이기순 1998 인조·효종대의 정치사 연구
이원순 1986 조선 서학사 연구
조성문 2004 천주교의 여주전래
조성문 2007 여주와 함께 한 사람들
조성문 2007 해월 최시형의 생명사상
지두환 2001 효종대왕과 친인척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최정훈 1999 조선왕조 상식여행
최진옥 1998 조선시대 생원진사 연구
홍이섭 2004 세종대왕

여 백

백제역사(百濟歷史)의 재고(再考)

김택기

목 차

1. 백제(百濟)는 그 선조 동이(東夷)였던 삼한(三韓) 중 한나라였다
2. 웅진성(熊津省)과 백강(白江) 그리고 가림성(加林城)의 싸움
3. 대륙에 있는 주유성(周留城)은 백제(百濟)의 옛 성
4. 백제(百濟)의 고토(故土)와 이도(移都)
5. 왜국은 백제(百濟)의 속국이였다
6. 웅주(熊州)는 백제(百濟)의 고토이다
7. 하남성(河南省)은 백제(百濟)의 고향이다
8. 웅진강(熊津江)구에서 백제(百濟)와 당나라 소정방과 전투하다
9. 백제(百濟)는 주유성에서 왜명과 백강(白江)구에서 사파전
10. 해골을 모아 도로, 교량, 제방의 방축을 보수하다
11.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는 천산밑에 있는 나라들을 정벌하다.
12. 백제(百濟)의 천도
13. 계백장군은 갑자기 황산을 만나 전사하였다
14. 백제(百濟)의 8대성과 관명
15. 위(魏), 촉(蜀), 오(吳) 나라의 전쟁터는 백제(百濟)의 땅에서
16. 결어

1. 백제(百濟)는 그 선조 동이(東夷)였던 삼한(三韓) 중 한 나라였다

삼한(三韓)이라 함은 첫째 마한(馬韓) 둘째 진한(辰韓) 셋째 변한(弁韓)이다 진한(辰韓)과 변한(弁韓)은 각각 12개국이고 마한(馬韓)은 54개국이란 제후국(諸侯國)을 갖고 있었다. 당시 큰나라는 만여호이고 작은나라는 수천호이다.

총 십만 호였으며 백제(百濟)는 그 중 한나라이다 백제(百濟)가 점점 강해지며 작은 나라들을 병합하고 제후국(諸侯國)을 두었다. 백제(百濟)의 본국은 구려(句麗)가 있었던 요동(遼東) 천여리이다.

이 대목에서 백제(百濟)는 서안(西安)을 기준으로 하여 천여리 떨어진 곳에 처음으로 도읍을 했다. 그러므로 서안(西安)에서 요동천리라 함은 낙양(洛陽)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이 아니면 하남성(河南省) 개봉현(開封縣)을 뜻한다.

진세가(晉世家)에 의하면 구려(句麗)는 대략 요동(遼東)쪽에 있었으며 구려(句麗)가 있던 곳에 백제(百濟) 역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百濟)는 하남성(河南省)낙양(洛陽) 개봉에 있었어도 요서(遼西) 즉 서안(西安)의 서쪽에 진평(晉平)에 이군(二郡)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진평이군이라면 매우 큰 규모이다 일군이 소국 즉 작은 나라를 기준할 때(郡)이라 한다. 군은 군왕이라고 칭하였다.

백제(百濟)도 처음은 백제군(百濟郡)으로 출발한 제후국(諸侯國)으로 동진(東晉) 안제(安帝) 의희(義熙)(A.D 405~418)13년에 백제왕(百濟王)은 영(暎)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남사(南史)의 본문(本文)이 사실이라면 백제(百濟)는 오랜 시간 동안 고구려(高句麗)와 함께 제후국(諸侯國)으로 내려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暎)은 특사와 같은 자격으로 도독이 되어 백제(百濟)의 제군사(諸軍事)를 지휘 감독하는 진동장군(鎮東將軍)이 된다. 따라서 백제왕(百濟王)이다. 송(宋)나라 무제(武帝)(A.D 420~422 경신년)때 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百濟)가 A.D 420~422년경이며 강대한 세력권을 갖고 있었을 때이다. 요서(遼西)에도 두나라 즉 이군(二郡)의 제후국(諸侯國)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 온조왕(溫祚王) 8년에 3000명의 말갈(靺鞨) 병력이 위례성을 포위했다. 7월에는 마수성(馬首城)에 죽을 쌓았으며 견고한 산책(山柵)을 쌓았

다는 기록이 있다 온조왕(溫祚王) 27년 한산(漢山) 북쪽에 있는 마한(馬韓)을 쫓아 멸하고 7 월에는 대두산성(大豆山城)을 쌓았다.

여기서 한산(漢山)은 한주(漢州)이다. 여기서 한주(漢州)는 당나라의 덕양군(德陽郡)이며 송(宋)나라때 다시 찾아 한주(漢州) 덕양군이라 했다. 원나라때는 한주(漢州)라 했으며 명,청 나라때는 사천성(四川省) 성도부라 했다. 민국때 이름을 고쳐 한현(韓縣)이라고 했다고 지명 사전 본문(本文) 1103쪽에 기록하고 있다.

즉 사천성(四川省)이 마한(馬韓)의 지역이었다

백제(百濟)온조때는 마한(馬韓)이 망할 직전에 놓여있다. 백제(百濟)온조왕(溫祚王) 34년에 마한(馬韓)의 옛 장군이었던 주근(周勤)이 우곡성(牛谷城)에서 반란을 거사하다 참수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온조왕(溫祚王) 38년 왕은 동쪽에 있는 평양성(平壤城)에 이르렀다. 이때 평양성(平壤城)은 북쪽 패수(溍水)인 패하강이 있었다고 하니 낙양(洛陽)의 위쪽이 아니면 하남성(河南省) 개봉현(開封縣)인듯하다.

분명히 패하강이 북쪽이라면 낙양(洛陽)이 아니면 개봉현(開封縣)밖에 평양성(平壤城)이 있을 장소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온조왕(溫祚王) 38년 10월에는 왕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전지에 제사를 올릴 큰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당시 백제(百濟) 남쪽에는 옥저(沃沮)가 있었다고 48년 10월 기록에 있다.

백제(百濟) 6대 구수왕(仇首王)(A.D 39) 3년과 7년에도 말갈(靺鞨)은 적현성(赤峴城)을 포위하고 심지어 왕이 있는 왕성(王城)의 서문(西門)에 불을 질렀다는 기록이 있다.

구수왕(仇首王) 25년에는 말갈(靺鞨)에서 양마 열필을 왕을 위로하는 뜻에서 가지고 왔다는 기록도 있다.

백제(百濟) 17대 아신왕(阿莘王)(A.D 318년 기사) 4년에는 고구려(高句麗) 19대 광개도왕 담덕이 군병 7000을 이끌고 패수(溍水)에서 싸웠는데 백제(百濟)가 크게 패하였다. 아신왕(阿莘王)은 싸움에서 진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왕의 직접지휘아래 패수(溍水) 강변에 역사(役事) 즉 부역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百濟) 21대 개로왕(蓋鹵王)(A.D 400 정해년) 21년 고구려(高句麗)왕이 장병 삼만을 이끌고 백제(百濟)의 왕도가 있는 한성(漢城)을 포위했다.

이때 개로왕(蓋鹵王)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으나 고구려(高句麗)군사가 사방에서 공격하므로 하느수 없이 후퇴하다 죽은 자도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개로왕(蓋鹵王)은 멀리 만 곳으로 가 토축을 쌓고 궁실누각도 지었다.

그리고 궁술대(弓術臺)도 만들었다.

개로왕(蓋鹵王)은 큰돌을 주어 옥리하(郁里河) 강가에 관을 만들어 부친의 뼈를 넣어 장사 지냈다.

강가에 나무가 많고 방축이 있는 자사성(自蛇城) 동쪽이다. 이곳은 숭산(崇山)의 북쪽에 이르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숭산(崇山)이라면 호남성(湖南省) 대용현(大庸縣) 서남에 있는 숭산(崇山)을 말한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中國古今地名大辭典) 본문(本文)792쪽 참조.

백제(百濟) 문주왕(文周王) 22대(A.D 426년 임자년) 21년 다시 한성 즉 위례성으로 돌아왔지만 신라(新羅)병과 고구려(高句麗)군사가 서로 싸우며 난타전을 벌여 고구려(高句麗)군사는 한성을 침략하여 포위하는 소동이 벌어지자 문주왕(文周王)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읍을 웅진(熊津)으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웅진(熊津)은 일명 응주(熊州)로 하남성(河南省) 노씨현(盧氏縣) 서남 70리이다.

한편 웅이현(熊耳縣)은 하남성(河南省) 낙영현 동북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에서 보면 A.D 39년부터 A.D 426년 문주왕(文周王)에 이르기까지 백제(百濟)는 매우 방대하고 큰 나라였다. 이때에 있던 후위(後魏)(A.D 220~263)은 불과 46년간이며 촉(秦)(A.D 221~263)은 43년간이며 오나라(A.D 220~280)59년간이다. 삼국(魏蜀吳)은 60년도 되지 않는다. 후진(後晉)(A.D 265~420)은 156년간이다.

남북조시대(A.D 386~581)는 196년이며 송(宋)(A.D 420~479)은 60년이다. 제(A.D 479~502)가 24년이고 양(梁)(A.D 502~557)이 56년이다.

진(陳)(A.D 557~589)는 33년에 불과하여 이 모든 년대를 합해도 백제(百濟)의 연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백제(百濟)가 오랜 역사(歷史)를 지녔다는 사실이다.

무려 873년의 백제(百濟)의 역사(歷史)를 송무제(宋武帝)때(A.D 420~422) 마차 소국(小國)인양 기록한 것은 올바른 사관의 입각한 처사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백제(百濟)는 78개국의 제후국(諸侯國)을 거느릴 만큼 강대한 나라였다.

그리고 백제(百濟) 의자왕(義慈王) 2년에는 서주(西州)현을 분국 즉 나라를 나누어 설치할 정도로 광대하였던 국가였다.

그럼 중국고금지명대사전(中國古今地名大辭典) 본문(本文)347쪽에 있는 서주(西州)를 찾아보면 서주(西州)는 당나라때 교하군(交河郡)이다. 뜰처럼 다스리던 곳이다. 전한왕(前漢王) 때 장수들이 왔다 갔다 하여 마치 전왕의 뜰처럼 되어 있는 곳이다.

안황보밀의 말을 빌리면 교하군(交河郡) 신강성(新疆省) 토노번(吐魯番)현이다. 신강성(新疆省) 토노번(吐魯番)현이 바로 선선현의 땅이다. 그리고 이곳은 마치 뜰과 같은 곳이다. 지금의 토노번(吐魯番) 동쪽에 합랄화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百濟)는 신강성(新疆省)토노번(吐魯番)에 있는 서주(西州)에도 나라를 두었다고 의자왕(義慈王)편에 기록하고 있음을 본다.

2. 응진성(熊津省)과 백강(白江) 그리고 가림성(加林城)의 싸움

고구려(高句麗)는 A.D 4~5세기전 그 당시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던 일본을 포함하여 당시 서안(西安)낙양(洛陽)을 기준하여 곤륜산에서 내몽고,한반도를 지배하며 한 즉 고조선의 강역(疆域)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백제(百濟)는 하남성(河南省)을 위주로 하여 호남성(湖南省), 귀주성(貴州省), 사천성(四川省), 신강성(新疆省), 광둥성(廣東省), 운남성(雲南省)과 월남, 태국, 대만, 필리핀, 보루네오, 자바 등 큰섬 15개가 몽땅 백제(百濟)의 강역(疆域)이었음을 사기(史記)에 기록하고 있다.

백제는 하남성(河南省)에 도읍하여 활동했다. 옛 주나라가 있었던 주류성에서 있었다는 글귀가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 의자왕편(義慈王篇)에 있음을 본다.

“인궤왈 병법피실격허 가림힘이고 공측상사 수척광일 주유성백제(百濟)소혈군취언(仁軌曰兵法避實擊虛 加林驗而固 功側傷士 守則曠日 周留城百濟 巢穴郡聚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百濟) 의자왕(義慈王) 22년에 응진강(熊津江)과 백강(白江)을 왕래하면서 부여(扶餘)의 장수가 수군 육군들이 유인궤(劉仁軌)와 함께 수륙양면 전투를 벌일 때이다.

본문(本文)을 풀어보자면 인궤(仁軌)가 말하기를 병법이란 실속있게 피하고 공격하여 허를

짚러야 한다.

가림성은 매우 단단하고 험한곳이다. 공격할 때 병사들을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지킬때는 빈것처럼 잘 지켜야 한다. 주류성은 백제(百濟)의 사람들의 군중이 모여있는 집결 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가림성이 어디인지 찾아보기로 한다 중국지명대사전(中國地名大辭典) 본문(本文)180쪽에 가림착(加林錯)이란 대목에서 가령호(嘉零湖)로 보라고 되어있다

가령호를 찾아 보기로 했다. 본문(本文)1081쪽에 서장성(西藏省) 찰십윤포북(札什倫布北)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곳은 히말라야산맥이 매우 험한 지역인 북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웅진강(熊津江)은 하남성(河南省)에 있다. 하남성(河南省) 웅진(熊津)에서 싸우다 패하여 백제(百濟)가 밀리자 사천성(四川省) 북쪽에 있는 백수백강(白江)에서도 패하여 밀렸다. 결국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 서장성(西藏省) 히말라야산맥의 북쪽인 가림성이 있는 가령호(嘉零湖)까지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때가 백제(百濟)가 망하기 3년전이므로 백제(百濟)의자왕(義慈王)22년이다.

의자왕(義慈王) A.D 635~658)이 망하기 일년 전 풍왕(豐王)(A.D 659~660)에게 양위했지만 백제(百濟)는 A.D 660년에 망하고 만다. 풍왕(豐王)은 일시나마 부여(扶餘)왕이라 칭했다.

백제(百濟)의 출생지와 고향이 어딘지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북사(北史) 본문(本文) 고려전(高麗傳) 334~322쪽 백제편(百濟篇)에 백제(百濟)국은 본시 마한(馬韓)의 후예이다. 즉 마한(馬韓)에 속한다. 마한(馬韓) 당시 색리국(索離國)왕이 출행(出行)한 사이 시녀가 아이를 가졌다. 왕이 돌아와 보니 시녀가 임신하고 있었으므로 왕은 죽이려고 하였다.

시녀가 말하기를 전일에 하늘에서 기를 받을 때 큰알 같은 자식이 내려오는 것을 감응하여 임신했다고 말했다.

왕은 아이를 낳은 후 버려두었다. 그 후 사내아이이므로 왕은 돼지우리에 버렸다. 돼지는 헛구역질을 하면서 죽이지 않자 다른 사람을 시켜 말에게 가져다 주었으나 말 역시 아이를 해하지 않아 왕은 하는 수 없이 신의 명령인 것을 알고 아이를 길렀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동명(東明)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는 본시 마한(馬韓)이 고향이며 그 후예임을 나타내는 문장이
다.

더구나 색리국이라면 고리국 또는 고리국이다. 고리국이 후일에 고이국 즉 고려이다… 즉
중국(中國)측의 기록대로라면 마한(馬韓)이 중국(中國)대륙 내에 존재했었다면 백제(百濟)는
한반도에 있던 사실이 없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후한서(後漢書)와 삼국지 그리고
진서(晉書)에서는 백제를 고구려와 같은 혈통(血統)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나라로 되어 있다.

3. 대륙에 있는 주유성(周留城)은 백제(百濟)의 옛 성

송서(宋書) 97권 이만전(夷蠻傳) 본문(本文)170~1898 쪽을 참고해 보기로 한다.

“백제(百濟)는 고려(고구려(高句麗))(고려)의 요동(遼東)의 동쪽 전여 리에 있었다. 그 후
고려(일명 고구려(高句麗))가 약해지자 요동(遼東)에 있던 백제(百濟)는 요서(遼西)< 서안(西
안),섬서성(陝西省),감숙성(甘肅省),신강성(新疆省)을 말함>도 다스렸다. 이때 다스리던 곳은
진평군(晉平郡)과 진평현(晉平縣)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中國古今地名大辭典) 본문(本文)704 쪽에 진평현(晉平縣)을 찾아 보
면 진평현(晉平縣)보다 규모가 큰 나라를 상징하는 진평군(晉平郡)은 없어지고 진평현(晉平
縣)만 기록되어 있었다. 진평현(晉平縣)은 남조때 송(宋)나라가 두었던 곳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곳은 섬서성(陝西省), 한성현 남쪽 20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진평군(晉平郡)과 현
은 남조시 송(宋)이 옮겨 두었던 곳으로 하남성(河南省) 개봉현(開封縣)과 상구현(商丘縣)이
다. 이곳은 고구려(高句麗) 즉 한나라가 있을 당시부터 요동천리인 낙양(洛陽)과 개봉현(開
封縣)은 하남성(河南省) 지역으로서 백제(百濟)가 도읍해 있었음을 송서(宋書)에서 잘 나타
내고 있다.

양서(梁書) 본문(本文)에서도 송서(宋書)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사(南史)에서는 양서(梁
書)와 주서가 같고 수서와 복사 또한 같다.

구당서에서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를 마한(馬韓)의 고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삼국사기
(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 의자왕편(義慈王篇)과 같이 백제(百濟)가 주유성(周留城)에
있었음을 적고 있다.

옛날 주나라때 낙양(洛陽)을 중심으로 하여 산서성(山西省)과 섬서성(陝西省), 산둥성(山

東省), 허북성(河北省), 호북성(湖北省), 강소성(江蘇省), 귀주성(貴州省), 안휘성(安徽省), 사천성(四川省), 허남성(河南省) 등 광범위한 지역을 갖고 있었던 곳에서 고구려, 백제는 활동했다. 그러기에 주유성(周留城)은 주나라 성이었다. 허남성(河南省)에 활동했던 백제(百濟)는 당연히 주유성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러기에 백제본기(百濟本記)에서도 백제(百濟)인들이 살고 있는 소굴이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마한(馬韓)이 대륙에 있음은 모든 정사(正史)에서 똑똑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는 당연히 대륙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상하게 보는 자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 15권 태종6년에 있었던 문장을 잘막하게 소개한다. 본문(本文)1925쪽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보면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 그리고 말갈(靺鞨) 병이 연합하여 신라(新羅)국경을 침범했다. 이때 신라(新羅)성은 33개가 함락되었다. 신라(新羅)왕은 김춘추를 파견시켰다.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2월 을축년에 영주도독으로 파견되었다.

이때 영주도독(營州都督)은 정명진(程明振)이었다. 그리고 좌위중랑장(左衛中郎將)이었던 소정방(蘇定方)과 함께 군병을 일으켜 고구려(高句麗)를 격퇴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춘추(金春秋)가 영주도독(營州都督)이었던 정명진(程明振)을 찾아가 소정방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물리쳤던 것이다.

영주(營州)는 그 당시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청주(靑州)이다. 이곳은 제남시 동쪽이다. 중국지명대사전(中國地名大辭典) 본문(本文) 1284쪽 영주참조.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 의자왕(義慈王) 마지막 본문(本文)(本文)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신라발해말갈소분(新羅渤海靺鞨所分) 국계수절(國系遂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신라(新羅)와 발해 그리고 말갈(靺鞨)은 서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나라끼리는 서로 단절되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있는 당기(唐紀)와 꼭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 15권에서는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가 지나(支那)대륙에 있었음을 확실히 증명(證明)해주는 문장이다 그 당시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말갈(靺鞨)이

연계작전으로 신라(新羅)의 33개성을 탈환했다는 기록을 보아도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가 한반도에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는 사력을 다해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가 한반도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한다 역사(歷史)는 살아 있는 생명체인 동시 거울이므로 거짓으로 엮어져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므로 정사에 있는 진실을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4. 백제(百濟)의 고토(故土)와 이도(移都)

얼마전 MBC에서도 가야(加耶)가 경상도 김해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방송되어 필자가 전화를 걸어 항의한적이 있다 김해는 경상도가 아니다. 국가는 망하여 이동할 수 없지만 백성은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가야(迦耶)는 김해이다 김해는 바로 금주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 편에 똑똑히 기록하고 있다.

신라(新羅)35대 경덕왕(A.D 739년)때 가야(加耶)는 금주(金州)라고 적고 있다. 금주는 현재 지나(支那)대륙 섬서성(陝西省), 안강현임을 KBS와 김경모박사에게도 알려주었다.물론 MBC에도 장시간 전화통화속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현재 방송이나 신문에서 역사(歷史)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답이 없을 정도이다. 가야(加耶)뿐만 아니라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가 한반도에 없었다고 하니 각국의 유물이 왜 한반도에서 발굴되느냐고 반문한다 그것은 전술한바와 같이 백성이 이동해온 것이지 국가가 있었던 사실이 없음을 모든 정사가 명확히 밝혀 주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백제(百濟)의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을 역사(歷史)의 기록을 조사하면서 백제(百濟)의 이동과 강역(疆域)등도 함께 고찰해보기로 한다. 물론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에도 온조왕(溫祚王)때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은 하남성(河南省)의 땅이라고 해 두었지만 이것도 현재 학자들은 실증이 안되었다 하여 믿지 않는다.

중앙대 경제학 박사이신 김성훈씨는 수십 차례 중국(中國)에 가보았는데 그곳에는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수 있었지만 자기는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하였다.

백제(百濟)는 모든 사서(史書)에서 보듯이 마한(馬韓)의 땅에서 출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백제(百濟)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변한(弁韓) 백제(百濟) 본문(本

文) 33~34쪽에 기록되길 신라(新羅)시조 혁거세(赫居世)(B.C 57년) 즉위 19년 임오년에 변한(弁韓)사람들이 신라(新羅)를 찾아왔다. 신당서 구당서에 의하면 변한(弁韓)은 묘예이다. 묘예란 묘족(苗族)들의 후손이다. 묘족(苗族)들의 후손들은 낙랑(樂浪)의 땅에서 살았다. 이때 낙랑(樂浪)의 땅이라면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이다. 후한서(後漢書)에 의하면 변한(弁韓)은 남쪽에 있었다. 즉 마한(馬韓)의 서쪽이다. 그리고 진한(辰韓)의 동쪽을 말한다.

최치원의 말에 의하면 변한(弁韓)은 백제(百濟)이다. 안황보밀의 백제본기(百濟本記)에 따르면 온조가 일어난 것은 전한(前漢)(B.C 206~A.D 8년)때인 제홍가(帝鴻嘉)(B.C 20~17)4년 갑진후에 혁거세와 동명(東明)의 세상이 40여년간 시작되었다. 당서에 의하면 변한(弁韓)의 묘예 즉 변한(弁韓)은 묘족(苗族)의 후손이며 묘족(苗族)의 후예들이 낙랑(樂浪)의 땅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온조는 묘족(苗族)의 후손인 변한(弁韓)계에서 동명(東明)과 함께 형제간으로 처음 시작하였다. 또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낙랑(樂浪)땅에서 시작하였다고 한다. 낙랑(樂浪)땅은 처음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에 있었지만 전국시대이후로는 낙랑(樂浪)땅이 낙양(洛陽)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섬서성(陝西省), 낙랑(樂浪)은 서안(西安)이며 하남성(河南省)의 낙랑(樂浪)은 낙양(洛陽)이다.

백제(百濟)는 변한(弁韓)땅인 낙랑(樂浪)에서 마한(馬韓)등과 함께 나라를 세웠다. 그것은 온조 이전의 일이다. 그때는 낙랑(樂浪)의 땅이 아니고 낙랑(樂浪)의 북쪽이다 혹은 구룡산(九龍山)이라고 설블리 단정짓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구룡산은 다른 이름으로 변나산(卞那山)이다. 그러므로 고구려(高句麗)도 따지고 보면 변한(弁韓)자이다. 혹 속이려고 그릇되게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옛 성현들의 설에 의하여 백제(百濟)의 땅은 변산이 있는곳에 자리잡은 변한(弁韓)이다.

백제(百濟)의 전성시대는 15만2,300호였다고 삼국유사(三國遺事) 백제편(百濟篇) 전문에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제(百濟)의 고향이 낙랑(樂浪)의 땅이라는 것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낙랑(樂浪)은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이었다가 후일은 하남성(河南省)낙양(洛陽)이 낙랑(樂浪)땅이었음을 정사에서 확연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백제선조는 변한(弁韓)이라 기록하고 있다. 변한(弁韓)의 선조는 묘족(苗族)으로 기록하고 있다. 애당초 묘족(苗族)의 후예였던 변한(弁韓)에서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가 함께 형제간처럼 출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삼한(三韓)중에서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이 변한(弁韓)(B.C 2224년)이다. 그 다음에 진한(辰韓)과 마한(馬韓)이다. 맨 나중에 출발한 것이 진한(辰韓)이다. 그러므로 변한(弁韓)에서 마한(馬韓)이 출발했기 때문이다. 마한(馬韓)이었던 고

고구려(高句麗)와 변한(弁韓)은 변한(弁韓)이었던 백제(百濟)가 처음은 변한(弁韓)속에서 함께 출발하였다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만 한나라때 제홍가(帝鴻嘉)(B.C 20~17) 4년에 백제(百濟)가 나라를 세운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은 맥을 하고 있으나 연대가 잘못된 거 같다. 왜냐하면 백제(百濟)가 건국한지 873년만에 망했으므로 B.C 213년이다. 그렇다면 백제(百濟)의 건국시기를 B.C 17년으로 잡는다면 백제(百濟)는 건국한지 677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국사기기준) 만약 삼국유사(三國遺事)대로 한다면 전한(前漢)때 제홍가(帝鴻嘉)(B.C 20~17) 4년이므로 백제(百濟)의 건국연대는 사실상 B.C 13년이다 그렇다면 백제(百濟)가 건국하여 폐망할 때까지 673년 밖에 되지 않는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연대표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연대표는 모두가 잘못되어 있음이다.

백제(百濟)의 건국연대를 알려면 현재 학계나 문헌상 이견이 없고 가장 확실한 백제(百濟)의 폐망연도 A.D 660 을 근거로 기타 문헌들에서 나오는 백제(百濟)의 역사연대 873년을 자감한다면 백제(百濟)의 건국연대가 B.C 213년이 확실해진다.

일부 식민사관을 지닌 사학자나 지나(支那)와 일본에서 역사(歷史) 를 조작하기 위해서 고구려(高句麗)(句麗)와 백제(百濟)의 건국연대를 조작한것으로 추론되는 부분이다.

백제(百濟)의 처음 건국자는 구태씨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본문(本文)에서 보이는 것처럼 변한(弁韓)의 후예이자 묘족(苗族)의 혈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러기에 백제(百濟)의 도읍지(都邑地)가 낙랑(樂浪)땅인 지나(支那)대륙에서 국가를 건국했었고 또한 한반도 남단인 전라도에 백제(百濟)가 도읍을 건국할 이유가 없다. 전술한바와 같이 백제(百濟)는 묘족(苗族)에서 뿌리가 내려 변한(弁韓)으로 변한후 변한(弁韓)과 마한(馬韓)이 함께 공존했기 때문에 백제(百濟)가 마한(馬韓)에서 출발한것으로 사서(史書)는 기록하고 있다.

해동역사(歷史) 세기 9권 백제편(百濟篇)을 살펴보면 77쪽에 백제(百濟)의 시조는 고구려(高句麗)가 남으로 내려와 온조가 스스로 세운것이다. “중략” 한(漢)나라가 서안(西安)에 도읍했을 당시 백제(百濟)는 나라이름을 십제라 칭했으나 후일 마한(馬韓)이 신하국들을 병합하고 강국으로써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하자 백제(百濟)라고 고쳤다.

문주왕(文周王)(22대 A.D 426년)초년 송(宋)나라 장오왕(A.D 473~477)원휘 3년 도읍을 공주(하남성(河南省)섬현 동북 43리)로 옮겼다.

그리고 백제(百濟) 성왕(26대 A.D 494) 양나라 무제(A.D 535~546)대동4년에 도읍지(都邑地)를 다시 부여(扶餘)현으로 옮겼다. 여기서 부여(扶餘)현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중국지명대사전(中國地名大辭典) 본문(本文) 388쪽에 부여(扶餘)를 찾아보았다.

동진(東晉)때 이름을 고쳐 부이현(夫夷縣)이라 했다. 부이현을 다시 찾아보니 당나라때 사천성(四川省) 서주(徐州) 부경이라 했다. 그래서 부여현을 144쪽에서 다시 찾아보니 한나라때 제후국(諸侯國)이며 진(晉)나라의 현 즉 고을이라 했다. 진나라때 이름을 고쳐 부현(扶縣)이라 했고 이곳은 옛날에 성(城)을 두고 다스렸던 곳이라 한다. 호남성(湖南省) 신영현 동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百濟)는 하남성(河南省)에서 사천성(四川省)으로 옮기고 다시 성왕(A.D 494년)때는 호남성(湖南省)으로 옮긴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여(扶餘)현은 남부여(南扶餘)로서 사천성(四川省)과 호남성(湖南省)에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백제(百濟)는 본시 마한(馬韓)에서 나왔다. 54개 나라중 하나가 백제(百濟)이다. 백제(百濟)는 세력이 점점 강대한후 많은 제후국(諸侯國)을 가지고 있었다. 양서(梁書)에 의하면 백제는 본시 백제(伯濟)이후이다.

삼한(三韓)은 78개 나라인데 그 중 백제(百濟)는 한나라이다. 위지에는 마한(馬韓)의 54개국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百濟)의 선조는 부여(扶餘)의 동명(東明) 이후라 기록하고 있다.

동명(東明)이후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다. 구태는 독실한 믿음과 인자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처음에는 대방(帶方)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여기서 대방(帶方)의 옛 땅은 낙양(洛陽)이다. 이는 본서 삼한(三韓)의 발달사에 대하여 기술한바 있다.

대방군(帶方郡)은 한나라가 두었던 곳이며 진(晉)나라가 있었던 곳이다 대방군(帶方郡)은 고구려(高句麗)가 낙랑(樂浪)과 대방군(帶方郡)을 병합한후 백제(百濟)와 치열한 경쟁을 하던 곳이다.

이후 구태는 한나라 요동태수(遼東太守) 공손도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후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 동이(東夷)강국이 되었다.

처음에는 제후국(諸侯國)이 워낙 많아 백가제라 했으나 바다에도 제후국(諸侯國)이 많은지라 백제라고 하였다. 역대는 십여대이며 중국(中國)도 신하이다라고 수서 후주서에 기록하고 있다.

백제(百濟)의 선조는 마한(馬韓)에 속하며 부여(扶餘)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백제(百濟)의

시조라 할 수 있는 구태가 처음 대방(帶方) 즉 낙랑(樂浪)에 나라를 세운 것이다. 백제(百濟)는 스스로 위(魏)에게 조공을 끊어지지 않게 바쳐왔으나 진(晉)나라 이후 모든 제후국(諸侯國)들이 병합되었다. 그래서 백제(百濟)는 마한(馬韓)의 옛땅에서 풀려나 건국하게 된 것이다. 진나라때는 백제(百濟) 즉 구태가 진(晉)나라의 번작 즉 벼슬을 했다는 기록이 문헌통고에 기록하고 있다고 적고있다. 이상 해동역사(歷史)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百濟)의 처음 건국가는 구태이다. 구태는 진(晉)나라에서 벼슬한 사람이며 백제(百濟)는 위(魏)나라가 뿌리이다. 즉 위(魏)나라는 마한(馬韓)이다. 다시 말해 마한(馬韓)속에 위이다. 그러기에 백제(百濟)는 마한(馬韓)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음을 당연하다. 특히 백제(百濟)는 마한(馬韓)의 고토였던 대방군(帶方郡)에서 도읍을 정했음은 모든 사서(史書)의 기록과 동일하다.

대방(帶方)군이 있었던 곳은 낙양(洛陽)이며 낙양(洛陽)은 하남성(河南省)이다. 주로 삼국 시대는 토성을 쌓았으므로 흙토벽에 이룰성자를 써서 성이라 했다. 그래서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도 토성으로 쌓았을 것이다. 필자가 1991~1992년에 북경(北京)에 갔을 때 김지명박사와 부인이 말해주길 원나라때 북경(北京)시내는 약 20층 높이의 토성이 있었는데 토성주위로 너무나 지저분한 오두막집들과 빈민들이 많아서 토성을 허물고 평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아마도 백제(百濟)의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 낙양(洛陽)에서 없어졌다면 그런 이유에서 없어졌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필자가 서안(西安)에 갔을 때 장안성은 화강석으로 쌓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도 남아있었다. 만약 낙양(洛陽)의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도 장안성처럼 축조된 것이라면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5. 왜국은 백제(百濟)의 속국이였다

사기(史記) 오제기(五帝紀)부분에 숙신과 백제(百濟)의 강역(疆域)에 대하여 기록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백제(百濟) 강역(疆域)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알아본다. 북쪽에 있던 산융(山戎)에서 출발한 것이 식신(息慎)이다. 정현(鄭玄)의 말에 의하면 식신(息慎) 혹은 숙신의 동북북에 있던 북이(北夷)였다. 동쪽으로 길게 나라가 발달하다보니 조이(鳥夷)라고도 했다. 사기(史記) 색은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말은 순임금덕에서 비롯된 것이다. 옛날 사방에 있는 이족(夷族)들을 어루만져 준 것은 순임금의 배려에서였다. 선인들은 무자(撫字)를 총합적으로 해

석해서 북쪽에서부터 남방까지의 집과 지명을 총칭하는 것이다. 한서에 의하면 북쪽에서 처음 생기는 것은 북방(北方)에 속하는 나라 이름이다. 서쪽 상부에서 생기는 것은 서융이다. 작은 하나의 예이다. 그리고 서쪽 아래지역에서 작은 하나의 국가가 발동하는 것은 산융(山戎)이라 한다. 북쪽지방에서 길게 아래로 하나의 국가가 생기는 것이 이(夷)이다. 즉 장이(長夷)라고 한다. 그리고 조이(鳥夷)라고도 한다. 그뜻이 자연과 마땅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길게 뻗어져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장이이다. 멀리 새처럼 간다고 하여 조이(鳥夷)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이와 조이라고 예(禮)를 갖추어 호(号)를 부르게 된 것은 선비들 때문이다.

선비중에서도 가지라 활만한 우거(右蕞) (B.C 200)가 대단히 이름을 떨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비중에 마땅히 가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선자의 음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 추씨와 유헌씨처럼 음이 서로 합쳐져서 식(息)과 숙(肅)이 글자는 다르지만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동이(東夷)들중에서 북쪽에 해당하는 것을 이적(夷狄)의 이름이라 한다.

고서에는 필요하지 않는 같은 글자는 모두같이 읽도록 하겠다. 사기(史記) 정의(正義)에 의하면 주석에 있는 조(鳥)지는 후 도(島)자와 같은 뜻이다.

팔지에 의하면 백제(百濟)국은 서남쪽에 있다. 바다 가운데 큰섬 15개 군데는 모두 사람이 살고 있어 읍 즉 고을을 두었다. 이 섬들은 모두 백제(百濟)에 속한다. 그리고 왜국도 서남 큰 바다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러기에 백제(百濟)의 속국이다. 즉 제후국(諸侯國)이었다. 백제(百濟)는 작은 속국은 무려 백여 군데나 있었다.

서안(西安)의 서율에서 즉 서경(西京)에서 남쪽으로 13,500리이다. 옛날은 5.6KM가 10리였다.(현재는 4KM가 10리이다)

안황보밀의 말에 의하면 당무후(A.D 841) 백제(百濟)는 왜국(倭國)을 일본국이라 고쳤다. 사해(四海)사방에 있는 바다안에 있는섬 즉 일본이다. 사기정의에 있는 이아(爾雅)의 말에 의하면 구이 팔적 칠융 육만(九夷 八狄 七戎 六蠻)은 모두가 사해에 있는 큰섬과 육지로 풀어져 갔다. 이것은 모두가 순임금의 공덕이며 우임금이 흥하므로 인해 모두 즐겁게 살게 되었던 것이다.

사기(史記) 오제(五帝) 백제본기(百濟本記)에서 보는 것처럼 백제(百濟)는 지나(支那)대륙의 남반부와 동남아 큰섬 15군데나 속국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기(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에서는 왜국은 큰섬에 있었으며 대만, 버마, 태국은 물론 필리핀, 보루네

오, 자바 등이다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의 큰섬들은 모두가 백제(百濟)의 제후국(諸侯國)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경 즉 서안(西安)에서 동남쪽으로 13,500리의 동남아 해상에 있는 섬들은 백제(百濟)의 속국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왜국이 있었는데 왜국도 백제(百濟)의 속국이었으며 백제(百濟)는 당나라무후(武后) (A.D 841년) 왜국을 일본으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아니라 백제(百濟)는 해상국가를 포함해 100여개 국가가 넘는 제후국(諸侯國)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란 이름이 고쳐지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152년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일본은 역사(歷史) 왜곡을 하기 위해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의 역사(歷史)를 길고 많은것부터 낮추고 일본역사를 2,600년으로 고쳐버렸다.

고구려(高句麗)역사(歷史) 는 899년이므로 지금부터 2,224년이며 백제(百濟)는 873년이므로 지금으로부터 2,050년이 된다. 여기서 신라(新羅)의 연대만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있는 그대로 두었다.

진(秦)나라가 건국되었을 때부터 연대를 본다면 진(秦)나라는 B.C 255년에 건국되었으므로 신라(新羅)가 망한 A.D 935년으로 계산한다면 1,190년의 역사(歷史)이다. 그러나 역사(歷史)는 진(秦)나라가 천하의 육국을 통합하여 통일했지만 곧 바로 다섯나라의 반발과 공격으로 망했다.

진한(辰韓)은 일시적으로 국가가 없어 진전하였던 것을 보면 신라(新羅)의 건국을 후신라(新羅) 즉 후진한(後秦韓) 혹은 진한(辰韓)으로 보아서 현재 B.C 57년은 틀림이 없을것이다. 그러나 전진은 곧 전신라(前新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라(新羅)뿐만 아니라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는 물론 진, 한 등 대역사(大歷史)의 수정적업이 연구검토되어야 할것이다.

백제(百濟)가 하남땅에 도읍한 것은 정사들의 기록으로 틀림없는데도 이제껏 한반도에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를 고의로 축소된 것은 식민사학자들의 음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철저한 역사왜곡을 하기 위해 한자폐지론과 엉터리 역사학을 꾀 맞추는 식의 역사작업을 철저히 해 왔었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반민족적 행위이므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6. 응주(熊州)는 백제(百濟)의 고토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 18권 본문(本文)1,953쪽을 참고해 보기로 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속에는 전당(前唐)의 당기(唐紀)가 81권이며 후당의 당기(唐紀)가 8권으로 되어있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전권 294권으로 엮여져 있다. 북송(北宋)학자였던 사마광(司馬光) (A.D 1019~1086년)의 저서이다. 주위열왕(周威烈王) (B.C 418~384년)때부터 주기(周記), 진기(秦記), 한기(漢記), 위기(魏記), 송기(宋記), 제기(齊記), 양기(梁記), 진기(陣記), 당기(唐紀), 후양기, 후당기, 후진기, 후한기, 후주기까지 이다. B.C 425~A.D 960년까지 무려 1,385년간의 역사(歷史) 를 서술한 방대한 역사책이다.

당기(唐紀)에는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엄청나고 방대하다. 이제부터 중요한 대목을 한문장씩 풀어보면

2월 갑술년 안동도호부를 옮겼다. 처음 안동도호부는 중국고금지명사전 본문(本文) 306쪽에 있는 것처럼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에 있었다. 서안(西安)은 조선이었으며 조선의 중심지에 평양성(平壤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때 안시성도 서안(西安)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지명사전 303쪽 안시현 참조)

안동도호부가 평양성(平壤城) 즉 서안(西安)에 있었던 것을 하북성(河北省) 노룡현(盧龍縣) 옮겼다. 그러니까 하북성(河北省) 노룡현은 요동(遼東)의 고성(故城)이다. 이곳에는 안동관(安東官)이라는 관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사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파했지만 이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는 건안고성(建安故城)으로 옮겼다. 웅진(熊津)을 살펴보기로 한다. 웅진(熊津)은 백제(百濟)의 옛도읍지(都邑地)이다.

그러므로 웅진(熊津)이란 지명을 확실하게 해둠으로써 백제(百濟)가 어디에 있었는지의 활동과 고토 그리고 도읍지(都邑地) 이동경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36권 잡지 제 5 지리3(地理三)편을 보면 웅진 본 백제구도(熊津 本 百濟舊都)라고 기록하고 있다.

응주(熊州)는 본시 백제(百濟)의 옛 도읍지(都邑地)라고 적고있다. 이런점으로 보아 백제(百濟)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물론 백제본기(百濟本記)에서 백제(百濟)는 하남의 땅이다라고 적고 있기는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응주(熊州)를 찾는 길이다.

웅진(熊津)이나 웅주(熊州)를 찾으려면 먼저 웅자부터 찾아야 한다. 그래서 중국고금지명대사전(中國古今地名大辭典) 본문 1,108쪽에 있는 웅이산(熊耳山)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웅이산(熊耳山)은 섬서성(陝西省)과 하남성(河南省)을 경계로하여 하남성(河南省)에 있으므로 지명사전을 조사해보니

“웅이산(熊耳山)은 하남노씨현(河南盧氏縣)”이라 했다. 즉 하남성(河南省) 노씨현(盧氏縣)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곳을 동웅주(東熊州)와 서웅주(西熊州)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웅이현(熊耳縣)은 하남낙령현(河南洛寧縣) 동북이라 했다. 하남성(河南省) 낙령현 동북이면 하남낙령현 쪽이다.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낙양(洛陽)근방을 뜻한다. 계속해서 웅주(熊州)나 웅진(熊津)을 찾기위해 신평현을 찾아보았다. 신평현을 찾아보니 한치(漢置) 한서지리지(漢書地理誌)에 경조윤신평(京兆尹新豐)이라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지리지(地理志)를 토대로 계속 추적하여 임동현(臨潼縣)을 지명사전 1,294쪽에 찾아보니 춘추여용국(春秋驪戎國)이라 되어있다. 춘추때 구려(句麗) 또 고려국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진위여읍(秦爲驪邑) 진나라때 여읍 즉 고려읍이라 하고 이곳은 한치신평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에 신평현은 임동현(臨潼縣)이었음이 판명됐다. 그러니까 웅진(熊津)이 웅주(熊州)이며 신평현이 임동현(臨潼縣)이다. 그렇다면 임동현(臨潼縣)이 어디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임동현(臨潼縣)은 지명사전 본문(本文)1,294쪽에 보면 명,청시대에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부에 속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도를 찾아보니 서안(西安)시의 바로 옆 패수(滜水)가 흘러가고 있는곳에 임동현(臨潼縣)이 있었다. 그렇다면 웅진(熊津) 또는 웅주(熊州)는 웅이산(熊耳山) 동서로 있다는 웅주(熊州)의 서쪽임이 확인되었다. 웅진(熊津)은 웅주(熊州) 웅천주(熊川州) 공주 이주(理州) 위주(爲主) 서주(敘州) 계룡으로 지명이 이리저리 바뀌고 또 없어지고 하였다. 백제(百濟)가 망한후 당나라가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두었다. 이곳이 소부리군이며 한편 사비성이라 기록하고 있다.

7. 하남성(河南省)은 백제(百濟)의 고향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 지리지(地理志) 제3에서 서원소경(西原小京)이 있었는데 경덕왕(A.D 739년)때 서원경(西原京)을 정주(淸州)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주는 지명사전

830쪽에 보면 당나라때 기미주였다. 송(宋)나라의 궁궐이 있던 곳이라 기록하고 있다.

송(宋)나라가 도읍했던 곳이면 하남상구현 동쪽이라고 되어있다. 이곳은 강소성(江蘇省)의 서쪽경계와 안휘성(安徽省)의 북쪽 경계가 가까운 지점이다.

여하간 백제(百濟)의 고토는 하남성(河南省)임을 입증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 지리지(地理志) 에서 말하는 서원소경(西原小京) 즉 서원경(西原京)은 분명히 지명사전 본문(本文)352쪽에는 하남영보현 서남 50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곳은 섬서성(陝西省), 과 산서성(山西省) 접경지대에 있는 하남성(河南省)영보현이었다. 그러던것을 청주로 이름을 고치면서 하남성(河南省)서쪽끝에 있는 영보현을 동쪽끝면에 있는 상구현(商丘縣)으로 지명을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를 다시 풀어보기로 한다.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건안(建安)의 고성 즉 옛성으로 옮기므로 인해 백제(百濟)의 백성들이 옮겨가게 되었다. 그곳은 서주(敘州)와 연주등이며 이곳 모두가 건안의 옛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주(敘州)와 연주는 어딘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건안(建安)의 고성(故城) 즉 옛 성으로 옮기므로 인해 백제(百濟)의 백성들이 옮겨가게 되었다. 그곳은 서주(敘州)와 연주 등이며 이곳 모두가 건안(建安)의 옛 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주(敘州)와 연주(兗州)는 어딘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서주(敘州) 는 강소성(江蘇省) 최북단에 안휘성(安徽省)의 접경지역에 있는 곳이며 연주는 산둥성(山東省) 공자사당(公子祠堂)이 있는 곡부옆이다.

이곳은 백제(百濟)의 백성들이 건안의 옛성이 있는 곳으로 옮겨 살았다는 기록이다.

당기(唐紀) 16권 본문(本文) 1,931쪽을 참고해 보기로 한다. 여름 5월 계미 안서도호부는 전산밀에 있는 구자와 함께 오래된 곳이다. 안서(安西)는 서주도독부(西州都督府)의 진영이 있던 고창(高昌)의 옛땅이다. 6월 영주도독겸 동이도호이던 정명진을 우령군 즉 우측진영에 있는 군사의 총사령관을 말한다.

우령군(右領軍)과 중랑장군(中郎將軍)이었던 설인귀 장병과 함께 고구려(高句麗)의 적봉진과 싸워 400여명을 참수하고 백여명을 포로로 잡았다.

삼국시대는 고구려(高句麗)를 고려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고구려(高句麗) 대장 두방루(豆方婁)가 삼만명의 많은 군사들이 파견되어 글란(契丹)과의 전쟁에서 이름을 떨쳤다.

그당신 글란(契丹)은 반격전을 했지만 대파하고 2,500이 참수당했다.

당기(唐紀) 16권 본문(本文)에서 백제(百濟)는 고구려(高句麗)와 영주(榮州) 즉 하북성(河北省) 지방에서 싸웠으며 특히 백제(百濟)는 천산아래에 있는 구자와 서주(西州)에 있던 서주도독부(西州都督府)를 겸하여 안서도호부를 설치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주도독부(西州都督府)는 진영을 고창(高昌) 즉 천산아래 신강성(新疆省) 언기(焉耆)있는 곳에 두었다고 하니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8. 웅진강(熊津江)구에서 백제(百濟)와 당나라 소정방과 전투하다.

당기(唐紀) 본문(本文) 1,934쪽에는 다음과 같다.

갑자년이 되었다. 2월과 3월에는 주(州)를 병합하는 연회가 시작되었다. 황후가 친히 피로 연에 참석하고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옛날 이웃에 있는 마을사람들과 부인들도 모두 궁전에 모였다. 내전에서는 주(州)를 합하는것에 조서를 주고 따라서 하사도 하였다. 부인들도 나이에 따라 80여명 이상 모두 군(郡)을 주고 관직도 주었다. 즉 군호(郡戶)도 주었다. 군호란 작은나라에 속해 있는 가옥의 할당량을 뜻한다.

백제(百濟)는 고구려(高句麗)를 의지하고 원병을 요청했다. 그리고 신라(新羅)를 침략하였다. 이때 김춘추(A.D 651년)는 구원병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신해년에 조부위대장군 소정방과 신구도 행군(新丘都 行軍)이었던 대총관수였던 좌효위(左驍衛) 장군 유백영(劉伯英) 등 수륙 10만으로 백제(百濟)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때 춘추는 우이도행군총관장(婁夷道行軍總管將)이었다. 신라(新羅)와 당이 총합세하여 백제(百濟) 공격에 나섰다.

당기(唐紀) 권 16권 16본문(本文) 1,935쪽을 참고 하기로 한다.

8월 토번(吐蕃은 서장성(西藏省)임 히말라야 윗쪽에 곤륜산 등지와 서장성(西藏省),청해성,에서 주로 활동함)에 있던 록동찬(祿東贊)이 장병들을 일으켜 토곡혼(吐谷渾은 천산아래에 있는 국가)을 공격하였다. 토곡혼은 도독부(都督府)가 부설되었던 옛땅이다. 소정방은 군대를 이끌고 산악과 계곡 그리고 바다에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때 백제(百濟)는 웅진강구(熊津江)를 막아 사수하고 있던 백제(百濟)를 소정방은 공격하여 백제(百濟)군을 죽이고 수천명을 모두 달아나게 하였다. 소장방은 수륙을 다스리면서 이때 뜻대로 도성(都城)을 빼앗았다.

그리하여 백제(百濟)는 도성에서 20여리 밖으로 쫓겨났다. 백제(百濟)는 나라가 기울어 졌다. 닥쳐오는 전쟁으로 크게 패하고 죽는 자가 수만 명이었으며 이때 도망가고 달아나는 자가 많았다. 그리고 혹 도망가거나 추격당해 들어오는 자들도 있었다.

백제(百濟)왕이었던 의자왕(義慈王)(A.D 635~658)과 태자 용은 북쪽 경계쪽으로 도망갔다. 소정방은 이를 아가 포위하였다. 의자왕(義慈王)의 차자 이던 태를 옹립하였다. 태가 풍왕(豐王)(A.D 659)이다.

풍왕(豐王)을 장수로 하여 용(隆)이 포위되고 있던 곳으로 갔다. 그때까지 용은 굳게 성을 지키고 있었다. 용과 문사(文思)가 말하기를 왕과 태자는 모두 급하고 위험하므로 군대로써 옹호하고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자왕은 사신을 보내 병정을 빌려오더라도 능히 퇴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당나라 군사에게 우리 부자는 반드시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좌우에 있는 장수들이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항복해 왔다. 이때 백성들은 모두 함께 따랐다. 태자였던 태(풍왕 豐王)는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었다. 소정방군사는 성위에 올라가 깃대를 흔들며 태(泰)에게 말했다 태는 하는 수 없이 성문(城門)을 열었다. 명에 따라 의자왕(義慈王)과 용은 그리고 제성주는 모두 항복을 하였다. 백제(百濟)의 고토는 망할 당시 오부(五部)와 분통(分統)으로 나누어 진 것이 37군(군은 소국임)200성과 67만호로 임금에게서 상명을 받은 땅은 웅진(熊津) 등 5 도독부(都督府)이며 추장과 더불어 도독자사(都督刺史) 등이다.

9. 백제(百濟)는 주유성에서 왜병과 백강(白江)구에서 사파전

당기(唐紀) 17권 본문(本文) 1,938쪽을 살펴본다. 12월 무신 상감의 명에 따라 토론회가 있었다. 고려, 고구려(高句麗), 구려,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백성은 하북(河北)의 백성이다. 하북이라면 지금의 북경(北京) 지방이다. 백성들이 부역으로 뽑혀가서 일하는 곳은 태산이었다. 태산은 산둥성(山東省) 제남시 남쪽에 있는 산이다. 이곳은 대대로 봉선(封禪)하는 곳이다. 선을 통하고 봉작을 받는 곳에서 부역을 하였다.

태산은 산둥성(山東省) 태안현 북오리(北五里) 행동도병정(幸東都竝停)은 동쪽에 있는 도독부(都督府)를 병합하여 정하는 임무의 직책을 말함인 율海道총관이었던 소해정(蘇海政)은 상감께 고했다. 실크로드에 있는 구자를 토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옛날처럼 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 왕래하다 끊어졌던 이가한(二可汗)(이가한 즉 두개의 가한인데 가한은 환의

후예인 나라임)을 동원해 발병시켰다.

본문(本文)1.939쪽을 참고하기로 한다.

9월 무오 웅진(熊津)도 행군총관인 좌위장군(左衛將軍) 손인사(孫仁師) 등은 백제(百濟)의 많은 무리와 더불어 왜병은 백강(白江)과 주유성(周留城)을 완전 탈환하였다. 유인원(劉仁願)과 유인궤(劉仁軌)는 극진현성(克真峴城)에서 상감께 고했다. 손인사 장병들은 바다 즉 강위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백제(百濟) 풍왕(豐王)은 왜인들을 남쪽으로 유인하여 갔으나 당의 군사는 막아버렸다. 손인사는 유인원(劉仁願)과 유인궤(劉仁軌)의 군사를 합하여 가림성(加林城) 수륙에서 먼저 공격하여 충돌이 일어났다.

유인궤(劉仁軌)가 말하길 가림성은 워낙 험한 지역으로 급하게 공격하면 군졸들이 다치므로 천천히 지구전으로 날짜를 끌면서 공격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유성에서는 포로처럼 굴속에 있는 백제(百濟)의 무리가 많이 있으므로 모두 소탕을 해야 하는 것이 임무이다.우리들이 마땅히 선제공격을 하여 주유성과 그 밖에 다른성들은 모두 빼앗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하간 손인사가 있는 성은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인원(劉仁願)은 신라(新羅)왕 범민 육군장군과 유인궤(劉仁軌)도 함께 진격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두상(杜桑)장수와 용수군장군(隆水軍將軍)은 군량을 싣고 웅진(熊津)입구인 백강(白江)에서 만나 육군과 동참하기로 했다. 주유성에서 우연히 만나 왜병과 더불어 백강(白江)구에서 사과전이 벌어졌다.

여기서 웅진(熊津)입구에 있는 백강(白江)을 알아보기로 한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中國古今地名大辭典) 본문(本文) 246쪽에 있는 백수강(白水江)이 백강(白江)이다. 이곳은 섬서성(陝西省), 낙양(洛陽)현 북쪽에 있는 것이 백수강(白水江)이다. 한편 감숙성(甘肅省) 임담현 서남이 서쪽에 있는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 했다. 감숙성(甘肅省)과 섬서성(陝西省), 그리고 사천성(四川省)과 경계선에 있는 곳이 백수강(白水江)이며 감숙성(甘肅省)에 맞닿은 사천성(四川省)에 있는 두곳은 백수(白水)이다.

감숙성(甘肅省), 산서성(山西省), 사천성(四川省)의 세곳이 연결된 경계선상에 있는 강이 백강(白江)이라면 백강(白江)을 타고 흘러가면 서안(西安)에 이른다. 서안(西安)으로 흘러오는 큰 강줄기는 패수(渭水)이다. 패수(渭水)왼쪽에 있는 강이 백강구(白江口)이다. 백강(白江)에서 흘러 패수(渭水) 즉 물이 모이는곳이 서안(西安) 옆 임동현(臨東縣)이며 임동현(臨

東縣)에 웅진(熊津)이 있다. 그러니까 웅진(熊津)에서 백강(白江)으로 올라가 백강(白江)입구에서 지열한 전투가 벌어지곤 했다. 전쟁은 사과전으로 벌어져 이겼지만 400척의 배는 불타 버렸다. 그 연기는 엄청났다.

백제(百濟)왕 풍은 완전히 탈진되어 전해수(天海水)가 있는곳까지 모두 도망갔다. 여기서 전해수(天海水)란 안휘성(安徽省) 홉현 황산꼭대기에 있는 곳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감숙성(甘肅省) 천수(天水)있는곳으로 간곳인지 그 지역은 확실치 않다. 전해수(天海水)가 천수를 뜻하는 것인지 그 지역은 확실치 않으나 두곳 중 한곳임은 분명하다.

10. 해골을 모아 도로, 교량, 제방의 방축을 보수하다

고구려(高句麗) 왕자인 충승(忠勝)등도 함께 도망했다. 사과전의 전투는 그야말로 난전이였다. 백제(百濟)의 장수였던 융(隆)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서서히 평정을 하였다. 남아있던 성들을 거두면서 늦게나마 소식을 접하였다. 백제(百濟)의 서부인이었던 흑치상지와 키가2m가 넘었던 칠척장신과 지략을 겸비한 여효용(餘驍勇)은 소정방을 치기로 했다. 백제(百濟)의 장수 흑치상지와 소속대원을 데리고 소정방에 투항하는척하며 함께 공격하였다. 그리고 왕을 묶고 태조 종을 겁약(겁약:순간적으로 치고 약탈하는 것)하고 장병들을 죽였다.

흑치상지는 두려워 좌우 10여명과 함께 백제(百濟)가 있는 본부로 오면서 도망쳐 돌아왔다. 돌아올때 물건을 수집하는 것도 잊고 일부를 가져오다 분실했지만 남은 것은 임존산(任存山)에 보전해 두기로 했다. 그리하여 다시는 침노하지 못하도록 부여자 30,000을 동원하여 울타리를 치고 견고하게 목재를 쌓아 만들었다.

소정방이 파견한 군병과 흑치상지의 군병이 맞붙어 혈전을 벌였으나 전세는 당(唐)나라군대가 불리했다. 흑치상지는 200여성을 다시 찾은 셈이다. 소정방은 불가항력이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흑치상지는 별도로 특별부대와 장병의 우두머리를 사타상(沙吒相)으로 하고 곳곳에 위험하고 험한지역에 있던 장병들에게 믿음을 주어 응전하기로 하였다. 백제(百濟)는 이미 패한 끝이라 모든 장수들은 유인궤(劉仁軌)에게 항복한 후였다.

흑치상지는 사자를 보내 장군들과 백제(百濟)인들 그리고 임존성(任存城),군량등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면서 협조를 부탁했다.

그때 백제(百濟)장군이던 손인사가 말하기를 그놈은 짐승마음을 갖고 있는 자이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고 하였다.

당(唐)나라 장수인 유인궤(劉仁軌)가 말하기를 흑치상지와 손인사는 과연 내가보아도 백제(百濟)의 충신이라도. 모두 충과 용맹스러운 지략가들이며 신의가 두터운 의로운 장수들이다 라고 칭송하였다.

그리고 소정방은 말하였다. “그대들의 증성스런 대접을 해서라도 금후 바른 사람이 되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라고 하였다. 이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그리하여 풀려날 수 있었다. 임종성은 연락이 늦어지고 통신이 안되어 저자를 버리고 도망치는 형국이 생겼다. 당(唐)나라는 왕명을 내렸다. 유인궤(劉仁軌)가 있던 장병을 백제(百濟)에 보내 손인사 백제(百濟)장군과 당(唐)나라 유인궤(劉仁軌)를 함께 급히 소환시켰다. 백제(百濟)병은 불속에 있는 집의 조각처럼 앙상한 진해와 사신들로 들에 가득찼다.

당(唐)나라 장군 유인궤(劉仁軌)는 명을 내려 죽은 해골을 모으고 집집마다 촌락을 서관장(晷官長)이 모두모아 도로의 교량과 제방방축 등을 보수하고 못도 쌓는 공사를 하였다.

한편 밭, 논을 갈아 뽕나무를 풍부하게 심어 가난을 없애고 외로운 노인을 돌보고 선조들의 사직에 끌고루 나누어 음력초에는 반드시 죽은 사람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당(唐)나라 대장군 유인궤(劉仁軌), 유인원(劉仁願) 형제는 장안성을 쌓았다. 백제(百濟)는 크게 기뻐했다.

그리하여 모두들 각자 자기의 편만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밭도 더 만들어 양식이 풍부할 수 있도록 저축도 하였다. 또 군졸들은 고구려(高句麗)의 병법지도를 보고 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유인원(劉仁願)은 상감을 배알하러 서경(西京) 즉 서안(西安)에 이르렀다. 상감께서 말하시기를 경이 한 것은 해동전후(海東前後)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땅히 무슨일을 옳고 바르고 문리에 맞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골을 모아 도로나 교량 방축 등을 쌓는데 썼다는 것은 무인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유인원(劉仁願)은 말하기를 유인궤(劉仁軌)는 신하가 아닙니다.라고 하자 상감은 크게 웃으면서 유인궤(劉仁軌)를 여섯계급으로 깎아 대방(帶方)주자사로 보냈다.

이때 동생과 함께 장안성을 쌓고 있었다. 상감은 도독부(都督府)장군이었던 인궤가 열심히 장안성을 동생과 함께 쌓는 것을 보고 고마운 표시로 유인궤(劉仁軌)의 저자를 파견사로 시켜 하사하셨다. 상감은 옥새가 찍힌 공문서에서 인궤가 근면하고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칭송하는 조서가 전달되었다.

당기(唐紀) 본문(本文) 1,041쪽을 참고해 보기로 한다. 백제(百濟)는 패하였다. 하지만 평양에서 고전하였던 것은 당연한 소치이다. 그 당시 장수들은 상감의 허락이 없으므로 상과 훈장이 없어 도착하지 못했다. 상훈을 줄만한 처지가 못되었던 것이다. “중략”

11.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는 천산밑에 있는 나라들을 정벌하다.

당기(唐紀) 17권 1,945쪽을 풀어보기로 한다. 고구려(高句麗)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 죽고 사로 잡힌자가 만여명이고 부여성(扶餘城)도 빼앗겼다.

부여현(扶餘縣) 중에는 40여성은 모두 전망이 좋고 풍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시랑(侍郎)이었던 낙양(洛陽)의 어사고언충(御史賈言忠)은 사신의 명을 받고 요동(遼東)(요동이란 전국시대에는 서안(西安)의 동쪽을 말함)일대를 돌아보고 상감께 군사작전측면에서 상소하였다. 고언충은 대답하기를 고구려(高句麗)는 필시 평화를 사랑하면서 살고있다고 말했다. 그때 상감께서 말하기를 경은 어떻게 아는 거냐고 말하자 고언충이 대답하기를 수양제(A.D 605~617)는 동쪽을 정복하지 못하면 원수 같은 고향을 잊지 못할 것이며 선왕들께서 동쪽을 만약 정복하지 못할 때 고구려(高句麗)는 틈을 내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

당기(唐紀) 본문(本文) 1,948쪽을 참조한다.

여름4월 토번(吐蕃)을 함락시켰다. 토번(吐蕃)이라면 신강성(新疆省) 천산아래 언기가 있는 곳이다. 그곳은 18주(州)가 있다. 더불어서 우전(于甸)은 곤륜산에 있음 본시는 이전(伊甸)임 이전은 에텐이며 유럽에서는 에텐동산이라 한다 그래서 이전낙원(伊甸樂園)이다. 이전낙원은 중국(中國)에서 이텐낙원이고 유럽에서는 에텐낙원 또는 에텐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우전 또는 우전이다.

구자(구자는 천산밑에 있으며 중국대륙 국경선과 가까운 곳이다)성(城)들도 함락시켰다. 그리하여 구자, 우전, 언기, 소륙 등 네 곳의 사진(四鎮)을 우위대장군인 설인귀와 라사도행군대총관인 광대봉(郭待封)을 부대장으로 하여 토번(吐蕃)을 토벌하고 다시 토번(吐蕃)의 후원을 얻어 토곡혼의 고토를 탈환했다.

경오년은 상감이 기쁜 마음으로 고구려(高句麗)추장과 같이 구성궁(九成宮)에 들 수 있었다. 이때 검모잠(劍牟岑)은 구성궁에 함께 오르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고장의 외손(外孫)인 안순(安舜)이 위주가 되어 반대하였다. 좌감문대장군 고간(高侃)과 동주도행군총간은 군병을 일으켜 안순을 토벌하고 죽였다. 검모잠은 황급히 신라(新羅)로 도망쳤다. 6월임인 첫날에 비로소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가을 8월 정사에는 수레에 실어 서경(西京) 즉 서안(西安)으로 돌아왔다.

당기(唐紀) 16권 본문(本文) 1937 쪽을 참고하기로 한다.

정사년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 유인원(劉仁願)은 대방(帶方)주자사 유인궤(劉仁軌)가 백제(百濟)를 웅진(熊津)이 있는 동쪽에 진현성(眞峴城)을 대파시켰다. 처음에 인원과 인궤 등은 웅진성(熊津城)위에서 웅진(熊津)을 다스린다는 칙서를 발표하였다. 그때 칙서에서 말하기를 평양군이 있는 회일성(回一城)은 우리들 혼자로서는 도저히 불가하므로 마땅히 김법민은 젊고 신라(新羅)사람이라 능히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자 상감의 허락을 얻어 머물고 있던 군진을 살폈지만 용의하지 아니했다.

하는 수 없이 마땅치가 않아 물소리가 흘러가는 그대로 바다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말은 도저히 평양군이 있는 회일성을 공격할 수 없으므로 있던 그대로 자연과 더불어 같이 있게 하였다는 기록이다.

이상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16,17,18권에 있는 부분적인 문장만 일부 뽑아서 엮은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심장이 뛰고 또 뛰다.

그리고 이십오사(二十五史) 3749권 만주원류고(滿州源流考)20권 고사변제7책 백화사기 130권 유양잡조전집 30권 사요취선 9권 흥범연의 28권 외 많은 사서(史書)는 청나라 건륭(A.D 1736년)때 교감을 거쳐서 나온 책들이다. 그리고 청나라 이전에 나온 책 중에서 유독 교감을 거치지 않고 나온 책은 책부원구(A.D 420 송대 4대총서 중 하나) 모두 1,000권과 자치통감(資治通鑑) 294권 그리고 영대신선통감 4권 등이다. 특히 위 세가지 책은 그대로 진본으로 인쇄되어 나온 책들이다.

특히 12책인 이십오사(二十五史) 3,749권은 청나라 건륭(A.D 1736년)때 교감되어 나온 책이다. 하지만 자치통감(資治通鑑)만은 진본 그대로 복사되어 내려온 것이기에 당기(唐紀)에서 보는 것처럼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 그리고 신라(新羅)가 실크로드 즉 천산밀에 있는 언기 토번(吐蕃) 구자 그리고 고창 우전 소록 등을 토벌하거나 정벌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음을 보았다.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는 전술한바 같이 81권이며 후당이 8권을 합해 89권의 사서(史書)속에 유독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와 운명을 함께했던 수(隨), 당(唐)

나라와의 싸움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가 실크로드인 서역을 정벌했다는 사서(史書)의 기록 중 어느책에도 잘 나타나지 않은 놀라운 사실이다.

세계 고고학자들이 실크로드 서역에서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것이 없는 것이다.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인들이 국가가 망해서 망명하여 그곳에서 살았다는 사서(史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독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가 실크로드서역에서 활동했다는 일부기록이 있는 사서(史書)는 유양잡조전집과 목천자전이다. 목천자전은 송(宋)(A.D 420~479)나라때 임천왕의경(臨川王義慶)이 지은 것으로 여지껏 교감되지 않은 책이다. 사기(史記)는 교감이 엄청나게 많이 된 부분이다. 그런데 백제(百濟)의 고토에서 보는 것처럼 백제(百濟)의 강역(疆域)이 동남아 일대라고 되어 있으니 실로 놀랄만한 일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의 당기(唐紀)는 실로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가 대륙 넓은 천지에서 대대적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을 보고 놀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12. 백제(百濟)의 천도

백제(百濟)는 도읍을 많이 옮겼다 그중에서 대표되는 도읍지(都邑地) 변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국사략(東國史略) 1권에 나타난 백제(百濟)의 사도(徙都) 즉 도읍지(都邑地)의 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백제(百濟)는 온조(溫祚)가 처음 시조이다. 한나라의 제홍가(帝鴻嘉)(B.C 20~16) 신라(新羅)시조 40년이다. 아버지 고구려(高句麗)왕은 주몽이다. 주몽이 있을때이다. 동부여시(東扶餘時) 주몽은 장가들었다. 예씨의 여자와 혼인하여 유리(類利)태자를 얻었다.

이어서 비류와 온조가 있었다. 비류(沸流)와 온조(溫祚)는 태자의 얼굴보기가 두렵고 무서웠다.

그리하여 형제가 남쪽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행했다. 비류는 미추홀(彌鄒忽) 즉 인천부에 도읍했다. 여기서 인천부가 어디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의 인천은 인천이지 인천부가 아니다. 백제(百濟)가 도읍할 당시는 인천부가 인주(仁

州)이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中國古今地名大辭典) 본문(本文)120쪽에 인주가 다행히도 있었다. 남조(A.D 420~589) 양(A.D 502~557)나라가 두었던 곳이며 적감성(赤坎城)이 있었으나 수(隨)(A.D 589~618)나라때 폐지시켰다. 인주 즉 인천부는 지나(支那)대륙에 있는 안휘성(安徽省) 영벽현 동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휘성(安徽省)이면 하남성(河南省)동쪽이다.

온조가 도읍한 곳은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다.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은 지금 직산현(稷山縣)이다. 그럼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 있다는 직산현을 찾아 보기로 한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中國古今地名大辭典) 본문(本文) 1185쪽에는 다행하게도 직산(稷山)과 직산현(稷山縣)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남의 직산이 아니고 산서성(山西省) 직산으로 바뀌어 버렸다. 다시말해 역사왜곡하기 위해서 고의로 성경계를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산서성(山西省)에는 분명히 직산이 있다. 하지만 직산의 지명을 이리저리 옮겨 놓아 모르게 되어있다. 그러나 옛날에 하남성(河南省)에 위례성(慰禮城)을 직산현에 두었다 했으므로 현재있는 산서성(山西省) 직산현은 하남성(河南省)과 매우 가깝게 있다. 또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의 다른설이 하나있다. 그것은 현재에 있는 경계를 바꾸기전에는 하남성(河南省)안강현(安康縣)이었다는 기록이다. 그렇다면 온조의 도읍지(都邑地)가 안강현이나 직산현이나가 문제가 된다. 여하간 온조가 도읍을 정한 것은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 틀림이 없으므로 앞으로 규명될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 제1편에 보면 온조가 도읍한 곳은 하남성(河南省)땅이라고 했으며 따라서 북쪽은 대수(帶水) 한수(漢水)가 흐르고 동쪽으로 높은산이 있으며 남쪽을 바라보면 기름진 옥토와 못이 있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와 넓은 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직산의 위치를 살펴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한것과 매우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쪽의 대수와 한수 이수는 패수(溍水)가 흐르고 있다. 직산의 서쪽은 섬서성(陝西省), 경계선에 있는 한성이 있고 직산의 서쪽 한성이 있는 곳에는 황하로 흘러내는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다.

그리고 동으로는 높은 산이 있고 남쪽은 기름진 옥토와 강물과 못이 있다고 했으므로 산서성(山西省)에 있는 직산은 과서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 있음을 알게해준다. 그렇다면 현재 산서성(山西省) 직산은 백제(百濟)가 도읍할 당시는 하남성(河南省)지도를 보면 확실해 질것이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한후 나라이름을 백제(百濟)라고 하였다. 처음은 오간(烏干)등과 함께 10여명이 따라 내려왔으므로 십제(十齊)라 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즐겁게 살게되자 나라이름을 백제(百濟)라고 하였다. 그후 다시 도읍을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옮겼다. 그곳은 지금의 광주(廣州)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남한산성이 있는 광주(廣州)는 지나(支那)대륙에 있는 홍콩 옆 광주(廣州)를 말한다. 광주(廣州)에는 남해부가 있다.

세 번째 도읍을 옮긴곳은 남평양성(南平壤城)이다. 지금의 한경(漢京)이라 했다. 한경을 알아보기로 한다. 남평양성(南平壤城)이 있는 곳은 지금의 운남성(雲南省)이 있는 곳은 지금의 곤명시이다. 이곳은 금마군(金馬郡)이다. 이곳은 한(韓)의 땅으로 처음은 마한(馬韓)이라고 나라이름을 썼다고 한다. 남평양성(南平壤城)은 한경으로써 부여(扶餘)의 위(爲)씨들이 산다고 하여 이름을 고쳐 부여(扶餘)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술한바 있지만 위씨는 요왕검의 외가 출신이다.

비류는 안휘성(安徽省) 영벽현(靈璧縣)에 미추홀이라 하여 도읍을 했지만 물기가 많고 습한 반면 염분이 많아 농히 살기가 어려웠다. 비류는 동생이 있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을 방문하여 궁실을 보니 훌륭하였다. 앞으로 백제(百濟)가 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자 부끄러움을 잠을길 없어 죽고 말았다.

말갈(靺鞨)은 온조가 있는 백제(百濟)땅에서 변란이 일어날것으로 알고 침범하였다. 그때 백제(百濟)에 쫓겨 말갈(靺鞨)은 불함산으로 들어갔다. 불함산은 옥저(沃沮)의 북쪽에 인접해 있었으며 옛날 숙신씨 나라는 착한 야인 사람들이 모인 나라였다. 다시 말해 숙신씨는 유목민이었다. 말갈(靺鞨)이 침범한 후로는 삼국이 서로 다투어 침범하기 시작했다. ~~중략~

마한(馬韓)은 파견사를 보내 전도 즉 도읍지(都邑地)를 옮길 것을 알려왔다. 한산(漢山)에 정착하기로 했는데 강역(疆域)이 넓었다. 북쪽은 패하남쪽은 웅천서쪽은 무한히 큰 바다가 있었으며 동쪽 끝은 가면 갈수록 어수선했다. 그러나 동명(東明)의 사당이 서 있어 어머니 사당에 온 것 같아 마치 어머니 나라인 듯 했다.

사신(史臣)(역사를 기록하는 신하)이 말하기를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는 스스로 별개의 조상으로 건국했으므로 동명(東明)의 사당에서 경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타국에 와서 어머니를 본 것 같으니 별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머니라 생각하고 제사 지내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당시 한성(漢城) 어느 집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소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둘인 새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략~~

13. 계백장군은 갑자기 황산을 만나 전사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 44쪽을 연결해본다. 왕이 신하와 군졸을 데리고 항상 노는곳이 사비(泗水)이다. 이곳은 하북성(河北省)에 있는 하북포이며 그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대왕포(大王浦)라 했다.

그곳에 처음으로 왕흥사를 창건하였다. 물이 있는곳으로 궁극적인 면에서는 장엄하고 수려하여 매일 친히 이곳에 나와 학업을 닦고 시흥에 젖으며 여흥을 하기도 했다.

백제(百濟)와 신라(新羅)는 서역에 있는 원숭이 나라들을 40여성이나 빼앗았다. 또한 고구려(高句麗)도 피와 욕심을 부려 서역나라인 당항성(棠項城)을 빼앗아 버렸다.

당(唐)나라는 신라(新羅)에게 고했다. 당(唐)나라의 길을 막았다는 의미에서 주인격인 신라(新羅)에게 고했다.

백제(百濟)는 물이 좋은 사비(泗水)로 왕도를 옮겼다. 이때 강물에서는 모두 붉은 핏물 같은 것이 흘러들어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왕궁에서는 야단이 나고 백제(百濟)는 망해버렸다. 신라(新羅)는 한산주에 장의사(壯義寺)라는 절을 창건했다 “중략”

본문(本文) 46쪽을 참고한다.

백강(白江) 탄현(炭峴)언덕에 나라가 있었다. 요충지로서 용사가 잘 지키고 수비하면 마땅한 자리이다. 당(唐)나라 사신이 오거나 당(唐)나라 군사가 오려해도 백강(白江)을 들어오지 못하면 불가능했다. 신라(新羅)군은 부득히 탄현고개를 넘어서 돌아왔다. 대왕은 굳게 문을 닫고 수비를 하면서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고수했다. 그러나 군졸들은 피곤에 지쳤다. 이 틈을 이용하여 돌격하다시피 하여 격파하려 오더라도 필사적으로 막을 각오였다. 좌우로 막고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들은 신라(新羅)와 당(唐)나라군병은 백강(白江)을 지나 탄현고개의 고개마루에서 계백장수를 만났다. 이때 백제(百濟)의 장수와 군병이 5,000명이나 죽었다. 계백장군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실패했다. 계백장수는 가족을 다 죽인뒤 황산에서 갑자기 만난 신라(新羅)병을 죽을힘을 다하여 무찌르고 싸웠지만 역부족이라 운명하고 말았다. 당(唐)의 소정방과 신라(新羅)김인문 등은 기술적인 토벌로 성공했다. 도저히 백제(百濟)군을 무찌를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을 기술적으로 이긴 것이다. 당(唐)나라 장수들은 개신장군으로 동성에 입성했다. 백제(百濟)왕운 알지 못함을 탄식하고 후회했지만 쓸모가 없었다. 충성 어린 충신들의 책략대로 효자였던 태자는 군졸을 좌우로 거느리고 야간에 조용히 웅진성(熊津省)을 달아났다. 웅진성(熊津省)은

그 당시 공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공주를 찾아 보기로 했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中國古今地名大辭典) 본문(本文) 124쪽에 공주하(公州河)가 눈에 들어왔다. 공주하는 하남성(河南省) 성현 동북 40리 삼문산좌에 있는 피신처로 매우 험한 세가지 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섬현을 찾아 보았다. 역시 하남성(河南省)과 섬서성(陝西省), 경계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도를 찾아보았다. 하남성(河南省)지도에는 약자로 된 섬현이 있었다. 바로 옆에는 삼문섬수(三門陝水)가 있고 모진도(茅津渡)라는 곳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웅진성(熊津省)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왕실에 있던 모든 궁녀들은 대왕포가 있는 암석 즉 바위 위에서 모두 떨어져 죽었다. 세칭 사람들은 낙화암이라 한다.

백제(百濟)왕은 스스로 웅진성(熊津省)을 나와 소정방에게 항복했다. 소정방은 백제(百濟)왕인 의자왕(義慈王)과 더불어 태자(太子) 효(孝), 태(泰), 융(隆), 연(演), 그리고 신하와 대장 상수급 8,000명이 바다를 건너 돌아와 백제(百濟)는 망했다. 온조왕(溫祚王)이 개국한후 30명의 왕으로 도읍지(都邑地)를 네 차례 이전한 후 국가의 수명을 끝냈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인 직산현과 근고초왕(5대 B.C 14~38) 한성 즉 광동성(廣西省) 홍콩 옆 광주(廣州)에 있는 남해부이다. 그리고 문주왕(文周王)(A.D 426~431)때는 하남성(河南省) 웅진(熊津)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처음 도읍지(都邑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 남쪽이다. 그 후 성왕(26대 A.D 494~528)때에는 남부여(南扶餘)인 운남성(雲南省) 곤명시에 도읍했다. 그 뒤 다시 웅진성(熊津省)으로 되돌아 온것으로 되어 있다. 백제(百濟) 의자왕(義慈王)이 웅진성(熊津城)에서 망한 것이 최후이다.

지금도 광서성(廣西城) 남저(南寧)밑에는 백제(百濟)라는 지명이 그대로 있음을 본다.

삼국사기(三國史記) 37권 잡지 제6지리지(地理志) 4편 본문(本文) 377쪽 전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문(本文)에는 백제(百濟)에 대한 글귀는 없지만 고구려(高句麗)와 같은 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편(百濟篇)으로 지리지(地理志)를 엮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는 물론 신라(新羅)의 위치가 어딘지도 나타나 있다.

고구려(高句麗)가 밝혀지면 백제(百濟)와 같은 뿌리로 보기 때문에 고구려(高句麗)가 지나(支那)대륙이면 백제(百濟)도 같은 대륙에 있었음은 기정 사실로 되는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해동역사. 사기(史記). 차치통감(資治通鑑)에서 본 당기(唐紀) 그리고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보는 것처럼 같이 백제(百濟)가 대륙에 있었음은 기정사실이다. 삼

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 에 나타나겠지만 신라(新羅) 또한 한반도에 없었던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는 같은 지역에서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혈통관계가 있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잡지에 나타난 지리지(地理志) 에는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활동무대와 강역(疆域)을 밝히고 있는 것임을 독자들은 이해하기 바란다.

14. 백제(百濟)의 8대성과 관명

백제(百濟)의 8대성씨를 살펴보면 백제(百濟)초기부터 망하기 까지 한반도에는 8대성씨가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한반도에는 백제(百濟)가 있었던 사실이 정사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가 쇠퇴하거나 망한후에 유민들이 조상들의 유물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한반도에 와서 만든 것들이다.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유물들은 유민들이 옮겨온 물건이므로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사람들이 한반도로 옮겨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유물이 나왔다는 것은 민족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고고학은 글자 그대로 옛것을 생각한다는 의미이므로 민족의 이동사라고 볼 수 있다.

고로 엄밀히 따져보면 고고학은 민족이 옮겨온 이동사이다. 왜냐하면 백제(百濟)가 초기부터 한반도에서 도움을 했다면 백제(百濟)의 8대성씨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야 하고 따라서 무덤과 도읍지(都邑地) 그리고 성(城)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백제(百濟)왕능이 없다 무녕왕릉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백제(百濟)후예들이 와서 새로 만든것에 불과하다.

백제(百濟)가 망한후 백제(百濟)의 유민들이 망국의 한을 노래한 것이 산유화이다. 산유화가사중에서 백제(百濟)가 망한 한을 노래한 가사가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다.

백제(百濟)의 8대성씨에 대한 정사의 기록으로는 태평어람, 당서, 북사(北史), 수서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럼 8대성씨에 대해 적어보기로 한다.

사(沙)씨, 연(燕)씨, 협(劔)씨, 일명협(劔)씨, 해(解)씨, 진(眞)씨, 국(國)씨, 목(木)씨, 백(白)씨

이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는 이러한 성씨가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는 백제(百濟)가 없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는 모두 6권으로 되어있다. 그런데도 백제(百濟)의 성이 부여(扶餘)씨라는 것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사실 백제(百濟)는 색리국에서 나왔다가나 부여(扶餘)에서 나왔다가나 또한 주몽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태씨의 아들로 비류와 온조가 기록되어 있고 한편에서는 유구태씨가 백제(百濟)를 건국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百濟)의 시조인 온조와 비류의 성이 무엇인지 자세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백제(百濟)의 성씨가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덟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백제(百濟)는 한반도에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다음은 백제(百濟)의 관명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관명은 16품으로 되어 있다. 주서(周書)와 통지(通志) 그리고 통전(通典) 태평어람(太平御覽)과 삼국사기(三國史記)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본문(本文)(本文)을 통해 신기로 한다.

백제(百濟)의 관명중에 좌평을 다섯명으로 일품(一品)은 좌솔(左率)이며 16품은 다음과 같다.

이품(二品)은 달솔(達率), 삼품(三品)은 은솔(恩率), 사품(四品)은 덕솔(德率), 오품(五品)은 한솔(汗率), 육품(六品)은 나솔(奈率) 6품(六品)이상은 관모에 은꽃을 장식하였다.

칠품(七品)은 장덕(將德)으로 자색의 띠를 둘렀다. 팔품(八品)은 시덕(施德)으로 검은띠를 두르고 구품(九品)은 고덕(固德)의 벼슬이 주어지자는 붉은 띠를 두르게 했다. 십품계덕(十品季德)은 푸른띠를 두르게 하였다. 십일품(十一品)은 대덕(大德)과 십이품(十二品) 문독(文督)까지는 모두 누런띠를 두르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십삼품(十三品)은 무독(武督)이며 십사품(十四品)은 좌군(佐軍), 십오품(十五品)은 진무(振武), 십육품(十六品)은 극우(克虞)이다. 13품부터 16품까지는 모두 흰띠를 둘렀다. 특히 15품은 주서,통지,통전에서는 극우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태평어람에서는 권우(卷虞)라고 적고 있다. 본 관명의 수를 좌평은 5명으로 하였고 달솔의 벼슬자는 32명으로 되어있다. 삼품,은솔이하의 관과 상관없이 상시근무자로 되어있다. 각 부서마다 벼슬한 사람의 업무에는 관청의 안에서 맡은 내부를 두었다. 그 부서는 다음과 같다.

곡부(穀部)(양식을 다루는 부서), 육(肉)부(육류를 다루는 부서), 내약부(관내서 다스리는 부

서), 외약부(外掠部)(밖으로 다스리는 부서), 마부(馬部)(말을 다스리는 부서), 도부(刀部)(무기와 칼을 다루는 부서), 공덕부(功德部)(공덕을 다루는 부서), 약부(藥部)(병에대한 약을 다루는 부서), 목부(木部)(건축.토목을 다루는 부서), 법부(法部)(법을 다루는 부서), 후관부(後官部)(관직의 승직관계를 다루는 부서)이다.

또한 외관유사군부(外官有司軍部)(바깥관직에 있는 군의 부서를 다루는 부서)로는 사도부(司徒部)(군사를 주관하는 부서) 사공부(司空部)(군사를 충원시키는 부서) 사구부(司寇部)(군사의 도둑이나 난동을 다스리는 부서) 점구부(點口部)(군졸을 점검하는 부서) 객부(客部)(외부에서 찾아온 군의 손님을 관장하는 부서) 외사부(外舍部)(외부의 군사를 모시게 하는 부서) 도부(綱部)(모든 군기를 다루는 부서), 일관부(日官府)(날마다 군부 인사들의 현황을 다루는 부서), 도시부(都市部)(군사의 주둔지를 다루는 부서)이다.

특히 군사의 주둔지를 다루는 도시부는 1만여호를 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5부를 나누어 두었다고 했다. 상부(上部), 전부(前部), 중부(中部), 하부(下部), 후부(後部)를 두고 각부마다 군사 500명을 두고 다섯부마다 각각 한 사람씩 수령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2품직을 가진 달솔에게는 군(제후국의 수준)에 세사람의 장군을 두었다. 그리고 사품직을 가진 덕솔에게는 주위 군사 1,200명 이하 700명 이상을 통솔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 안팎으로 백성과 서민들은 작은 성을 나누어 지키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百濟)의 관직제도는 어느 대국(大國) 못지않게 철저히 분담하여 제도화가 잘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족벌과 성씨를 초월하여 자기의 관직에 따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위(魏), 촉(蜀), 오(吳) 나라의 전쟁터는 백제(百濟)의 땅에서

위(魏)(A.D 220~265) 촉(A.D 221~263)오(A.D 222~280)의 삼국(A.D 220~265)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쟁시기는 불과 45년 밖에 되지 않는다.

위(魏) · 촉(蜀) · 오(吳) 세 나라는 백제(百濟)땅에서 전쟁을 했던 것이다. 그 당시의 백제(百濟)의 강역(疆域)은 지금의 황하남쪽 모두였다. 그럼 여기서 삼국전쟁 있을 당시의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의 강역(疆域) 분포를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인 위(魏) · 촉(蜀) · 오(吳)의 전쟁터는 백제(百濟)의 심장부였다. 이때 고구려(高句麗)

는 서안(西安) 즉 서경(西京)에 평양성(平壤城)을 두었다. 평양성(平壤城)을 중심으로 서역인 실크로드의 신강성(新疆省) 지역과 내몽고 만주지역 북경(北京)지역 한반도와 대륙의 황하북쪽은 모두가 한(漢)나라였던 고구려(高句麗)의 강역(疆域)이었다. 왜 그렇게 보는가를 살펴보자.

한(漢)나라 유방(劉邦)인 고조(高祖)(B.C 206~195)의 조상은 제곡고신씨(B.C 2482~2472)였다. 제곡고신씨는 요(B.C 2359~2357)임금의 아버지이다. 따라서 고구려(高句麗)의 조상도 한나라 고조인 유방과 같은 조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高句麗)28대 보장왕(A.D 634~668)편에서 볼 수 있다. 고구려자진한지후(高句麗自秦漢之後) 라고 되어있다. 이 말은 고구려(高句麗)는 스스로 옛 진나라 한나라의 후손이다라고 했다는 뜻이다. 또 “고씨자한유국금구백년(高氏自漢有國今九百年)”이라고 한 것은 고씨 즉 고구려(高句麗)는 스스로 한나라가 있을 때이다.

다시 말해 고구려(高句麗)는 한나라와 같은 나라이며 900년간의 역사이다.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구려(高句麗) 24대 양원왕(A.D 496~521)년 8년에는 “축장안성(築長安城)”이라 했다. 이 말은 양원왕 8년에 장안성을 쌓았다는 기록이다. 장안성은 한반도땅에는 없다. 현재 중국(中國)대륙 중원에 있는 서안(西安)이다. 25대 평원왕(A.D 522~562) 28년에는 “이도장안성(移都長安城)” 이라 했다. 장안성을 쌓은 후 도읍지(都邑地)를 장안성에 옮겼다는 뜻이다. 고구려(高句麗) 26대 영양왕(A.D 563~600)때 기록을 보기로 한다

“고구려본기자소봉지(高句麗本箕子所封之地)”라 했다. 고구려(高句麗)는 본시 기자도 도읍했던 땅이다. 또 “한진개위군현(漢晉皆爲郡縣)”이라했다. 이말은 한나라와 진나라가 같은 곳에 군과 현이 있었다는 뜻이다. 금내불신(今乃不臣)은 지금에 이르러 현재 신하들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별위이역(別爲異域)은 그곳 즉 한나라와 진나라가 군과 현을 같이 두었던 곳은 지금에 와서 보면 다른 땅으로 보일 것이다.

“선제욕정지구의(先帝欲征之久矣)”라 했다 선조였던 임금들은 욕심 같아서는 도로 한,진나라가 있었던 땅을 다시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오래도록 있었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백제(百濟)31대 의자왕(義慈王)(A.D 635~659)때의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본다.

“고구려역이고신씨성고씨(高句麗亦以高辛氏姓高氏)” 라고 되어있다. 고구려(高句麗)는 역시 고신씨의 후손이므로 성을 고씨라고 기록했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보면 요임금의 아버지인 제곡고신씨가 고구려(高句麗)의 조상이므로 고씨의 성을 썼다고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과 고구려(高句麗)는 같은 나라 같은 조상이었으므로 같은 땅 같은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한나라보다 고구려(高句麗)의 직계 선조인 고리국의 북경(北京)아래 지금의 고안현에 있었다. 고리국에서 갈라진 부여(扶餘)에서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高句麗)는 구려(句麗)로부터 시작되었다. 구려(句麗)의 후손이 바로 한나라이다. 다시 말해 고리국에서 부여(扶餘)와 구려(句麗)가 생긴 후 구려(句麗)의 후예가 한나라이며 한나라가 건국된 후 고구려(高句麗)가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를 고구려(高句麗)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왕망(A.D 9~13)이다.

후한서(後漢書)동이(東夷)전 2814쪽 구려편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주의 깊게 보아야한다.

“왕망초발구려병(汪茫初發句麗兵)”이말은 왕망의 초에 구려(句麗)병력을 발동시켰다는 뜻이다. 이때 요서(遼西)에 있던 한나라 장수인 대윤(大尹)과 전담(田譚)을 추격하여 죽인 후 왕망은 명령을 내려 장군이었던 엄우(嚴尤)를 였다. 따라서 구려(句麗)의 제후왕이었던 추(騶)를 변방으로 유인한후 참수시킨 다음 목을 잘라 장안 서안(西安)으로 왕망은 달려왔다. 이때 한나라는 서안(西安)의 도읍지(都邑地) 왕망의 혁명에 의해 한나라 초시왕(初始王)(A.D8)은 무너지고 말았다. 한나라를 격파한 왕망은 새나라 라는 뜻으로 신(新)이란 나라 이름을 고구려(高句麗)라고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리하여 한나라는 무너지고 옛 구려(句麗)는 고구려(高句麗)의 속국으로 삼았다고 되어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한나라 자신은 구려(句麗)의 전신이였으며 결과적으로 고구려(高句麗)였음을 알 수 있다. 왕망은 한나라를 격파한 후 천자나라만이 도읍할 수 있었던 서안(西安)에서 고구려(高句麗)라 하고 도읍했던 것이다.

황화를 기준하여 북쪽으로 실크로드, 내몽고, 만주, 한반도 모두를 강역(疆域)으로 했던 것은 고구려(高句麗)8대 왕이었던 신대왕(新大王)(A.D 8~28)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역사(歷史)의 비밀은 하나 하나 밝혀지게 마련이다.

고구려(高句麗)의 강역(疆域)은 고구려(高句麗)19대 광개토왕(A.D 310~340)때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강역(疆域)은 사천성(四川省)일부와 귀주성(貴州省)부근 그리고 호북성(湖北省)과 호남성(湖南省)지역 그 외에 하남성(河南省)일부까지 진출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漢)나라의 지도가 바로 고구려(高句麗)의 강역(疆域)이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백제(百濟)는 황하이남으로 하남성(河南省)에서 산둥성(山東省) 산서성(山西省) 그리고 대

륙남부의 모든 지방이었다. 이때 신라(新羅)는 감숙성(甘肅省)에서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 북쪽일부에서 점차로 동으로 진출하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百濟)가 강성할때는 산서성(山西省), 하남성(河南省), 허북성(河北省), 산둥성(山東省), 사천성(四川省), 귀주성(貴州省), 호남성(湖北省), 호남성(湖南省) 그리고 강소성(江蘇省), 절강성(浙江省), 광둥성(廣東省), 광서성(廣西省) 등 대륙남부 지방을 모두 독차지 하고 있었다. 그 후 대만과 필리핀, 자바, 보루네오 등 큰섬 15군데는 모두가 속국이였다.

이 당시 위(魏)나라는 하남성(河南省)일대를 무대로 삼았으며 촉나라는 사천성(四川省), 귀주성(貴州省), 호남성(湖北省) 일부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나라는 절강성(浙江省), 안휘성(安徽省), 강소성(江蘇省)을 일부 무대로 하여 삼국이 45년간 치열한 전쟁을 한 것이 장강 즉 양자강 상류지방이다. 삼국지에서 나오는 주된 전쟁터는 주로 호북성(湖北省) 의창과 무한지방을 무대로 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상고사학회 이중재회장은 1993년도에 장강을 답사한바 있다.

호북성(湖北省)지방에서 위(魏) 촉(蜀) 오(吳)나라의 삼국이 전쟁하던 이곳은 당시 백제(百濟) 11대 비류왕(比流王)(A.D 204~246)과 12대 계왕(A.D 247~253) 그리고 13대 근고조왕(A.D 254~286)사이이다.

이때에는 고구려(高句麗) 고국원왕(A.D 225~244)시기이다.

신라(新羅)는 23대 법흥왕(法興王)(A.D 551~536)이전까지는 대륙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 북쪽 순화현이었던 경주에서 아주 작은나라로 움츠리고 있었다.

법흥왕(法興王)때부터는 신라(新羅)가 점차 동으로 진출하는 동진정책을 강행하게 되었다.

그후 당(唐)나라의 고조 이연(무덕 A.D 618~626)이 출현하면서부터 신라(新羅)는 26대 진평왕(A.D 576~628)때 낙랑왕(樂浪王)으로서 당(唐)나라와 손잡고 본격적인 나당연합작전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백제(百濟)는 자기강역(疆域)에서 위(魏) · 촉(蜀) · 오(吳) 의 삼국전쟁으로 인하여 제후국(諸侯國)들의 골육상쟁이 일어나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국은 45년간 싸움에서 멸망하자 연합전으로 묶어져 육가야(六加耶)국 출현이 본격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국전쟁이 막을 내리자 다섯가야(加耶)는 결속을 다짐하는 시대적 전환기가 마련되었지만 반면 신라(新羅)와 당(唐)나라의 팽창으로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그리고 가야(加耶)국은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16. 결어

우리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백제(百濟)의 건국설화를 해석하여 비류와 온조가 졸본을 떠나 패수(溟水)와 대수를 건너 지금의 북한산에 올라 지세를 살펴보고 비류는 인천 쪽으로 갔고 온조는 한강의 남쪽의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했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비류가 도읍했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어디 그뿐인가 백제(百濟)가 500여년간 도읍을 했다는 지금의 서울지역에서 백제(百濟)의 왕릉을 한곳도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충남직산이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기도광주(廣州)가 위례성이라고도 했다. 또 한강북쪽에 위례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요즈음에는 풍납토성이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발굴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굴결과를 볼 때 아직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백제본기(百濟本記)에 의하면 비류와 온조는 졸본을 출발하여 남쪽지방으로 갔다 하기도 하고 또다른 설로는 비류와 온조가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지방으로 왔는데 그곳은 패수(溟水)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이라는 곳이라고 좀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온조왕(溫祚王)은 백제(百濟)의 동쪽에 낙랑(樂浪)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靺鞨)이 있다고 했다.

이 당시 백제(百濟)의 도읍지(都邑地)인 위례성이 당시 백제(百濟)의 도읍지(都邑地)인 위례성 아마 무령산 남쪽부근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다. 그런데 이 기록을 지금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한반도에 적용해보면서 서울의 동쪽에 낙랑(樂浪)이 있어야 하고 북쪽에는 말갈(靺鞨)이 있어야 한다.

낙랑(樂浪)은 중국(中國)만리장성인 지금의 낭하부근에 있었을 뿐 우리 한반도에는 낙랑(樂浪)이 없었다. 우리 평양지역도 역시 낙랑(樂浪)이 아니었다.

그리고 위례성이 지금의 한강북쪽에 있었다. 또는 남쪽에 있었다 하면서 논란이 많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 위치를 잘못 비정한 결과이다.

중국(中國)땅에서 건국된 백제(百濟)의 기록을 한반도에 적용을 하다 보니 온갖 추측만이 난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서울부근에서 한성을 찾고 있으니 찾아질 리가 없는 것이다.

백제(百濟)가 한반도에 없었다는 증명으로 백제(百濟) 온조왕(溫祚王) 8년 2월에 말갈(靺鞨)병 3,000명이 위례성을 포위하고 침범했다고 삼국지는 기록하고 있다. 만약 백제(百濟)가 한국땅 경기도와 전라도에 위례성이 있다면 북쪽 만주지방과 신강성(新疆省) 산서성(山西省) 섬서성(陝西省), 지방에 있던 말갈(靺鞨)이 어떻게 위례성을 포위하기 위하여 한국땅까지 올 수 없었다.

더구나 북쪽은 강한 고구려(高句麗)가 자리잡고 있는데 고구려(高句麗) 땅을 지나서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배를 타고 한국땅까지 침공할 수는 없었다.

반면 백제와 신라(新羅)가 지나대륙(支那大陸)에 있었기 때문에 침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은 하남에 있었으므로 섬서성(陝西省), 산서성(山西省) 북쪽에 있던 말갈(靺鞨)병이 침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자지명이 한반도에 옮겨진 내역

한국땅에 한자지명이 옮겨진 것은 고려초기에 일부분 있었고 그 후 26대 중숙왕(A.D 1332)때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75년 전에 비로소 한국땅에 한자로 된 지명이 중국(中國)으로부터 완전히 한국에 옮겨진 셈이다. 1991년 경상북도 연혁지에도 이상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개성 등 도시지명은 고려 성종 14년에 한국 땅으로 일부 옮겨진 것이다. 나머지 한국땅이름은 지나대륙(支那大陸)에서 이씨조선으로 완전히 옮겨졌으므로 고구려(高句麗), 백제, 신라(新羅)시대에는 한반도에 지나대륙(支那大陸)에 있던 지명이 있지도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로 된 땅이름이 삼국시대에는 한반도에 없었으므로 고구려(高句麗), 백제, 신라(新羅)가 현재 한국땅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북경대학(北京大學) 고고학 주임교수 엄문명선생의 말씀이다.

엄문명교수는 1991년 8월초 자기 10년 동안 중국(中國)전역에서 발굴작업을 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두가 동이(東夷)문화였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자기는 양소문화연구관 책을 저술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양소문화란 아름다운문화 또는 아름다운 동이(東夷)문화란 뜻이다).

즉 엄문명교수는 중국(中國)은 중국역사(中國歷史)가 아니고 모두 동이(東夷)민족의 역사(歷史) 라고 하였으며 지나역사가 있는가 하고 자문해보면 없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

리기에 중화역사는 더더욱 없고 현재 중국(中國)에서도 그냥 역사(歷史)라고 가르칠 뿐이지 중국(中國)역사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참고문헌

- 상고사의 새발견 / 동사출판사 / 이중재저
한민족사 / 명문당 / 이중재저
새고려사 / 명문당 / 이중재저
아주 특별한 백제신라사 / 여민라 / 윤여동저
백제는 한반도에 없었다 / 대경 / 민병학저
백제사의 비밀 / 상고사학회 / 이중재저
고구려백제신라는 한반도에 없었다 / 동신출판사 / 정용석저
새가야사와 삼국열전 / 명문당 / 이중재저
고대조선과 일본의 역사 / 명문당 / 이중재저
우리역사 일만년 / 도서출판 / 한배달저

近代 利川の 陶磁文化와 陶工의 삶이야기

이 태 호

목 차

1. 시작하는 글
2. 이천 도자기요장의 발생과 변천
 - 1) 이천 도예촌의 형성배경
 - 2) 이천의 칠기가마(옹기가마)
 - 3) 이천도예촌의 형성
3. 어느 도공의 이천도자기 기억
4. 맺는 글

1. 시작하는 글

인간의 생활문화 중 획기적 변화의 단초가 된 것은 토기의 발명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사물을 담는 그릇(用器)의 발명이다. 이러한 그릇은 그 제작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국면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과정은 인간의 욕구에 관한 끊임없는 실천과 시행착오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속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려청자(高麗靑磁)’의 ‘翡色’과 ‘형상미’ 그리고 ‘문양’은 흔히 귀족적이고 고급스러움을 떠나 당대를 대표하는 그릇문화의 대표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조선조의 각종 ‘백자’와 ‘달항아리’ ‘막사발’ 등은 면면히 전승시킨 당대의 결정체적 문화라 할 수 있다.

최근 ‘문화의 시대’나 ‘전문성의 시대’나 하는 거대 모토아래 국가정책의 흐름이 방향을

선화하면서부터 점진적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명장(明匠)’이나 ‘중요무형문화재’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이전 수공업자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케 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 이후 각 지역의 지방정부에서는 자기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축제’는 전국적으로 1,0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

이천지역의 경우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천도자기축제’라 할 수 있다. 2008년 올해 ‘제22회’를 맞이하면서 대대적인 ‘전통되살리기’의 측면까지 함축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도자기의 산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도자기’ 하면 ‘이천’으로 시너지적 연상이 될 정도로 이미 일반인에게 있어 ‘이천도자기’는 이미 뿔레야 뿔 수 없는 하나의 ‘도자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흐름은 정해진 시간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의 도공들의 삶의 연속적 과정과 삶의 양식들과 맥을 잇는 것이다.

195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천지역의 도자문화의 주인공들은 현재에도 이름만 거론하더라도 쟁쟁하다고 할 만한 도공들이다. 이미 1세대들은 작고하고 2세대, 3세대로 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대의 업을 잇지 못하는 요장들도 빈번하다. 이들 요장들뿐 아니라 70년대 중반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도자기를 만들겠다고 모여든 도예가들이 모여 현재 300여개의 요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른바 ‘칠기가마(옹기가마)’에 기반을 두고, 1950년대 이후 세칭 대방동 가마에서 내려온 도공들이 이천에 요장을 운영하면서, 전개된 이천도자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천도자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요 도공(陶工)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공들의 삶의 일면을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이천도자기 관련 자료는 필자가 이천지역에 살면서 보고 듣고 했던 현장자료와 관련문헌자료를 통해 수집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2. 이천 도자기요장의 발생과 변천

1) 이천 도예촌의 형성배경

이천이 어떻게 도자기 메카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 문제는 도자기 생산 자체만

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동과 시대적 요구의 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도자기는 생산 자체의 문화적 공정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일종의 소비재로서 도자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욕구라는 경제적 시스템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전쟁 이후는 사회혼란기를 벗어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학계와 미술계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통도예의 부활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195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1955년 한국조형문화연구소(韓國造形文化研究所- 세칭 성북동 가마)가 설립되어 문을 열었던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식 생활도자기의 다량 생산과 함께 도자기 제작소가 생겼다. 이 일본인들의 도자기 제작소에서 기술을 익힌 당시 몇 안되는 기능인들이 성북동 가마의 실무 제작진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현대 전통도예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성북동가마는 얼마 안가서 문을 닫고 이듬해인 1956년에는 조각가 윤희중에 의해 한국미술품연구소(韓國美術品研究所-세칭 대방동 가마)가 생겨났다. 이 대방동 가마는 이천의 도예촌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당시 대방동 가마를 움직였던 일급 기능인들 대부분이 이 가마가 문을 닫는 1958년 이후 거주지를 수광리로 옮겨와서 이들을 중심으로 근대 이천도자기가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방동 가마의 구성원들을 보면¹⁾, 먼저 설립자인 윤희중을 대표로 지순탁(작고-고려도요 설립)이 공장장격으로 일했고, 성형부에는 고명순(작고) · 조춘성 · 윤덕중 · 윤돈중이 일했다. 조각부에는 유근형(작고) · 최인환(작고) · 김완배(작고)·최인석 외에도 김종호 · 김문식 · 윤석준 · 현무남 · 박수만 · 이종열 같은 신진 도공들이 참여했다. 소성부에는 고명순 · 최인석이 겸임한 외에 유하상(작고)이 있었다.

1956년 가을에 문을 연 대방동 가마는 “우리나라 도자공예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실생활에 조화되는 도자기를 만들고자 고려청자 · 이조백자의 재현을 위해 노력”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1958년 문을 닫게 된다. 따라서 모처럼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당시의 일급 장인들도 모두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고명순 · 김완배 · 지순탁 등은 일할 곳을 찾아 이천의 수광리 칠기(漆器, 용기를 이천에서 부르는 용어)가마로 내려오게 되고, 이들을 따라서 윤석준·현무남·박수만 등 젊은 도공들이 합류하며, 유근형은 이듬해인 1959년 수광리로 온다.

1) 지정희, 「한국전승도자의 현황」,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8. 14쪽.

2) 이천의 칠기가마(옹기가마)

이천 신둔면 수광리 칠기가마가 언제 생겼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오늘날 도예공방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사기막골’이라는 지명을 통하여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이곳은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백자를 굽던 곳으로 ‘점말’이라고도 불리어 졌었다. 이곳에서 도자기를 구웠던 사실을 방증하는 자료로 사기막골의 도공들은 예전에 광주 분원으로 차출되어 관요 도자기 제조에 참여했었다고 하는데, 1757년에 편찬된 전국의 邑誌인 『輿地圖書』 「軍兵」條의 ‘사용원 장인보(匠人保) 30명’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또한 高宗 연간에 편찬된 『利川邑誌』에도 ‘사용원 자기장인보(磁器匠人保) 30명’의 차출기록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현승씨의 증언에 의하면 한일합방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²⁾ 칠기는 옹기의 일종이라고는 하지만 물레성형을 하고 굽각기를 하는 점이나 두벌구이를 하는 점 등 제작기법이 자기쪽에 가깝다. 태토는 보다 정선된 사토와 점토를 사용했으며, 반대로 유약이나 손가락을 사용해서 무늬를 그려넣는 장식기법은 옹기에 가깝다. 칠기는 크기와 형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옹기류보다는 백자쪽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는 백자를 굽던 이 지역의 도공들이 보다 만들기 쉽고 실용성이 있는 옹기 제작기법을 도입하여 탄생한 것이다. 그 전통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1950년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의 주요 窯業을 조사하여 정리한 『朝鮮の窯業』에 기록된 경기도 일대의 대표적 요업의 경영상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920년대 당시 驪州君北內面 五今里, 廣州郡 南終面 分院里, 漣川郡 嶺斤面 高陵里 등 3곳의 재래사기제조업이 일본 내지에서 생산된 사기보다 품질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장래엔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천지역의 사기제조업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의 한계로 이천과 인근한 여주와 광주지역의 요업경영상황으로 대체적인 경향성을 짐작해 보고자 한다.

여주에는 사기제조소가 세 가구가 있는데 이들은 재래의 登窯 하나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1896년에는 제조 호수가 1호밖에 없었는데, 당시 李熙豐이라는 사람이 광주군 남종

2) 지정회, 앞의 논문, 15쪽.

면 분원리에서 사기업을 경영하다가 갑신정변과 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여주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1기의 등요를 축조하고 사기를 제조하다가 근 반년만에 폐업하였다. 당시 제품의 품질은 1920년대 당시의 것보다 우수하였으며, 가격도 비교적 높았다. 1901년경에 이르러 다른 사람이 李氏가 경영하던 동일한 장소에 登窯 1기를 축조하고, 1904년경에 다른 사람이 또 1기, 모두 3기의 등요가 축조되어 그곳이 하나의 陶器村이 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폐업한 李熙豐씨의 窯는 趙元植씨가 소유하다가 1918년 李昌培씨가 310원에 매수하였다. 이창배씨는 3년간 사용하다가 600원에 富田儀作에게 팔았다. 현대 威寧燮씨가 1년에 6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한다. 李昌培씨와 富田씨와의 관계는 富田씨가 李氏에게 새로운 高麗燒 제조를 위탁하는 동시에 상당한 금액을 대부하고 소기의 제품을 가져가는 것이다. 富田씨는 총 대부금 600원의 저당잡아 窯와 제조장 건물 그리고 토지를 수용하였다.

당시의 제조호수 및 종업자수, 제조일수와 관련하여 보면, 제조호수는 모두 3호인데 농업을 부업으로 삼는다. 고용된 사람은 20명인데 이들도 모두 농업을 하는 자들이다. 종업자는 窯 1기당 약 6명인데, 轆轤工(물레공), 雜役, 捏土工(수비공), 焚夫가 종사하였다. 제조일수는 1년간 240일, 하나의 窯에서 불을 지피는 횟수는 1년에 10회였다.

원료는 북내면과 인근한 대신면의 여러 곳에서 가져온다. 원료를 채취하는 장소는 산허리나 산정상에 그 잔존량이 풍부한 곳을 선택하였다. 白土(고령토): 북내면 와룡리 등지에서 공급하였다.

한편, 이천지역의 요업공장에 대한 기록으로 전해지는 1955년에 발행된 『이천대관(利川大觀)』에는 당시 이천지역의 공장현황 중 요업공장이 모두 4개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³⁾ 하지만, 이 4개소의 요업공장을 위의 책 뒷부분에 수록된 광고란을 통해 확인한 결과 4개소가 아닌 6개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여섯 개의 공장은 모두 명칭이 ‘토기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신둔면에 소재한 두 개의 공장은 칠기를 생산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네 곳은 용기를 제작·생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둔면 칠기가마의 위치는 수광1리의 미나리 질기가마와 수광2리의 질기가마(현 광주요 자리)가 있었다.

1950년도 후반의 수광리 질기가마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호황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3) 이천대관편찬위원회, 『이천대관』, 1955. 60쪽.

故 해강 유근형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칠기가마는 두 개지만 점주가 네 사람이라 한 달에도 뻥질나게 5~6차례씩 굽기 때문에…” 또 “6·25 사변 이후에 칠기가 세월이 있어 선돈은 내고 기다려서 그릇을 가져가는 상태여서 제법 활기가 있는 듯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

대방동 가마의 구성원이었던 장인들 대부분이 다시 수광리라 모여들게 된 이유는 호경기로 일손이 부족한 칠기가마의 일을 도우면서 밥벌이를 하고, 각자 나름대로 연구해 온 전통도자기를 직접 칠기가마에 구어 시험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절까지만 해도 도공들이 도자기만 만들어서는 밥벌이도 어렵던 시절이었고, 자신의 가마를 소유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다. 당시 일반 도공들의 생활사정을 보면, “화주가 칠기를 한 트럭 싣고 팔러나갈 때 도보꾼 여자 4~5명 내지 5~6명을 데리고 가서 어디든지 자리를 잡고 칠기를 부려 놓으면 여자들이 호별 방문을 하여 팔아오기 마련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점주들은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일반 도공들의 경우는 “남자는 가마일에 노력을 하고, 여자들은 여러 집을 돌며 칠기를 팔러나갈 때 따라가서 도보를 하고, 와리를 받고, 농사때는 농사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하게 되는” 실정이었다.⁵⁾

3) 이천도예촌의 형성

1960년대 이전 전통문화의 재현 및 전승을 위해 노력하던 속칭 대방동가마의 경영상황이 순조롭지 못하자, 종국에는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이들 장인들은 각지로 흩어져 새로운 삶의 시작하게 되는데, 이들 중 일부가 이천으로 옮겨오게 된다.

대방동에서 내려온 장인들은 처음에는 칠기가마를 통해 분청사기로 된 화분과 화병, 술병 같은 종류를 만들었다. 1958년 홍재표가 지순탁, 고영재와 손을 잡고 부친이 하던 칠기가마 자리에 ‘수금도요’를 열었다. 당시 수금도요에는 이들 3인 외에도 현무남, 김홍준, 서인수, 이종열 등 젊은 도공들이 함께 일했고, 박부원도 비슷한 시기에 합류하여 도예기술을 익혔다. 수금도요의 운영은 당시 재일교포로 일본을 왕래하면서 도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조소수와 선이 닿으면서 차츰 활기를 띠게 된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이 자유로워지자, 갑자기 일본인들에 의한 전통도자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제작과 생산도 활기를 띠게 된다. 1960년대

4) 유근형, 『高麗靑磁』, 홍익재, 1987. 351~352쪽.

5) 유근형, 앞의 책, 325쪽.

조반부터 도자기 공방들도 하나 둘씩 문을 열기 시작하여 지순탁은 ‘고려도요’를 설립하였고, 고영재는 방철주가 설립한 ‘동국요’ 공장장으로 나갔으며, 수금도요는 조소수에게로 넘어가서 ‘광주요’가 설립된다. 유근형은 1960년 고승술의 칠기가마를 빌어 유광열과 함께 부자가 ‘해강고려청자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청자제작에 들어갔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칠기가마들은 전통자기의 등장과 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재질의 식기들이 보급되면서, 판매가 어려워지자, 이현승만이 남아서 칠기생산을 계속하다가 1965년 당시 도예과 대학생이던 신상호에게 넘어갔다. 비슷한 시기에 판화가로 유명한 정규가 신둔면 수광리에 등요를 축로하여 백자에 안료로 서양화를 그려넣는 제품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했으며, 현대 도예가인 강수화도 수광리에 가마를 마련하였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수광리는 전통도자기 제작과 함께 각 대학 도예전공 학생들의 기능연수와 작품제작을 위한 실습장의 역할도 했다.⁶⁾

근대 이천도자기의 발생에는 수광리 칠기가마의 존재가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칠기가마를 매체로 당시의 대표적인 전통도자기 도공들이 수광리로 모여들면서 전통도자기 개발과 제작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백자에서 칠기가마로 이어지는 도자기제작에 용이한 입지적 조건도 빼놓을 수 없다. 화목의 원료인 소나무를 구하기 쉽고, 도자기의 원료인 점토나 사토를 쉽게 주변에서 조달할 수 있었으며, 서울과의 거리로 판로개척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보인다.

3. 어느 도공의 이천도자기 기억

어린시절 에피소드

엄씨는 영월 엄씨 29대손으로 1947년 이천에서 태어났다. 엄씨 일가가 이천에 터를 잡은 것은 10대 조상인 엄홍도가 영월에서 단종의 장례를 치르고 이천으로 옮겨 터를 잡으면서부터이다.

엄씨가 기억하는 어릴적 이천 도자기에 대해 언급하자면 길다. 당시 도자기가 나오기 전에 옹기(칠기)가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미나리)에서 생활용품으로 사용됐다. 비단 이 옹기는 이천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한국사회 전 지역에 걸쳐 사용되었던 일상적인 옹기였다. 이

6) 지정희, 앞의 논문, 16쪽.

전에서는 옹기를 칠기라고 부른다(이하 칠기라 기술함). 칠기는 부업에서 깨소금, 간장, 고춧가루 등 양념 그릇으로 많이 쓰였는데, 엄씨의 할머니와 엄씨는 이 칠기를 갖기 위해 유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를 만들어 칠기와 바꾸었다고 한다. 엄씨의 할머니는 불을 때 아궁이에서 재를 담아 화장실 한 구석에 모아 두었다가 점촌(店村)에 재를 가득 담아서 지게를 지고 가면 재를 받고 그 대가로 흙집이 나거나 찌그러져 팔수 없는 것들을 주었다. 그러면 할머니와 엄씨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엄씨는 지게에 지고, 할머니는 머리에 이고 양손에 가득 들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칠기를 가져 왔다고 한다. 이른바 현금으로 살 수 없으니 물물교환인 셈이었다. 당시 칠기가마에서는 옹기가 나오면 자동차에 싣고 다른 지역으로 가져다 외상으로 팔고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수금을 해오곤 했다. 혹은 한 마을에 방을 얻어 놓고 리어커(손수레)로 동기와 칠기를 만들어 팔러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미나리마을을 아이들에게 가마는 멋진 놀이터이기도 했다. 요장에 놀러 갔다가 가마에 붙어 끝나고 나면 가마 안은 며칠 동안 그 온기가 남아 있어 따뜻하기 때문에 그곳에 숨어 숨박꼭질도 하고 장난도 많이 쳐서 어른들에게 쫓겨나거나 야단맞기가 일쑤였다.

“어느 날 술래잡기를 하면서 가마 끝 칸에 도자기가 몇 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가지고 싶기도 해서 한 개씩 가지고 누가 볼까 해서 집으로 도망쳐 숨겨두었다. 뛰어오는 동안 어린 가슴이 쿵쿵거리고 얼마나 불안하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품이 나거나 잘 나오지 않아 도자기를 그냥 가마 안에 놔 둔 것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 당시는 지금과 많이 다른 사정이었다. 지금에야 요장 장작가마를 하는 곳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집에서 나무로 온돌을 달구었던 시절이었다. “미나리마을은 농사도 많지 않고 해서 우리 선배들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다. 당시 모두 나무를 때서 살았는데,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천 장날만 되면 나무를 싣고 마차가 한 10대 이상씩 수광리를 지나 관고리 나무시장을 향했다. 이곳 분들은 땀감이 없어서 인근 광주로 나무를 다니시기 때문에 광주분들과 자주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광주실촌면은 신둔초등학교에, 사음2동도 신둔초등학교에 함께 다녔다.” 어쨌든 가까이에 이웃사촌으로 고락을 함께하는 사이였던 것이다.

엄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수광리와 점촌에서 툼툼이 칠기와 도자기를 모았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못해 엄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도 도자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심했다고 한다.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무척 좋아 하셔서 약주를 하시면 마음이 넓어져서 집에 있는 것을 누가

달래기라도 하면 무엇이든 다 주신다. 내가 소중하게 모아둔 도자기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점씩 주시는 분이셨다.” 그런 상황에서 군에 가게 되니 도자기를 어떻게 숨겨 놓아야 하나 고심하다가 아버지 몰래 땅에 묻어 놓고 군에 갔다고 한다. 군대생활 마지막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엄씨는 어머니의 부고를 받았다. 평소 병져 누우셨던 어머니를 위해 약 한번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 한이 맺혀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엄씨는 급기야 월남행을 선택했다.

“어데로 갔느냐고 묻거든 월남으로 떠났다고 말해주오. 떠날 때 남길 말은 없느냐고 묻거든 고개만 흔들어 주어. 소녀가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거든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다고 말해주오.”

소나기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으면서 부산 앞바다를 떠났다.

해강 유근형옹과의 인연

엄씨 집안은 엄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지리도 가난했던가 보다’. 아버지의 빚을 갚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엄씨는 김○○씨와 함께 흙벽돌을 찍으러 다녔다. 당시 각 요장은 전통가마로 벽돌을 찍어서 가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흙벽돌이 필요했다. 그때는 비닐도 없어서 비만 오면 벽돌을 모두 망가져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당시 각 요장에서 만든 도자기는 일본으로 수출이 잘 되었고, 해강 유근형옹은 지금의 청운도요자리로 공장을 옮겨 확장하면서 인원을 늘리게 되어 엄씨와 엄씨의 동생도 해강청자에 취직하게 되었다. 엄씨는 대정실에서 일을 하고 동생은 조각실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안양에서 해강2대 유광열씨의 저남인 구○○씨가 해강청자 총무로 왔을 때의 일이다.

“그날이 마침 봉급날이었는데, 나는 봉급을 타고 난 후 학교에서 족구시합을 하고 8시쯤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12,000원이라고 적힌 봉투에 22,000원이 들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드리려던 봉투를 가지고 해강청자에 다시 갔다. 갔더니 유○○ 소장님과 구○○ 총무님이 무엇인가 계속 찾고 있었다. 나에게 ‘왜 왔느냐?’고 물어보기에 나는 월급이 차질이 있어서 왔다고 했다.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불만에 찬 목소리로 얼마가 부족한가 물어 보시 길래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00원이 더 왔다’고 하니 반색을 하며 ‘지

금 그 돈을 찾고 있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며 기뻐하셨다. 물론 어려운 사정에 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면 마음이 개운치 않았을 것이다. 그 돈을 드리고 나오니 내 맘이 얼마나 후련하던지.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지 모르나 그 일로 나는 더 큰 것을 얻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당시 구진모 총무님의 친구인 최○○씨가 해강에 자주 들렀다. 구총무님은 대장실이나 사무실 칠판에 ‘뗏다 왔다. 최○○ 조심하자 도자기’라는 문구를 큰 글씨로 써 놓고 도자기를 가져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곤 했다.

해강에서 업씨는 이런 저런 일로 자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해강청자연구소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소장님의 운전기사인데 서울에서는 운전을 해 보지 못해 서울에 가면 소장님께서 직접 운전하시곤 했다.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그래서 소장님이 서울에서 연수를 받으라고 해서 운전연수를 받던 중 고모의 제안으로 도자기 가게를 열게 되었다.

가게는 업씨와 해강에 함께 있던 영감님, 예명 이○○과 함께 동업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사동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고모님께서 이태원에 외국사람이 많으니 이태원에서 시작하고 이태원에서 잘 되면 인사동으로 가자고 하여 이태원에서 가게를 시작했다. 그러나 가게는 잘 되지 않았다. 인사동에는 일본사람이 많이 왔고 이태원은 미국사람이 많다. 같은 외국사람이지만 동양인과 서양인들은 우선 취향이 다르다. 그 차이를 모르고 시작했으니 잘 될 리가 없었다. 2년동안 운영하면서 남은 것은 342만원의 적자였다. 잠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30,000원에 가져온 것을 3,000원 주고 정리했으니 말이다. 도자기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첫 사업의 실패는 고스란히 업씨에게 떠 안겨졌고, 집을 저당잡혀 서울 고모님께 갖다드렸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함께 일했던 영감님은 다시 소정리 반석도요에서 대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업씨는 그저 집에 있을 때였다. 해강에서 운전하던 김○○라는 친구가 형수와 함께 찾아와 도자기 가게를 동업하자는 제의를 했다. 하지만 동업을 할 형편이 아니라고 하자, 그분들은 내가 해강청자에 있었으니 작품을 갖고 올수 있으면 동업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업씨는 곧장 해강공장장님이신 유○○씨를 만났다. 업씨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형님한테 상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업씨에게 직접 조언을 해 주셨다. 동업이란 너무 일방적으로 밀리면 좋지 않다며 가게는 어디냐고 물었다. 업씨는 현재 가게도 돈도 없어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가게 얻을 돈의 반과 함께 해강 작품을 주셨다.

“당시 해강작품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을 때이다. 해강은 작품관리가 철저해 가마에서 꺼낼 때 잘못된 작품은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깨버렸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좋은 작품인데도 인정사정없이 깨버리었다. 그러나 그 예술성과 완성도는 당연히 제일일 수 밖에 없었다.”

새로운 시작

이후 업씨는 비록 동업지만 서울 명동지하상가에 해강작품만 취급하는 전시장을 만들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고려도요 지○○이 부인과 함께 업씨 가게 옆에 점포를 내어 가끔 만나서 도자기 이야기를 하며 친분을 맺게 되었다. 그 외에도 도자기 점포들이 많이 있었다. 당시 소동동 명동 롯데 미도파 코스모스 신세계 등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 전시장도 많이 생겼다. 인사동과 남대문에 특히 많았는데 지금 해림도요 이○○씨가 버스터미널에 서울요업이라는 큰 점포를 하고 있었고, 남대문에는 안○○씨가 수광도요작품을 취급하고 있었다. 그때 포장은 고무신가게에서 박스를 가져다 짚을 채워 포장했는데 짚을 치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럭저럭 가게는 잘 되었기에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사가자고 채근했다. 하지만 업씨는 고향을 떠날 수 없었다. 마침 친분이 있던 김○○씨가 설봉호텔을 짓는데 그곳에서 이천지역 발전을 위해 도자기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그래서 업씨는 아예 서울 가게를 정리하고 이천에서 도자기 사업을 계획했다. 그래서 동업을 했다.

설봉호텔 개장과 함께 2층 로비에서 시작한 업씨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었다. 그러나 역시 동업이라는 것은 쉽지 않았다. 김○○씨는 젊은 정치가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 대부분이 정치인이 많았다. 그러나 그분들은 물건만 가지고 가고 돈을 내지 않았다. 당시가 그런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판매를 많이 해도 이익을 내지 못했다. 역시나 업씨의 두 번째 동업도 2년이 못가서 막을 내렸다.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도청에 요장을 만들어 도자기 특산단지를 만들 계획을 올렸다. 당시 여천도요와 송월도요가 특산단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잘 되는 편이 아니었다. 몇 달 후 특산단지 지정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업단지라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요장에 10여명씩 부업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동업형식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합동으로 주식처럼 투자해서 이익을 보면 결산을 통해 나누어 갖는 형식이였다.

엄씨는 요장 이름을 짓는데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썼다. 우선 엄씨가 처음 일한 곳이 해양청자연연구소이기 때문에 앞 글자는 바다 ‘海’자, 그리고 우리의 도자기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세계로 뻗어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 도자기를 볼 수 있을 그날의 꿈을 위해 섬‘洲’자, 그래서 ‘해주도에’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특산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자금을 주는데 공사의 진척에 따라 기초공사에 얼마, 벽 쌓는데, 지붕하는데 얼마씩 퍼센트별로 공사진행 상황에 맞추어 돈이 나왔다. 85년도에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해주도예를 완공하고 86년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바빴다. 서울에 전시장들은 요장한테 빨리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해서 경기가 참 좋았다. 그리고 직원들도 27명이나 되었다. 그때는 거의 전통가마에서 땀으니 손도 참 많이 가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경기는 반짝이었다. 2년이 지나자 손님이 많지 않았다. 불경기가 계속 되었으나 88년에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도공들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당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크고 비싼 도자기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오였다. 외국인들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약 10불 정도의 작은 물품들로 들고 다니기 쉬운 것들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경기도 민예품 경진대회를 참가하면서 알게 되었다. 어쨌든 만들어 놓은 도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재고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요장들이 떠안아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였다. 그런데 그런 불경기에 신기하게도 요장들은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세무서에서 간담회가 있었다. 요장은 늘어나는데 세금이 적게 걷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엄씨는 당시 올림픽이 세계적인 행사였지만 어쨌든 재고들로 인해 인원을 감축해야 했고 그 인력들은 숙련된 기술자들로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갖기 힘들어 없는 돈을 모아 요장을 차리게 되어 요장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경제 호황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불황으로 요장의 적자로 인해 요장이 늘어난 것이다. 참 씩씩한 일이다.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전통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웠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스가마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전통가마는 온 정성을 기울여도 실패율이 많다보니 몇 가마 실패하면 요장이 성패를 좌우하기도 했다. 때문에 실패율이 거의 없는 가스가마는 혁명적인 도구였다. 당시 가스가마는 일본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가격이 비싸서

몇 군 데 뿐이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모두 손쉬운 가스가마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도 곳곳이 전통방식을 고수한 도공들이 있었다. 그러나 전통방법을 이어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전통가마는 나무가 많아야 한다. 60년대는 나무의 부족으로 가을에서 봄까지 도자기 일을 할 수 없어서 겨울동안은 도자기를 생산하기 어려웠다. 그러면 사정이 어려워 몇 개월씩 임금을 주지 않아도 그냥 다녔다. 언젠가는 주겠지 하면서 다녔던 것이다.

4. 맺는 글

근대 이후 급성장한 이천지역의 도자문화에 대해 미술사와 공예사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 최근의 학문적 관심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릇으로서의 도자기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 도공 또는 도예가의 삶과 그들의 기술을 포함하는 생활문화의 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과 상관되어 있다. 이른바 문화적 측면에서 도자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물건 자체의 관점에서 물건을 필요로 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관계인 사회적 측면을 바탕으로 한 생활상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천의 도자기 문화가 오늘날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표할 만한 이미지로 자리잡은 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의 노정이 큰 몫을 하였던 것이다.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전승하고자 하였던 이천 도자문화는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도자기를 생활의 용구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으며, 급기야는 도자기를 하나의 예술적 세계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도예가(陶藝家)들의 노력으로 전통도자, 생활도자, 예술도자 등의 범주로 세분화되어 오늘날까지 면면히 그 맥을 잇고 있다. 이러한 도공들의 노력과 변화의 과정속에서 근대 이천 도자문화의 성격을 만들어 낸 것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천대관편찬위원회, 『이천대관』, 1955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전7권, 2001.
- 유근형, 『고려청자』, 홍익재, 1987.
- 이인수, 「이천도예촌」, 『향토문화조사보고서』6, 이천문화원, 1994.
- 朝鮮總督府, 『朝鮮の窯業』, 1926.
- 지정희, 「한국 전승도자의 현황」, 이화여대석사논문, 1988.
- 해강도자미술관, 『우리나라의 도자기』, 1991.

京畿郷土史學

발행인 남 선 우
편집인 김 성 문 · 진 숙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경기문화재단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2008년 12월 25일
발행 2008년 12월 31일
인쇄처 국학자료원 (02)442-4623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7-11 현영빌딩 2층
편집위원 신 일 균 · 한 동 역

이 책자는 경기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 <비매품>

1. 경기지역 방아소리의 기능과 변화 요인 | 최자운 |
2. 대민지원사업의 사례 비교 고찰 | 신일균 |
3. 동두천 세거성씨 연구 | 홍정덕 |
4. 성남지역에서 확인된 復元 할 文化 遺跡 | 한동익 |
5. 대안(代案)교육과 여주문화 | 조성문 |
6. 백제역사(百濟歷史)의 재고(再考) | 김택기 |
7. 近代 利川의 陶磁文化和 陶工의 삶이야기 | 이태호 |